

영남고고학회
제33회 정기학술발표회

분묘군의 고고학

2024. 4. 6 SAT 09:00~18:00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 다우홀

영남고고학회
YEONGNAM ARCHAEOLOGICAL SOCIETY



영남고고학회
제33회 정기학술발표회

분묘군의 고고학

2024. 4. 6^{SAT} 09:00~18:00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 다우홀

본 정기학술발표회 요지문은 '(재)영남문화재연구원 고고학연구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발간되었음.

| 일정표 |

09:00 ~ 09:30	접 수	
[제 1 부] 식전행사	사회: 최경규 (영남고고학회 총무)	
09:30 ~ 09:40	개회사 - 김재현 (영남고고학회 회장) 환영사 - 김기수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장)	
09:40 ~ 09:50	축 사1 - 이성주 (한국고고학회 회장) 축 사2 - 권두규 (영남지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의회 회장)	
09:50 ~ 10:10	우산학술연구상 시상식 및 사진촬영 / 장내정리	
[제 2 부] 오전발표	사회: 고민정 (경남연구원 역사문화센터)	
10:10 ~ 10:40	몸, 기억 그리고 정체성 : 분묘고고학의 새로운 전망	발표: 김종일 (서울대학교)
10:40 ~ 11:10	선사시대 군집묘 양상의 변화와 그 의미	발표: 이수홍 (울산문화재연구원) 토론: 윤호필 (상주박물관)
11:10 ~ 11:20	휴 식	
11:20 ~ 11:50	영남지역 원삼국시대 분묘군의 전개와 특징	발표: 박장호 (경산시청) 토론: 박진일 (국립광주박물관)
11:50 ~ 12:20	신라 고분군의 확산과 지방구조	발표: 박형열 (대한문화재연구원) 토론: 심현철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12:20 ~ 14:00	중 식	
[제 3 부] 오후발표	사회 : 황 종 현 (경산 삼성현역사박물관)	
14:00 ~ 14:30	후기가야 중심고분군의 성장과 변동성	발표: 여창현 (경상남도) 토론: 최경규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14:30 ~ 15:00	통일신라시대 묘역과 의례공간 검토	발표: 차순철 (서라벌문화재연구원) 토론: 홍보식 (공주대학교)
15:00 ~ 15:50	北部九州地域の弥生時代の墓制 - 葬送コミュニケーション・システムの変容と社会環境 - 북부 규슈지역의 야요이시대묘제 - 장송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의 변용과 사회환경 -	발표: 溝口孝司 (九州大學) 미조구치 코지 (큐슈대학) 토론: 이창희 (부산대학교) 통역: 김규운 (강원대학교)
15:50 ~ 16:10	장내정리 및 휴식	
[제 4 부] 종합토론	좌장: 이성주 (경북대학교)	
16:10 ~ 17:40	지정토론 및 자유토론	발표자 및 토론자 전원
17:40 ~ 18:00	폐회 및 장내 정리	

후원: 영남지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의회 ·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 (재)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
(재)두류문화연구원 · (재)우리문화재연구원

| 목 차 |

제 1 부

개회사
환영사
축 사

제 2 부

- 몸, 기억 그리고 정체성 : 분묘고고학의 새로운 전망 1
 | 발표: 김종일
- 선사시대 군집묘 양상의 변화와 그 의미 37
 | 발표: 이수홍 토론: 윤호필
- 영남지역 원삼국시대 분묘군의 전개와 특징 59
 | 발표: 박장호 토론: 박진일
- 신라 고분군의 확산과 지방구조 91
 | 발표: 박형열 토론: 심현철

제 3 부

- 후기가야 중심고분군의 성장과 변동성 113
 | 발표: 여창현 토론: 최경규
- 통일신라시대 묘역과 의례공간 검토 153
 | 발표: 차순철 토론: 홍보식
- 北部九州地域の弥生時代の墓制 183
- 葬送コミュニケーション・システムの変容と社会環境 -
 | 발표: 溝口孝司(미조구치 코지) 통·번역: 김규운 토론: 이창희

몸, 기억 그리고 정체성 : 분묘고고학의 새로운 전망

김 종 일

|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

〈 目 次 〉

I. 머리말	IV. 무덤과 기억 그리고 전통
II. 무덤에 대한 고고학적 이해	V. 무덤과 주체화 그리고 정체성
III. 무덤과 몸의 물질성	VI. 새로운 분묘 고고학을 위하여 - 사태 자체로 -

I. 머리말

19세기 근대 고고학이 성립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무덤은 인간의 행위를 포함하여 과거 사회의 다양한 특징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고고학 자료로서 중요시 여겨져 왔다. 한국에서도 일제 강점기에 일제 식민사학자들에 의해 (매우 초보적인 수준의) ‘고고학 발굴’이 진행된 것도 바로 무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으며 본격적인 의미의 한국고고학이 시작된 1960년대 이후에도 대부분의 고고학 조사와 연구가 무덤(또는 무덤에서 출토된 다양한 부장품)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실은 무덤, 특히 지석묘와 같은 거석무덤이나 거대한 봉분을 가진 고대 시기 무덤이 가시적으로 확연히 눈에 띄는 동시에 해당 사회의 다양한 측면을 추론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다량의 부장품을 포함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1990년대 이전에는 선사시대 수혈주거지에 대한 상대적 관심이 그리 크지 않았다는 점과 이에 따라 정교한 주거지 발굴조사 방법이 그리 발달하지 못한 것도 주거지에 비해 무덤이 주된 고고학적 연구의 대상이 된 이유 가운데 하나이다.

이와 같이 무덤이 유럽에서 근대 고고학이 성립된 이후 주된 고고학 연구의 대상이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무덤이 진정한 고고학 연구의 대상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Robb 2013).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그리고 현재 이 시점에도 과연 고고학자들은 무덤에 대해 제대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따라서 실제로 고고학의 다양한 하위 분야에서 무덤 (혹은 분묘) 고고학이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실제로 지금까지 무덤은 무덤 그 자체가 아닌 무엇인가를 추론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일종의 ‘프록시’로만 여겨져 왔다. 시공간의 틀 안에서 특정 유물 또는 유구의 편년을 통해 (고고학적) 문화를 정의하고 이러한 문화를 특정한 민족 (혹은 종족) 집단과 연결시킨 후 이러한 문화 (혹은 이를 바탕으로 한 민족)의 분포와 그 변화 양상을 추적하는 동시에 그러한 변화의 원인을 이주와 전파로 설명하고자 했던 문화사고고학에서는 이러한 편년 및 분포를 추정하는데 용이한 이른바 ‘closed find’의 적절한 사례로 무덤을 주로 이용하였다. 무덤의 크기와 부장품을 통해 개인의 사회적 정체성 (주로 지위나 신분과 관련한)과 사회구조를 추정하고자 하였던 과정고고학에서도 무덤은 그저 이러한 연구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정보만을 제공하는 ‘기록’ 이상은 아니었다. 이러한 현상은 말시즘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 이론에 기반하여 당시 사회의 특징을 해석하고자 했던 초기 후기과정고고학에서도 여전히 확인된다. 즉 무덤은 과거 사회의 개인들과 공동체 그리고 해당 사회의 다양한 특징을 추론하기 위해 분석되거나 설명되어야 하는 ‘기록 record’ 이거나 읽어야 하는 ‘텍스트 text’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는 무엇보다도 구조와 기능의 측면에서 다양한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는 주거지에 반해 무덤은 그 자체로 그 기능과 역할이 자명한 것으로 여겨져 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고학 자료로서 무덤 자체(예를 들어 무덤의 구조와 형식 그리고 무덤 부장품 등)가 갖고 있는 풍부한 자료, 즉 다양한 분석과 해석에 이용될 수 있는 자료가 풍부하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무덤이 제공하는 다양한 고고학 정보를 분석과 설명 그리고 해석에 이용하였지만 역설적으로 이러한 점 때문에 무덤 자체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이와 아울러 무덤이 죽음의 상징이자 흔적임에도 불구하고 죽음 자체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경우에 따라 비의도적으로) 관심을 두지 않으려는 현대인들의 (죽음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와도 관련이 있다. 평균수명과 기대수명이 70세를 넘어 80세 그리고 심지어 90세에 이르며 특히 현대 의학이 비약적으로 발달하면서 사고사나 암과 같은 일부 질병을 제외하면 대체로 대부분의 질병에 대해 치료가 가능한 단계에 이르게 된 현대 사회에서 죽음은 더 이상 일상생활에서 현대인의 주된 관심사 혹은 실존적 고민의 주제가 되

지 않는다. 반면 선사 시대와 고대 시기 그리고 심지어 중세와 근대 초기까지 죽음은 항상 인간들의 곁에 머물고 있었다. 특히 인간은 흑사병과 같은 대규모 유행병이나 양차 대전과 같은 전쟁에서 이러한 죽음을 일상적으로 경험할 수 밖에 없었으며 따라서 이러한 사회에서는 죽음을 어떻게 처리하고 경험하며 기억하는지가 해당 사회의 개인과 공동체의 형성과 유지 그리고 변화에 매우 중요했을 것이다. 따라서 죽음 그리고 그것의 물질적 표현인 무덤에 대한 고고학 연구에서 21세기의 현대인이 갖고 있는 죽음 혹은 무덤에 대한 태도를 괄호 안에 묶어 넣고 ‘판단중지(epoche)’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한편 2000년 대에 들어와 무덤에 대한 연구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생물학에서 고유전체 (Ancient DNA) 분석 기법과 동위원소 (Isotope) 분석 그리고 단백질체학 (Proteomics)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주민의 이주와 기원, 그리고 식생활 등과 관련한 고고학 해석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래 인골에 대한 관찰을 통해 성별, 나이 그리고 병리학적 특성을 연구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보다 더 세밀하고 선명한 해상도의 인골 (그리고 몸 자체) 연구가 가능하게 되었다. 여기에 더하여 하이데거 및 메를로 폰티의 현상학적 연구 그리고 ANT (Actor Network Theory)과 같은 철학 및 사회 이론의 응용 (예를 들면 Entanglement)은 기존의 무덤에 대한 과정고고학적 접근은 물론 맑시즘과 구조주의적 접근을 넘어서 인간 주체와 물질 간의 관계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이 발표에서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현재 유럽과 한국에서 시도되고 있는 연구 가운데 주목할 만한 성과를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무덤연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고민해보고자 한다. 다만 2000년 대 이후 진행된 무덤 연구의 주요성과를 나열하는 대신 몸과 기억 그리고 정체성이라는 한정된 주체에 초점을 맞추어 해외와 국내의 연구사례 그리고 발표자가 직접 수행했던 연구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물론 이 발표에서 소개할 연구 사례의 결과에 반드시 동의하거나 향후 이와 유사한 연구를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 발표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연구 사례와 이에 대한 검토가 앞으로 무덤 연구가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나름의 의의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II. 무덤에 대한 고고학적 이해 - 연구사적 검토 -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무덤 (그리고 무덤 자료)에 대한 이론적 접근은 몇 차례에 걸쳐 정리되어 소개된 바 있다 (e.g. Brandt et.al. 2015; Brown 1971; Chapman 1981; Duday 2009; Gowland and Knüsel 2006; Jensen and Nielsen 1997; Humphreys and King 1981; Parker Pearson 1999; Rakita et. al. 2005; Tarlow and Stutz 2013). 한국에서도 한국에서 진행된 무덤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들에 대해 비판적 검토를 진행하거나 (e.g. 김종일 2007; Kim J-I 2002), 1990년대와 2000년대에 들어와 새롭게 진행된 해외의 연구성과를 소개하기도 하였다 (e.g. 고일홍 2010; 김종일 2013). 무덤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시각과 접근에 대해서는 이러한 단행본과 논문에서 이미 잘 소개된 바 있으므로 이 장에서는 유사한 내용을 다시 반복해서 서술하는 대신 이 발표에서 논지를 전개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만을 간략히 정리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근대 고고학의 성립기부터 무덤 (더욱 정확하게는 무덤에서 출토된 부장품)은 고고학 자료로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주지하다시피 톰센의 삼시기 구분법도 기본적으로 유물의 공반관계를 중요시하는 초기적 형태의 순서배열법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몬텔리우스도 유물의 형식을 시간적 차이에 따라 배열했을 뿐만 아니라 특정형식의 유물들이 갖고 있는 공간적 분포의 범위와 차이를 고려하여 문화를 설정하고 이를 특정 민족(혹은 종족) 집단과 관련 짓는 문화사 고고학의 형식학적 방법론을 발전시키면서 무덤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바 있다. 이러한 문화사 고고학의 방법론은 이후 구스타프 코시나의 주거지 고고학과 민족 기원, 고든 차일드의 형식화석 (type fossils) 등을 통해 완성되지만 특히 여기에서 주목되는 바는 페트리오의 순서배열법의 등장이다. 문자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이집트의 무덤 자료를 편년하기 위해 고안된 순서배열법은 무덤 출토 자료가 고고학의 편년 연구에 어떻게 이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물론 근대 고고학의 시작 이전에도 무덤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지속되고 있었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 니콜라우스 마샬크 (Nikolaus Marschalk 1460-1527)는 한 귀족 가문의 계보를 선사 시대로부터 찾으라는 임무를 수행하면서 거석무덤 (실제로는 신석기 시대 중기 무덤)을 게르만 일족, 봉토무덤 (실제로는 청동기 시대 중기 무덤)을 슬라브 족, 그리고 화장묘 (실제로는 청동기 시대 후기 무덤)를 슬라브 족의 노예의 무덤으로 비정한 바 있다 (e.g. 김

종일 2019). 18세기 말 19세기 초반 나폴레옹과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각지에서 민족과 민족주의에 대한 의식이 점차 고양되면서 실제적인 물질자료를 근거로 ‘민족’의 형성과 분포를 찾기 위한 움직임이 강화되었다. 19세기 중반에 이르러 오스트리아 할슈타트 광산에서 대규모의 무덤(청동기 후기 및 초기 철기 시대)과 스위스의 라 텐 호숫가에서 주거지(철기 시대)가 발견된 후 유럽 청동기 후기 및 철기 시대에 대한 상세한 편년이 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이 유적들을 켈트 족(혹은 켈트 문화)과 연결시키면서 무덤과 주거지 자료를 특정 민족(혹은 종족)과 관련 지어 이해하려는 시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e.g. 김종일 2018).

영국에서도 이미 17세기 윌리엄 스텐클리(William Stukeley)가 영국의 선로마 시기 무덤(원형 무덤)들을 영국의 고대 드루이드(Ancient Druid)와 관련 지어 이해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다수의 헨지 유적과(신석기 시대) 장방형 고분 및 커서스 등 다양한 거석기념물들을 포함하고 있는 윌트셔(Wiltshire) 지역 솔즈베리 평원의 원형 고분들을 조사하면서 봉분의 형태와 스톤 헨지와와의 관계 등에 주목하였다. 이외에도 브라이언 포셋(Bryan Faussett)과 제임스 더글러스(James Douglas) 역시 켄트 지역의 페이건 색슨족의 화장묘를 조사하고 분포도를 남긴 바 있다(e.g. Stout 2013).

이와 같이 근대고고학이 시작 이전부터 주목받기 시작하여 그리고 근대고고학의 시작과 함께 본격적으로(문화사) 고고학의 연구에 활용되기 시작한 무덤에 대해 무덤이 가진 자료적 가치에 대해 새롭게 주목하게 된 것은 바로 과정 고고학의 연구를 통해서이다. 무덤에 대한 새로운 시각은 과정고고학의 연구 방법론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1960년대와 1970년대 초반에 제시되었다. 1970년 대 초반에 주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자료의 일부를 활용하여 특정 문화의 시공간적 분포와 기원 등을 추정하고자 했던 문화사 고고학의 방법론을 비판하고 계량적 분석 방법과 공간 분포를 바탕으로 식생, 주거지 패턴, 도구 등을 총체적으로 분석할 것을 강조하는 연결적 접근(Conjunctive approach)가 이미 1940년대 말 월터 타일러(Walter Tylor)에 의해 제시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Conjunctive approach가 과정 고고학의 등장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점을 감안하면 무덤에 대한 새로운 방법론적 접근이 상대적으로 늦은 시기에 이루어 졌다는 점을 알 수 있다.

1971년에 발간된 ‘매장행위의 사회적 차원에 대한 접근들’(Approaches to the Social Dimensions of Mortuary Practice, Memoire of the Society of American Archaeology 25)에 수록된 일련의 논문들은 이러한 60년대와 70년대 초반에 진행된 무덤에 대한 새로운 시각

을 반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빈포드(Binford 1971)는 (개인의) 삶에서 유지되었으며 죽음에서 고려할 만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양한 사회적 정체성의 복합체인 피장자의 사회적 페르소나는 장례의식에서 인식되는데 이러한 사회적 페르소나는 피장자가 생전에 가지고 있던 사회적 지위의 상대적 서열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점과 피장자의 사회적 지위는 망자와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의 수와 직접적으로 상관관계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이러한 이론적 전제를 40여 사례 이상의 민족지 자료를 통해 검증하고자 시도하였는데 연령과 성, 사회적 지위 등과 같은 각각의 사회적 페르소나에 대한 인식은 정착 농경 사회와 기타 나머지 사회 사이에서 매우 다르며 이러한 다양한 사회적 페르소나(연령, 성 그리고 사회적 지위 등)의 숫자 역시 다른데 수렵 채집 사회는 정착 농경 사회보다 더 적은 수(사회적 페르소나)의 차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사회적 페르소나의 (여러) 차원들은 장례행위와 절차 등과 관련이 있는데 예를 들어 성(sex)은 무덤의 방향과 부장품의 형식에 따라 구별되며 연령은 시신의 매장 방식과 무덤의 형태 그리고 무덤의 위치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빈포드의 주장은 이른바 ‘요리책’(cook book) 접근법 혹은 ‘체크리스트’ 접근법으로 비판받을 여지가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무덤 자료가 단순히 편년이나 특정 유물의 분포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민족 기원 등을 추정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무덤 자료가 피장자의 다양한 사회적 역할(혹은 정체성)과 관련이 있으며 이를 통해 해당 사회의 사회구조를 추론할 수 있다고 하는 무덤에 대한 과정 고고학의 입장은 이후 무덤 연구가 발전하는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같은 책에 실린 Saxe의 논문(Saxe 1971)은 이러한 관점에서 무덤에 대한 과정 고고학적 접근의 더욱 진전된 특장을 보여 주고 있다. 그는 무덤과 관련하여 8개의 전제를 제시하였는데 이를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덤 축조의 다양한 특징들을 조합한다면 각각의 조합들이 각각의 다른 사회적 페르소나를 표상하는 일련의 순열을 가질 수 있다. 둘째, 사회적 페르소나가 결정되고 형성되는 것은 해당 사회에서 사회적 관계를 조직하는 원칙들과 관련이 있는데 사회적 복잡도가 높은 사회일수록 연령이나 성, 그리고 개인적 성취와 같은 평등사회의 원칙들을 넘어서는(사회적 서열이나 지위와 같은) 더 많은 사회적 차원들을 갖게 된다. 셋째, 낮은 지위를 가진 피장자의 사회적 페르소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적은 부장품을 가지며 넷째,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그들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죽음(즉 장례)에서 드러난다. 다섯째, 무덤의 속성에서 상호관련의 정도가 높을수록, 즉 무덤 속성이

많을수록 그 사회의 복잡도는 더욱 크고 계층적이며 반대의 경우, 복잡도는 떨어지며 더욱 평등한 사회일 가능성이 크다. 여섯째, 단순사회일수록 상징에서 구성요소의 수, 그들을 정의하는 대조군의 수 그리고 상징의 사회적 중요도 사이의 관계의 가능성이 더 크다(즉 상징의 수와 중요도가 더 크다). 일곱째, 단순한 사회일수록 장례(의식)가 다양하지 않으며 여덟째, (묘지와 같이) 피장자의 무덤을 위해 배타적으로 선택된 장소는 (해당 공동체의) 구성원들에 의해 유지되는데 이들 구성원들은 조상으로부터의 계승관계를 통해 중요하면서 제한된(양과 수의)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그들의 권한을 합법화한다.

이러한 삭스의 여덟 가지 가설은 유럽 선사시대를 포함한 선사 및 고대 사회 무덤의 해석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으며 그 결과는 이후에 진행된 여러 연구들에 많은 영향을 끼친 바 있다(e.g. Braithwaite 1984; Chapman 1981; Chapman 2013; Chapman et. al 1981; O'Shea 1984; Renfrew 1984; Shennan 1975; Tainter 1978). 그럼에도 불구하고 Saxe/Goldstein hypothesis 8로 알려진 여덟 번째 가설을 제외하고는 이후에 진행된 여러 연구를 통해 더 이상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되었다(e.g. Parker Pearson 1999). 이는 Saxe가 제시한 가설이 민족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소위 가설검증에 통과하지 못했거나 혹은 검증 자체가 쉽지 않았던 측면도 있었지만 과정 고고학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가설연역적 방법의 근본적인 한계, 즉 전제와 결론이 순환논리를 형성하는 일종의 동어반복의 가능성(예를 들면 A는 B인데 왜냐하면 B가 A이기 때문이다 라는 식의) 때문이다.

한편 이러한 무덤에 대한 과정고고학적 접근에 대해 본격적인 비판이 제기된 것은 파커 피어슨의 1982년 논문이다(Parker Pearson 1982). 이 논문에서 그는 케임브리지 근교의 공동묘지에 묻힌 피장자들의 생전 사회적 지위와 무덤의 형식 및 종류 사이의 상관관계를 묘비명과 출생 기록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검토한 결과 양자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음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파커 피어슨의 접근은 당시 등장하기 시작했던 후기 과정 고고학과 그 궤를 같이 하는 것이었다. 1980년대 이후 등장한 후기 과정고고학의 영향과 함께 무덤 연구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된다. 특히 에이전시 이론(e.g. Bourdieu 1977; Giddens 1984; 1991)과 맑시즘(e.g. Miller and Tilley 1984; Tilley 1984), 그리고 구조주의(Hoopes 1991; Saussure 1995) 및 하이데거와 메를로-퐁티의 현상학적 접근의 적용(e.g. Merleau-Ponty 1962; Heidegger 1962; Tilley 1994)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무덤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가능하게 하였다. 예를 들어 기든스의 구조화(Structuration) 혹은 에이전시(Agency) 이론을 소

개하고 이를 매장 행위에 적용하고자 시도한 페이더 (Pader 1982)의 논문과 이 이론을 웨섹스 문화의 고분군의 형성 과정에 체계적으로 적용한 미조구치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Mizoguchi 1992).

무덤과 묘시즘적 해석의 경우, 생스와 킬리 (Shanks and Tilley 1982)는 신석기 시대 중기의 거석무덤에서 수십 개체 분의 인골이 동시에 발견되는 원인에 대해 이미 이 사회는 농경사회가 정착되면서 친족 집단 내에 불평등이 존재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불평등을 은폐하기 위해 적어도 무덤에서는 같은 무덤에 함께 묻히는, 즉 공동체 내에서의 평등성을 강조하고자 시도했다고 해석한다. 이는 삶(혹은 현실세계)에서의 비대칭성을 죽음에서의 대칭성으로 가장 혹은 은폐하는 것으로써 결과적으로 현실에서의 불평등을 은폐 혹은 합리화하는 기제로 작동한다고 한다. 이 견해는 묘시즘에서 주장하는 ‘이데올로기’의 역할에 주목하여 이를 유럽 거석 무덤에 적용한 사례로써 이 해석에 대한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한 사회 내에서 무덤이 갖는 이데올로기적 혹은 상징적 역할에 대해 주목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구조주의적 접근의 경우 이안 호더(e.g. 1982; 1984; 1990)는 (특히 신석기 초기에 등장하는 장방형 고분에 주목하여) 서유럽의 거석무덤 중 다수가 중부 및 서유럽의 그 이전 또는 동시대의 집들과 상징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거주 지역이 상대적으로 덜 비옥한 땅으로 확산되면서 토지자원에서의 제한이 보다 중요해지는 동시에 한 가구에 의존하는 부양가족의 수를 제한해야 한다는 압력과 부계 후손으로 잠재적 계승자의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압력이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무덤을 통한 혈연적 계보의 확립이라는 점이 강조되며, 이러한 배경 아래서 살아있는 사람들의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로 죽은 사람을 위한 집도 짓게 되었으며, 그것이 바로 거석무덤으로 등장했다는 것이다. 브래들리 또한 장방형 고분이 갖는 외형적 특징의 원형을 신석기 전기의 LBK 문화와 이 문화가 이후 지역적 변이를 거쳐 등장하는 령겔 (Lengyel), 뢰센 (Roessen), 또는 SBK 문화에서 공동적으로 등장하는 장방형 거주지 (long house)가 폐기된 모습에서 유래한 것으로 파악한다 (e.g. Bradley 1998)..

한편 하이데거의 현상학적 방법론을 수용하여 영국 장방형 고분군의 형성 과정에 대한 해석을 시도한 토머스의 연구 (Thomas 1996)도 주목된다. 그는 하이데거가 주장한 바와 같이 인간은 앞으로 다가올 죽음 앞에 놓여진 존재로써 미래로 자기 자신을 ‘투사’ (Projection)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이러한 주장은 무덤의 축조 행위가 단지 피장자

의 죽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죽음을 목도하고 무덤 축조 행위에 참여하는 개인들도 자신에게 닥쳐올 미래의 죽음에 자신을 투사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즉 무덤 축조 혹은 매장 행위는 피장자가 생전에 가졌던 ‘사회적 페르소나’를 반영하는 것 뿐만 아니라 무덤 축조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거나 축조된 무덤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죽음과 무덤 그리고 그것의 기억을 통해 어떻게 자신을 미래로 투사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해 가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는 것이다.

배럿의 연구 (Barrett 1994) 또한 후기과정고고학적 관점에서의 중요한 무덤 연구 가운데 하나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영국의 솔즈베리 평원은 기원전 4000년 대에 축조되어 대략 기원전 3500년대 까지 사용되었던 웨스트 케넷 고분 (West Kennet long barrow) 고분을 비롯한 장방형 고분 (long barrow)들과 기원전 3500년 경부터 축조되기 시작하여 이후 대략 2000여년 가량 지속적으로 축조되면서 제의 장소로 사용되었던 스톤헨지 및 그 밖의 여러 헨지 유적 (예를 들어 우드헨지, 더링턴 월, 에이브버리, 생츠퍼리 등) 및 실버리 힐 (Silbury hill)과 커서스 (Cursus)를 비롯한 거석 기념물들, 그리고 소위 웨섹스 문화 (Wessex culture)로 불리는 청동기시대 초기 원형 봉토무덤들이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솔즈베리 평원의 선사 유적들에 대해서는 경관고고학적 측면에서 여러 차례 소개한 바 있다 (e.g. 김종일 2013). 따라서 이 발표에서는 배럿의 연구가 단지 무덤 자체에만 머물지 않고 특정 경관 안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른 형태의 유구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기억’이 이미 앞서 존재하고 있는 유구들을 통해 후대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 지에 대해 주목함으로써 무덤 자체에 대한 우리의 인식의 지평을 시간적으로 그리고 장소의 측면으로까지 비약적으로 확대시킬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들을 바탕으로 발표자는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까지 진행되어 온 무덤에 관한 흥미로운 연구 사례와 더불어 이러한 연구들에서 논의되어 온 무덤 연구에 필요한 일종의 무덤 해석의 ‘원칙’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 바 있다¹⁾ (김종일 2013).

1) 무덤 또는 무덤군에 대한 고고학적 해석은 단지 무덤 축조 당시의 무덤의 규모나 입지, 그리고 부장 유물의 양과 질의 차이를 바탕으로 해당 사회의 계층성의 존재와 계층화의 정도, 그리고 형식적이고 정태적인 계층구조를 밝히는 작업에만 그쳐서는 안되며 오히려 개인

1) 이 원칙들은 김종일 2013에 소개된 내용 가운데 관련 내용을 재인용했음을 밝혀둔다.

의 죽음과 그것의 물질화를 둘러싼 개인과 공동체의 다양한 입장과 사회적 행위 또는 그 사회의 모순을 합리화시키거나 그 사회가 존재할 수 있게 하는 이데올로기적 기제로서 역할에 주목해야 한다.

2) 무덤은 단순히 그 무덤이 축조될 당시의 해당 사회의 정태적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가 전통적이고 관습적으로 갖고 있는, 경우에 따라서는 규범화 되어있는 일련의 장례 행위의 절차와 형식의 일부, 즉 사회적 행위로서 장례의 마지막 단계인 동시에 제사와 같은 또 다른 사회적 행위의 출발점이 된다.

3) 무덤 축조라는 하나의 사건과 관련하여 다양한 시간의 개념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무덤 축조는 어느 하나의 절대적인 시간 단위 안에서만 파악되는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분석과 해석을 위해 연구자들에 의해 이용되는 다양한 맥락의 상대적 단위들(예를 들어, 개별 무덤이나 전체 무덤군의 축조에 걸리는 시간들과 이 시간들의 상대적 상호 맥락화), 즉 다양한 단위의 시간이 고려되어야 한다.

4) 무덤의 장소화(placement)는 무덤에 묻힌 사람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살아있는 사람들의 사회적 관계 또한 이러한 무덤의 장소화에 의해 매개되어 유지 혹은 변화되기도 한다. 무덤의 장소화는 과거의 시간적 순서(예를 들어 계보상 순서에 따른 무덤의 순차적 축조 등)를 장소를 통해 기억하거나 경험하게 하며 세속의 장소와 성스러운 장소를 구분하는 주요 근거를 제시한다.

5) 무덤의 입지와 관련하여 무덤이 원래 주거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마련되는 경우, 시신을 운반하기 위한 준비와 함께 실제 장례의식에서 운구 절차가 포함되었을 것이고 그러한 운구 과정이 진행되는 공간이 삶과 죽음이 분리되는 경계로써 인식되는 동시에 무덤 자체의 기념물적 성격 그리고 무덤이 조성되는 장소가 죽음과 관련된 특별한 장소로써 의미화되면서 경관을 형성하게 된다.

6) 무덤은 죽은 사람을 위한 것인 동시에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의해 만들어지거나 경험되

는, 즉 산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어느 특정 개인이 그/그녀가 속한 사회 내에서 일정한 사회적 지위와 부를 획득한 경우, 그리고 그러한 지위와 부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그녀의 조상의 무덤을 보다 크고 화려한 규모로 축조하여 그 지위와 부를 과시하거나 정당화 하기도 한다.

7) 무덤의 축조 방식(매장 방식, 무덤의 크기, 부장품의 양 등을 포함)은 대체로 관습과 전통을 따르기도 하지만 사회적, 상징적 전략의 일환으로, 때때로 급격한 이데올로기의 변화로 인해 바뀌기도 한다.

8) 매장 행위 그리고 그것의 물질적 표현 형태인 무덤은 기호와 상징으로 구성된 환유적 연쇄이자 은유적 관계, 즉 하나의 맥락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중에서도 피장자의 몸은 무덤이라는 상위 범주의 가장 중요한 하위범주이자 무덤을 대표하는 하나의 환유이다.

9) 하나의 무덤 또는 무덤군이 조성되는 과정은 죽음(들)과 관련된 일련의 행위들이 시간적 선후관계에 따라 순서적으로 배열될 수 있는 과정이며 따라서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는 하나의 무덤 또는 무덤군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하나의 공간적, 시간적 평면에 지속적으로 덧씌워진 것이다.

10) 무덤의 축조와 이와 관련한 제의는 해당 사회의 모순을 은폐하거나 정당화하며 동시에 사회의 통합을 유지하기 위한 기제로써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은 앞서 이미 언급한 바 있다. 이러한 모순의 은폐와 정당화 그리고 통합의 역할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무덤에 대한 연구를 무덤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지를 비롯한 다른 종류의 유적을 포함한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연구의 맥락 안에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원칙은 여러 차례 강조한 바와 같이 과정 고고학에서 강조하는 일종의 가설로서 검증을 거쳐 궁극적으로 보편적 법칙 (Universal law)이나 ‘일반적 원칙’으로 받아들여진 후 무덤 축조와 매장 행위의 ‘설명’에 적용되어야 하는 ‘요리책’이나 ‘체크리스트’가 아니라 무덤과 매장 행위에 관한 해석 과정에서 참조되거나 새로운 고고학 자료의 발견이나 재해석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될 수 있는 일종의 (해석의) 출발점일 따름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두고자 한다.

Ⅲ. 무덤과 몸의 물질성

1990년대 이후 2000년 대 들어와 무덤과 관련한 각각의 주제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진행되었다. 실제로 1990년 이래 2000년대 초반까지 개인(Individual), 자기 정체성(self-identity), 주체화(subjectification), 물질성(materiality), 그리고 경관(landscape) 등을 들 수 있는데 (e.g. 김종일 2013; Chapman 2000; Fowler 2004; Gosden 1994; Meskell 1999; Shanks and Tilley 1987; Thomas 1996; Tilley 1994 등), 이 주제들의 연구는 무덤에서 확인되는 피장자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다양한 고고학 자료를 빼놓고는 수행될 수 없다. 예를 들어 피장자의 몸을 처리하는 방식과 몸을 장식하는 다양한 장신구들, 그리고 피장자의 시신을 안치하는 과정 중에 그리고 안치 후 무덤을 축조하는 과정에서 실천되는 여러 의례들과 무덤의 축조 과정 자체는 이러한 연구들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이러한 연구들이 피장자의 시신, 즉 몸을 배제하고 이루어 질 수 없다는 점이다. 즉 1990년대 후반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몸’ (body) 자체 또는 몸의 형성에 대해 많은 고고학자들이 새롭게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몸에 대한 연구들의 이면에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된다. 예를 들어 우리가 가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몸의 물리적 경계가 과연 몸 자체인가 (예를 들어 생물학적 몸과 사회적 혹은 상징적 몸의 형성과 그 경계)? 이러한 몸의 경계가 과연 개인(individual)의 경계와 일치하는가 (혹은 한 사회 내에서 개인은 명확한 경계를 가지고 있는 독립적이고 고립적인 존재인가)? 몸 그리고 몸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물질 자료들은 (사회적 성과 연령, 사회적 지위, 사회적 관계망 안에서의 위치 즉 권력의 관계망과 같은) 개인의 다양한 정체성 형성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피장자의 시신의 처리와 무덤 축조와 관련하여 개인들은 자신들은 어떻게 주체화하며 자신들의 (생활)세계를 구축하는가? 몸과 (물질성의 주체이자 대상인) 부장품의 연쇄는 임의적인가 아니면 관습적인가? 이러한 연쇄의 형성과 변화는 개인 주체들의 욕망과 실천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등등 다양한 질문들이 제기

되었고, 여러 연구들에서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몸의 개념 (body concept), 몸의 처리 (body treatment), 몸의 장식 (body decoration), 몸의 움직임 (body movement), 몸의 감각 (bodily sense) 등의 주제로 요약할 수 있다.

고고학 연구의 대상으로서 ‘몸’ 자체, 그리고 몸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고고학 자료인 인골에 대해서 오랜 동안 많은 관심을 기울여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인골에 대한 연구에서는 인골을 무덤에 대한 발굴보고서의 일부분으로서 마치 부록처럼 취급되거나 과거의 해석에 필요한 단순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혹은 인구 구성이나 변동 과정 그리고 무덤의 피장자의 성별을 알려주는 생물학적 지표로서 즉 일종의 ‘프록시’(proxy)로서 사용하였다.

이에 반해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몸에 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많은 성취를 거두고있다. 첫 번째 방향은 몸에 대한 생물학적 연구이다. 특히 고유전체학 (Ancient DNA) 과 생물정보학(Bioinformatics), 동위원소 분석 (Isotope analysis) 그리고 단백질체학 (Proteomics)의 과학적 분석을 토대로 몸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인 인골 혹은 치아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통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높은 해상도의 연구결과를 양산하고 있다 (e.g. Bramanti 2013; Ericksson 2013). 예를 들어 차탈 휘익 유적의 주거지에 조성된 무덤에서 출토되는 인골의 DNA를 분석하여 무덤에 묻힌 피장자들이 실제로 이 주거지에 거주했던 사람들의 직접적인 조상이 아니며 따라서 차탈 휘익 사회가 혈연 관계를 토대로 직접적 조상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친족공동체가 아닌 모두가 하나의 가족처럼 운영되는 일종의 신념 공동체와 같은 성격을 띤 것으로 본 바 있다 (e.g. Hodder 2014). 흑해 연안의 암나 문화인과 신석기 청동기 시대 인골에 대한 분석 및 현대 유럽인의 유전체와의 비교분석을 통한 유럽의 인도유럽어족의 형성 (e.g. Anthony 2007; Juras et.al. 2018) 또한 최근 진행되어 온 인골에 대한 생물학적 연구의 대표적인 연구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고유전체 분석 방법과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 치밀한 연구와 해석에도 불구하고 몸에 대한 생물학적 연구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차탈 휘익의 경우, 고유전체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결과 자체가 해당 공동체의 사회적 성격을 직접적으로 말해 주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서 과학적 분석 결과는 향후 해석을 위한 해상도가 높은 분석 결과를 제공해줄 따름이며 이를 바탕으로 한 고고학적 해석은 여전히 고고학자들의 몫으로 남아 있다. 둘째, 고유전체 분석의 결과에 대한 정확성과 그 결과에 대한 신

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표본의 확률적 대표성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최소 수 천년의 기간 동안 유럽을 비롯하여 아나톨리아와 러시아 스텝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포괄하는 넓은 지역에서 출토된 200여 개체 분의 인골 자료를 분석해서 나온 결과는 그 결과가 갖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방식과 규모의 선사시대 인구 이동이 가능할 수 있었다는 점을 가정할 수 있다면 그러한 이동이 과연 직접적인 문화 변동을 야기할 정도의 방식과 규모였는지에 대해서는 좀더 많은 자료의 축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셋째, 고유전체 분석을 통한 암나문화인의 이주와 원인도유럽어족의 형성 그리고 쿠르간과 말의 확산을 통한 남성 중심의 유럽 신석기 후기 사회 형성을 주장하는 대부분의 연구의 경우, 고유전체 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양 지역 사이에 분명히 인간의 이주와 확산과 같은 깊은 관련성이 뚜렷하지만 물질 자료의 측면에서는 이러한 양 지역 사이의 교류가 이 시기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이른 시기 (예를 들어 기원전 3000년 이전의 신석기 중기 문화 즉 TRB Culture, Baden Culture 그리고 Globular Amphora Culture 등)부터 활발한 문화교류가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e.g. Hakenbeck 2019; Hyed 2017). 즉, 고유전체 분석이 일종의 ‘스냅샷’처럼 특정한 시점에서 인간의 이주와 확산에 대한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인간의 이주와 확산 과정은 매우 복잡한 사회적 현상이며 따라서 장기간에 걸친 문화교류의 원인이자 결과임을 고고학과 언어학 등 다양한 분과학문들의 융복합적 연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몸을 단순히 많은 고고학적 정보를 담고 있거나 반영하고 있는 ‘프록시’로 보기 보다는 몸을 생물학적 유기체이자 사회적 구성물로 바라보며 후자의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몸의 형성 그리고 몸의 해체 (여기에서 몸은 우리가 흔히 라깡의 거울이미지처럼 타자를 통해 자신의 몸을 인식하는 고전적 의미의 몸), 혹은 (고의적으로 훼손된 토우나 육탈 후 인골의 일부만을 남겨 놓는 등의) 몸의 파편화 (fragmentation)가 바로 이러한 몸에 대한 연구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e.g. Chapman 2000). 몸에 대한 이러한 새로운 관심은 1970년 대 이후 진행되어 온 젠더와 페미니즘 고고학을 비롯하여 어린이와 장애인 등을 포함한 개인 정체성과 에이전시, 주체화 등의 연구주제들을 보다 심화시켜 연구해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등장하였다 (e.g. Baxter 2005; Boric and Robb 2008a; Crawford 2018; Hamilakis et.al. 2001; Lally and Moore 2011; Meskell 1998; Montserrat 1998; Rautman 1999; Rebay-Salisbury 2010; Sofaer, 2006; Sørensen 2000 등). 이러한 몸에 대한 새로운 관

심은 물론 1980년대 이후 계속된 고고학 내에서의 사회 이론 및 철학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의 힘입은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Boric and Robb 2008b: 2-3). 예를 들어 푸코의 몸과 자기 배려에 대한 연구 (Foucault 1977; 1979; 1986; 1988a; 1988b), 부르디외와 기든스의 실천이론과 구조화이론 (Bourdieu 1977; Giddens 1984; 1991; Dobres and Robb 2000), 인간의 주체화와 감각의 주체적 기관으로서 신체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Heidegger 1962; Merleau-Ponty 1962), 젠더와 페미니즘에 대한 새로운 철학적 조망 (e.g. Butler 1990; 1993), 그리고 서구적 개인 개념, 즉 경계 지워진 개인(bounded individual)에 대한 사회적, 인류학적 반성 (e.g. Shilling 1993; Strathern 1998; Turner 1984) 등이 많은 영향을 끼친 것이 사실이다. 이에 기반하여 몸에 대한 많은 고고학적 연구성과 (e.g. 김종일 2009; Boric and Robb 2008a; 2008b; Chapman 2000; Hamilakis et.al. 2002; Meskell. 1998; Meskell and Joyce 2003; Montserrat 1998; Rautman 1999; Rebay-Salisbury et.al 2010; Shilling 1993; Sofaer 2006; Sofaer and Sørensen 2013; Sørensen and Rebay-Salisbury 2008; 2023; Treherne 1995) 들이 양산되고 있다.

몸에 대한 고고학적 관심은 크게 살아 있는 몸과 죽은 몸에 대한 관심의 두 가지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지만 양자의 경계가 뚜렷이 구분된다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살아 있는 몸에 대한 고고학적 정보를 암각화에 나타난 인물상이나 토우 등을 통해 얻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많게는 무덤에 묻힌 인골들에 대한 골해부학(osteology)적 연구, 또는 사체변화학(taphonomy)적 연구를 통해서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e.g. Duday 2009; Gowland and Knüsel 2006; Sofaer 2006). 또한 죽은 몸이 여전히 살아 있는 몸을 모방하거나 (혹은 그렇게 여겨지거나) 아니면 죽은 몸이 살아 있는 몸을 분절하여 장신구 등을 통해 특정 부분을 강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분절화되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의 변화를 통해 죽은 몸과 살아 있는 몸 사이의 관계의 변화와 이 변화가 암시하는 사회적, 상징적 의미의 변화를 추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연구로 쇠렌센과 리베아-솔즈베리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유럽 중기 청동기 시대 화장묘에 관한 연구를 예로 들 수 있다(Sørensen and Rebay 2008: 2023).²⁾ 주지하다시피 유럽의 청동기 시대 연구에서 가장 오랜 수수께끼로 남아있는 문제

2) 여기에서 소개된 쇠렌센과 리베아-솔즈베리의 연구내용은 김종일 2013에 이미 소개된 일부 내용을 요약한 것임을

중의 하나는 중기의 대형 고분 문화 (Tumulus culture)에서 후기의 화장묘 문화(Urnfield culture)로의 전환과 화장묘문화의 급격한 확산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즉 기원전 1200년 경에 중부 유럽에서 기존의 대형 고분을 대신해서 주요 묘제로 등장하기 시작한 화장묘 문화가 기원전 1100년 경에 유럽의 대부분 지역에서 지배적인 묘제로 확산되는 과정에 대해서 그 원인을 둘러싸고 많은 논의들이 진행된 바 있다 (e.g. Coles and Harding 1979; Champion, et.al. 1984). 특히 이러한 급격한 확산의 이유로 하나로 죽음과 몸에 대한 아이디어의 변화, 즉 살아 있는 몸처럼 영혼과 몸이 분리되지 않은 개인의 죽은 몸을 매장하는 고분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골호의 구멍의 존재에서 알 수 있듯이 영혼과 몸이 분리되는 화장묘로의 변화를 설명하기도 한다 (e.g. Rebay-Salisbury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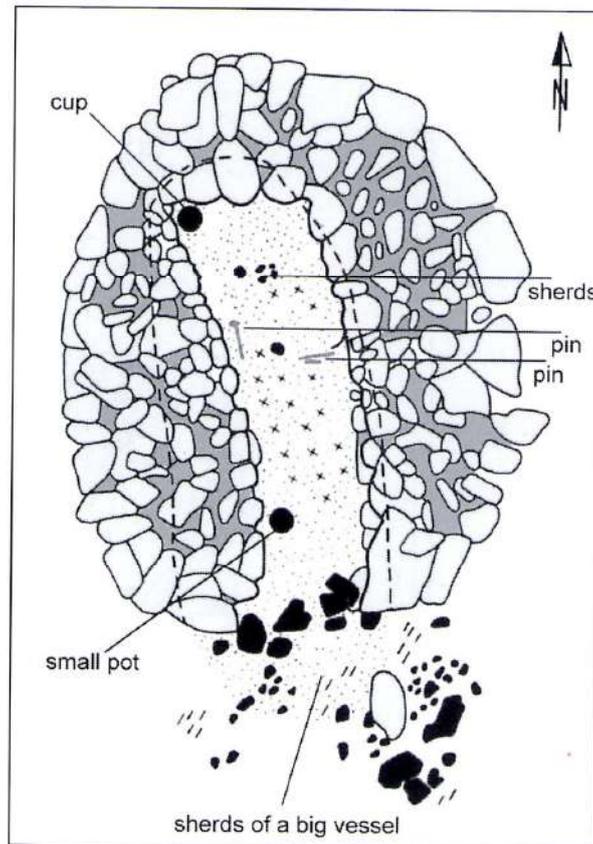


그림 1. 피튼 유적 189호 무덤 Hempel et.al 1981:Sørensen and Rebay-Salisbury 2008: 63에서 재인용)

밝혀둔다.

이러한 기존의 주류적인 견해에 대해 쇠렌센과 리베아-솔즈베리는 오스트리아의 중기 청동기 시대 집단 무덤인 피텐 (Pitten) 유적 사례를 예로 들어 다음과 같이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들은 기존의 연구처럼 매장무덤과 화장무덤이 의미하는 단순한 관념상의 차이에 주목하는 대신 그 변화가 갖는 과정상의 의미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첫째, 피텐 유적의 화장무덤에서 관찰되는 것처럼 화장무덤은 기존의 매장무덤이 갖고 있는 무덤구조 (예를 들어 석곽 구조)를 따르고 있고 (그림 1 참조), 둘째, 매장 이후에 벌어지는 제의에서도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예를 들어 매장 무덤과 같은 방식으로 화장무덤 입구에 제의와 관련이 있는 토기 조각들이 발견된다고 한다). 또한 셋째, 화장무덤이라 하더라도 유물의 부장에 있어서 기존의 매장무덤에서 보이는 바와 같은 방식, 즉 매장 무덤에서 죽은 몸을 살아 있는 몸처럼 취급하여 몸의 특정한 부분에 그것과 관련 있는 유물을 놓는 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으며 넷째, 경우에 따라 단일한 봉분 아래에 화장무덤과 매장무덤이 같이 묻히기도 하고 특히 그러한 화장무덤이 젠더의 범주에 따라 구분되어 온 전통적인 두향을 그대로 따르기도 한다고 한다. 따라서 이러한 관찰 결과를 토대로 비록 죽은 자의 인골은 화장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그리고 이후의 수습과정에서 많은 양이 유실되기도 하지만 여전히 매장무덤에서처럼 죽은 사람의 몸을 상징하거나 그 근거로 취급되거나 기억되고 있으며, 그러한 이유로 화장된 인골의 취급은 매장 무덤에서 죽은 사람의 몸을 취급해 왔던 전통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관찰 결과를 토대로 결론적으로 화장된 인골은 영혼이 빠져나간 단순한 물질적 흔적이 아니라 여전히 죽은 사람의 몸 자체를 의미하고 있으며 매장무덤에서 화장무덤으로의 변화는 관념의 변화에 의해 어느 한 순간에 급격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서서히 장기간에 이루어진 과정의 관점에서 파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무덤에서의) 몸은 생물학적 유기체이자 사회적 구성물로서 중요한 고고학 연구 대상이며 따라서 단순히 과거 사회의 사회 구조와 매장 행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는 기록 혹은 텍스트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과거 사람들이 경험하고 감각하며 이를 통해 자신과 자신들의 생활세계를 구성하는 물질성(materiality)을 가진 객체이자 주체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IV. 무덤과 기억 그리고 전통

고고학에서 90년대 이후 기억 (memory) 그리고 사회적 기억 (social memory)의 형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된 바 있다 (e.g. Boric 2010; Paukett 2001; Van dyke 2003). 필자 역시 한국 선사 및 고대 시기 무덤의 입지와 경관 형성과 관련하여 무덤의 지속적 축조가 몸의 움직임을 통한 경험과 체험 그리고 이에 대한 기억과 해석을 통해 무덤에 묻힌 사람들과 그 무덤을 축조한 사람들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를 한다는 점을 주장한 바 있다 (e.g. 김종일 2006; 2021).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비록 과거의 ‘기억’에 논의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기억’ 그 자체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논의가 그리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이 발표에서는 기억 자체의 형식과 내용, 그리고 방식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영국의 인류학자인 로랜드(Rowlands)는 종래 인류학에서 주로 구분해왔던 문자사회와 비문자 사회에서의 기억(의 역할)의 차이 대신 물질문화와 관련하여 기억을 ‘새겨진 기억’ (inscribed memory)과 ‘체화된 기억’ (incorporated memory)으로 나누었다 (Rowland 1993). 전자의 경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해왔던 방식의 기억으로 예를 들어 거석기념물의 경우 그 거석기념물이 의미하는 바를 시간의 순서에 따라 기억하는 것으로 과거(즉 과거로부터 지속적으로 기억되어 온 의미)에 대한 강조를 지향하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 부장품의 경우에서처럼 특정 유물이나 유구를 파괴하거나 사용의 지속적 순환 고리에서 탈락시킴으로써 기억은 유물이나 유구가 의미하는 바가 아니라 유물 혹은 유구 그 자체가 되며 포틀래치 (Potlatch)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정 유물과 유적의 부재 (혹은 사라짐) 그리고 이와 연결된 기억이 문화의 전승 과정에서 미래의 행위에 영향을 끼치는 방식으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로랜드의 주장에서 특히 체화된 기억의 역할이 매우 주목된다. 즉 무덤의 부장품이나 매납 유적의 매납 유물의 경우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눈앞에 현전하는 특정한 표상의 의미와 여기에 새겨진 기억뿐만 아니라 파괴되거나 훼손된, 때로는 사라져버린 표상 자체가 그 표상의 의미를 대신해서 그 자체로 기억이 되며 지속적으로 인지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소쉬르의 구조주의적 관점에서 표현하면 기의 (signified)는 사라지고 기표 (signifier)만 남아 지속적인 기호 작용 (signification)을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구조주의적 접근이 실제로 해석 작용을 실천하는 개인 주체 (혹은 개인의 해석 행위)가 전혀

고려되지 않는 대신 오로지 ‘구조’만이 고려된다는 비판을 염두에 둔다면 또 다른 방식의 기호 작용 즉 퍼스의 기호학적 관점에서 이러한 현상을 설명할 수도 있다. 대상체 (매장 및 이와 관련된 일련의 행위와 의미)와 표현체 (무덤의 물질적 표현, 즉 고고학 자료로서의 무덤) 그리고 해석체 (표현체를 보고 대상체를 떠올리는 일종의 의미 작용)로 구분하고 이러한 해석체의 의미 작용에서 기억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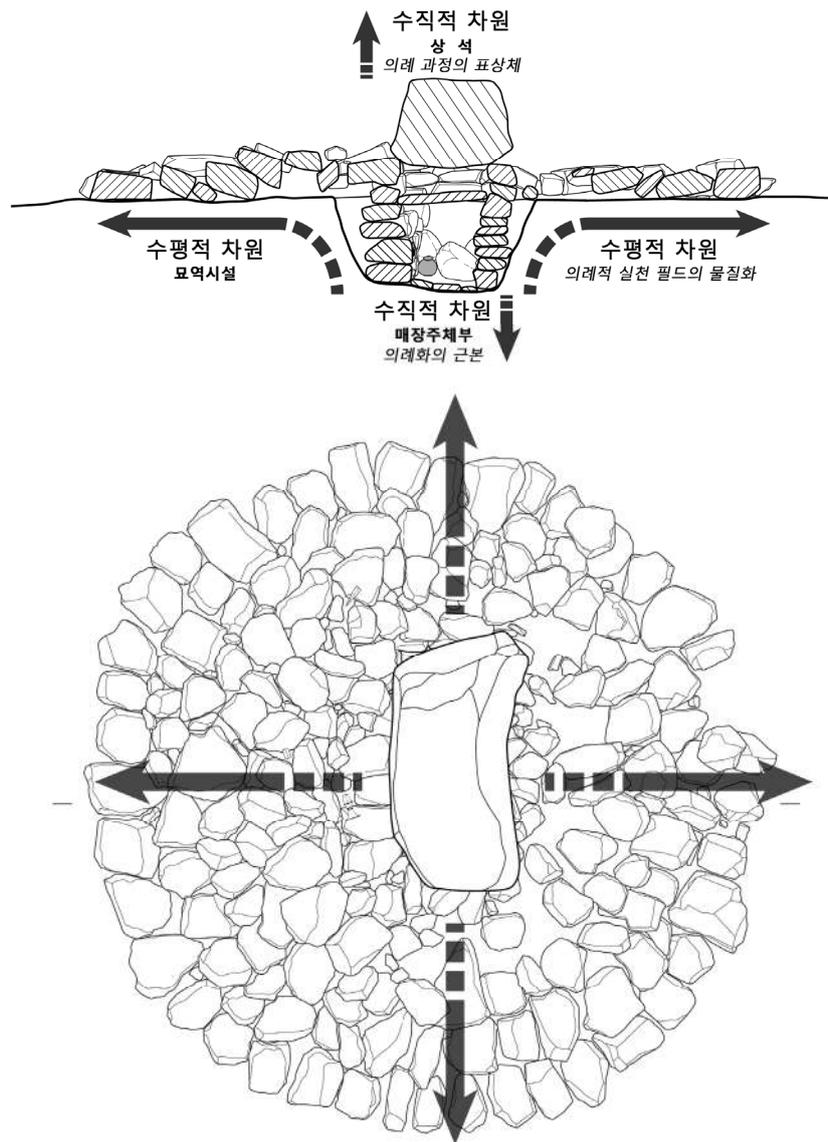


그림 2. 묘역식 지식묘의 수직적·수평적 구조 (송호인 2020: 82에서 인용)

한편 이와 관련하여 송호인은 묘역식 지식묘를 퍼스의 기호학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송호인 2020).

묘역식 지식묘를 수직적 차원에서 볼 때 지상과 지하로 개념이 구분되는데 지상의 구조물은 체험자로 하여금 해당 시설을 (표현체로) 지각하게 하며 지하의 매장주체부로서 직접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구성원들로 하여금 (기억에 근거하여) 묘역식 지식묘를 (무덤의) 상징으로 인식하게 하며 따라서 지속적인 의례화의 근본적인 근거가 된다고 한다. 경우에 따라 이러한 기억 그리고 이에 근거한 의미 작용은 매장 주체부 없이도 지상의 표현체만으로도 그 표현체를 대상체로 해석하게 되는 과정을 가능하게도 한다. 고총 고분 역시 봉토와 매장 주체부를 가지고 있으며 봉토 아래에 있는 매장 주체부와 순장곽은 그 고총 고분을 상징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동시에 지속적인 의례화의 근거가 된다. 또한 이 고분의 봉토는 그것에 근거한 표현체와 대상체 그리고 해석체의 관계가 기억 속에 지속적으로 남아 있도록 하는 기제가 되는 동시에 지속적으로 상징행위와 의례를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매개물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기억은 실제 몸의 자세와 움직임 및 (시각, 후각, 촉각 등의) 감각 경험 등을 통해 (물질적) 대상 및 장소와 관련될 때 더욱 구체적이며 오래 지속된다고 할 수 있다. ‘기억의 장소’로 알려진 기억술의 내용을 감안하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과거 고대 로마에서 대중으로부터 정치적 지지를 획득하는 동시에 정치가로서 명성을 얻기 위해서는 효과적이고 감동적인 연설 능력이 필수적이었고 이러한 대중 연설 능력을 기르기 위해 수사학이 발달하였으며 또한 연설에 원고를 읽거나 참조할 수 없었던 탓에 기억에 관한 기술 즉, 기억술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았다.³⁾ 이러한 기억술의 대표적인 사례로 시인 시모니데스의 사례를 들 수 있다. 작자 미상의 『헤렌니우스에게 바치는 수사학』과 키케로의 『연설가에 대하여』 de Oratore 권 2에 소개되어 있는데 (Cicero 1948)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리스 테살리아의 귀족 스킴파스가 제공한 연회에 참석했던 시인 시모니데스가 연회 도중 잠깐 나간 사이 지붕이 무너져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죽었다고 한다. 시신들이 크게 훼손되어 식별이 불가능하게 되었는데 마침 시모니데스가 죽은 사람들이 앉아 있던 위치를 기억하여 훼손된 시신이 누구의 것인지 정확히 식별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기억과 이미지, 그리고 위치 사이의 긴밀한 관계이다. 즉 특정한 하나의 사건 혹은 대상은 대상의 이미지와 그 대상의 위치가 결합되었을 때 오랫동안 그리고 정확하게 기억된

3) 로마의 기억술에 관한 내용은 김종일 2021의 일부 내용을 요약했음을 밝혀둔다.

다는 사실이다. (e.g. Yates 1966).

이 에피소드에서 알 수 있는 또 다른 사실은 기억과 장소 사이의 관계가 단순히 임의적인 것을 넘어서 구체적인 사건 속에서 실천을 통해 더욱 구체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무덤 봉토 혹은 매장주체부가 무덤과 관련된 의미 작용과 해석 그리고 그것에 대한 기억을 지속화(혹은 영속화)하는 기제가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무덤의 축조 과정과 제의의 실천에 참여하거나 관찰하는 것은 단순히 특정한 사건에 대한 기억을 넘어 이러한 기억이 하나의 규범으로서 전통과 관습의 형성과 유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발표된 김진오의 연구(2020)는 흔히 무덤의 고고학적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대상(즉 고고학 자료)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둔 연구자의 관점 대신 실제 그러한 무덤의 축조 과정에 참여했거나 그 과정을 경험했을 관찰자들의 관점에서 이들이 장례 현장에서의 실제(몸의) 움직임과 기억을 통해 스스로를 주체화하는 과정에 주목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영남지역 목관묘와 목곽묘의 축조과정에서 실제로 인간행위주체(human agent)들이 직접 무덤 축조 과정에 참여하거나 혹은 관찰하는 과정에서 가능했을 몸의 움직임과 시선 그리고 감각들이 그들의 정체성과 주체화 과정에 중요한 기여를 했음을 말해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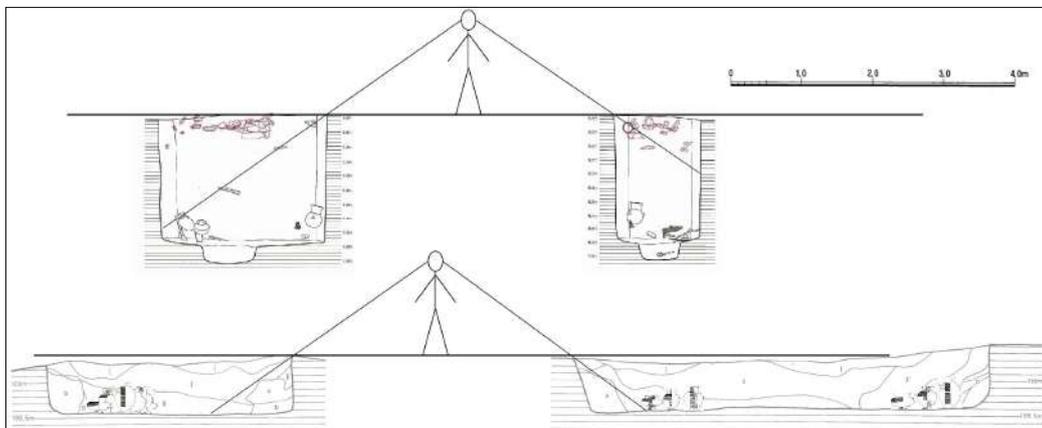


그림 3. 무덤 축조와 참여관찰자의 시선 (김진오 2020: 63에서 인용)

무덤의 축조 과정 그리고 축조 후에 실천되었을 다양한 제의를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도 매우 흥미롭다. 2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무덤은 다양한 행위들이 중첩되어 나타나는 일종의 양피지이다. 이러한 ‘양피지’에는 무덤 축조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행위 뿐만 아

나라 무덤의 축조 과정에서 그리고 축조 후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각종 제의들이 ‘새겨져’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무덤 축조 및 제의와 관련한 일련의 행위를 작업연쇄의 관점에서 파악한 연구들이 시도된 바 있다. 고일홍은 진안 용담댐 지구에서 확인되는 묘역식 지석묘 축조과정을 일종의 작업 연쇄의 관점에서 재해석한 바 있다 (고일홍 2008). 최종규는 일련의 논문을 통해 조선시대와 삼한시대 초기 그리고 청동기 시대의 무덤들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진행하여 무덤의 축조 단계에 따른 다양한 제의의 존재를 확인한 바 있는데 예를 들어 조선 시대의 경우 하관제, 시토제, 평토제를 포함한 매장삼례가 존재했음을 확인하고 이러한 매장삼례가 주자가례의 지역적 변용이었음을 주장한 바 있다 (최종규 2004). 삼한시대 초기묘와 송국리 시기 무덤에도 무덤의 축조 단계에 따라 다양한 제의들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최종규 2007; 2010).

이러한 무덤의 지속적 축조와 제의의 실천은 일종의 아비투스(habitus)를 형성하며 끊임없이 재기억되고 재해석되며 궁극적으로 이 기억은 영속화되어 마치 먼 과거로부터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여겨지는 동시에 현재를 합법화하고 정당화하며 미래에도 당연히 그 ‘현재’가 반복될 것이라는 점을 내면화하는 계기가 된다. 즉 이러한 과정을 거쳐 무덤의 축조와 제의는 ‘전통’으로 전환되며 이 전통은 이후의 무덤축조과정에서 끊임없이 재기억되는 동시에 타협된다. 참여자들은 이러한 기억과 자신들의 몸(의 움직임과 감각 등)을 통해 자신을 주체화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특징은 한반도 남부의 묘역식 지석묘 (그림 3참조)나 대가야(그림 4 참조)와 경주 서악동 고분군 (그림 5참조), 그리고 비화가야 고분군 (그림 6 참조)의 축조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한반도에서 발견되는 선사 및 고대 사회의 무덤 축조에서 일부 확인된다. 어느 특정한 지역에 가장 규모가 큰 무덤이 조성된 후 이 무덤은 이후 일련의 무덤 축조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참조되는 동시에 이 무덤의 축조 과정에서 확인되는 축조 방식과 과정 그리고 관련 제의들은 일종의 전통을 형성하며 이러한 전통의 실천, 즉 유사한 형태와 방식의 지속적인 무덤 축조는 이 무덤들을 축조하거나 관련 제의를 주도하는 집단의 배타적 지위와 권위를 합법화하고 정당화한다. 또한 경우에 따라 ‘자연스러운’ 순차적 무덤 축조가 아닌 매우 의도적인 무덤의 배치를 통해 기존의 ‘전통’에 기대어 자신의 출자와 권위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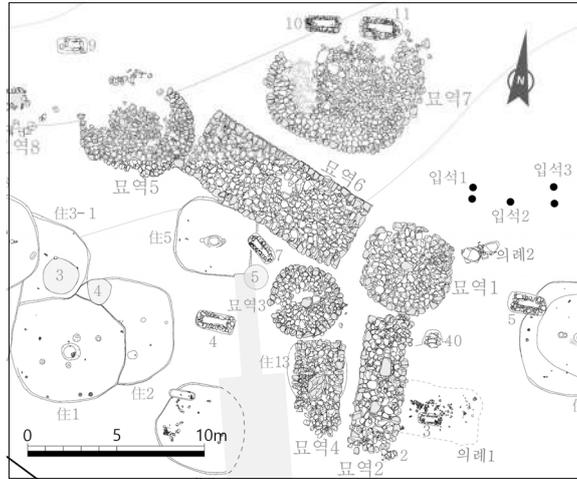


그림 4. 산청 매촌리 유적 (우리문화재연구원 2011산청 매촌리유적; 송호인 2020:55에서 재인용)



그림 5. 고려 지산동 고분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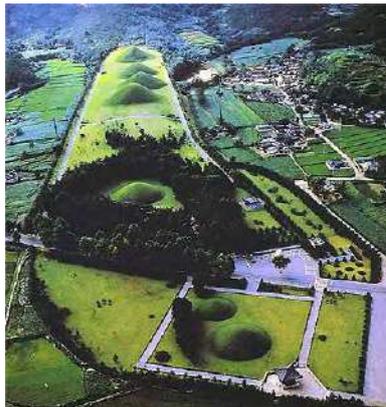


그림 6. 경주 서약동 고분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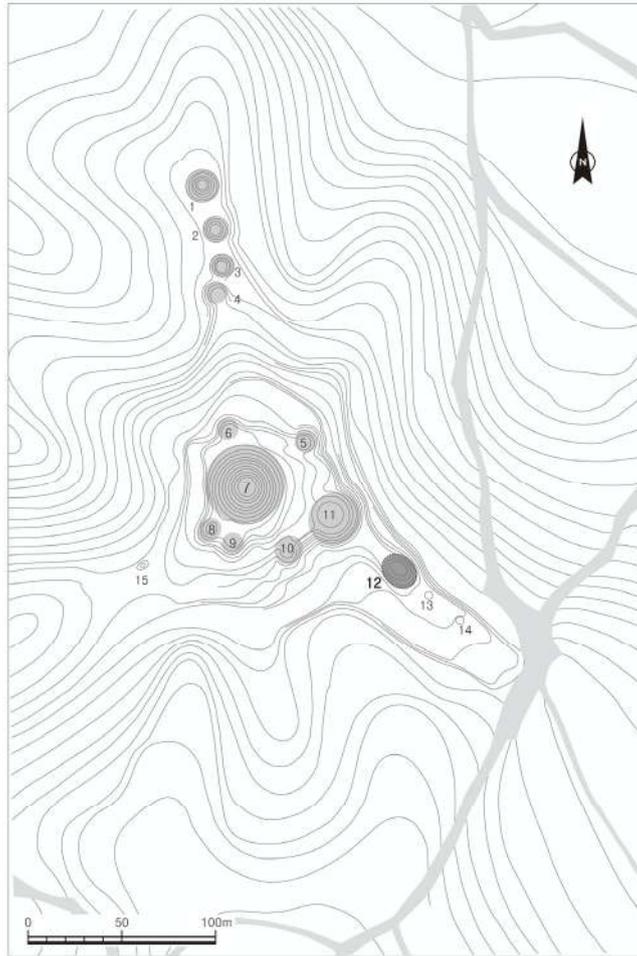


그림 7. 창녕 교동 7호분 및 주변 고분들 (심현철 제공)

V. 무덤과 정체성 그리고 주체화

후기 과정고고학의 등장 이후 문화사 고고학과 과정 고고학에서 강조하지 않았던 개인(들)이 새로운 연구 주제로 주목을 받게 되었다. 특히 구조주의와 맑스주의 고고학에서 개인의 역할을 무시하는 대신 구조를 강조해왔다는 반성과 함께 구조화 이론(또는 에이전시 이론)과 실천 이론 그리고 현상학 이론에 관심을 두면서 종래 고고학 연구에서 관심을 두었던

젠더 및 페미니즘 고고학에 더하여 개인의 정체성과 주체화 문제가 주된 연구 주제로 각광을 받게 되었다 (e.g. Fowler 2013; Gero and Conkey 1991; Gosden 1994; Shanks and Tilley 1987). 이 접근 방식에서는 개인 행위주체들이 특정한 물질적 조건 아래에서 그러한 물질적 조건의 해석과 실천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그 자신을 주체화한다고 주장한다.

(개인의) 정체성과 주체화의 고고학에서는 개인의 정체성과 주체성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다양한 개념들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자기 자신’ (self)는 일련의 경험들 또는 각각의 경험을 독립적인 ‘자기 자신’에 속하는 것으로 포함하는 연속적인 일대기이며 ‘인격체’ (person)는 이러한 자기자신을 문화적 틀에서 지칭한다고 한다. 또한 ‘주체’ (subject)는 다양한 담론 (혹은 이러한 담론들의 연합체) 안에서 위치하며, 담화에 의해 통합되거나 조율되는 동시에 전체 감각을 통해 드러난다고 한다 (Pile and Thrift 1995).

반면에 ‘행위주체’ (Agency)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상당한 정도로 유연하게 수단들을 동원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인과적 능력으로, 그리고 ‘주체성’ (subjectivity)은 신념이나 욕망과 같은 의도를 가지는 표상적 능력으로 정의하는 반면 ‘자아’ (selfhood)는 자기 자신의 행위의 수단이자 목표 혹은 자신의 신념과 욕구의 대상이 되는 반성적 능력으로 그리고 ‘인격성’ (personhood)은 행위주체 혹은 자기에게 공반되는 권리와 책임을 포함하는 사회정치적인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Kockelman 2013). 이외에도 이 개념들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제시되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주체(성)은 하나의 (언어적 혹은 물질문화의) 담론 안에서 신념이나 욕망의 의도와 같은 표상적 능력을 가진 존재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반면에 정체성은 개인(혹은 공동체)이 ‘자기 자신’에 대해 가지게 되는 일련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e.g. Thomas 1996).

이와 같은 무덤 축조와 정체성 형성의 관계를 살펴 보기 위해 아제르바이잔 살비르 유적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 유적에서는 지금까지 성벽과 성 내부 조사를 통해 건물, 저장수혈, 토기 요지, 화덕, 상하수도 시설, 수로 등 다양한 유구들에 대한 발굴조사를 진행했는데 특히 성 내부에서 총 20여 기의 지하식 횡혈묘 (Catacomb)를 조사하였다. 이 가운데 카타콤 8호 (그림 8과 그림 9 참조)와 13호 (그림 10 참조)가 특히 주목되는데 8호에서는 장신의 30대 후반 여성 인골이 발견되었다. 이 여성은 대퇴골을 비롯하여 매우 발달된 신체를 가지고 있으며 편두가 행해진 것으로 추정된다. 부장품으로는 다양한 토기와 장신구 뿐만 아

나라 로만 글라스, 사르마티아 형식 무기류 (이지창, 화살촉, 찰갑 등), 파르티아 동전 등이 발견되었으며 이는 여성 전사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13호 카타콤에서 발견된 여성은 대략 40대 초반이며 신장은 최소 155 cm 가량이고 3-4회 출산 경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팔과 다리 부분이 발달했으며 역시 편두가 행해졌다. 이러한 편두는 코카서스 남부 지역에 존재했던 사르마티아의 주요 부족 중 하나에게서 이와 같은 편두가 나타나며, 특히 여성들에게 편두가 보편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인골에 대한 해석을 통해 무덤에 묻힌 여성 개인들의 정체성과 주체로 성장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하겠다.

본격적인 해석에 앞서 고려해야 할 전제가 있다. 첫째, 사회적 성, 즉 젠더는 인골에 그 흔적을 남긴다는 점이다 (e.g. Sofaer 2006). 일반적으로 젠더는 언어와 사회적 관습 그리고 (복식과 장신구 등의) 물질문화를 통해 형성되거나 파악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과거 사회에서 여성이 참여하는 노동의 종류에 따라 특정한 신체 부위에 이러한 노동의 흔적이 남는다는 점이다. 둘째, 편두는 매우 어렸을 때에 행해지며 따라서 편두는 본인의 자발적인 의지가 아니라 사회적 관습 (혹은 규범 또는 구조)과 전통에 따라 부모를 포함한 성인들에 의해 영유아에게 행해진다는 점이다. 따라서 편두의 관습은 물리적으로 여성의 몸에 그 흔적을 남기는 동시에 그 여성의 몸은 사회적으로 구성된다는 점이다. 셋째, 따라서 편두를 통한 여성의 몸의 형성과 젠더 정체성은 자신의 의지에 앞서 사회적으로 결정되며 이렇게 사회적으로 결정된 젠더 정체성은 이후 본인의 의지에 따라 다시 한번 재조정되거나 타협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전제를 염두에 두고 카타콤 출토 인골을 통해 정체성과 주체성의 형성과정을 살펴보면 1단계인 영유아 단계 (대략 6세 경까지)에서는 편두가 행해지면서 자신의 의지와 자기 인식에 상관없이 젠더 정체성이 사회적으로 주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2단계인 어린이 단계 (대략 13세 경까지)에는 편두뿐만 아니라 남녀 간의 신체의 차이를 인지하는 동시에 옷과 장신구 등의 선택과 사용을 통해 젠더 정체성이 형성되었을 것이다. 3단계인 청소년기에는 자신의 젠더 정체성을 고려하면서 관습 즉 타자의 요구와 욕망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혹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각기 다른 사회적 역할과 위치, 즉 여성 전사 그리고/또는 어머니의 역할을 선택했을 것이다. 마지막 4단계인 죽음의 단계에서는 그녀의 역할과 지위에 따라 각기 다른 매장 관습 (예를 들어 부장품 등)이 선택되었을 것이다.

한편 여기에서 여성 전사의 경우 다음과 같은 헤로도투스의 묘사에서 알 수 있다.

사우로마타이의 여인들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고대의 관습을 지키고 있는데 그들의 남편과 함께 말을 타고 사냥을 하며 때때로 남편 없이도 사냥을 하기도 한다. 전쟁에서는 남자와 같은 무장을 한다. (중략) 전투에서 남자를 죽이기 전까지 어떠한 여인도 결혼을 허락받지 못하며 경우에 따라 이 과정에서 여인이 죽기도 한다. Herodotus *The Histories* Vol.4. 116-117

결론적으로 이들은 주어진 조건에서 자신의 의지와 욕망에 따라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동시에 행위주체로서 자신을 주체화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Catacomb Burial No. 8 (여성)



무덤방에 토기 로만 글라스 그리고 동물뼈



여성, 편두(?) 30대후반
대퇴골과 대부가 발달

그림 8. 가발라 살비르 유적 8호 카타콤

Catacomb Burial No. 8



다양한 사르마티아 철기 무기류와 장신구

그림 9. 가발라 살비르 유적 8호 카타콤 출토 유물

Catacomb Burial No. 13



그림 10. 가발라 살비르 유적 13호 카타콤 인골

Ⅵ. 새로운 분묘 고고학을 위하여 - 사대 자체로

지금까지 고고학 연구에서 무덤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지만 과연 죽음 그 자체에 대해 그리고 무덤에 묻히거나 무덤을 축조한 개인행위주체에 대해서는 그다지 주목하지 않았다. 무덤의 고고학이 부재하다는 주장은 바로 이러한 현상에 근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지금까지의 무덤에 대한 연구가 여러 측면에서 엄청난 성취를 이룩한 것도 사실이지만 이러한 연구들이 무덤을 파편화된 ‘프록시’(proxy)로만 취급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 한계는 역설적으로 무덤을 죽음을 중심으로 총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무덤이 무덤인 이유는 바로 피장자의 몸이 묻혀 있거나 묻혀 있다고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면서 따라서 무덤은 죽음을 포함하는 실체이자 죽음 자체를 가리키는 기호이며 상징이라는 점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매장 행위 그리고 그것의 물질적 표현 형태인 무덤은 기호와 상징으로 구성된 환유적 연쇄이자 은유적 관계, 즉 하나의 맥락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피장자의 몸은 무덤이라는 상위 범주의 가장 중요한 하위범주이자 무덤을 대표하는 하나의 환유라고 하는 점이다(그림 1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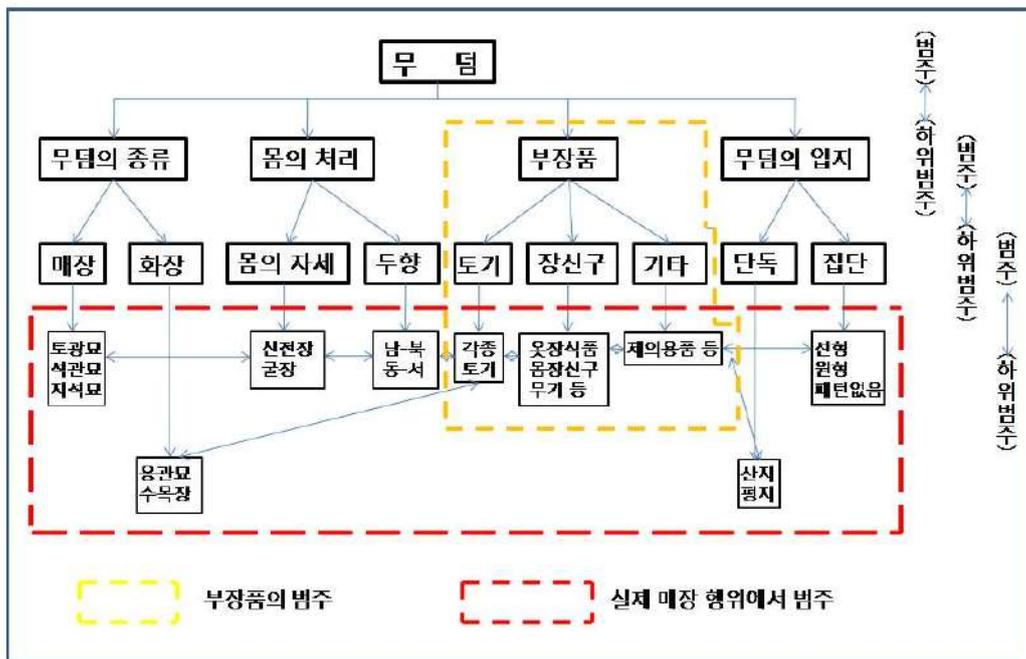


그림 11. 무덤의 환유적 연쇄

이러한 환유적 연쇄로서 무덤에서 몸이 갖는 중요성은 새삼 강조해도 어색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무덤에 대한 연구가 기존의 연구에 더하여 몸을 중심으로 여러 요소들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음을 말해준다. 지금까지 이 발표문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견해가 향후 무덤에 대한 연구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무덤과 관련한 다양한 방식의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관점을 한번쯤은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그 결과 죽음과 무덤 그리고 개인행위주체에 대한 새로운 고고학적 시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참고문헌 □

- 고일홍 2010. 「무덤자료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한강고고』4
- 김진오 2020. 「진·변한 목곽묘의 장례 현장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종일 2004. 「한국 중기 무문토기문화의 사회구조와 상징체계」. 『국사관논총』 104집. 국사편찬위원회.
- 김종일 2006. 「경관고고학의 이론적 원칙과 적용가능성」, 『한국고고학보』 58.
- 김종일 2007. 「계층 사회와 지배자의 출현을 넘어서」, 『한국고고학보』63.
- 김종일 2009. 「한국 청동기 시대 남성 몸의 형성과 상징구조」, 『물질문화와 농민의 삶(문화로 보는 한국사 2)』. 이태진 교수 정년기념논총 간행위원회. 태학사.
- 김종일 2013. 「죽어야 사는 고고학」, 『움직이는 세상 움직여야 하는 고고학』. 서경문화사.
- 김종일 2018. 「유럽 선사 및 고대 시기의 민족과 민족적 경계에 대한 고고학이론과 방법론의 검토」, 『동북아역사논총』 62.
- 김종일 2019. 「독일통일과정에서 문화유산조사와 보존관리」, 『문화재』 52(2).
- 김종일 2021. 「기억 표상 그리고 권력 - 울주 천전리 각석에 대한 재해석」, 『역사와 현실』120.
- 김종일 2023. 「중앙 유라시아 말의 사육화와 전차의 확산」, 『인문논총』 80(1).
- 송호인 2020. 「墓域附加支石墓: 청동기시대의 의례.상징 매체」.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종규 2004. 「매장삼제」, 『진주무촌』II. 경남고고학연구소.
- 최종규 2007. 「삼한조기묘의 예제」, 『고고학탐구』 창간호. 고고학탐구회.
- 최종규 2010. 「송국리문화의 예제-경남지역을 중심으로」, 『고고학탐구』7. 고고학탐구회.

Anthony, D. W. 2007. *The Horse, the Wheel and Languag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Binford, L. R. 1971. Mortuary Practices: Their Study and Their Potential. *Approaches to the Social Dimensions of Mortuary Practice*, Memoire of the Society of American Archaeology 25.
- Barrett, J. C. 1990. The monumentality of death: the character of Early Bronze Age mortuary mounds in southern Britain, *World Archaeology* 22-2.
- Barrett, J. C. 1994. *Fragments from antiquity*. Oxford: Blackwell.
- Baxter, J. E. 2005. *The Archaeology of Childhood: Children, Gender, and Material Culture (Gender and Archaeology)*. Walnut Creek, CA: Altamira press.
- Boric, D. 2010. *Archaeology and Memory*. Oxford: Oxbow.
- Boric, D. and J. Robb (eds.) 2008a. *Past Bodies*. Oxford: Oxbow.
- Boric, D. and J. Robb 2008b. Body theory in archaeology, In D. Boric, D. and J. Robb (eds.) 2008a. *Past Bodies*: 1-8. Oxford: Oxbow
- Bradley, R. 1998. *The Significance of Monuments: On the Shaping of human Experience in Neolithic and Bronze Age Europe*. London: Routledge.
- Bramanti, B. 2013. The Use of DNA Analysis in the Archaeology of Death and Burial. In Tarlow, S. and L. N. Stutz (eds.). 2013. *The Oxford Handbook of The Archaeology of Death & Burial*.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Brown, J. (ed). 1971. *Approaches to the Social Dimensions of Mortuary Practice*, Memoire of the Society of American Archaeology 25.
- Bourdieu, P. 1977. *Outline of a Theory of Practi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raithwaite, M. 1984. Ritual and prestige in the prehistory of Wessex c.2200-1400 B.C., in D. Miller and C. Tilley (eds.), *Ideology, power and Prehistory*: 93-11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randt, J. R., M. Prusac and H. Roland, 2015. *Death and Changing Rituals*. Oxford: Oxbow.
- Brown, J. A. (ed.). 1971. *Approaches to the social Dimensions of Mortuary Practices*. Washington DC: Memoir of the Society for American Archaeology 25.
- Butler, J. 1990. *Gender Trouble: Feminism and the Subversion of Identity*. London: Routledge.
- Butler, J. 1993. *Bodies that matter: On the Discursive Limits of 'Sex'*. London: Routledge.
- Champion, T., C. Gamble, S. Shennan, and A. Whittle (eds.). 1984. *Prehistoric Europe*. London: Academic Press.
- Chapman, J. C. 2000. *Fragmentation in Archaeology*. People, Places and Broken Objects in the Prehistory of South-eastern Europe. London: Routledge.
- Chapman, R. W., 1981. The emergence of formal disposal areas and the 'problem' of megalithic

- tombs in prehistoric Europe, In Chapman, R. W. I. Kinnes and K., Randsborg. 1981. *The Archaeology of Death*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hapman, R. W. 2013. Death, Burial, and Social Representation. In Tarlow, S. and L. N. Stutz (eds.). 2013. *The Oxford Handbook of The Archaeology of Death & Burial*.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Chapman, R. W., I. Kinnes, and R. Randsborg (eds.). 1981. *The Archaeology of Death*.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icero (Sutton, E. W. and H. Rackham Trans.). 1948. *de Orator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Coles, J. M., and A. F. Harding. 1979. *The Bronze Age in Europe*. London: Methuen and Co Ltd.
- Crawford, S. D. M. Hadley and G. Shepherd (eds.) 2018. *The Oxford Handbook of the Archaeology of Childhoo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Dobres, M.-A., and J. E. Robb (eds.). 2000. *Agency in Archaeology*.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Duday, H. 2009. *The Archaeology of the Dead*. Oxford: Oxbow.
- Ericksson, G. 2013. Stable Isotope Analysis of Humans. In Tarlow, S. and L. N. Stutz (eds.). 2013. *The Oxford Handbook of The Archaeology of Death & Burial*.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Foucault, M. 1977. *Discipline and punish*. London: Allen Lane.
- Foucault, M. 1979. *The History of Sexuality: An introduction Vol 1*. London: Allen Lane.
- Foucault, M. 1986. *The Use of Pleasure: The History of Sexuality Vol.2*. London: Viking.
- Foucault, M. 1988a. *The Care of the Self: The History of Sexuality Vol. 3*. London: Allen Lane (the Penguin Press).
- Foucault, M. 1988b. *Technologies of the self: A seminar with Michel Foucault*. London: Tavistock.
- Fowler, C. 2004. *The Archaeology of Personhood: An Anthropological Approach*. London: Routledge.
- Fowler, C. 2013. Identities in Transformation: Identities, Funerary Rites, and The Mortuary Process. In Tarlow, S. and L. N. Stutz (eds.). 2013. *The Oxford Handbook of The Archaeology of Death & Burial*.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Goldstein, L., 1981. One-dimensional archaeology and multi-dimensional people: spatial organisation and mortuary analysis, In Chapman, R.W. I. Kinnes and K., Randsborg. *The Archaeology of Death*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ero, J.M. and M.W. Conkey (eds.) 1991. *Engendering Archaeology*. Oxford: Basil Blackwell.
- Giddens, A. 1984. *The Constitution of Society: outline of the theory of Structuration*. London: Polity Press.
- Giddens, A. 1991. *Modernity and Self-Identity*. Cambridge: Polity Press.
- Gosden, C. 1994. *Social Being and Time*. Oxford: Blackwell.
- Gowland, R. and C. Knüsel (eds.) 2006. *Social Archaeology of Funerary Remains*. Oxford: Oxbow. New York: Kluwer Academic/Plenum Publishers.
- Finley, N. (ed). 1999. Disability and Archaeology. *Archaeological Review from Cambridge* (15)2.
- Hakenbeck, S. E. 2019. Genetics, archaeology, the far right. *World Archaeology* 51(4).
- Hamilakis, Y., M. Pluciennik and S. Tarlow, 2001. *Thinking through the body*. Archaeology of Corporeality
- Heidegger, M. 1962. *Being and Time*. Oxford: Blackwell.
- Hodder, I., 1982. *Symbols in Ac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odder, I., 1984. Burials, houses, women and men in the European Neolithic. In Miller, D. and C. Tilley 1984. *Ideology, Power and Prehisto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odder, I., 1990. *The Domestication of Europe*. Oxford: Basil Blackwell.
- Hodder, I., 2014. Çatalhöyük: the leopard changes its spots. A summary of recent work. *Anatolian Studies* 64.
- Hoopes, J. (ed.). 1991. *Peirce on Signs: Writings on Semiotic by Charles Sanders Peirce*.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 Humphreys, S. C., and H. King (eds.). 1981. *Mortality and Immortality: the anthropology and archaeology of death*. London: Academic Press.
- Hyed, V. 2017. Kossinna's smile. *Antiquity* 91(366).
- Jensen, C. K., and K. H. Nielsen (eds.). 1997. *Burial & Society*. Aarhus: Aarhus University Press.
- Juras, A., M. Chyleński, and E. Ehler et al. 2018. "Mitochondrial Genomes Reveal an East to West Cline of Steppe Ancestry in Corded Ware Populations," *Science Report* 8, Article number: 11603.
- Kim, Jong-Il 2002. 'An Archaeology of death.' *Seoul Journal of Korean Studies* 15. Seoul National University.
- Ko, Il-hong. 2007. *Constructing Bronze Age Lives: social reproduction and the construction and use of Dolmen burials from the Yongdam complex in Jinan, South Korea*.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Sheffield.

- Kockelman, P. 2013. *Agent, Person, Subject, Self - A Theory of Ontology, Interaction, and Infrastructur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Lally, M. and A. Moore, 2011. *(Re)thinking the Little Ancestor: New Perspectives on the Archaeology of Infancy and Childhood*. Oxford: Oxbow. BAR International Series 2271.
- Merleau-Ponty, M. 1962. *The Phenomenology of Perception*. London: Routledge and Keagan Paul.
- Meskel, L. 1998 The irresistible body and the seduction of archaeology. In D. Montserrat (ed.). *Changing bodies, Changing Meanings. Studies on the Human Body in Antiquity*: 139-61. London: Routledge.
- Meskel, L. 1999. *Archaeologies of social life*. Oxford: Blackwell.
- Meskel, J. and Joyce, R. 2003. *Embodied Lives: Figuring Ancient Maya and Egyptian experience*. London: Routledge.
- Methieson, I. et.al 2018. The genomic history of southeastern Europe. *Nature* 25778.
- Miller, D., and C. Tilley (eds.). 1984a. *Ideology, Power and Prehisto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iller, D., and C. Tilley. 1984b. Ideology, power and prehistory: an introduction, in D. Miller and C. Tilley (eds.), *Ideology, Power and Prehistory*: 1-15.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izoguchi, K. 1992. A historiography of a linear barrow cemetery: a structurationist's point of view, *Archaeological Review from Cambridge* 11(1).
- Montserrat, D. (ed.). 1998. *Changing bodies, Changing Meanings. Studies on the Human Body in Antiquity*. London: Routledge.
- O'Shea, J. 1984. *Mortuary Variability: an archaeological investigation*. New York: Academic Press.as
- Pader, E. J. 1982. *Symbolism, Social Relations and the Interpretation of Mortuary Remains*. Oxford: BAR supplementary Series 130.
- Parker Pearson, M. 1982 'Mortuary practices, society and ideology: an ethno-archaeological study'. In I. Hodder (ed.) 1982. *Symbolic and Structural Archaeolo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arker-Pearson, M. 1999. *The Archaeology of Death and Burial*. Phoenix Mill: Sutton Publishing.
- Paukett, T. (ed.). 2001. *The Archeology of Traditions: Agency and History Before and After Columbus*. Florida: University Press of Florida.
- Pile, S. P. and N. Thrift (ed.) 1995. *Mapping the Subject*. London: Routledge.

- Rakita, G. F. M., J. E. Buikstra, L. A. Beck and S. R. Williams (eds.). 2005. *Interacting with the Dead - Perspectives on Mortuary Archaeology for the New Millennium*. Gainesville: University Press of Florida
- Rautman, A. E. (ed.). 1999. *Reading the Body. Representations and Remains in the Archaeological Record*.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Rebay-Salisbury, K., M.L.S. Sørensen and J. Hughes (eds.) 2010. *Body Parts and Body Wholes*. Oxford: Oxbow.
- Renfrew, C. 1984. *Approaches to social archaeology*.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 Robb, J. 2013. Creating Death: An Archaeology of Dying. In Tarlow, S. and L. N. Stutz (eds.). 2013. *The Oxford Handbook of The Archaeology of Death & Burial*.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Rowlands, M. 1993. The role of memory in the Transmission of Culture. *World Archaeology* 25(2).
- Saxe, A. A. 1971. Social Dimensions of Mortuary Practices in Mesolithic Population from Wadi Haifa, Sudan. *Approaches to the Social Dimensions of Mortuary Practice*. Memoire of the Society of American Archaeology 25.
- Saussure, F. d., 1995. *Course in General Linguistics*. London; Duckworth.
- Shanks, M., and C. Tilley. 1982. Ideology, symbolic power and ritual communication: a reinterpretation of Neolithic mortuary practices, in I. Hodder (ed.), *Symbolic and Structural archaeology*: 129-54.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hanks, M., and C. Tilley. 1987. *Social theory and Archaeology*. Cambridge: Polity.
- Shennan, S. 1975. The social organization at Branč. *Antiquity* 49(196).
- Shennan, S. 2018. *The first farmers of Europe: an evolutionary perspectiv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hilling, C. 1993. *The Body and Social Theory*. London: Sage Publications.
- Sofaer, J. R. 2006. *The Body as Material Cultur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ofaer, J. and M. L. S. Sorensen, 2013. Death and Gender. In Tarlow, S. and L. N. Stutz (eds.). 2013. *The Oxford Handbook of The Archaeology of Death & Burial*.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Sørensen, M.L.S. 2000. *Gender Archaeology*. Cambridge: Polity.
- Sørensen, M.L.S. and K. C. Rebay, 2008. From Substantial bodies to the substance of bodies: analysis of the transition from inhumation to cremation during the Middle

- Bronze Age in Central Europe. In D. Boric, D. and J. Robb (eds.) 2008a. *Past Bodies*: 59-68. Oxford: Oxbow
- Sørensen, M.L.S. and K. C. Rebay. 2023. *Death and the Body in Bronze Age Europ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tout, A. 2013. Cultural History, Race, and People. In Tarlow, S. and L. N. Stutz (eds.). 2013. *The Oxford Handbook of The Archaeology of Death & Burial*.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Strathern, M. 1998. *The Gender of the Gift. Problems with Women and Problems with Society in Melanesia*. Berkeley: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Tainter, J. R. 1978. Mortuary practices and the study of prehistoric social systems, *Archaeological Method and Theory* 1: 105-41.
- Thomas, J. 1996. *Time, Culture & Identity*.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Tilley, C. 1984. Ideology and the legitimation of power in the middle neolithic of southern Sweden, in D. Miller and C. Tilley (eds.), 1984. *Ideology, Power, and Prehistory*: 111-46.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illey, C. 1994. *A phenomenology of Landscape*. Oxford: Berg.
- Treherne, P. 1995. The Warrior's beauty: the masculine body and self-identity in Bronze Age Europe, *Journal of European Archaeology* 3: 105-44.
- Thomas, J. 1996. *Time, Culture & Identity*.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Van dyke, R.M. and S. E. Alcock (eds.). 2003. *Archaeologies of Memory*. Oxford: Blackwell.
- Yates, F. A. 1966. *The Art of Memory*.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선사시대 군집묘 양상의 변화와 그 의미

이 수 흥

| 울산문화재연구원 |

〈 目 次 〉

I. 머리말	V. 군집묘 배치 양상
II. 선사시대 군집묘 변화	VI. 군집묘의 기능과 축조의 의미
III. 신석기시대 군집	VII. 맺음말
IV. 청동기시대 군집	

I. 머리말

삶과 죽음은 개인이나 가계에 일생의 큰일 중 하나지만 실제 우리 주변에서 늘 일어나는 일상이다. 호모사피엔스가 등장한 이후 모든 죽음에는 시신을 처리하는 방법이나 절차가 있었을 것이다. 무덤이라는 말이 어원적으로 ‘묻다’의 어간 ‘묻-’에 ‘-읍’이라는 접미사를 붙인 파생어라 그런지 우리는 땅을 파고 그 안에 시신을 안치한 것만을 무덤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선입견이 선사시대 무덤의 실체에 쉽게 다가갈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고, 주거지보다 무덤이 훨씬 적게 발견되는 원인이 될 수도 있겠다.

아무튼 선사시대 무덤은 발견 사례가 많지 않은데, 한 유적에서 발견되는 무덤의 수도 주거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火葬, 風葬, 水葬, 樹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신을 처리했을 것인데, 반드시 땅에 시신을 안치하지 않더라도 앞에서 언급한 시신처리 장소 역시 무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화재로 폐기된 주거에 인골이 확인되어 가옥장이 이루어졌다는 견해(유병록 2010)가 발표된 후 다양한 형태의 시신처리 방법이 제기되었다. 적석주거지도 무덤으로 전용되었다고

하고(이수홍 2012), 무덤열과 동일선상에 있는 적석유구가 무덤이라는 견해(이수홍 2017)가 있다. 또, 동남해안지역의 주구형유구도 주구묘(김현식 2009; 이수홍 2010; 안재호 2013)라고 하고 연암동형주거지도 가옥이 무덤으로 전용된 것이라고 한다(안재호 2010). 뿐만 아니라 요즘 입목수혈로 알려진 소형 수혈유구(유병록 2024) 중 대구 대천동 511-2번지 유적(영남문화재연구원 2009)의 수혈에 대해 필자(2017)는 옹관묘의 토기가 유기질제로 바뀐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역시 무덤의 하나이다. 선사시대 무덤의 실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葬法을 우선 생각해야 하고, 이런 다양한 형태의 무덤(시신처리 방법)을 인식하고 바라볼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여러 견해를 전제로 해서 본고를 진행하겠다.

발굴자료가 폭증하고 연구성과가 축적되어 무덤을 통해 당시 사회상을 찾아가고 있지만 무덤 그 자체, 무덤의 실체에 대한 접근이 점차 어려워지는 것 같다.

본고는 선사시대 무덤을 이해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군집묘’라는 주제어로 접근하고자 한다. 신석기시대부터 초기철기시대까지 무덤 군집 양상의 변화와 그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선사시대 군집묘의 변화

군집이란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 여러 개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단독으로 분포하는 1기의 무덤이 아닌, 두 기 이상의 무덤이 모여 있는 것을 군집묘라고 할 수 있겠다. 본고에서는 1기만 있는 단독묘와 2기 이상이 모여 있는 군집묘로 구분하고 군집묘는 2~3기가 모여 있는 소군집, 4기 이상이 모인 대군집으로 분류하겠다.

신석기시대는 유적의 연대폭이 넓어 한 유적에서 2기 이상의 무덤이 조사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동시에 존재했었는지를 판단하기 어렵다. 가옥장이라고 생각되는 토기가 발견되기도 하고, 가덕도 장항유적(한국문화연구원 2014)과 같이 공동묘지처럼 발견되기도 한다. 신석기시대의 군집 패턴을 명확하게 제시하기는 어렵다.

신석기시대 이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소군집-대군집-단독묘-대군집 등 다양한 양상으로 무덤이 분포하는데 각각에는 분포 패턴 및 의미가 있을 것이다. 청동기시대부터 원삼국시대까지 영남지역 무덤 군집 양상은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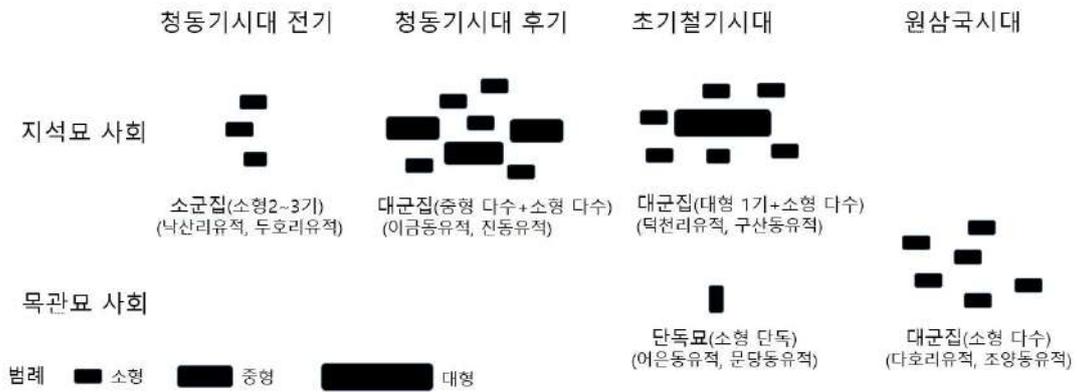


그림 1. 청동기시대~원삼국시대 군집모양 양상 모식도

청동기시대가 되면 무덤의 군집 양상이 뚜렷해진다. 기념물로서의 무덤이 본격적으로 축조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청동기시대 전기는 ‘소군집’을 이룬다. 그러다가 후기가 되면 무덤의 수가 증가하여 대군집을 이룬다. 묘역식지석묘가 유행하는데, 규모가 다양하다. 중형 다수와 소형 다수가 군집을 이룬다.

초기철기시대가 앞 시기의 청동기시대와 차이점 중 하나는 불평등사회의 지배자가 등장한다는 점이다. 1인을 위한 무덤이 축조되는 것이다. 이 시기는 지석묘 문화와 새롭게 유입된 목관묘 문화로 양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점토대토기로 대표되는 초기철기시대가 시작되었다고 하더라도 시작과 동시에 지석묘 축조가 갑자기 중단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양 문화가 공존하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영남지역의 경우 원형점토대토기가 등장한 이후에도 약 200년 간은 목관묘가 축조되지 않을 만큼 원형점토대토기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지 못했을 정도이다. 이때 지석묘사회는 비대하게 거대해진 지석묘를 축조하게 되는데 1기의 거대한 지석묘와 다수의 소형묘로 구성된 대군집을 이룬다. 목관묘 사회는 초기철기시대에는 소형묘가 단독으로 축조된다. 이 세형동검이나 동경이 출토되는 단독묘는 군장묘인데, 무덤의 규모 보다는 부장품으로 차별화한다.

초기철기시대에 단독으로 축조되는 목관묘는 원삼국시대가 되면 규모가 유사한 무덤이 수십기 분포하는 대군집을 이룬다.

Ⅲ. 신석기시대 군집

신석기시대 무덤은 현재까지 해안가에서 100여 기가 조사되었다(하인수 2018). 한 유적에서 여러 기의 무덤이 조사된 사례가 있지만 유적의 연대 폭이 워낙 넓어 동시기의 군집묘라고 단정할 수 있는 무덤은 가덕도 장항유적과 춘천 교동유적, 울진 후포리유적(국립경주박물관 1991) 정도라고 할 수 있겠다.¹⁾

가덕도 장항유적은 한 곳에서 48기의 인골이 확인되어 우리나라 신석기시대 최대의 공동묘지이다. 가덕도의 다른 곳에서 이와 같은 무덤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이곳은 전형적인 무덤공간이다. 두향은 북쪽, 북동쪽, 동쪽으로 나눌 수 있는데 북쪽과 북동쪽이 대부분이다. 북쪽과 북동쪽은 바다인데 바다 건너 바로 육지가 있다. 동쪽은 섬의 구릉쪽이다. 신석기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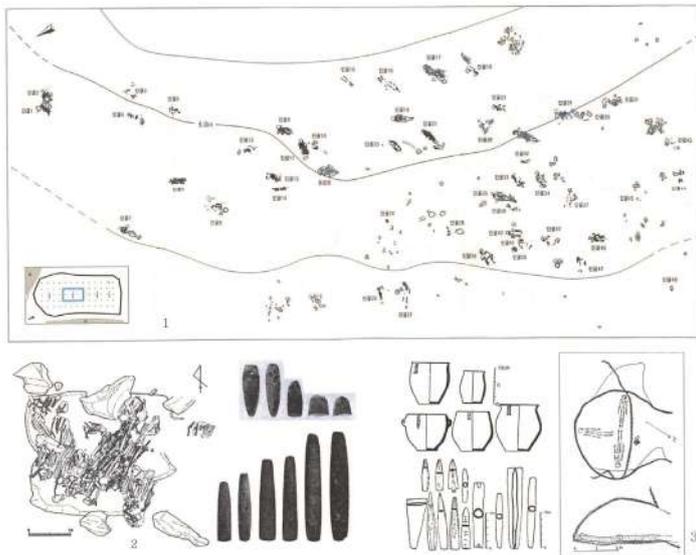


그림 2. 신석기시대 군집묘(1:부산 가덕도 장항유적, 2:울진 후포리유적, 3:춘천 교동유적)

대에 바다를 바라볼 수 있도록 두향을 설정하는 공통점이 있다(임학중 2003, 임상택 2019)고 하는데, 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장항유적에서 두향이 북쪽, 북동쪽인 경우는 머리가 바다쪽이라 눈으로 바다를 바라보는 방향은 아니다. 황철주(2022)의 지적처럼 두향은 바다가 아닌 그 너머 육지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바다 건너

1) 통영 연대도패총(국립진주박물관 1993)에서 토광묘 15기, 안도패총(국립광주박물관 2009)에서 토광묘 4기가 조사되었다. 안도패총의 경우 연대폭을 고려하면 의도적인 군집묘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 본고의 검토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연대도패총의 무덤은 주위에 다른 유구가 없어 일정한 무덤공간이 조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임학중 2008). 하지만 일부만 조사되어 주변에 다른 생활유구가 분포할 가능성이 있어서 본고의 검토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울산 처용리유적(우리문화재연구원 2012)에서 확인된 수혈 16기에 대해서는 모두 무덤이라는 견해(김은영 2022, 황철주 2022)도 있지만, 특정 유구 1기만 무덤이라는 견해(이진주 2012)도 있다. 모두 무덤이라고 하더라도 연대도패총과 동일한 이유로 검토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육지가 없는 울진 후포리유적과는 차이가 있다. 가덕도 장항유적의 무덤이 수혈식이 아니라 먼 죽음에 임박했을 때 그곳에서 편안하게(?) 머리를 육지쪽으로 향하여 임종을 맞이한 게 아닐지.²⁾

울진 후포리유적은 4.5×2.5m의 좁은 공간에서 40구 정도의 인골이 확인되었는데 집단묘라고 보기에는 인골을 순차적으로 쌓은 느낌이다. 유적 주변 일대 사람들의 죽음의 공간이었던 것 같다. 신전장인 인골은 가덕도 장항유적과 달리 두향이 바다쪽을 향한다. 가덕도 장항유적과 울진 후포리유적은 주변에 다른 무덤 유적이 없는 것으로 볼 때 특별하게 무덤공간으로만 이용된 것을 알 수 있다.

춘천 교동유적은 동굴에 신전장의 인골 3구가 발치를 모으고 90° 각도로 배치되어 있다. 너무나 정연한 양상이다. 동시에 매장되었거나 계획적으로 매장된 것이다.

이상의 세 유적에서 동일한 패턴을 찾기는 어렵다. 다만 군집묘 3곳은 모두 주거공간과 떨어진 곳에 별도로 분포한다는 점이 특징이다.³⁾ 신석기시대 군집묘에서 청동기시대의 무덤과 이질적인 차이점은 사후 이곳에 안치된 것이 아니라 무덤에서 죽음을 맞이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다.

IV. 청동기시대 군집

청동기시대는 그야말로 군집묘의 시대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무덤은 일단 군집되어 분포한다. 간혹 김천 옥률리유적(중앙문화재연구원 2008), 포항 마산리유적(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5)과 같이 1기만 발견되는 유적이 있지만 유적 전체에서 발굴된 구역이 일부라고 한다면 반드시 1기만 존재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⁴⁾ 정말로 1기만 존재했었다고 하더라도 초기철기시대 군장묘라고 할 수 있는 단독묘와는 성격이 다르다.

2) 가덕도 장항유적의 무덤이 원래 수혈식이라는 견해도 있지만 본고에서는 보고서의 판단을 존중하여 논지를 전개 하겠다. 신석기시대 무덤은 지상의 묘제나 얇은 토광묘가 중심을 이룬다는 견해(이상균 2000), 뚜렷한 굴광선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견해(임학중 2003)가 있다.

3) 가덕도 장항유적에서는 집석유구도 조사되었지만 주거와 관련된 유구는 확인되지 않았다. 집석유구는 무덤 축조 혹은 의례와 관련되어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4) 경주 월산리 산137-1번지유적(영남문화재연구원 2006), 울산 신천동유적(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10)은 석관묘나 토광묘가 각각 1기 조사되었지만 인근에 있는 구상유구가 주군묘라면 소군집이라고 할 수 있다.

청동기시대 전기에는 2~3기가 모인 소군집인데, 당시 세장방형주거 2~3동이 하나의 마을을 구성한 것과 동일한 양상이다. 하지만 무덤 1기가 1인묘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수의 구성원이 살았던 세장방형주거 1동과 무덤 1기를 직접 대입할 수는 없다. 또, 결혼과 출산 등으로 가족 구성원이 증가할 때 마을을 벗어나 분가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세장방형주거에 살던 사람들이 모두 사망하면서 그 마을 자체가 폐기되었을 것이다. 마을이 영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덤이 3기 이상 축조되지 않았던 것에 반영된다. 세장방형주거에 살던 구성원의 수를 고려하면 무덤을 축조할 수 있는 사람도 뚜렷하게 구분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전기 무덤 군집의 특징은 소군집이며 산발적이라는 점이다. 무덤 유적 간에도 기획성이나 정형성은 확인되지 않는다. 기획성이나 정형성이 확인되지 않는 것은 결국 영속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동기시대 후기가 되면 무덤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뿐 아니라 계획적·기획적으로 축조된다. 대구 월배선상지, 밀양 가인리유적(밀양대학교박물관 2004), 사천 이금동유적(경남고고학연구소 2003) 일대의 무덤 분포를 통해 살펴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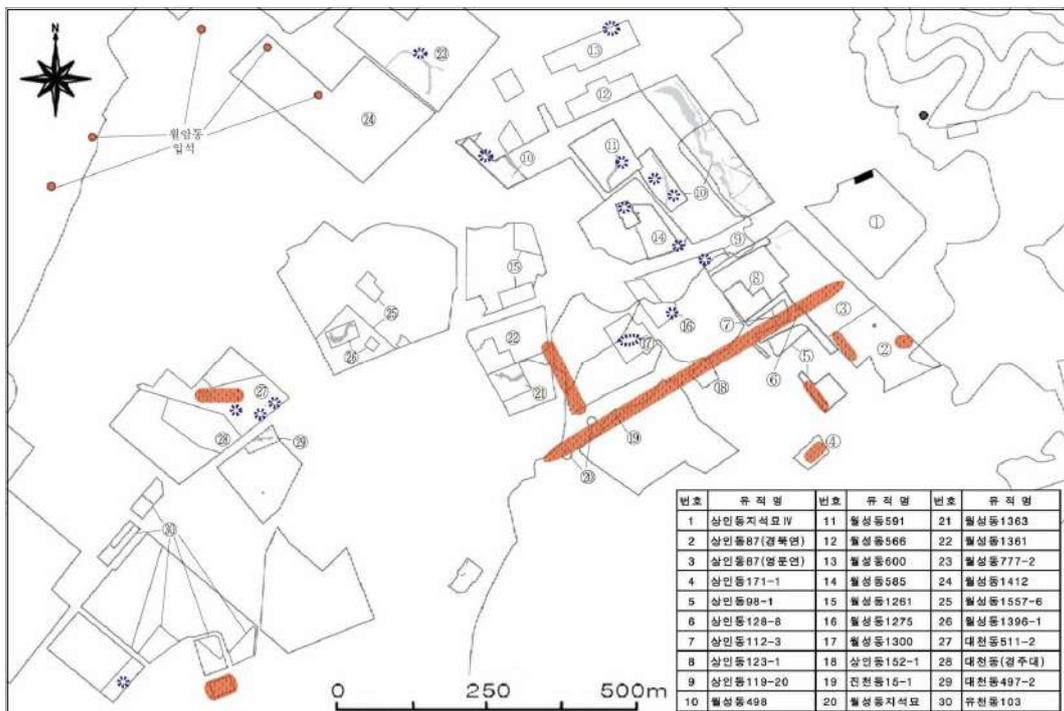


그림 3. 대구 월배선상지 일대 무덤유적 분포(이수홍 2017에서 일부 수정)(무덤 외 바탕지도는 류지환 2012 <그림 1> 참조)

대구 월배선상지 일대 유적은 넓은 면적이 발굴조사 되었고, 보고서가 간행되어 특정 지역의 양상을 파악하기에 좋은 자료이다. 월배선상지 가장 북쪽은 월암리 입석이 분포하고 남쪽에는 진천동 입석(경북대학교박물관 2000)이 위치하는데 입석은 월배선상지 가장 외곽에 위치해서 큰 영역의 경계라고 할 수 있겠다. 무덤의 분포를 보면 북동쪽의 상인동 87번지 유적(영남문화재연구원 2008)에서 남서쪽의 유천동 103유적(대동문화재연구원 2014)으로 크게 크게 열을 지어 분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열이 월성동 지석묘가 있는 곳에서 북서쪽으로 휘어져 대천동 511-2유적으로 향할 수도 있다. 이 중심열에 지석묘의 상석이 분포한다. 지석묘의 상석이 무덤열을 알리는 표상이 되었을 것이다. 월성동 600유적(대동문화재연구원 2013), 월성동 591유적(성림문화재연구원 2009), 월성동 498유적(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9), 상인동 119-20유적(대동문화재연구원 2011)에 단독으로 혹은 2기씩 분포하는 무덤이 點狀으로 분포하는 소군집인지 아니면 기존의 북동-남서축에 직교하여 북에서 남으로 이어지는 또 하나의 열상분포열의 하나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다. 월배선상지라는 큰 범위 내에서 북동-남서향으로 이어지는 주축인 거대한 열상배치에서 직교하는 방향으로 분지하여 국지적으로 분포하는 열상 대군집일 가능성이 있다.

사천 이금동유적 일대의 지석묘 분포에 대해서는 이미 김춘영(2015)이 교통로상에 무덤이 열상으로 분포한다고 하였다. 이금동유적 자체만으로도 열상분포하는 무덤군이 길이 160m에 이른다. 그림 4의 지도에서 지석묘는 와룡산 구릉의 끝자락을 따라 열을 이어 분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와룡산 자락에 지석묘가 16km에 걸쳐 이어진다고 하는데(김춘영 2015) 실제 지도의 북쪽인 진주 쪽, 그리고 남동쪽의 고성쪽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을 고려하면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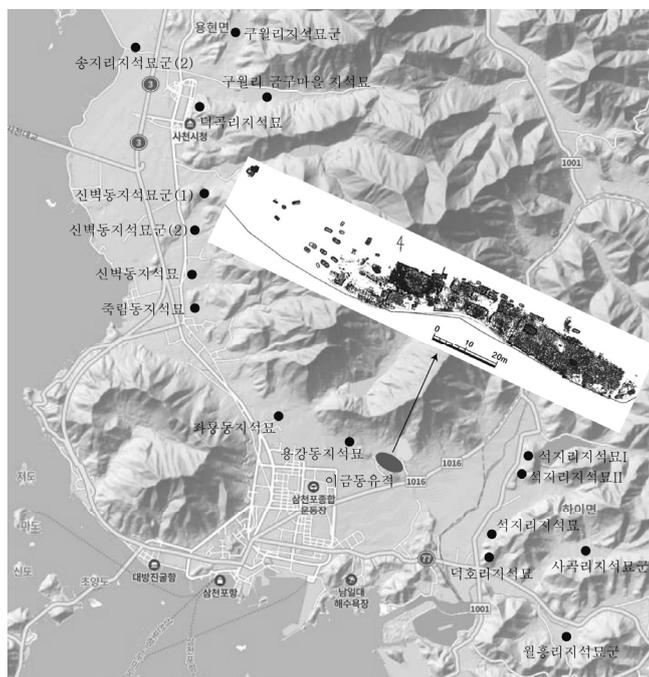


그림 4. 사천 이금동유적 일대 지석묘 분포도

십킬로미터 거리에 지석묘의 상석이 분포할 것이다. 단, 와룡산 일대 지석묘는 4~5km 간격으로 2~3기의 지석묘 상석이 분포하는 사천·진주·고성지역보다 조밀하게 밀집되어 있다고 한다(경남고고학연구소 2003). 함안의 지석묘에 대한 연구에서 한두 개의 상석 아래에 10~20여기 내외로 구성된 매장시설군이 존재한다고 하였는데(이성주 외 2022), 청동기시대 이후 유실된 상석을 고려한다면 사천에서 고성으로 이어지는 교통로 일대에는 매우 많은 무덤군이 분포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금동 일대 무덤 배치 양상도 월배선상지와 공통점이 있다. 사천에서 고성으로 이어지는 주축열에서 덕호리 지석묘에서 북쪽으로 석지리 지석묘, 석지리 지석묘Ⅱ, 석지리 지석묘Ⅰ 쪽으로 갈라진다. 주축열에서 열상으로 분지하는 모습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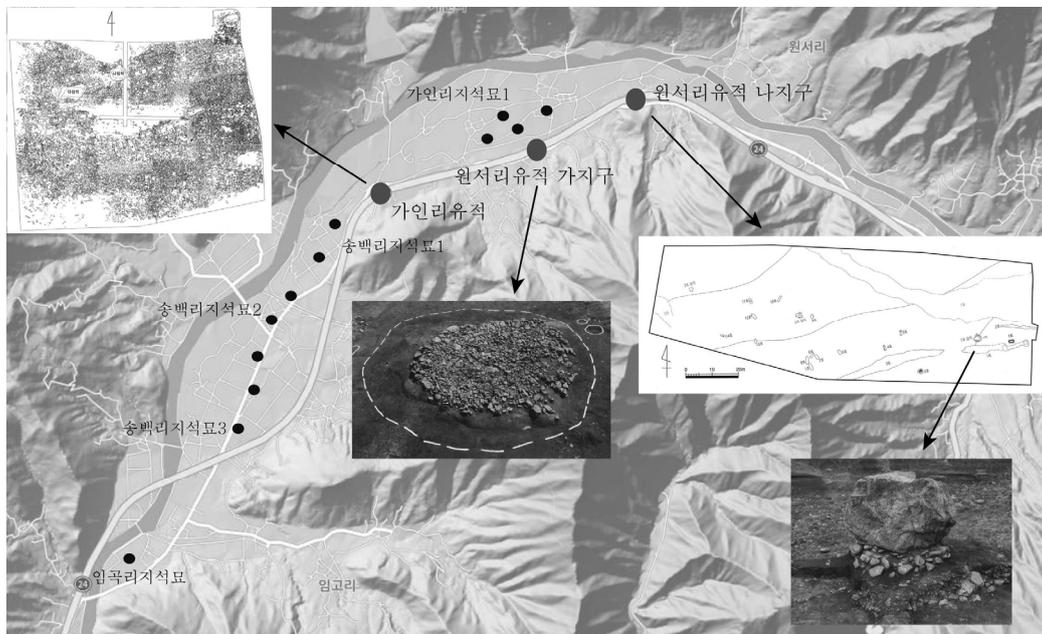


그림 5. 밀양 가인리유적 일대 지석묘 분포도

밀양 가인리유적 일대의 무덤은 상류인 얼음골에서 서쪽의 밀양강으로 합류하는 동천을 따라 무덤이 열을 지어 분포한다. 발굴조사는 가인리유적과 원서리유적(동서문화연구원 2012)이 실시되었지만 문화유적분포지도에 의하면 많은 지석묘가 분포한다. 그림 5에서 지석묘라고 알려진 것은 상석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는 훨씬 더 많은 지석묘가 분포했을 것이다. 그림의 가장 남서쪽 임곡리지석묘의 남서쪽으로 하천을 따라 가면 금곡리지석묘가

있으며 동천이 밀양강에 합류하는 지점에는 금천리유적(경남대학교박물관 2016)과 살내유적(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05)이 있다. 가장 동쪽의 원서리유적 나 지구에는 상석 3기와 석관묘 1기가 조사되었다고 보고되었다. 상석에 비해 매장주체부의 수가 적는데 필자는 수혈로 보고된 14기 대부분이 무덤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규모나 형태 등으로 볼 때 13기는 토광묘이고, 1기는 적석유구인데 역시 무덤일 가능성이 있다. 원서리유적 지구에는 원형의 적석유구 1기가 조사되었다. 직경 6m 내외로 점토를 깔아 정지한 후 그 위에 길이 4m 정도의 폭으로 돌이 깔려 있다. 시신 위에 돌을 얹어 짐승으로부터 주검을 보호하는 것은 중국에서는 신석기시대부터 행해진 방법이다(복기대 2016). 전세계적으로 행해진 장례 방법이다. 가인리유적은 상석이 3기 있었는데 상석 주변으로 석관묘 13기가 2열로 배치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⁵⁾ 이 무덤이 때로는 일렬로, 때로는 2열로 분포하고 중간중간 상석을 놓았다. 이 상석은 아래에 매장주체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일대에 무덤이 있다고 알리는 표표석의 의미일 것이다.

V. 군집묘 배치 양상과 무덤의 서열

지석묘에 대한 선행연구에 ‘기억’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한다(이성주 2012, 2019; 김종일 2015). 그것은 주거가 폐기되는 것과 달리 세월이 지나도 그 흔적이 생활면에 남아있기 때문이다. 주거는 폐기된 후 약간의 시간이 흐르면 구덩이가 매몰되어 그곳에 집이 있었다는 것조차도 전승되지 않는데 반해 지석묘나 석관묘는 상석이나 묘역 혹은 개석과 같은 시설 때문에 세월이 지나고 후손들에게 그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다. 즉 주거와 함께 동시기에 존재했었다는 것이 반드시 축조된 시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한번 축조된 무덤은 마을이 완전히 붕괴되지 않았다면 그 시기와 이후의 모든 주거와 동시기라고 사고해야 한다. 이 점을 전제로 청동기시대 군집묘의 양상에 대해 검토하고, 그에 따라 무덤의 서열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겠다.

5) 발굴조사 당시 크레인을 이용해 상석을 들어 올렸는데 지하에 매장주체부가 없고 상석 1기는 아래에 시멘트가 확인되어 모두 이동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렇다 하더라도 바로 인근에서 이동한 것이며 애초에 매장주체부 직상에 상석이 놓였던 것은 아니다.

1. 군집의 양상

무덤 분포 패턴에 대해 조미애(2016)는 선상형·환상형·부정형으로, 마이크 파커 피어슨(이희준 역 2009)은 선형적 확대유형·동심형 확대유형·분단 확대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조미애는 청도 화리유적과 대전동 511-1번지 유적의 사례를 들어 국지적인 환상형과 선상형이 동일한 묘역조성방향 내에 포함되는 것으로 설명하였는데, 광역의 범위에서 본다면 열상으로 배치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마이크 파커 피어슨은 무덤군이 확대되는 패턴을 설명하였는데 시조묘에서 한 방향으로 일률적으로 확대되는 것을 상정한 것이어서 우리나라 청동기시대 무덤배치와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최종적인 무덤 배치 결과만을 본다면 청동기시대 무덤 배치는 선형적 확대유형과 무덤군 사이에 공백이 있는 분단 확대유형이 결합된 모습이라 할 수 있겠다.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열상배치의 형태이다. 그의 동심원 확대유형은 중앙의 우월한 무덤을 중심으로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청동기시대 무덤에서는 볼 수 없다. 두 연구자가 배치 패턴을 바라보는 기준과 의미가 다르지만, 군집묘의 분포 양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참조하여 청동기시대 무덤 분포를 검토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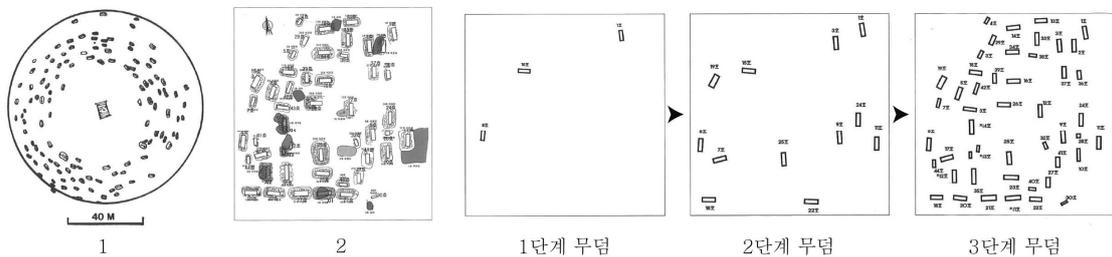


그림 6. 환상배치 무덤(1:환상 배치된 무덤군(스위스 막달레닌부르크 유적, 마이크 파커 피어슨(이희준 역) 2009), 2:대구 신서동유적 B-1구역 배치도와 무덤 축조 순서(조미애 2016))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곳의 면적이 좁은 경우에는 군집의 여부, 군집 양상을 명확하게 알 수 없다. 때로는 點狀으로, 때로는 線狀으로, 때로는 面狀으로 분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넓은 범위에서 보면 點·線·面이 결합된 형태이다. 궁극적으로 선형 배치지만 어느 정도 그룹이 있고 약간의 공백 후에 다시 무덤군이 축조되는 형태이다. 마산 진동유적(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11)은 열상배치에서 벗어나 묘구 내에서 몇 개의 대단위 군집을 이루는데(윤호필 2013) 분단확대형이라고 할 수 있다. 선형확대가 수평층서가 만들어내는 구

조라면(마이크 파커 피어슨 (이희준 역) 2009) 청동기시대
대가 평등사회라는 견해와 부합한다. 이에 비해 동심원 확대유형은 위계를 나타낸다고 한다. 조미애(2016)의 기준에 의하면 대구 신서동 B-1구역(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12), 청도 화리유적 I-A군(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13)이 환상배치인데, 하지만 위계의 중심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무덤이 뚜렷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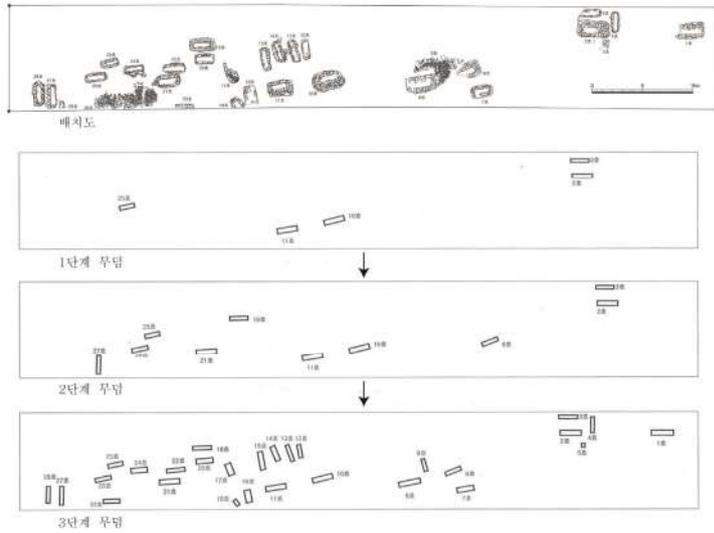


그림 7. 대구 상동1-64유적(세종문화재연구원 2012) 배치도와 축조 순서 (조미애 2016에서 수정)

게 부각되지 않아 마이크 파커 피어슨(이희준 역 2009)이 얘기한 동심형 확대유형과는 차이가 있다. 대구 신서동 B-1구역 무덤군도 중심에 있는 무덤이 2단계에 축조되었기 때문이다. 대구지역에서 환상배치형태로 보이는 무덤군 역시 조미애(2016)의 지적과 같이 광역의 범위에서 보면 선형배치된 무덤군의 일부일 가능성이 있다.

시조묘가 먼저 축조되고 난 후 시조묘에서 양 방향으로 축조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동→서 혹은 서→동이라는 한 방향으로 축조된 것은 아니다. 이미 선행연구(배덕환 2015; 조미애 2016; 이성주 외 2022)에서 지적했듯이 산발적으로 축조되어 최종적으로 선형배치의 형태로 보이는 것이다.⁶⁾

대구 월배선상지 일대의 무덤 분포를 모식도로 나타내면 그림 8과 같다. 거대한 주축열이 있고, 주축열에서 분지한 소규모의 선형 군집열이 있다. 또, 주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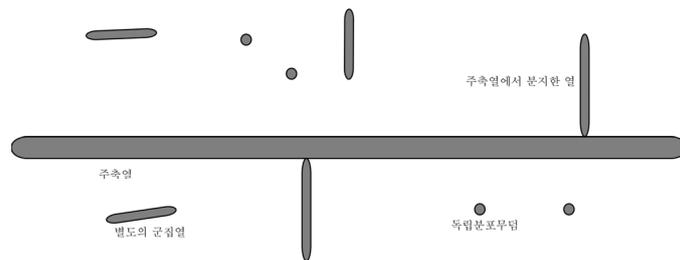


그림 8. 월배선상지 군집모 패턴 모식도

6) 필자가 이금동유적 지석묘를 조사할 당시 연접한 묘역에 세워진 포석이 놓인 양상을 관찰하여 무덤 축조 방향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나 일률적인 방향의 흐름이 간취되지 않았다.

열에서 분지하지는 않았지만 주축열과 별도로 조성된 무덤열이 있을 것이다. 그 외 독립으로 분포하는 무덤이 있는 구조이다. 이 때 분지하거나 별도로 분포하는 무덤열이 기존의 큰 친족 집단으로부터 분리해 나간 동족분화를 나타내는 건지(마이크 파커 피어슨(이희준 역 2009) 또, 독립적으로 분포하는 무덤의 피장자는 어떤 존재인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청동기시대에 주거공간과 묘역공간이 분리되었다고 하지만 배타적으로 상대의 영역을 침범하지 못하는 정도로 폐쇄적이지는 않았다. 뿐만 아니라 가옥장이 이루어졌다면 생활 공간 내에 무덤이 있는 것이다. 즉 열상배치속에 포함되는 무덤과 그 배치에 포함되지 않는 무덤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다. 주거공간이건 무덤공간이건 모두가 늘 이용하는 생활공간의 일부인 것이다. 그 공간 속에 무덤은 결코 죽음의 공간이 아닌 생자의 활동공간으로 활용되었을 것이다.

무덤 배치 중 장축방향의 차이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한다. 특히 동일한 선상으로 분포하는 무덤 군 중 장축방향이 직교하는 차이를 축조 집단의 차이, 망자의 출자의 차이, 성별의 차이, 축조 시기의 차이 등으로 해석하고자 하나 명확한 근거를 확인할 수 없다. 한 마을에서 주거 역시 장축방향이 직교하는 사례가 있다. 분명히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지만 현재로서는 직교하는 무덤이 가지는 의미를 밝힐 수 없다.

2. 무덤 피장자의 서열

필자는 청동기시대 사회는 아직까지 불평등사회의 지배자가 등장하지 않고 평등사회의 지도자가 마을을 리더하는 평등사회라고 생각한다. 평등사회라고 하더라도 청동기시대 전기의 가구장, 후기의 족장이 있었다면 어느 정도의 차이는 생활에 반영되었을 것이다. 물론 이 차이가 계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이재현 2016).

청동기시대 전기의 마을인 촌락의 지도자를 가구장, 후기 마을인 읍락의 지도자를 족장이라고 한다면(이청규 2019; 이수홍 2023) 전기의 소군집을 이루는 무덤의 피장자는 가구장의 무덤일 가능성이 높다. 주거와 무덤의 수를 감안하면 후기에 비해 무덤을 축조할 수 있는 대상이 매우 제한적인데 그만큼 땅을 굴착하여 지하에 시신을 안치하는 형태의 무덤 축조가 일반화되지 않았던 것을 의미한다.

후기의 족장과 가구장의 무덤은 열상으로 배치된 무덤열에 묻힌 피장자일 것이다. 청동기

시대 후기에는 열상무덤에 속하는 무덤에 묻히는 자, 열상무덤에 포함되지 않는 무덤에 묻히는 자, 가옥장이나 다른 형태로 시신이 처리되는 자로 구분되는건 아닐까. 가옥장으로 이용된 주거나 적석된 주거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무덤인 지석묘나 석관묘와 차이는 후대 사람들이 그 존재를 알 수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의 차이라고 생각된다. 가옥장은 돌밭적으로 생겨난 것으로 애초 무덤 혹은 마을 구성의 기회에서 제외된 유구이기 때문이다. 가옥장은 주거 폐기 후에 구덩이가 매몰되면 그것이 무덤이었다는 흔적이 곧 사라지지만 지석묘나 석관묘는 후대까지 무덤으로서의 위용을 나타내며 경관으로서 존재감을 유지한다.

Ⅶ. 군집묘의 기능과 축조의 의미

본 장에서는 개별 무덤의 기능이 아닌 군집 결과로서의 기능과 축조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개별 무덤은 시신 안치 외에도 피장자를 적극적으로 드러내며 지속적으로 의례 장소로 이용되면서, 지도자의 권위를 정당화하였을 것이다(윤호필 2009; 이성주 2012). 눈앞에 있는 현재의 건축물을 통해 경험되는 현재보다는 상상되는 과거 쪽을 더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다(마이크 파커 피어슨(이희준 역) 2009). 무덤이 군집되어 있으면 개인 보다도 우리라는 공동체의 의식, 소속감이 더 고조될 것이다. 본 장에서는 이 외에 군집된 무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용되었는지에 대해 검토하고, 군집묘가 축조되는 것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군집 결과로서의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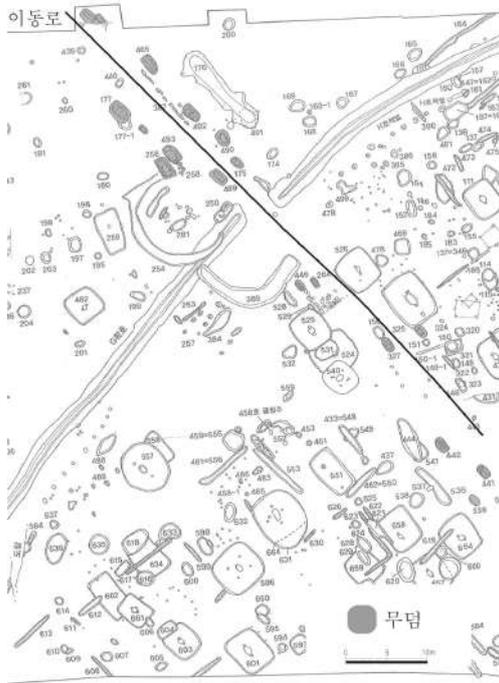
강을 따라 혹은 구릉 끝자락이 평지와 맞닿는 곳에 지석묘가 분포하는데 현재의 교통로와 비교적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청동기시대 당시에 지석묘가 분포하는 곳을 따라서 사람들이 이동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당시 사람들의 이동길이 현재의 구 국도나 지방도와 유사하다. 즉 넓은 의미의 교통로로 이용된 것이다(김춘영 2015; 이성주 외 2022). 지석묘가 교통로 상에 분포한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이영문 1993). 어쩌면 지석묘의 상석이 육지의 등대와 같은 역할을 했을 수도 있겠다.

마을 내에서의 군집묘는 단순한 승배의 대상, 의례 장소의 역할과 함께 실제로 사람들이 다니는 길로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진주 대평리유적 옥방 1지구(경남고고학연구소 2002)의 사례를 살펴보겠다. 옥방 1지구 환호 중 가장 외곽에 있는 G환호의 서쪽 출입구 내 외로는 무덤이 2열로 환호와 직교하게 축조되어 있다. 발굴 당시 당연히 환호와 중복관계라고 생각했지만 환호와 동시기에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다. 환호가 후축되었다 하더라도 선축된 무덤은 환호 축조 당시에도 지상에 노출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무덤 2열의 폭은 환호 출입구의 폭과 큰 차이가 없으며 출입구 바로 바깥에 있는 175호, 489호 무덤은 환호 굴착면 끝과 방향이 일치한다. 또 환호 내측 출입구와 가장 가까이 있는 446호와 264호 무덤은 환호 내측의 토루 범위 바로 안쪽에 있다. 이 환호는 내측에 토루를 지지하는 목책열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토루가 있었을 것이다. 무덤 2열 사이의 공간을 사람들의 이동로로 활용하지 않았을까.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멀어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지만 일본 죠포시 시대 대표집락 유적인 산나이마루야마 유적에서 이동로 양쪽에 배석묘와 토광묘가 배치된 사례가 있다(日本國立歷史民俗博物館 2001). 당시 사람들의 체격을 고려하면 무덤 열 사이 정도의 공간은 충분히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폭이 된다. 가호동유적(동서문물연구원 2011)도 동일하다. 환호 출입구 외곽에 묘역식지석묘가 5~8m 간격을 두고 마주 보고 있는데 묘역식지석묘 사이의 공간은 환호 출입구의 폭과 거의 비슷하며 출입구와 방향이 일치한다. 가호동유적은 환호 외곽에 바로 앞에 대형묘역식지석묘가 분포한다. 이동 통로로 이용되면서 마을을 지키는 벽사의 역할도 하였을 것이다. 이런 사례는 진주 이곡리유적(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2010)도 동일하다. 환호 출입구 밖에 대군집묘가 분포한다. 마치 환호 내부를 수호하는 듯이 분포하는데 무덤군은 당시에도 그런 역할을 하였다. 환호 내부의 사람들은 무덤은 보호 관리하고 무덤군은 환호 내부 사람들을 보호하였을 것이다.

무덤은 죽은 자에 대한 경외의 대상이었겠지만 결코 죽음의 공간이 아니라 산 자들에게 활용된 것을 알 수 있다.

2. 군집묘 축조의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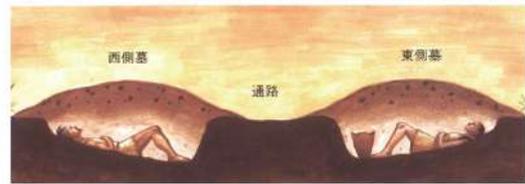
무덤 축조가 증가하였다는 것은 더욱 많은 사람이 땅에 묻혔다는 것인데 군집묘가 축조되는 것은 무엇보다 정착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동묘지는 일정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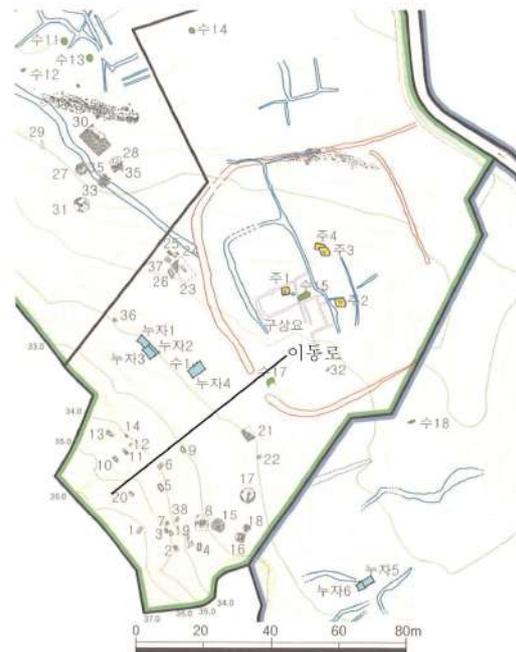
1



2



3



4

그림 9. 각종 군집묘(1:진주 대평리유적 옥방 1지구, 2:산나이마루야마유적 복원도 및 무덤과 통로 상상도, 3:진주 가호동유적, 4:진주 이곡리유적)

영역을 가지는데, 정주 농민들이 자신들의 영역 경계 위나 안에 묘지를 설치함으로써 그 영역에 대한 권리를 상징적으로 나타낸다고 한다(마이크 파커 피어슨(이희준 역) 2009).

한 장소에 무덤이 지속적으로 축조되는 것은 망자의 후손이 계속 현재의 장소에서 생활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가능하다. 무덤의 관리와 의례활동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수렵채집민과 같이 이동생활에서 외관이 뚜렷이 드러나는 무덤을 만들지 않는 것과 반대되는 이유인 것이다. 정착생활은 농경문화가 정착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중국의 작물 기원지에서는 정주성과 식물재배가 거의 동시기에 출현하였으나 2차 파급되는 주변 지역에서는 정주가 농업에 우선한다는 견해가 있다(안승모 2006). 하지만 정주가 우선한다고 하더라도 곧 작물 재배를 수용한다고 한다. 정주와 작물재배의 시간적 차이가 크지 않을 것이다.

일정한 곳의 경작지가 매년 작물 수확으로 이용된다면 굳이 이동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허구가 가미된 신화가 만들어지고 조상에 대한 숭배가 시작된다. 무덤은 그 조건에 필수적인 요소인데 군집묘는 숭배가 지속적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VII. 맺음말

이상으로 선사시대 군집묘의 양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호모사피엔스가 출현한 이후 대부분의 기간 동안 이동생활을 하였고 정착생활을 한 것은 극히 짧은 기간이었다. 우리나라로 한정한다면 안정적(?)인 정착생활을 한 기간은 대략 기원전 1,000년 전부터 20세기까지 약 3,000년 정도이다.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구석기시대가 약 50만 년 전에 시작되었다면 우리나라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이래 약 0.6%의 시간일 뿐이다. 지금 우리는 다시 이동생활이 시작되었다. 과거 인간이 식량을 찾아 이동했다면 이제는 직업을 찾아서 직장을 따라 이동한다. 현재가 정착생활이 이동생활로 바뀌는 전환기가 아닐까 싶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이동생활인지 정착생활인지 기준에 따라 다르게 느낄 수 있겠지만 적어도 무덤을 만들지 않을 정도인 것은 확실하다. 필자는 현재 울산에 살고 있는데 필자의 후손이 울산에 계속 살 가능성은 극히 낮으며, 그렇다면 당연히 무덤을 축조하지 않을 것이다.

정착생활이 이동생활에 비해 풍요롭고 안정적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다

는 견해가 많다. 정착농경생활은 기상악화에 너무나 무력하다. 또, 전염병에 취약하고 노동의 강도가 높고, 세금 징수의 의무를 져야 한다. 권력자가 나타나 사람들간의 관계는 불평등해지고, 전쟁, 학살, 약탈에 노출된다. 정착농경생활은 이동 생활에 비해 결코 풍요롭지 않았고 오히려 일반인들에게는 힘겨운 생활의 시작이었을 것이다. 군집모는 호모사피엔스가 이런 고달픈 생활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가장 상징적인 고고학적 증거이다.

□ 참고문헌 □

[논문 및 단행본]

- 김은영, 2022, 「한반도 남해안과 일본 큐슈지역 신석기시대 전반기 무덤의 비교」, 『박물관연구논집』 28, 부산박물관.
- 김종일, 2015, 「삶과 죽음의 지도화, 그리고 장(field)-고고학적 시공간, 그리고 그 안의 물질적 자취들에 대한 심층적 이해-」, 『고고학과 현대사회』, 제39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韓國考古學會.
- 金賢植, 2009, 「V. 考察」, 『蔚山中山洞藥水遺蹟Ⅱ』, 蔚山文化財研究院.
- 金春英, 2015, 「支石墓 分布를 통해 본 南海岸 各 地域의 交通路」, 『牛行 李相吉 教授 追慕論文集』, 이강길 교수 추모논문집 간행위원회.
- 류지환, 2012, 「대구 진천천 일대 청동기시대 취락의 전개과정」, 『한국상고사학보』 78, 한국상고사학회.
- 마이클 파커 피어슨(이희준 역), 2009, 『죽음의 고고학』, 영남문화재연구원, 사회평론.
- 裴德煥, 2015, 「咸安 鳳城里 靑銅器時代 무덤群 一考」, 『牛行 李相吉 教授 追慕論文集』, 이강길 교수 추모논문집 간행위원회.
- 복기대, 2016, 「요서 지역 석제무덤의 특징 연구」, 『신석기·청동기시대 동북아시아 묘제 문화 연구』, 주류성.
- 安承模, 2006, 「동아시아 정주취락과 농경 출현의 상관관계-한반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韓國新石器研究』, 韓國新石器學會.
- 安在皓, 2010, 「한반도 청동기문화의 성립과 전개」, 『선사시대의 고고학』 제4기 고고학 시민강좌. 복천박물관.
- 安在皓, 2013, 「韓半島 東南海岸圈 靑銅器時代의 家屋葬」, 『韓日聚落研究』, 韓日聚落研究會. 서경문화사.
- 俞炳球, 2010, 「豎穴建物 廢棄行爲 研究1-家屋葬-」, 『釜山大學校 考古學科 創設20周年 記念論

- 文集』, 釜山大學校 考古學科.
- 유병록, 2024, 「청동기시대 송국리문화기 입목수혈에 대한 새로운 접근」, 『嶺南考古學』98, 嶺南考古學會.
- 윤호필, 2009, 「青銅器時代 墓域支石墓에 관한 研究」, 『慶南研究』創刊號,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 윤호필, 2013, 「축조와 의례로 본 지석묘사회 연구」, 목포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李相均, 2000, 「韓半島 新石器人의 墓制와 死後世界觀」, 『古文化』56, 韓國大學博物館協會.
- 李盛周, 2012, 「儀禮, 記念物, 그리고 個人墓의 발전」, 『湖西考古學』25, 호서고고학회.
- 이성주, 2019, 「기억, 경관, 그리고 기념물 축조」, 『문헌 표상, 드러나는 가치 구산동 고인돌』, 김해 구산동 지석묘 사적지정을 위한 학술대회, 김해시·경남연구원 역사문화센터.
- 이성주·김태희·이수정, 2022, 「지석묘의 축조와 경관의 역사」, 『韓國青銅器學報』31, 韓國青銅器學會.
- 李秀鴻, 2010, 「蔚山地域 青銅器時代 周溝形 遺構에 대하여 -周溝墓의 흐름과 關聯하여-」, 『釜山大學校 考古學科 創設20周年 記念論文集』, 釜山大學校 考古學科.
- 李秀鴻, 2012, 「青銅器時代 檢丹里類型의 考古學의 研究」, 釜山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 이수홍, 2017, 「대구지역 청동기시대 취락에서의 무덤 축조 변화 -월배지역 적석유구와 적석주거지를 검토하여-」, 『대구·경북의 지석묘 문화』, 영남문화재연구원.
- 이수홍, 2023, 「청동기시대~원삼국시대 수장 권력 변화와 다호리 군장의 특징」, 『야외고고학』38, 한국문화유산협회.
- 李榮文, 1993, 「全南地方 支石墓 社會의 研究」, 韓國教員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 이재현, 2016, 「진·변한사회의 계층분화 과정과 양상」, 『辰·弁韓 '國'의 形成과 發展』, 제25회 영남고고학회 정기학술발표회 자료집, 嶺南考古學會.
- 이진주, 2012, 「VI. 맺음말」, 『울산 처용리 21번지 유적』, 우리문화재연구원.
- 이청규, 2019, 「수장의 개념과 변천:영남지역을 중심으로」, 『영남지역 수장층의 출현과 전개』, 제28회 영남고고학회 정기학술발표회 자료집, 영남고고학회.
- 임상택, 2019, 「무덤으로 본 新石器時代 漁撈民의 海洋景觀 構築」, 『고고학지』25, 국립중앙박물관.
- 任鶴鐘, 2003, 「南海岸 新石器時代의 埋葬遺構」, 『先史와 古代』18, 韓國古代學會.
- 任鶴鐘, 2008, 「新石器時代의 무덤」, 『韓國新石器研究』15, 韓國新石器學會.
- 조미애, 2016, 「경북지역 청동기시대 무덤의 배치양상」, 『경북지역 청동기시대 무덤』, 학연문화사.
- 하인수, 2018, 「부산의 신석기문화」, 『부산의 고고학』, 제11기 고고학 시민강좌 자료집, 복천박물관.
- 황철주, 2022, 「동해에 인접한 극동아시아 신석기시대 매장 관습과 사회상」, 『韓國新石器研究』43, 한국신석기학회.

[보고서 및 도록]

- 慶南考古學研究所, 2002, 『晉州大坪里玉房1·9地區無文時代集落』.
- 慶南考古學研究所, 2003, 『泗川 梨琴洞 遺蹟』.
- 慶南大學校博物館, 2016, 『密陽 琴川里 遺蹟』.
- 慶南發展研究院 歷史文化센터, 2005, 『密陽 살내遺蹟』.
- 慶南發展研究院 歷史文化센터, 2011, 『馬山 鎮東 遺蹟Ⅱ』.
- 慶北大學校博物館, 2000, 『辰泉洞·月城洞 先史遺蹟』.
-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5, 『浦項 馬山里古墳群』.
-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9, 『大邱 月城洞 498番地 遺蹟』.
- 國立慶州博物館, 1991, 『蔚珍 厚浦里遺蹟』.
- 국립광주박물관, 2009, 『安島貝塚』.
- 國立晉州博物館, 1993, 『煙臺島 I』.
- 大東文化財研究院, 2011, 『大邱 上仁洞 119-20遺蹟』.
- 大東文化財研究院, 2013, 『大邱 月城洞 600遺蹟』.
- 大東文化財研究院, 2014, 『大邱 流川洞 103遺蹟』.
- 東西文物研究院, 2011, 『晉州 加虎洞遺蹟』.
- 東西文物研究院, 2012, 『密陽 院西里遺蹟』.
- 東亞細亞文化財研究院, 2010, 『晉州 耳谷里 先史遺蹟Ⅱ』.
- 密陽大學校博物館, 2004, 『佳仁里遺蹟』.
- 聖林文化財研究院, 2009, 『大邱 月城洞 591番地 遺蹟』.
- 世宗文化財研究院, 2012, 『大邱 上洞 1-64番地 遺蹟』.
- 嶺南文化財研究院, 2006, 『慶州 月山里 山137-1番地遺蹟』.
- 嶺南文化財研究院, 2008, 『大邱 上仁洞 87番地遺蹟』.
- 嶺南文化財研究院, 2009, 『大邱 大泉洞 511-2番地遺蹟』.
- 우리문화재연구원, 2012, 『울산 처용리 21번지 유적』.
- 中央文化財研究院, 2008, 『金泉 玉栗里·南山里遺蹟』.
- 한국문물연구원, 2014, 『釜山 加德島 獐項遺蹟』.
- 韓國文化財保護財團, 2010, 『蔚山 新泉洞 遺蹟』.
-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12, 『大邱 新西洞 遺蹟』.
-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13, 『淸道 華里 遺蹟』.
- 日本國立歷史民俗博物館, 2001, 『繩文文化の扉を開く 三内丸山遺迹から繩文列島へ』.

『선사시대 군집묘 양상의 변화와 그 의미』에 대한 토론문

윤 호 필
| 상주박물관 |

발표문은 청동기시대 군집묘를 중심으로 신석기시대부터 원삼국시대까지 군집묘의 변화와 그 의미를 검토하신 것으로 무덤군을 거시적 관점에서 흐름을 잘 정리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발표문의 내용에서 시대별 무덤군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 연구자가 검토한 바가 있으므로 발표문을 읽으면서 기존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궁금했던 점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군집묘의 분류에 대한 질문입니다. 발표자는 군집묘의 정의를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 여러 개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을 말하며, 단독으로 분포하는 1기의 무덤이 아닌, 두 기 이상의 무덤이 모여 있는 것을 군집묘’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군집묘의 분류를 무덤 수량으로 구분하였는데, 2~3기의 군집을 소군집, 4기 이상을 대군집으로 나누었습니다. 군집 양상을 무덤 수로 구분하는 것은 동의하는 방법이지만, 기준이 되는 수량은 언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발표문의 뒷부분에서도 언급하셨지만, 군집묘의 또 하나의 특징은 한 공간에서 무덤이 지속적으로 조성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2~3기의 무덤 조성만으로 지속성을 가진 무덤군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하며, 대군집의 기준을 무덤 수 4기로 하였는데, 대군집이라는 용어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4기를 기준으로 소군집과 대군집으로 구분한 근거나 이유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II장의 신석기시대~원삼국시대 군집묘의 변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신석기시대 이후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군집묘의 변화를 ‘소군집-대군집-단독묘-대군집’으로 파악하셨는데, 토론자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발표자의 군집묘 분류 형식을 보더라도 신석기시대

에도 대군집(부산 가덕도 장항유적)이 확인되며, 이후에도 같은 시대 안에서도 다양한 군집 형태가 확인됩니다. 이는 취락의 규모나, 무덤조성의 전통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시대 별로 군집묘의 양상을 정의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림1>을 보면 초기철기시대에 단독묘가 출현하는 것으로 보셨는데, 이러한 단독묘의 출현은 인정되지만 초기철기시대의 보편적인 양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단독묘를 시대를 대표하는 양상으로 볼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보충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IV장 청동기시대 군집에서 청동기시대 전기의 무덤군에 대한 질문입니다. 발표자는 전기의 소군집이 나타난 이유가 세장방형주거지에 살던 사람들이 모두 사망하여 마을이 폐기되었기 때문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설명은 조금은 극단적인 설명으로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취락내 거주 인원 모두의 사망은 자연사보다는 질병이나 외부공격 등의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고고학적 증거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망보다는 주민의 이동에 따른 거주지의 변경이나 무덤 조성의 방식(장제)에 따른 양상으로 파악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번째는 같은 IV장 청동기시대 군집 내용 중 밀양 가인리 일대 무덤 설명에 대한 질문입니다. 발표문의 설명에서 이 일대가 상석의 수에 비해 매장주체부의 수가 적은 것을 볼 때, 주변에 분포하는 14기의 수혈이 무덤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고 이중 13기는 토광묘, 1기는 적석묘로 파악하였습니다. 이러한 설명은 발표자가 자세히 검토하여 내린 결론이겠지만, 정황 증거보다는 더 객관적인 고고자료 제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혈과 무덤은 전혀 다른 성격의 유구이기 때문에 유구의 성격에 따라 유적의 성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발굴조사를 담당하는 조사자도 조사과정에서 다양한 고민을 했을 것으로 생각되며, 수혈로 보고한 것은 나름의 이유와 무덤으로 볼 근거나 자료가 부족해서 내린 결론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보충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V장 군집묘 배치 양상과 무덤의 서열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군집 양상은 여러 형태가 있지만, 크게 보면, 선상(열상)과 환상(동심원, 부정형)으로 구분될 것 같습니다. 이는 기 연구성과에서도 확인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하나의 무덤군만을 보면, 대부분이 일정한 패턴을 가진 정렬된 상태로 배치된다고 생각합니다. 묘구라는 일정한 공간내에서

공간활용과 시간성이 반영된 결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표자는 기 연구성과를 자세히 검토하셨는데, 내용적으로는 발표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한국 청동기시대 무덤의 군집양상의 특징과 그것이 나타내는 의미를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덤 피장자의 서열에 대해서는 발표자의 의견대로 ‘평등사회’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무덤군의 양상만으로 사회발전단계를 단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발전단계의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문제 이지만, 평등사회와 불평등사회의 기준을 어떻게 보면 되는지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여섯째는 VI장 군집묘의 기능과 축조의 의미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군집 결과로서의 기능으로 ‘교통로’ 기능을 설명하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자의 연구성과가 있으며, 이에 대한 의미도 많은 연구자가 제시하였습니다. 발표자도 기존의 연구성과와 같은 견해를 제시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마을과 마을을 이어주는 교통로와 더불어 마을내에서도 교통로(마을길)의 기능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발표자의 이러한 견해는 일부 군집묘에서는 가능한 부분도 있겠지만 보편적인 무덤군에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동기시대 후기가 되면, 무덤조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이에 따른 주거공간과 무덤공간의 분리도 본격화 되며, 이와 더불어 의례공간, 저장공간, 생산공간 등 마을내 공간 분할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마을내 길의 조성은 공간과 공간 사이에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으로 생각되는데, 무덤공간인 무덤군 자체가 마을내 교통로로 이용되는 것은 보편적 기능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발표문은 청동기시대 지식묘를 중심으로 검토하시고 설명하셨는데, 지식묘를 중심으로 한 군집묘 이외에 석관묘만 있는 군집묘도 많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양자간의 군집묘의 차이나 성격에 대한 보충 설명과 발표문에는 없지만 초기철기시대 군집양상에 대해서도 간략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남지역 원삼국시대 분묘군의 전개와 특징

박 장 호
| 경산시청 |

〈 목 차 〉

- | | |
|-----------------------|------------------------|
| I. 머리말 | III. 원삼국시대 분묘군의 전개와 특징 |
| II. 원삼국시대 분묘군의 현황과 양상 | IV. 맺음말 |

I. 머리말

영남지역의 원삼국시대 분묘는 구덩이를 파서 시신을 안치하는 토광묘가 일반적이며 매장주체부의 구조를 통해 목관묘와 목곽묘, 옹관묘로 구분한다.

원삼국시대는 일반적으로 서기전 100년부터 서기 300년까지로 보며 서기 150년을 중심으로 그 이전을 전기, 그 이후를 후기로 구분하는데(영남고고학회 2015), 목관묘는 전기단계(서기전 2세기 중엽~서기 2세기 중엽)를 대표하는 묘제이고, 목곽묘는 후기단계(서기 2세기 중엽~3세기 후엽)를 대표하는 묘제라 할 수 있다.

원삼국시대 분묘의 연구는 목관묘와 목곽묘에서 출토된 유물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의 형성, 전환기 양상 등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무덤과 분묘(군)에 대한 연구는 구조적인 문제를 논의하는 것 외에는 크게 많지 않고 대체로 보고서 고찰 등에서 구조와 장축방향, 입지조건 등에 대해 언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근 한국고고학에서 원삼국시대 분묘에 대한 연구가 많지는 않은 편인데, 특히 평면형태, 부장양상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고, 영남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기에 본 발표에서는 영남지역의 원삼국시대 분묘를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지역적인

검토가 아닌 전체적인 양상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특히 목관묘는 장축방향이 등고선과 직교하고 목곽묘는 등고선과 평행하게 조영된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장축방향과 등고선방향이 관계성은 두향이나 지형적인 특징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렇기에 전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입지적인 양상과 구조적인 부분이 목관묘와 목곽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전반적인 양상의 검토를 통해 목관묘시기와 목곽묘시기의 특징을 검토하여 정리해 보고자 한다.

Ⅱ. 영남지역 원삼국시대 분묘 현황과 양상

1. 목관묘와 목곽묘의 분포

1) 목관묘

영남지역에서 원삼국시대 목관묘는 땅에 구덩이를 파고 나무관에 시신을 담아 묻은 무덤(영남고고학회 2015)으로 초기철기시대부터 영남지역에 출현하여 원삼국시대 전기에 급격히 목관묘의 수가 증가하다가 원삼국시대 후기에 목곽묘로 거의 대체된다. 원삼국 전기에는 목관묘가 주로 사용되지만 대구 신서동유적을 중심으로 명확하게 관곽형태의 목곽묘가 일부 확인되는 것이 특징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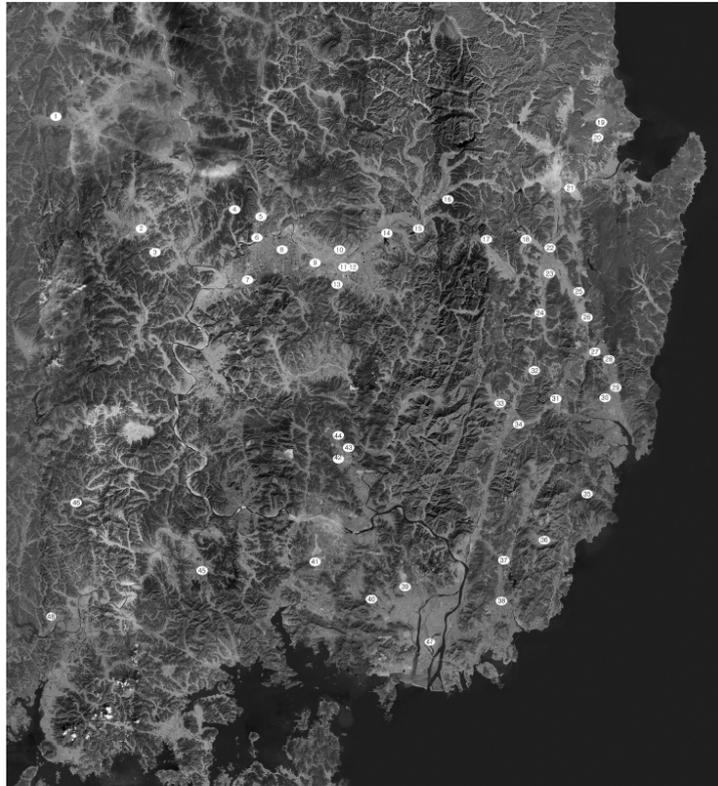
목관묘의 분포는 대체로 낮은 구릉이나 충적대지에 군집하여 분포한다. 특히 큰 강을 중심으로 분포하는 것이 특징적인데 경북북부지역을 제외하면 거의 전역에서 확인된다고 할 수 있다. 금호강과 낙동강, 형산강 등을 따라 분포하는 양상이 관찰된다. 서부경남지역의 경우 최근 목관묘가 발굴되는 사례가 확인되었지만 금호강과 낙동강 등의 주변에 비하면 많이 확인되는 편은 아니다.

목관묘가 많이 분포하는 지역은 대체로 대구, 경산, 성주, 영천, 경주, 울산 등 금호강과 형산강, 동천 등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이 다수의 유적이 분포하고, 밀양, 창원, 함안, 김해 등 낙동강 하류와 밀양강 등의 지류를 중심으로 다수의 유적이 확인되는 양상이 보인다.

현재까지 목관묘가 분포하는 양상을 보면 지역거점과 그 주변의 소규모 군집묘들로 구분

할 수 있으며 소규모라고 하더라도 약 8km 정도의 일정범위를 두고 영역권을 형성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주로 분포하는 위치는 하천을 중심으로 하는 주요 교통로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통로가 잘 보이는 완만한 구릉 사면부에 분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경향은 최근 경주지역의 목관묘를 중심으로 한 연구를 통해 명확히 확인 할 수 있는데 목관묘의 분포가 하천과 그 지류를 따라 분포하며, 시간이 흐를수록 그 영역이 넓어지는 것이 확인된다는 것이다(이창희 2019). 이를 통해 볼 때 목관묘가 하천과 그 지류를 따라 분포하는 것은 하천이 교통로적인 역할을 하였고 그 교통로를 따라 물류의 이동이 활발히 이루어졌기에 세력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1.김천 문당동 2.성주 예산리 3.성주 장학리 장골 4.칠곡 심천리 5.대구 학정동 6.대구 팔달동 7.대구 팔성동 777-2 8.대구 대현동 9.대구 가현동 10.대구 신서동, 동내동 11.경산 임당동 12.경산 신대리 13.경산 옥곡동 14.경산 내리리 15.영천 어은동 16.영천 용전리 17.경주 사리리 18.경주 하구리 19.포항 옥성리 20.포항 성곡리 21.경주 인동리 22.경주 황성동 23.경주 탑동 24.경주 덕천리 25.경주 조양동 26.경주 북토리, 죽동리 27.경주 문산리 28.울산 중산동 547-1 29.울산 창평동 30.울산 장현동 31.울산 다운동 32.울산 하상정 33.울산 향산리 청룡 34.울산 신화리 35.울산 대안리 36.기장 방곡리 37.부산 노포동 38.부산 북천동 39.김해 대성동, 구지로, 가야의 숲 40.김해 양동리 41.창원 다호리 42.밀양 제대리 43.밀양 교동 44.밀양 춘화리 45.함안 도항리 46.함천 상가 47.동래 온천동 48.진주 청촌리

도면 1. 영남지역 원삼국시대 목관묘 분포(정인성의 2012)

2) 목곽묘

원삼국시대 목곽묘는 시신을 담은 관의 바깥에 관이나 부장품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목곽이 있는 무덤이다. 전형적인 목곽묘는 관과 곱을 모두 갖춘 것이지만, 부식으로 인해 관과 곱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목관이 없이 목곽만 있는 경우도 있다. 목곽묘의 규모는 목관묘보다는 크지만 목관묘와 비슷한 크기를 가지는 목곽묘도 확인된다(영남고고학회 2015).



도면 2. 원삼국시대 목곽묘의 분포(윤은식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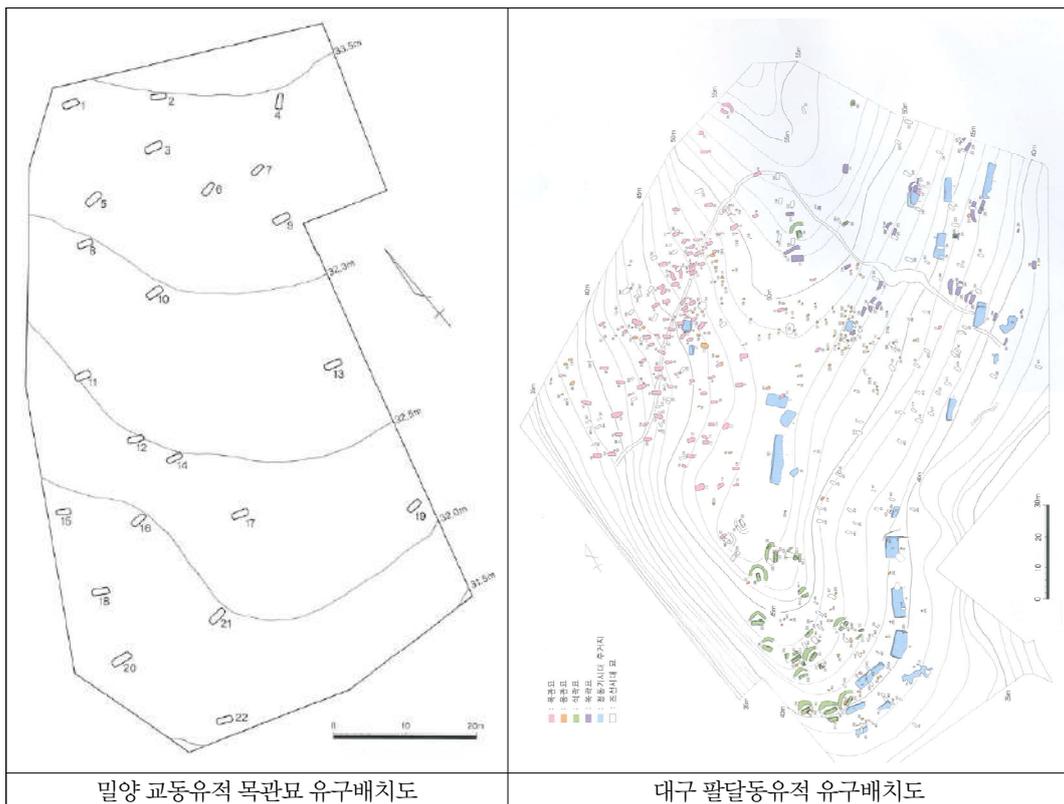
목곽묘의 분포는 기존의 목관묘를 조영하는 집단에서 발전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다. 주요유적으로는 경산 임당유적, 대구 팔달동유적, 경주 황성동유적, 경주 조양동유적, 포항 옥성리유적, 김해 양동리유적, 거창 정장리유적, 진주 창천리유적 등이 있다. 목관묘와 마찬가지로 영남지역 전역에서 확인되지만 창원 다호리유적같이 목관묘가 조영되는 지역에서 반드시 목곽묘가 조영되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목관묘보다 유적의 수가 확실히 줄어드는 양상이 확인된다. 특히 서기 2세기대 대형 목곽묘는 대체로 형산강을 중심으로 하는 동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확인되는 편이다.

2. 무덤의 입지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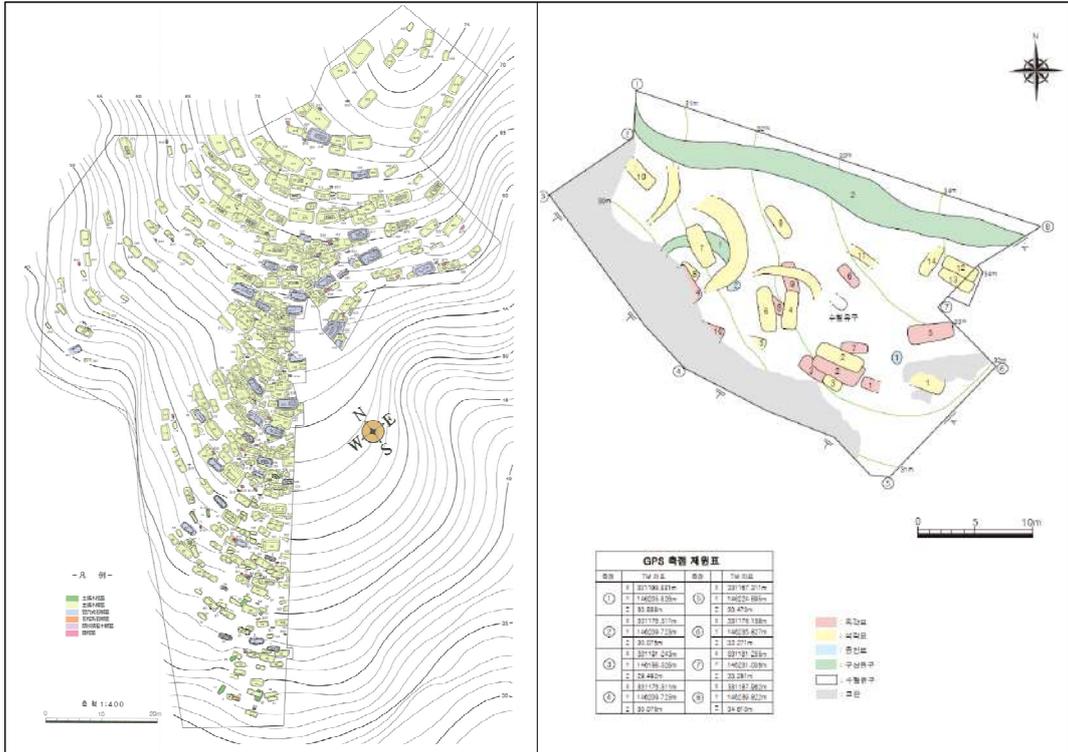
1) 목관묘와 목곽묘의 입지

목관묘는 대체로 구릉사면부에 대규모로 군집하는 양상과 소규모 군집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군집되는 양상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긴하지만 목관묘가 위치하는 입지는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무덤이 주로 조영되는 장소는 구릉 사면부 남서사면이나 남동사면에 주로 조

영되는 편이다. 일반적으로 장축방향은 등고선방향과 직교하는 편이지만 장축방향이 동-서 방향을 지향하기에 지형적으로 등고선방향과 직교되게 설치되는 편이라고 생각한다. 주로 목관묘가 많이 확인되는 지역의 북동-남서방향이 많은 편이며 지형에 따라 북쪽으로 치우치거나 남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동-서방향을 따라 조영된다고 할 수 있다. 두향도 동쪽으로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표적인 목관묘 유적인 밀양 교동유적과 대구 팔달동유적의 유구배치도를 보면 반드시 목관묘의 장축방향이 등고선과 직교하는 것은 아님을 확인 할 수 있다. 오히려 등고선 방향보다 장축방향을 동-서방향으로 하는 경향이 더 강하다는 것이 확인된다. 지형적인 여건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머리를 동쪽으로 두는 의례적 풍습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니 구릉의 등고선 방향과 직교하게 무덤을 썼을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렇기에 이러한 풍습적인 영향이 장축방향을 동-서방향으로 하여 무덤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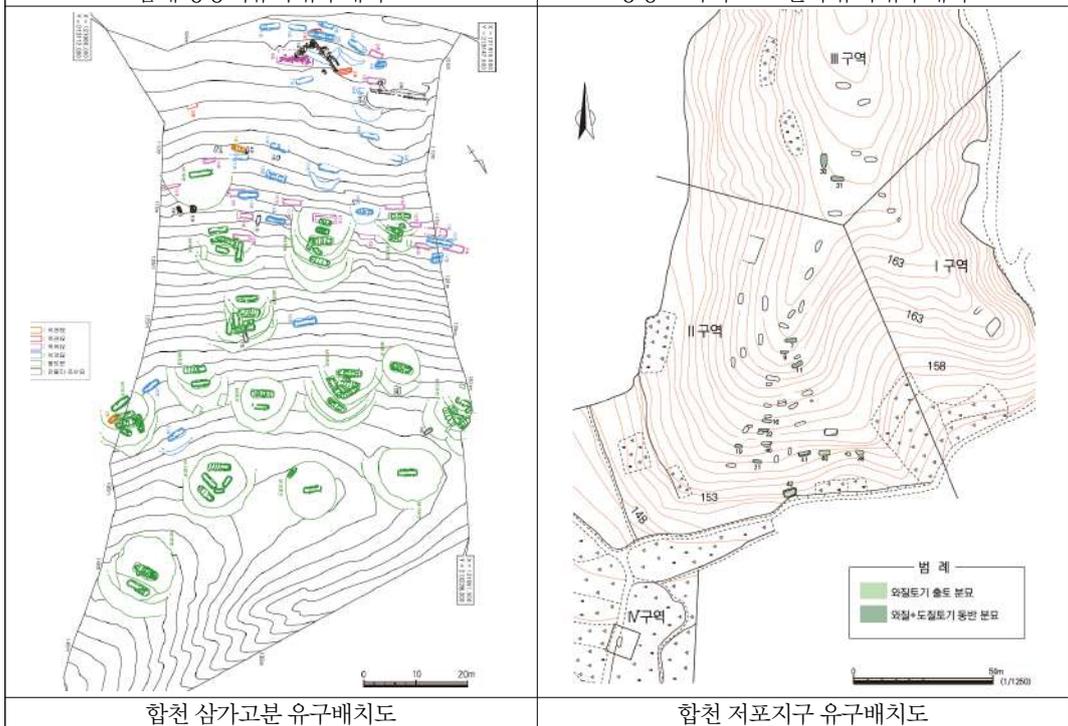


도면 3. 주요 목관묘 유구배치도



김해 양동리유적 유구배치도

창녕 초곡리 1002번지 유적 유구배치도



합천 삼가고분 유구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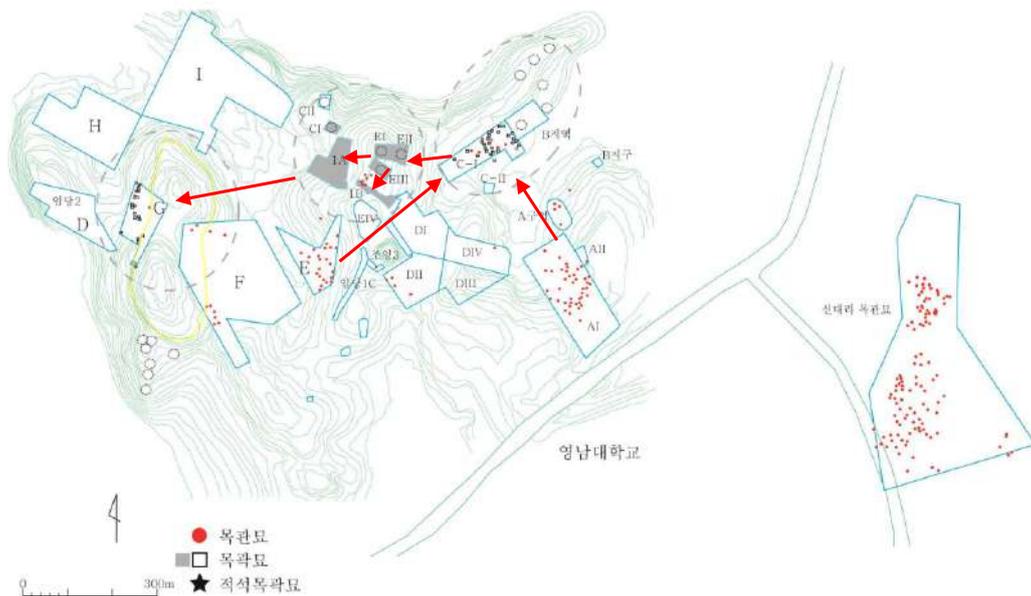
합천 저포지구 유구배치도

도면 4. 주요 목곽묘 유구배치도

목곽묘는 구릉사면부와 구릉정상부에 주로 분포하는데 시기가 뒤로 갈수록 정상부를 향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주부곽식의 목곽묘일 경우 대체로 구릉정상부에 입지하고 있다. 구릉 하단부에서 조영되기 시작해서 정상부로 시기에 따라 올라가는 양상을 많이 볼 수 있다. 목곽묘는 일반적으로 장축방향은 동-서방향으로 등고선방향과 평행하게 조영되는데, 동-서 방향도 아니고 등고선방향과 직교하는 경향도 관찰된다. 목관묘가 두향을 동쪽으로 두는 동-서 방향을 지키는 것이 많다면, 목곽묘는 기존의 규칙을 따라가긴 하지만 오히려 동고선방향인 능선사면부를 따라 이동하며 조영하는 양상도 다수 확인되고 있어 두향을 동쪽으로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형적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2) 목관묘와 목곽묘의 선호입지

원삼국시대 목관묘와 목곽묘가 구릉 말단부와 사면부에 무덤을 조영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대체로 목관묘와 목곽묘가 비슷한 위치에 조영되기도 하지만 지역을 달리하며 조영되는 지역도 확인된다. 이러한 양상이 대표적으로 확인되는 지역은 조사가 많이 이루어진 지역일 수 밖에 없고 그렇기에 대규모의 조사가 이루어진 경산 임당유적



도면 5. 경산 임당유적 목곽묘의 분포와 시기별 위치 변화(윤운식 2019, 전재후 수정)

이나 포항 옥성리유적 등과 같은 지역에서 이러한 무덤의 이동과 선호하는 입지가 대략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

그렇기에 먼저 임당유적의 목곽묘 축조 순서를 시기적으로 살펴보면 시기별로 선호되는 지구가 관찰된다. 이러한 현상은 목관묘시기부터 보이는데 목관묘는 임당유적 중앙부에서부터 점차적으로 동쪽으로 이동해가는 사실을 확인되고, 목곽묘도 임당유적의 동쪽에 해당하는 C-I 지구에서 중앙부 북쪽에 해당하는 E I, E II, E III 지역 및 주변지역, 서쪽에 해당하는 G 지구 등으로 분묘군의 입지가 변화한다. 이러한 양상은 분묘의 축조가 순차적으로 임당유적의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으며, 무덤 축조 지역의 변화는 목관묘부터 이어져 오는 것으로 목관묘 조영집단과 목곽묘 조영집단이 이질적인 집단이 아님을 반증해 주는 자료로서 보고 있다(장용석 2001).

임당유적의 목곽묘 축조 위치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서기전 2세기부터 조영되기 시작하여 서기 2세기 전중엽까지 목관묘는 F 지구와 G 지구에서 시작하여 A 지구와 E 지구, 신대리일원에 조영되는 것이 관찰되다가 C-I 지구에서 목관묘가 일부 확인되는 것을 마지막으로 2세기 중후엽에는 목곽묘가 C-I 지구에서 집중적으로 확인되다가 조영동 고총이 있는 E I, E II, E III으로 이동하는 것이 서기 3세기 전엽에 보이고 서기 3세기 후엽부터는 조영1B 지역으로 확장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이후 서기 4세기 전엽에는 조영1A 지역과 압량 배수지, 임당1A 지역, G 지구로 무덤 축조 위치를 이동하는 양상이 확인된다.

이러한 지구별 축조 위치의 이동은 목관묘시기부터 동일한 축조집단의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하며 그 이후 고총단계까지 이어지는 단절 없는 꾸준한 무덤 축조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축조 위치의 변화는 시기별로 선호하는 위치가 달랐음을 말해준다고도 할 수 있다. 목관묘가 위치하는 지구와 목곽묘가 위치하는 지역은 지형적으로 보았을 때 다르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목관묘가 위치하는 A 지구와 C-I 지구 고도차이가 많이 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상대적으로 목관묘의 조영위치보다 높은 지역에 위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A 지구에서 C-I 지구까지는 중간에 곡부가 위치하고 있지만 서서히 올라가는 지형임을 알 수 있다. 또한 E I, E II, E III은 임당구릉 북쪽에서 가장 높은 지역으로 이후에는 고총이 들어섬으로써 파괴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다. 그리고 금호강이 내려다보이고 주변의 상황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전망이 가장 좋은 지역이기도 하다.

기존의 목관묘가 조영되어 있는 위치와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해 지역을 선정하였을 수도 있지만 그것과 함께 작용하였던 것이 지형적으로 높은 쪽을 선호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다른 무덤은 크게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유독 목곽묘만이 심하게 파괴된 배경에는 지형적 선호도가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포항 옥성리와 남성리고분군도 비슷한 양상이 확인되는데 옥성리의 목관묘와 목곽묘의 배치를 보면 조영되는 지역이 구릉을 달리하며 분포하는 양상이 보이는데 이때 목곽묘의 양상도 임당유적과 같이 목관묘가 위치하는 지형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곳에 분포하며 시대가 변화할수록 구릉정상부를 지향한다는 점이다. 특히 옥성리유적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주부곽식의 대형 목곽묘는 남성리유적의 구릉정상부에 위치하고 있었고 최정상부에는 가장 높은 위계의 무덤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에 목관묘와 목곽묘가 지형적으로 비슷한 위치에 조영되는 것은 맞지만 상대적으로 목곽묘가 목관묘에 비해 높은 곳에 조영되는 경우가 많고 대형의 주부곽식 목곽묘는 구릉 정상부를 찾아 이동하는 양상으로 변화한다.

3. 무덤의 구조와 유물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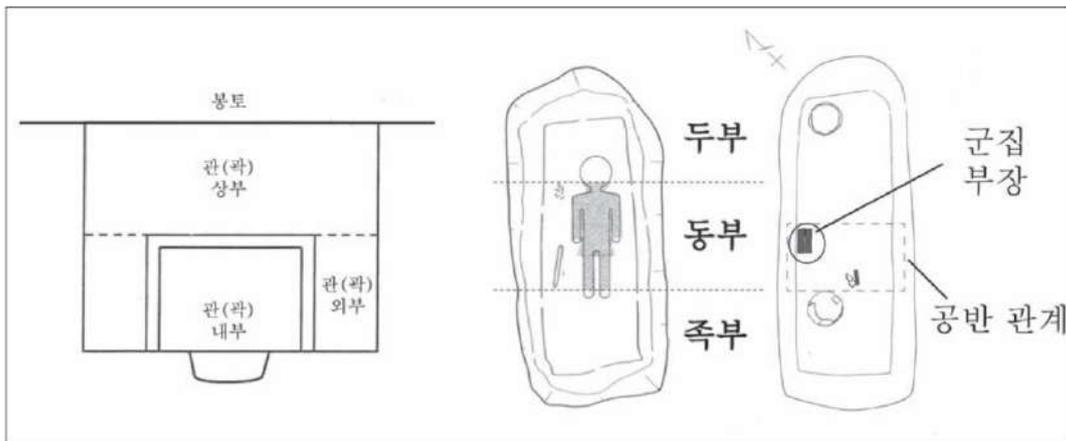
1) 목관묘

목관묘는 장방형의 구덩이를 파고 통나무관이나 판재식관을 안치(설치)하는 무덤으로 묘광은 1단이 대부분이지만 2단으로 판 것도 있다. 목관 밖에는 충전토를 두어 목관의 흔들림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였으며, 묘광상부에 목개를 두었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목관상부를 비워두었는지 채웠는지에 대해 여러 논의가 있지만 최근 경산 양지리 1호묘의 토층양상에서는 목관상부를 채웠던 흔적이 확인되어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목관묘에는 특이시설이 하나 존재하는 목관 아래에 요갱을 파고 유물을 부장하는 경우가 있으며, 형태는 부정형, 원형, 방형 등이 있다. 창원 다호리유적 1호의 사례를 통해 대나무 바구니에 청동무기와 동경와 철기, 붓, 대구 등의 위세품을 부장한 사례가 있으며, 경산 양지리 1호 사례처럼 방형의 철기에 동모와 동모집, 철과와 과집, 철기 등이 부장되기도 한다. 주로 중요하게 생각하던 기물들을 부장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요갱에 유물을 넣는 것은 제의적 행위 중에서도 벽사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보고 주로 토지신에 대한 제의적 행위로 알려

져 있다(김진성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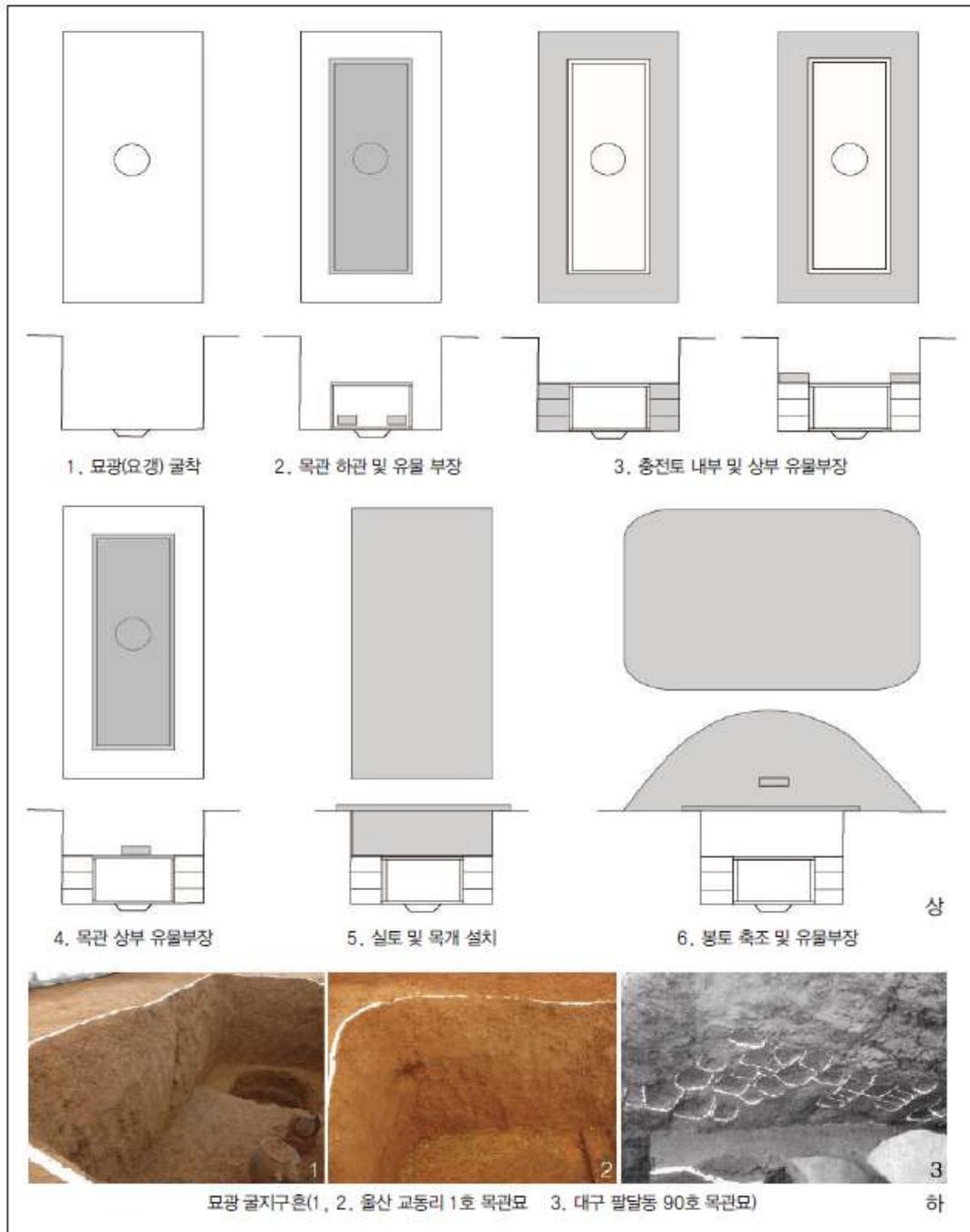
목관묘에 들어가는 유물은 조합식우각형파수부호와 주머니호로 대표되는 전기와질토기와 세형동검, 동모, 동과 등의 청동무기, 동포, 청동제 동물장식 등의 청동제품, 철검, 철모, 철과, 철부, 철촉 등의 철기류 등이 주로 부장되며, 칠기류가 남아있거나 흔적만 남아있는 경우도 있다.



도면 6. 목관묘의 구조와 유물부장위치(장기명 2019)

[표 1] 목관묘 유물의 시기별 기종구성(방세현 2019)

구분	출토유물
1기 무문토기	흑도장경호, 점토대토기, 파수부호, 두형토기, 응, 주머니호, 조합식우각형파수부호, 판상철부, 주조철부, 단조철부, 철검, 철모, 철검, 철촉, 검파부철검, 환두도, 세형동검, 검파두식, 병두금구, 동모, 구슬, 경식 등
2기 무문토기 와질토기	점토대토기, 파수부호, 두형토기, 응, 주머니호, 조합식우각형파수부호, 단경호, 완, 양이부용, 편구소호, 판상철부, 주조철부, 단조철부, 철검, 철모, 철검, 철촉, 도자, 환두도, 철착, 철사, 호형동기, 원형동기, 이형동기, 원통형동기, 동모, 동과, 구슬, 경식 등
3기 와질토기	주머니호, 조합식우각형파수부호, 단경호, 완, 양이부용, 대부조합식우각형파수부호, 기대, 유개대부완, 판상철부, 단조철부, 철검, 철착, 철검, 철준, 철사, 재갈, 도자, 환두도, 철환, 이형철기, 칠초철검, 호형대구, 마형대구, 마형동기, 원형동기, 청동환, 천동천, 동포, 방제경, 휘룡문경, 오수전, 칠선사, 칠기, 구슬, 경식 등
4기 와질토기·연질토기·경질토기	주머니호, 조합식우각형파수부호, 단경호, 완, 파배, 판상철부, 단조철부, 철검, 철착, 철검, 철사, 도자, 환두도, 철환, 이형철기, 검파두식, 검파부속구, 구슬 등



도면 7. 목관묘 축조 모식도(이원태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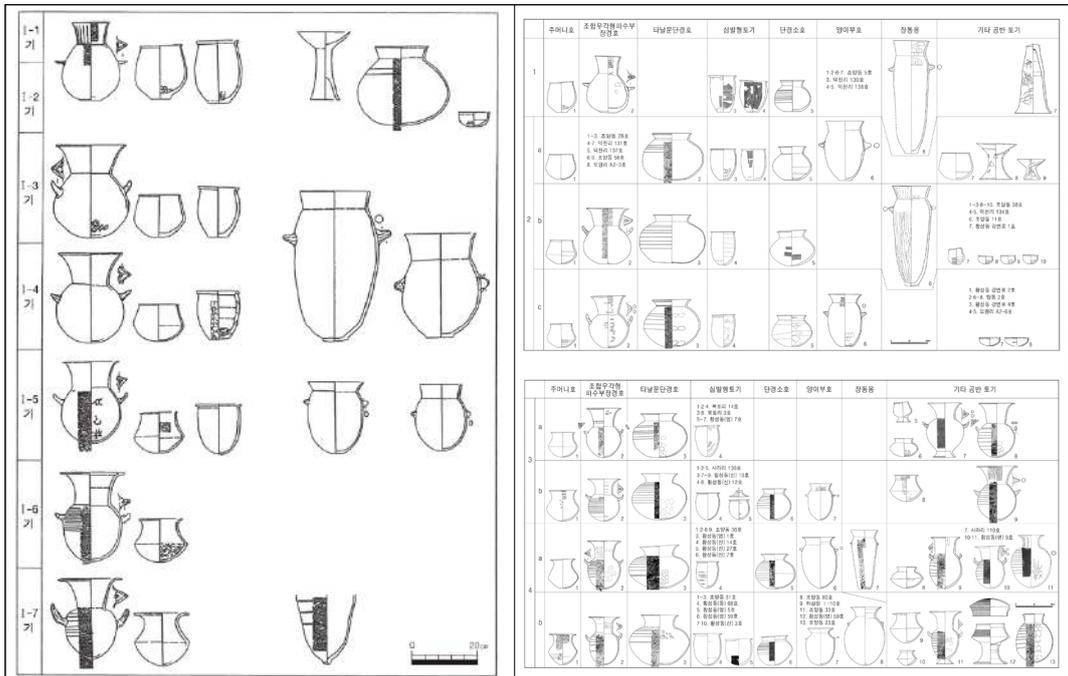
[표 2] 연구자별 전기와질토기 편년

연대	최종규	이성주	정인성	이청규	이원태	최병현
서기전 2C 중엽				I 단계		
서기전 2C 후엽			조양동 5호			
서기전 1C 전엽			다호리 1호		I기	1기
서기전 1C 중엽		I-1기	조양동 38호	II 단계	II기	2a기
서기전 1C 후엽		I-2기			III기	2b기
서기 1C 전엽	I	I-3기			IV기	2c기
서기 1C 중엽		I-4기		III 단계	V기	3a기
서기 1C 후엽	II	I-5기	사라리 130호		VI기	3b기
서기 2C 전엽	III	I-6기			VII기	4a기
				4b기		
서기 2C 중엽		I-7기	양동리 162호		VIII기	

유물이 부장되는 위치는 관내에는 피장자가 착장하거나 지니고 들어갈 수 있는 기물들이 주로 부장되는 편이며, 토기와 철기류는 대체로 목관상부나 충전토 상부, 충전토내, 봉토 등에 부장된다. 토기는 두부와 발치 등 지역이나 시기에 따라 명확한 패턴이 확인되지 않지만 철기는 목관 옆이나 발치 주변 등에 주로 부장되는 경향이 있다. 다만 철부류의 경우 판상철부를 시상처럼 깔거나 판상철부와 주조철부를 목관 아래에 깔아 놓는 등의 양상이 관찰되기도 한다.

2) 목곽묘

목곽묘는 장방형의 구덩이를 파고 목관과 함께 목곽을 설치하거나 목관없이 목곽만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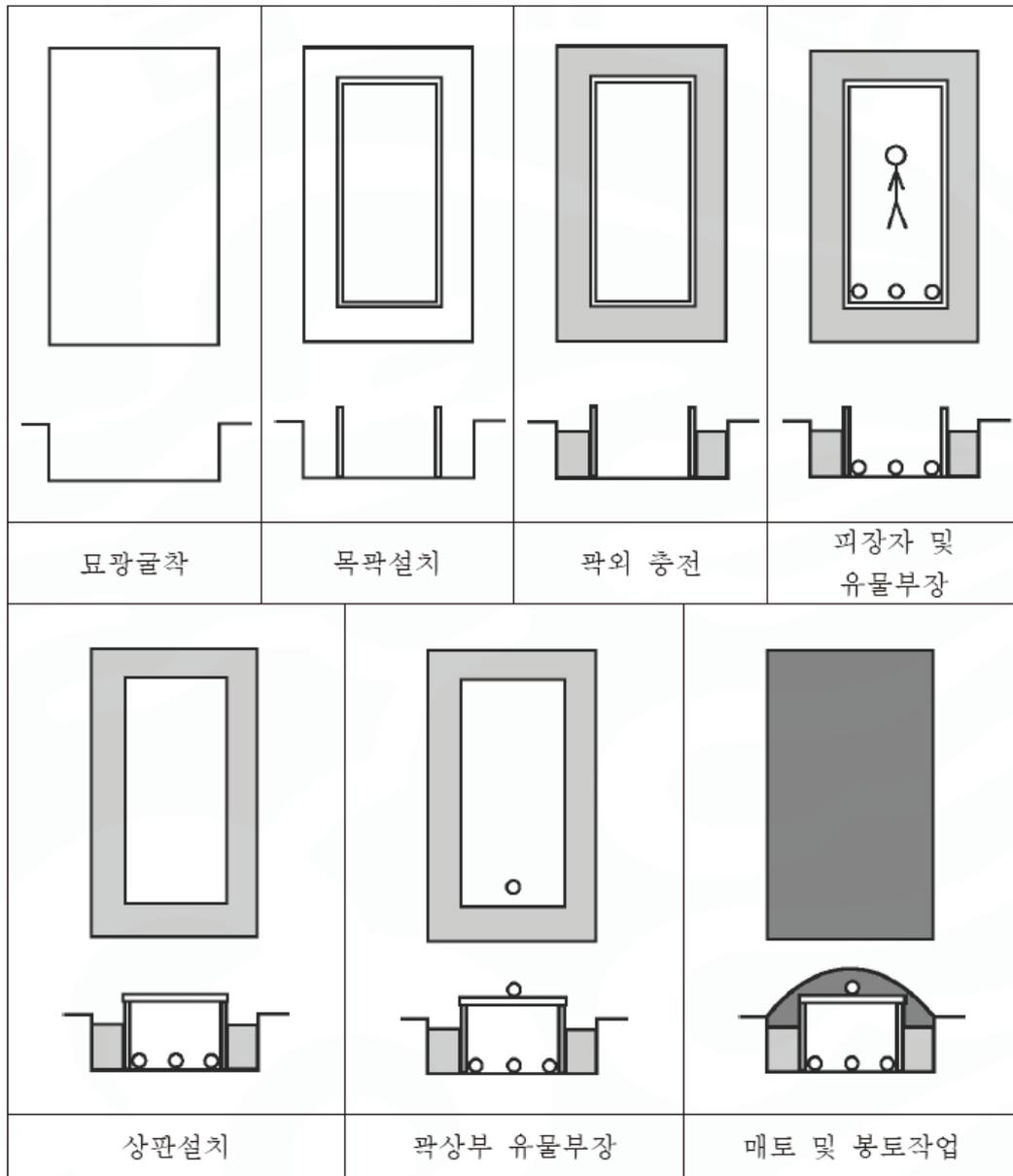
영남지역 고식와질토기의 편년(이성주 2005)

경주지역 원삼국 전기 토기 편년(최병현 2018)

지역 분기	성주		대구			경산			경주			
	주머니호	조함우각형 파수부호	주머니호	조함우각형 파수부호	단경호	주머니호	조함우각형 파수부호	단경호	주머니호	조함우각형 파수부호	단경호	
I												
II												
III												
IV												
V												
VI												
VII			1. 예3호, 14. 팔2호, 20. 영 C+2호, 42. 조5호 2. 예2호, 16. 팔3호, 21. 영 C+12호, 43. 조3호 3. 예3호, 17. 팔9호, 31. 영 C+22호, 44. 영1호 4. 예3호, 18. 가2호, 32. 영 C+2호, 45. 사1호 5. 예11호, 19. 팔3호, 33. 영 C+8호, 46. 조2호 7. 예15호, 20. 팔 C+14호, 34. 조5호, 47. 조3호 8. 예4호, 21. 영 C+4호, 25. 조3호, 48. 조3호 9. 조 팔4호, 22. 영 C+8호, 26. 팔 C+3호, 49. 조3호 10. 팔6호, 23. 신11호, 27. 팔 C+2호, 50. 조3호 11. 팔3호, 24. 신7호, 28. 사1호 12. 팔9호, 25. 영 C+4호, 40. 조5호 13. 팔12호, 27. 조 신7호, 41. 조5호									
VIII												

경북지역 전기 와질토기의 분기 및 편년(이원태 2013)

도면 8. 연구자별 전기와질토기 편년안



도면 9. 목곽묘의 축조모식도(안병권 2012)

되는 무덤을 말하는데 목관묘가 구덩이를 깊이 2m이상 굴착하는 것과는 다르게 대체적으로 묘광의 깊이가 1m 내외로 낮은 편이다. 깊이가 얕은 대신에 묘광의 넓이가 커지는 양상이 많이 확인되는 것이 서기 2세기 중후엽에 출현하는 목곽묘의 특징이기도 하다.

	I-1 기			
	I-2 기			
	I-3 기			
	I-4 기			
후기와질토기의 편년(이성주 2005)		영남지역 철모의 단계설정(김재복 2011)		

분기	출토 유물	유구 번호
1期		-1期- ①성림15호, ②나46호, ③성림14호 ④나112호, ⑤보236호, ⑥나1호
2期		-2期- ①나478호, ②가135호, ③가130호, ④나58호
3期		-3期- ①가31호, ②가51호 ③나62호, ④나74호
4期		-4期- ①남성11호, ②나39호, ③나122호 ④남성16호, ⑤남성34호, ⑥나121호
5期		-5期- ①남성12호, ②성림25호, ③성림4호 ④나55호, ⑤남성10호, ⑥나65호 ⑦남성42호
6期		-6期- ①나17호, ②남성13호, ③남성16호 ④나45호, ⑤남성17호, ⑥가78호
7期		-7期- ①남성11호, ②남성128호, ③남성71호 ④나21호, ⑤남성73호

포항 옥성리일대 목곽묘 편년(이진혁 2019)

도면 10. 영남지역 원삼국시대 목곽묘의 편년안

구덩이를 파고 목관과 목곽을 설치하는데 목곽을 고정할 수 있는 충전토를 채우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형에 따라 구릉 아래쪽에만 충전토를 두는 경우도 있다.

유물은 대부분 목곽내부에 부장되는 편이며, 주피장자가 놓이는 위치를 중심으로 양옆에 나열하거나 받치 등에 부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유물의 구성은 전기와질토기보다는 유개대부광구호와 노형토기, 유개대부직구호를 중심으로 하는 후기와질토기가 주로 부장되며, 철모와 철장검, 철부, 철착, 철촉 등 다양한 철기류가 부장된다. 청동기는 후한경, 후한방제경 등만 부장되며, 철기 위주의 부장패턴이 관찰된다.

특히 동해안지역을 중심으로 철기가 다량부장되는 무덤이 확인되는데 울산 하대 44호, 김해 양동리 162호, 포항 옥성리 나 78호 등 토기보다는 철기가 다량으로 부장되는 무덤이 출현기부터 확인되는 것이 특징적이다.

Ⅲ. 원삼국시대 분묘군의 전개와 특징

1. 군집묘와 단독묘

영남지역에서 목관묘의 출현은 원형점토대토기가 부장되는 김천 문당동유적의 사례가 있긴하지만 대체로는 대구 월성동 777-2번지의 목관묘와 경산 임당동유적 F지구에서 출토되는 목관묘를 출현기의 목관묘로 보고 있다.

초기의 목관묘는 서기전 2세기에 출현하는 것으로 알려져있으며, 그 지표는 임당동유적에서 나오는 이조돌대주조철부와 유견동부, 요갱에서 나온 세형동검 등이 있으며, 월성동에서 출토된 철기 등이 있다. 김천 문당동과 칠곡 심천리에서 원형점토대토기가 공반된 무덤이 있긴하지만 대체적으로 1기만 확인되는 것이 아닌 군집묘로서 출현하는 것은 대구와 경산을 중심으로 분포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목관묘의 군집현상은 초기부터 확인되며, 이러한 군집묘는 대규모의 군집묘와 소규모 군집묘, 단독묘로 구분할 수 있다.

대규모 군집묘는 현재 국의 중심지라고 생각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확인되며 일정지역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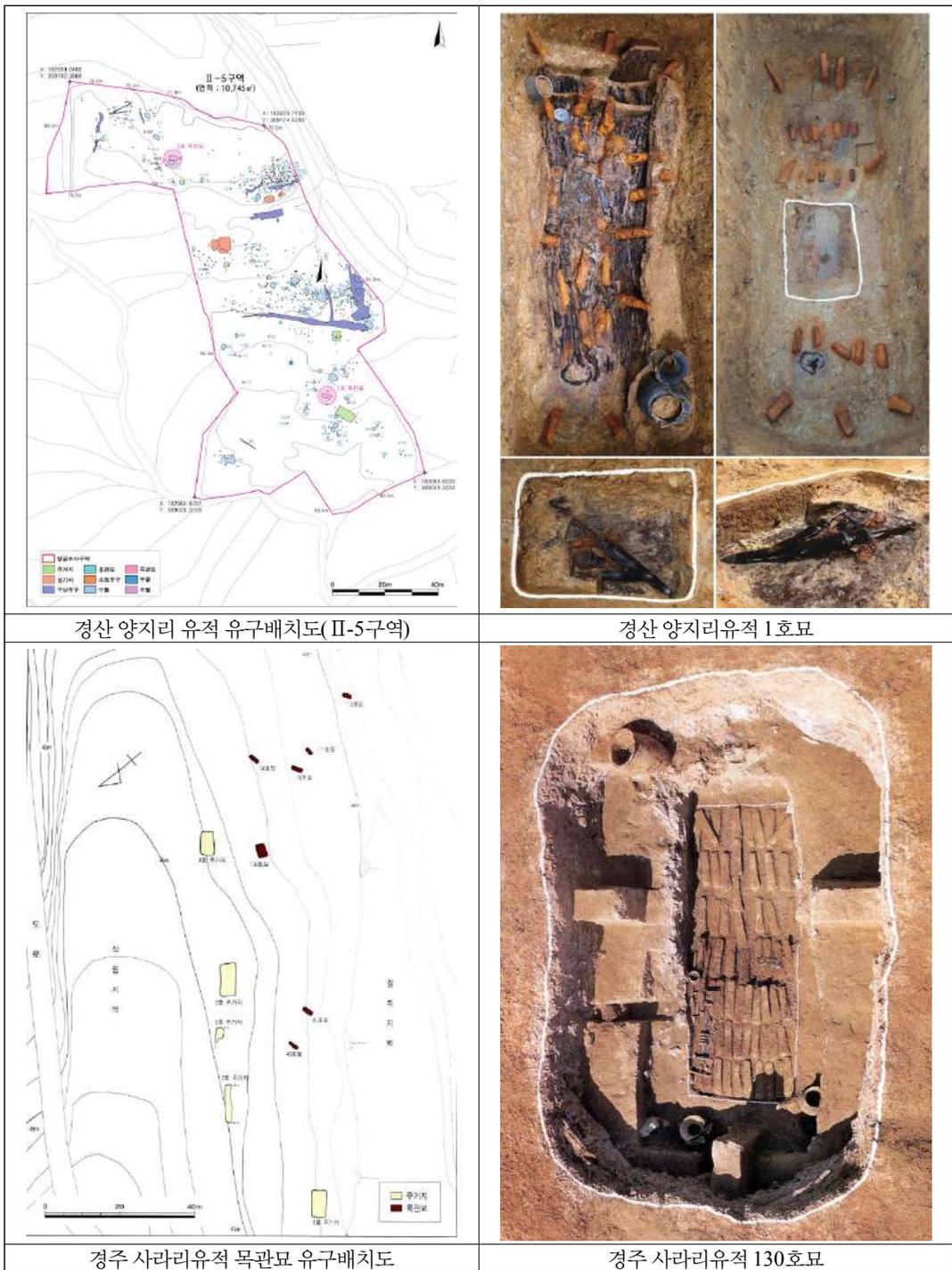
다스리던 지배층의 무덤공간으로 인식할 수 있다. 소규모의 군집묘는 지역 중에서 소규모 집단 지배층 묘역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경주 사라리 130호와 경산 양지리 1호묘 등으로 대표되는 단독묘의 경우 단독 수장묘라고 많이 불리는데 일정 범위에서 목관묘 유적이 확인되지는 않고 다량의 유물을 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대표하는 수장의 무덤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단독묘는 1기만 나오는 것은 아니라 주변에 시기를 달리하는 무덤이 존재하였고, 양지리를 제외하면 그 일대가 모두 조사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단독묘라고 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남아 있다.

최근 경산 양지리와 영천 어은동 및 용전리 목관묘를 왕묘의 수준에서 봐야한다는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다(정인성 2023). 다량의 청동유물과 철기유물을 부장하고 있는 무덤을 수장급, 왕묘의 수준에서 볼 수는 있겠지만 이 단독묘가 문헌에 나오는 국을 대표하는 왕묘인가 하느냐는 의문점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일본 큐슈지역의 경우 문헌에 나오는 노국의 왕, 이토국의 왕 등을 지칭하는 무덤이 있기는 하지만 그 무덤은 대규모 군집 중 하나의 무덤을 왕묘로 선정하거나, 그 일대에서 최고 수장급 무덤으로 보이는 무덤을 왕묘로서 지칭한다는 점에서 영남지역의 상황과는 다른 점이 있다고 보여진다.

물론 단독 수장묘를 왕묘의 측면에서 보자는 내용은 타당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 다만 중심지에서 나오는 수장묘가 무엇인지 정의내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단독의 유물이 많이 부장된 무덤을 왕묘라고 일반화 시킨다면 다량 부장묘 이외에 더 이상 무덤이 조성되는 않는 것은 어떻게 보아야하는지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한다.

그리고 군집묘가 확인되는 지역은 다량의 유물이 하나의 무덤에서 확인되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유물의 구성이 단독묘에 뒤쳐지지 않으며, 긴 시간동안 이어진다는 면에서는 단순히 유물이 많이 부장된다고 해서 왕묘로 보아야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발생한다. 그렇기에 군집묘와 단독묘는 유물의 양이나 질보다는 다른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유물의 부장량이 많다는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지만 단순히 다량의 유물부장보다는 묘역의 연속성이라는 측면을 중요포인트로 삼아 원삼국시대 분묘에서의 중심고분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경산 양지리 유적 유구배치도(II-5구역)

경산 양지리유적 1호묘

경주 사라리유적 목관묘 유구배치도

경주 사라리유적 130호묘

도면 11. 단독 수장묘의 사례와 유구배치도

2. 초기목곽묘의 출현과 분포

원삼국시대 전기를 대표하는 묘제는 목관묘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전기와질토기가 부장되면서 목관이 아닌 목곽을 주 묘제로 하는 무덤의 존재가 확인되어 주목된다. 목곽묘는 원삼국시대 후기를 대표하는 묘제로서 묘광이 목관묘에 비해 넓은 편이고 후기 와질토기와 함께 다량의 철기가 부장되는 무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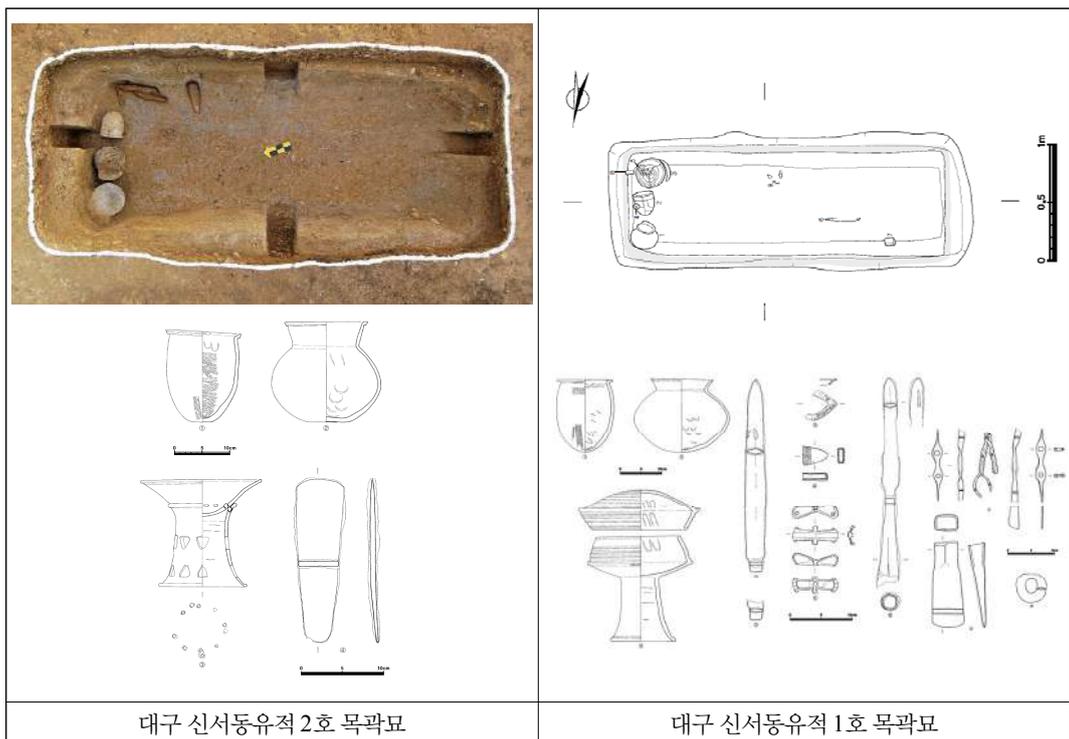
그런데 대구 신서동유적에서 확인되는 목곽묘는 전기와질토기를 부장하고 있으며, 묘광의 크기도 목관묘와 거의 유사한 크기를 보이고 있다. 목곽의 형태는 목곽만 확인되는 단곽식도 있지만 관과 곱이 함께 확인되는 이중관식도 확인되고 있어 서북부지역에서 확인되는 단장목곽묘와의 연관성을 추정하게 한다. 그렇지만 부장방식은 거의 목관묘와 비슷하고 유물구성도 동일하여 단순히 묘제만 받아들였을 가능성도 있다.

[표 3] 대구 신서동유적 초기목곽묘 속성표(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11)

호수	평면형태	곽형태	묘광규모(cm)			내부관규모(cm)		외부관규모(cm)		장축방향	부장 위치			
			길이	너비	깊이	길이	너비	길이	너비		관상부	내부관	외부관	총전토
1	말각장방형	단곽형	305	119	63	-	-	277	74	N-81°-E	단경호1 재갈부속구1 재갈1 검부속구1 단조철부1	-	소용1 유개고배1 철검2	철모1
2	말각장방형	단곽형	292	118	37	-	-	268	103	N-20°-E	-	-	기대1, 용1 단경호1 철작1, 철모1 관상철부1	-
3	말각장방형	단곽형	282	132	33	-	-	262	116	N-44°-E	-	-	단경호1	-
4	말각장방형	이중관형	352	121	64	208	48	326	80	N-60°-E	관상철부1	원동형 등기1	조합식우각형 파수부호1 단조철부1	-
5	말각장방형	이중관형	348	120	68	238	66	288	101	N-60°-E	-	경식21	단경호1, 용1	-
6	말각장방형	이중관형	328	125	77	206	44	270	97	N-41°-E	용1, 단경호1	-	기대1	-
7	말각장방형	이중관형	266	81	62	201	43	241	54	N-50°-E	-	청동지환1 경식7	기대1, 호1, 용1	-
8	말각장방형	이중관형	262	94	79	203	57	241	72	N-55°-E	-	칠초검파 부철검1	-	-
9	말각장방형	이중관형	334	124	48	203	70	241	100	N-40°-W	-	-	단경호1, 용1 철작2, 철촉1	-
10	말각장방형	단곽형	296	120	68	-	-	260	95	N-38°-E	-	-	-	-

[표 4] 대구 신서동유적 목곽묘 출토 유물현황표

호수	토도류		철기류			동기류	옥석류	계
	와질토기	기타	무기	농공	마구			
1	단경호1, 소옹1, 유개고배1	-	철검2, 철모1	단조철부1	재갈부속구1, 재갈1	검부속구1	-	10
2	단경호1, 소옹1, 기대1	-	철모1	철착1, 판상철부1	-	-	-	6
3	단경호1	-	-	-	-	-	-	1
4	조합식우각형파수부호1	-	-	단조철부1, 판상철부1	-	원통형동기1	-	4
5	단경호1, 소옹1	-	-	-	-	-	경식21	23
6	단경호1, 소옹1, 기대1	-	-	-	-	-	-	3
7	호1, 소옹1, 기대1	-	-	-	-	청동지환1	경식7	11
8	-	-	칠초검파부철검1	-	-	-	-	1
9	단경호1, 소옹1	-	철촉1	철착2	-	-	-	5
10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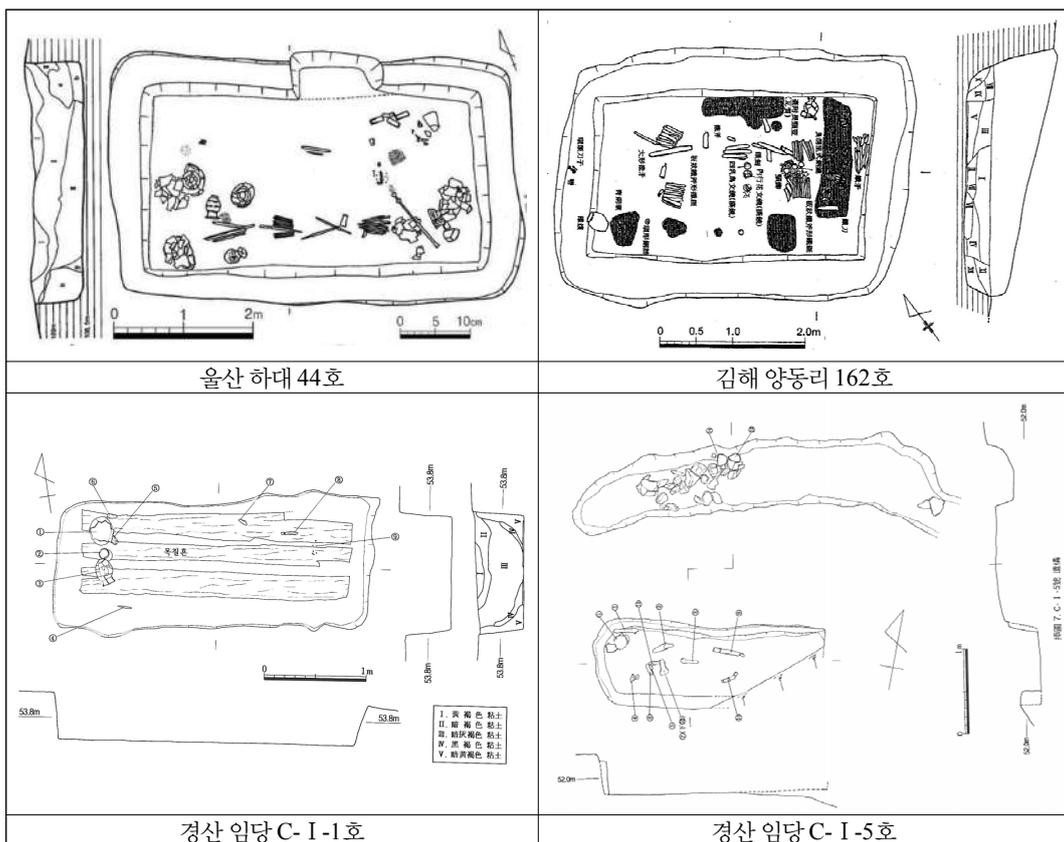


도면 12. 대구 신서동유적 목곽묘와 출토유물

목관묘시기의 초기목곽묘는 현재까지 대구 신서동유적을 중심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시기는 유물로 보았을 때 목곽묘 2호 판상철부의 형태가 경주 조양동유적 38호묘와 유사하고, 목곽묘 1호 검파두식의 형태도 경주 조양동 38호 단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서기전 1세기 중엽경에는 출현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3. 대형 목곽묘의 출현과 의미

임당유적에서는 임당구릉과 신대리까지 넓은 지역에 목관묘를 조영하던 세력이 목곽묘를 축조하면서 급격히 무덤의 수량이나 축조지역이 축소되는 현상이 보인다. 목곽묘가 A지구, D지구, E지구, F지구, G지구, 조영1B지역, 조영3B지역, 신대리 등 다수의 군집이 여러



도면 13. 대형 목곽묘와 소형 목곽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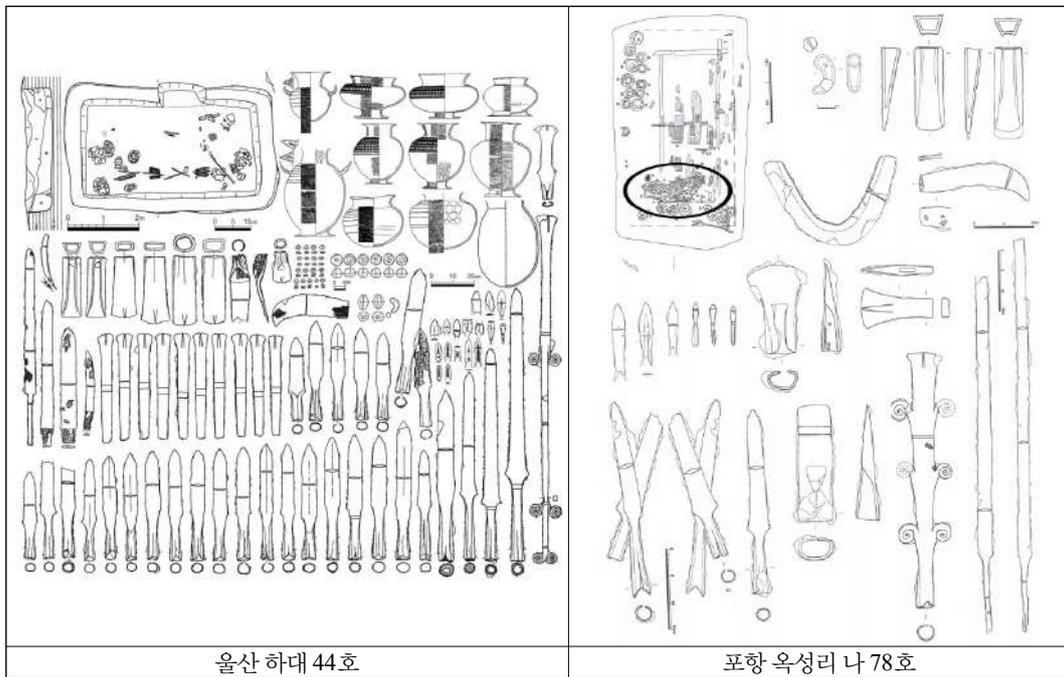
지구에서 확인되는 반면 서기 2세기 대의 목곽묘는 C- I 지구를 중심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목관묘를 조영했던 세력에 비해 세력이 축소되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목관묘와 목곽묘의 묘역이 겹치지 않고 목곽묘의 묘역에 후대의 고총이 들어서는 양상을 통해 보았을 때 목곽묘가 기존의 목관묘의 묘역만큼은 아니지만 무덤의 수가 적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A지구에서 목관묘가 조영되고 그 바로 북쪽인 C- I 지구에 목곽묘가 이어서 조영되는 양상과 인근의 조영동고분군 내 고총아래에서 확인된 목곽묘를 본다면 세력의 다소 축소는 있었겠지만 완전히 재편되는 과정은 없었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다만 임당구릉과 신대리까지 넓은 지역에 목관묘를 조영하던 세력이 목곽묘를 축조하면서 급격히 줄어드는 현상에 대해서는 결국은 목관묘에서 목곽묘로 전환되는 과정상에서 변화한 것이 무엇인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묘제만 바뀐 것이 아니라 묘제가 바뀌게 되고 부장되는 유물수량이 늘어나는 것은 계기적인 변화라기 보다는 어떤 체계의 변화라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 쟁점은 철기의 다량 부장 현상과 청동기의 소멸이라고 판단된다.

원삼국시대 전기(목관묘 단계)에서 원삼국시대 후기(목곽묘 단계)로의 전환은 묘제가 목관을 사용하는 무덤에서 목곽을 사용하는 것으로 변화하는 것이 아닌 유물을 부장하는 공간의 확장이라는 개념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목관묘는 피장자가 착장하거나 사용하던 유물이 주로 부장되는 공간으로 목관 안과 목관 밖으로 구분할 수 있다. 목관 안에는 피장자와 함께 검과 허리띠, 팔찌, 경식, 거울 등 주로 피장자가 지니고 있었던 유물이 부장되고 철모나 철부, 토기 등은 충전토 위와 충전토 내, 목관 위 등에 부장되었다. 유물의 구성은 초기 철기시대부터 사용하던 청동기와 새로이 부장되는 철제무기류가 부장된다.

그런데 목곽묘라고 하는 묘제는 원삼국시대 전기부터 보이는데 목관묘의 면적과 목곽묘의 면적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며, 유물의 부장수량이나 구성도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원삼국시대 후기가 되면 포항 옥성리, 울산 하대, 김해 양동리 등의 유적에서 묘광이 넓은 장방형의 목곽묘가 출현한다. 여기에서 확인되는 유물 구성을 보면 다수의 토기와 다량의 철기가 부장되는 양상이 확인된다. 철기가 다수 부장되는 양상은 경주 사라리유적 130호묘와 경산 양지리유적 1호묘 등에서 보이는 것으로 판상철부와 같은 공구류가 다수 부장되는 현상이었다. 묘광이 넓은 목곽묘는 포항 옥성리 나 78호의 경우 철모가 100여점이 부장되었고, 울산 하대유적 44호, 김해 양동리유적 162호 등에는 철제무기가 10여점 이상이 부장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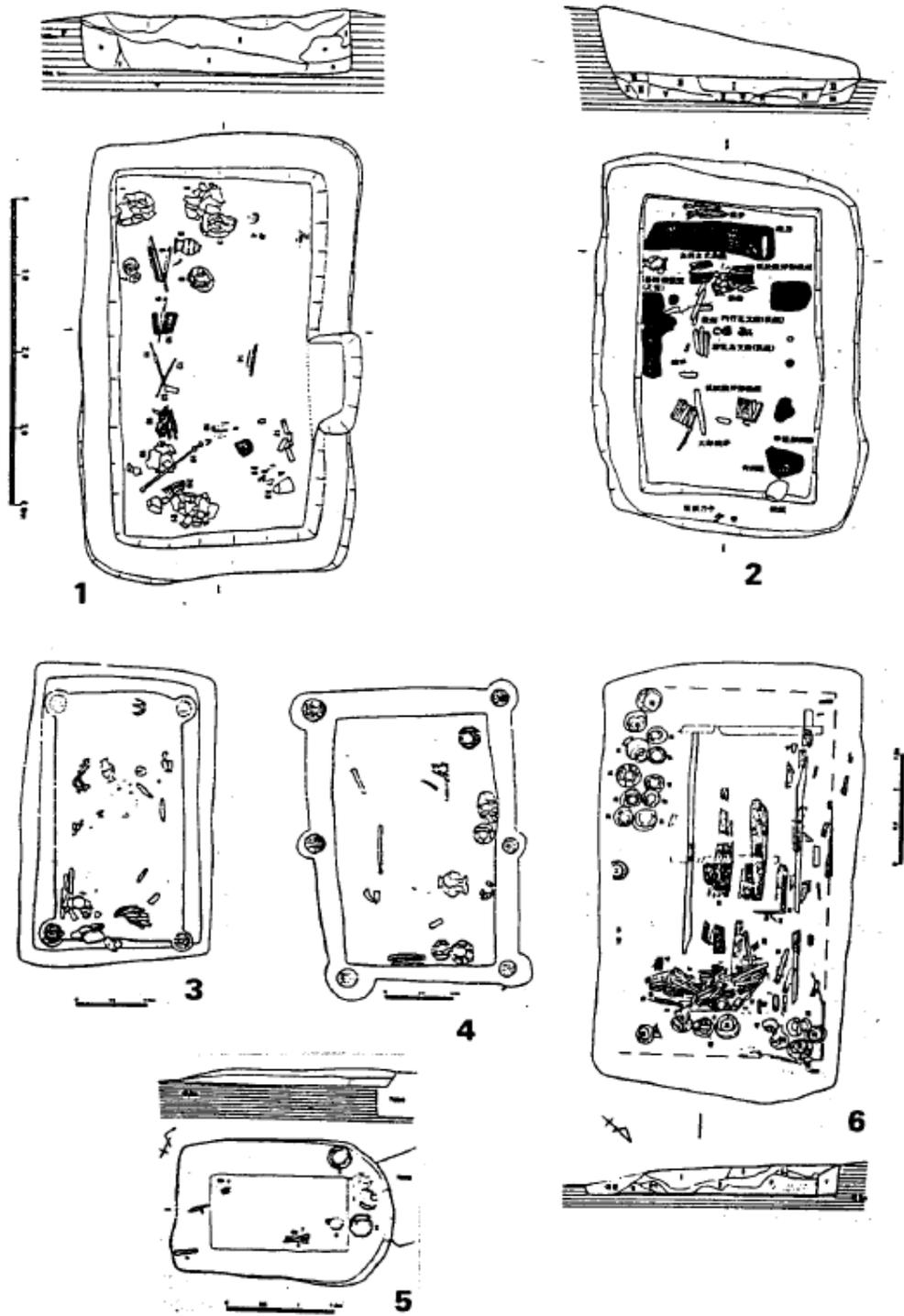


도면 14. 철기 다량 부장 목곽묘

는 양상이 확인된다. 다량의 철제무기부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목관묘에는 100여점이상 되는 유물을 부장하기에는 공간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량의 유물이 부장되려면 묘방이 넓어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다량의 유물, 특히 철기를 다량으로 부장하기 위해서는 큰 세력권을 형성하고 있어야 하며 철기를 쉽게 공수할 수 있어야 한다. 게다가 이 유적에서는 방제경이 일부 확인되기도 하지만 기존의 청동기로 만들어진 물건은 더이상 부장되지 않는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양상에 대한 원인은 낙랑과의 교역이 감소하는 과정에서의 변화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진변한 사회와 낙랑간의 교역 감소는 낙랑 및 한식계 유물이 진변한 사회에서 선택적 수용을 통한 재지화가 이루어져 한식계 유물의 위세적 가치가 하락하고 내부적으로 철기의 장악을 통해 권력을 강화함으로써 그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보거나 낙랑군 내에서 일어난 왕조의 난으로 인한 재지세력의 약화가 교역감소의 배경이라고 정리하고 있다(정인성의 2014).

여기에서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낙랑교역의 감소보다는 철기를 장악하기 위한 권력 강화



도면 15. 원삼국시대 후기 대형목곽묘(이재현 2003)

이다.

기존에 낙랑과 교역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던 목관묘세력은 대구,경산을 중심으로 하는 집단과 창원을 중심으로 하는 집단, 경주를 중심으로 하는 집단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집단들은 육상교역망이나 해상교역망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원삼국 전기사회의 중심 세력으로서 성장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원삼국 후기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경주를 제외하고 기존에 중심세력이었던 집단은 대체로 축조를 중단하거나 목곽묘가 목관묘 만큼 확인되지 않고, 묘광이 넓은 장방형 목곽묘도 잘 보이지 않는 양상이 나타난다.

목곽묘 단계에 새로운 중심유적으로 부상하는 지역은 김해, 경주, 울산, 포항 등 동해안을 중심으로 위치하는 지역으로 철과 관련된 문헌 기록이 있거나 배후에 철생산 단지를 가지고 있고, 교통로 상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김해지역은 『삼국지 위서 동이전』에도 나오듯이 철을 생산하였던 지역으로 알려져 있고, 울산도 초기철기시대부터 철광산이 개발되어 조선시대까지도 철광석 산지로 유명한 지역이고, 경주는 황성동 제철공방이 있어 철을 직접적으로 생산하였던 지역이다. 포항은 경주 황성동집단과 가까이 위치하고, 동해안을 따라 북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교통로상에 위치한다. 또한 항구를 가지고 있어 서기 4세기대에는 김해지역과의 교류양상도 확인되는 지역이다. 특히 신라로서는 왜구의 침략에 맞서 남미질부성 등을 축조하는 방어거점이기도 하다.

이렇듯 목곽묘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이유는 명확히 알 수 없지만 철을 생산하고 유통하였던 집단이 유력집단으로 세력화하며 추후 신라와 금관가야로 성장하는 배경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경산 임당유적에서 목곽묘 단계로 넘어가면서 무덤의 축조가 줄어드는 양상은 목관묘 단계에서는 낙랑 등과 교역의 주도권을 가지고 성장하여 세력을 강화하였지만 목곽묘 단계에서는 철 생산과 유통을 주도하던 세력이 오히려 세력을 형성하는 과정에 주도세력에서 탈락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임당유적이 있는 경산일대는 금호강유역에 형성된 분지로 남부로는 산이 있지만 임당유적일대는 얇트막한 구릉이 이어지고 오목천과 남천 주변으로 배후습지가 형성된 지역이다. 주변 산지에도 코발트광산은 있지만 철광산은 확인되지 않으며, 임당동고분군 아래쪽 대입지구 개발부지에서 최근 제철과 관련 있는 시설이 확인되기는 하였으나 서기 2세기대부터

있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따라서 임당유적 목곽묘세력은 목곽묘의 평면 형태에서 변화가 크게 관찰되지 않고 유물의 수량도 늘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무덤을 축조한 집단이 기존보다 세력이 약화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배경에는 기존의 낙랑 등과 교역을 주도하던 세력에서 철을 공급하고 유통하는 세력으로 권력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주도권 그룹에 들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최근 김대환(2023)은 경주일원을 대상으로 하여 사로국사회의 변화를 살피면서 목곽묘단계 대형목곽묘의 출현을 집단의 재편을 통한 통합으로 보아 자신들의 권위와 권력을 유지하고 재생산하는 전략으로 목곽묘를 채용하고 새로운 묘역을 형성하였다고 보았다. 대형목곽묘의 출현배경을 권력의 재편을 통한 지역집단의 성장과 주변세력의 무력흡수 등을 들고 있다. 무력을 통한 권력집단의 탄생이 넓은 지역에서 무덤이 확인되던 목관묘 단계와는 다른 소수의 지역에 무덤을 쓰는 목곽묘단계로 변화하였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부분은 철을 중심으로 경제력을 획득한 집단이 대형의 목곽묘를 축조하기 시작했다는 발표자의 생각과 비슷한 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권력의 발생은 잉여생산물을 통한 이익이 전재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IV. 맺음말

지금까지 원삼국시대 분묘에 대해 정리해보았다. 원삼국시대 분묘는 군집해서 출토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영남지역 전역에서 하천을 중심으로 하는 교통로 상에 주로 분포하는 것이 확인된다. 또한 지역거점별로 세력이 형성되어 목관묘부터 목곽묘까지 이어져 오는 지역도 있지만 목관묘만 조영되는 지역과 목곽묘부터 조영되기 시작하는 지역도 확인된다. 원삼국 전기의 목관묘는 전역에서 넓은 지역에 분포하며 대구 신서동유적에서는 목곽묘가 동일시기에 확인되기도 한다. 원삼국 후기의 목곽묘는 영남지역 전역에 분포하기는 하지만 목관묘에 비해 유적의 수는 현저히 줄어드는 편이며 목관묘에 비해 지형적으로 높은 지역을 선호하며 구릉정상을 향해 이동하는 특징이 있다.

이번 원삼국시대 목관묘와 목곽묘에 대하여 지역권별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

만 전체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검토가 가능하며 앞으로 논의할 내용이 적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추후 과제로 삼고자 한다.

□ 참고문헌 □

- 權志瑛, 2004, 『辰·弁韓社會의 發展樣相에 대한 研究 - 木棺墓에서 木槨墓로 轉換을 中心으로-』,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새봄, 2011, 『原三國後期 嶺南地域과 京畿·忠淸地域 鐵矛의 交流樣相』, 『韓國考古學報』第81輯, 韓國考古學會.
- 김대환, 2023, 『분묘자료로 본 사로국이 집단 통합과 동인』, 『嶺南考古學』97號, 嶺南考古學會.
- 김진성, 2015, 『영남지역 목관묘의 요갱 연구』,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방세현, 2019, 『사로국의 위신재 구성과 특징』, 『목관묘로 본 사로국의 형성과 전개』,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 申東昭, 2007, 『嶺南地方 原三國時代 鐵斧와 鐵矛의 分布定型 研究』,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安柄權, 2012, 『嶺南地域 初期木槨墓 研究』,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尹溫植, 2019, 『斯盧國 考古學 研究』,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윤은식, 2021, 『지역과 지구별 집단의 위계 변동으로 본 사로국의 진한 통합』, 『야외고고학』 제41호, 한국문화유산협회.
- 이성주, 2005, 『嶺南地方 原三國時代 土器』, 『원삼국시대 문화의 지역성과 변동』, 제29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한국고고학회.
- 이원태, 2013, 『경북 지역 전기 와질토기의 변천과 지역성』, 『韓國考古學報』第86輯, 한국고고학회.
- 이진혁, 2019, 『2-4세기 포항 옥성리 일대 고분군의 양상과 그 집단의 동향』, 『한국고고학보』 제111집, 한국고고학회
- 이재현, 2003, 『진·변한 사회의 고고학적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임영희, 2011, 『嶺南地域 原三國期 鐵劍·環頭刀의 地域別 展開過程』, 『嶺南考古學』59號, 嶺南考古學會
- 영남고고학회, 2015, 『영남의 고고학』, 사회평론.
- 장기명, 2019, 『철기로 본 사로국의 형성과 발전』, 『목관묘로 본 사로국의 형성과 전개』,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 鄭仁盛, 2008, 『‘瓦質土器’ 樂浪影響說의 檢討』, 『嶺南考古學』47, 嶺南考古學會.
- 정인성의, 2012, 『嶺南地域 原三國時代의 木棺墓』, 학연문화사.

정인성 외, 2014, 『낙랑고고학개론』, 진인진.

정인성, 2023, 『일제강점기 영천 어은동 청동유물군 발견과 의의』, 『영천골벌국시기 왕묘와 동아시아 금속기 문화』, 영천 어은리 용전리 진한왕묘와 출토유물, 영천시립박물관, 영남대학교.

최병현, 2019, 『원삼국시기 경주지역의 목관묘·목곽묘 전개와 사로국』, 『중앙고고연구』 제27호, 중앙문화재연구원.

『영남지역 원삼국시대 분묘군의 전개와 특징』에 대한 토론문

박진일
| 국립광주박물관 |

박장호선생님은 영남지역에서 원삼국시대 분묘와 출토유물을 꾸준히 연구하는 대표적인 연구자입니다. 발표의 많은 부분에 동의합니다만, 발표자의 견해를 좀 더 깊이 확인하고 싶은 것과 청중의 이해를 위해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1. 경산 입당 유적 목관묘, 목곽묘의 입지 변화

본문 중 “목관묘는 입당유적 중앙부에서부터 점차적으로 동쪽으로 이동해가는 사실을 확인되고”라고 서술하였으며, 도면5에서 목곽묘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확산해갑니다. 그런데 이 현상을 ‘東西’라는 방향과 관련하여 해석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본문의 서술처럼 “분묘의 축조가 순차적으로 입당유적의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되지도 않았을뿐더러, 신대리 목관묘군까지 포함해 본다면 특정한 방향성을 가지며 분묘의 축조범위가 확산했다고 볼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보충 설명 바랍니다.

2. 단독 입지 수장묘에 대하여

경주 사라리 130호묘와 경산 양지리 1호묘가 단독 입지 목관묘가 아닌 것은 발표자와 같은 의견입니다. 두 무덤은 모두 목관묘군에 속해 있는 유력 개인묘로 창원 다호리 1호묘나 경주 조양동 38호묘처럼 청동기와 함께 다량의 철기를 부장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부장 양

상을 보이는 영천 용전리 1호묘도 발표자의 지적처럼 목관묘군 중 유력 개인묘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비해 영천 어은동과 대구 만촌동, 대구 비산동은 유구의 분포상황을 확인할 수 없지만, 철기가 전혀 출토되지 않아 앞선 무덤과 다릅니다. 전자는 완주 갈동으로 대표되는 서남한 군집 목관묘에서, 후자는 대전 괴정동으로 대표되는 서남한 단독 목관묘에서 유래된 것으로 토론자는 계통이 다른 것으로 판단합니다.

상기한 이해를 바탕으로 발표자가 서술한 규슈지역처럼 영남 역시 대규모 군집 목관묘 중 특출한 유력 개인묘가 있으므로 양측을 같은 논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규슈와 영남의 “왕묘”를 같은 맥락에서 논의할 충분한 정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3. 대구 신서동 초기 목곽묘의 연대

본문에서 신서동 목곽묘를 경주 조양동 38호묘와 비슷한 연대로 보고 서기전 1세기 중엽으로 설정하였는데, 1호에서 출토된 유개대부토기로 보아 과도하게 상향된 연대 아닌가요?

4. 목관묘 축조 체계와 목곽묘 축조 체계

임당구릉과 신대리까지 넓은 지역에 목관묘를 조영하던 세력이 목곽묘를 축조하면서 급격히 줄어들면서 부장 유물의 수량이 늘어나는 것은 ‘계기적인 변화’보다 ‘체계의 변화’라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서술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체계에서 어떤 체계로 변하는 것인지 보충 설명 바랍니다.

5. 목관묘와 목곽묘의 수, 입지의 변화 이유

목관묘군은 주로 하천을 중심으로 하는 주요 교통로와 교통로가 잘 보이는 구릉 사면에 위치한다고 하였는데, 이렇게 분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더불어 원삼국 후기의 목곽묘는 영남지역 전역에 분포하지만, 목관묘에 비해 유적의 수는 현저히 줄어들고 목관묘에 비해 지형적으로 높은 지역을 선호하며 구릉 정상을 향해 이동하는 특징이 있다고 서술하였습니다. 발굴조사 결과 확인된 특징인데 이렇게 변하는 근본 원

인이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요?

6. 단일 목관묘군 내 동일 계통 무덤의 다른 시대 설정 적정성

발표자께서는 서론에서 『영남의 고고학』(영남고고학회 2015)을 인용하여 서기전 100년부터 원삼국시대가 시작되는 것이라 전제하고 본문을 서술했습니다. 이 시대 구분에 따르면 발표의 주요 소재인 “木棺墓群”은 초기철기시대에 등장하는 것이 됩니다. 대구 월성동이나 경주 하구리 목관묘군 등 와질토기를 부장하지 않는 목관묘군을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본문에서 자주 등장하는 임당을 비롯하여 팔달동, 다호리 등 영남의 대표 목관묘군에는 서기전 2세기대에 해당하는 목관묘가 다수 확인됩니다. 이로 인해 단일 목관묘군 내 동일한 계통의 목관묘가 부장유물에 따라 어떤 것은 초기철기시대가 되고 어떤 것은 원삼국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고고학 선사시대 중 단일 유적에서 동일 系統과 型式의 무덤을 시대가 다른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구석기시대와 신석기시대, 신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는 두 시대를 아우르는 단일 분묘군이 없는 듯합니다. 이렇듯 단일 유적의 같은 墓型인 목관묘를 부장유물에 따라 시기도 아닌 시대를 나누어 보는 것이 적절한 고고학적 인식인지, 만약 아니라면 어떻게 인식하는 편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신라 고분군의 확산과 지방구조

박형열

| (재)대한문화재연구원 |

〈 目 次 〉

I. 머리글	III. 신라 고분군의 확산패턴으로 본 신라의 지방구조
II. 신라 고분군의 특징과 확산과정	IV. 맺음말

I. 머리글

신라는 4세기대부터 본격적으로 경주를 벗어나 영역을 확장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영역 확장에서 눈에 띄는 점은 낙동강동안양식의 고식도질토기를 공반하는 것이다. 그리고 연속하여 지방거점 고분군 내에서 교호투창고배를 표지로 하는 신라토기가 출토되면서 지속적인 신라의 영향을 넓히는 점이다. 이와 같은 신라의 특징적인 토기 양식은 주로 고분에서 출토되고 있으며, 고분은 목곽묘의 목곽 주변에 돌을 쌓은 적석목곽묘를 동반하는 특징이 있다.

적석목곽묘의 지방거점출현은 지방에 대한 중앙의 영향력이 확대된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앙에서 확인되는 신라고분군의 특징도 지방에서 확인되기 시작하고, 5세기를 기점으로 적석목곽분으로 발전된 고총고분이 지방거점에 확산된다. 결과적으로 신라는 지방거점을 영역화하고 신라사회를 형성한다.

신라 고분군에 대한 연구는 지역단위의 단위정치체에 대한 연구가 주로 진행되었으며, 이들의 관계성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하다. 당시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분군의 특징을 분석하고 그 변동에 시기적·지역적 전개과정을 검토하여 정치체의 형태와 그 변동에 접

근하는 방법(이성주 1998: 158)이 유효할 것이다. 또한 고분군 내에서 묘제 별로 공간이 분할되고 그 공간이 확장되는 모습은 고분군을 구성하는 사회조직의 변화를 담고 있다(박형열 2021: 266). 경주 분지 일대 고분군에서 보이는 변화는 3~4세기경부터 고분군 내의 묘역 구분과 집단 차이의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다(박형열 2016).

즉, 신라 고분이 축조되고 고분군이 조영 및 형성되는 것은 신라의 문화가 확산되는 양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신라토기의 확산을 통한 지방 거점지역의 신라 지역화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본 글에서는 신라고분군의 지방으로 확산 혹은 이입되는 양상을 살펴보고, 중앙과 지방의 관계 변화를 상징하여 지방구조를 알아보고자 한다.

II. 신라 고분군의 특징과 확산과정

1. 신라 고분군의 특징

신라 고분군은 구역별 성장패턴을 가지고 있으며, 묘제 간에 공간을 침범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고분군에서 확인되는 묘제의 종류는 목곽묘와 석곽묘, 석곽분, 적석목곽묘, 적석목곽분, 옹관묘(분), 횡혈식석실분, 횡구식석실분 등이다. 이들 묘제는 시기 및 고분군이 위치한 지역을 달리하여 조합되는 양상으로 신라고분군을 형성한다. 묘제 간에는 위계를 구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시기나 지역에 따라 독특한 묘제가 나타나기도 한다.

그리고 신라 고분군에서 고분군의 성장패턴이 시기나 묘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도 특징이다. 신라 고분군에서 확인되는 성장패턴은 무작위성장과 선형성장, 구역별성장, 군집분(소군)의 선형성장과 구역별 성장이 함께 나타나는 복합성장 모델로 구분할 수 있다.

무작위 성장모델은 매장할 구성원이 발생하게 되면 고분군의 전체영역 안에서 위치를 무작위로 선택하여 고분을 축조하는 방식이다. 선형 성장모델은 일정한 방향으로 고분군을 축차적으로 설치하면서 고분군의 영역이 확대되는 방식을 일컫는다. 구역별 성장모델은 여러 개의 구역으로 미리 분할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매장 구성원이 생기면 각 섹터를 채워나가는 것이다(박형열 2021: 266~267). 복합성장은 선형성장과 구역별 성장이 함께 보이는

성장모델	전제조건	성장방식	모식도	비고
무작위	정해진 공간	매장할 구성원이 발생하게 되면 고분군의 전체 영역 안에서 위치를 무작위로 선택하여 고분을 축조하는 방식		-전체 영역 안에서 밀도 증가 -고분군은 성장하지만 그 분포는 고르지 않음
선형	정해진 공간	일정한 방향으로 고분을 축차적으로 설치하면서 고분군의 영역이 확대되는 방식		-정해진 공간을 순차적으로 채움 -공간이 ①빈 공간을 찾아 밀도 증가 ②역방향으로 공간 재확장 ③다른 고분군을 요역 공간으로 설정(이동)
구역별	정해진 공간	여러 개의 구역으로 미리 분할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매장 구성원이 생기면 각 섹터를 채워나가는 방식		-사회집단 내부에 현실적으로 각 구역을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매장공간으로 사용하는 하위 집단들이 존재하는 모델

그림 1. 고분군의 형성과정에 대한 성장모델 (박형열 2020: 217 전제)

것으로 군집을 이루는 소군의 고분들이 구역단위로 선형성장을 하는 방식을 띤다(그림 2,3).

이 중에서 구역별 성장이 신라 고분군에서 가장 특징적으로 보이는 성장패턴이다. 이러한 형상은 군집분(박형열 2020)의 형태를 갖추고 있어서 가족이나 친밀한 관계의 집단을 중심으로 분묘를 축조하는 신라의 특징이 반영되어 있다.

다시 정리하면 신라 고분군은 구역별 성장을 보이고, 묘제별 위계가 구분되는 특징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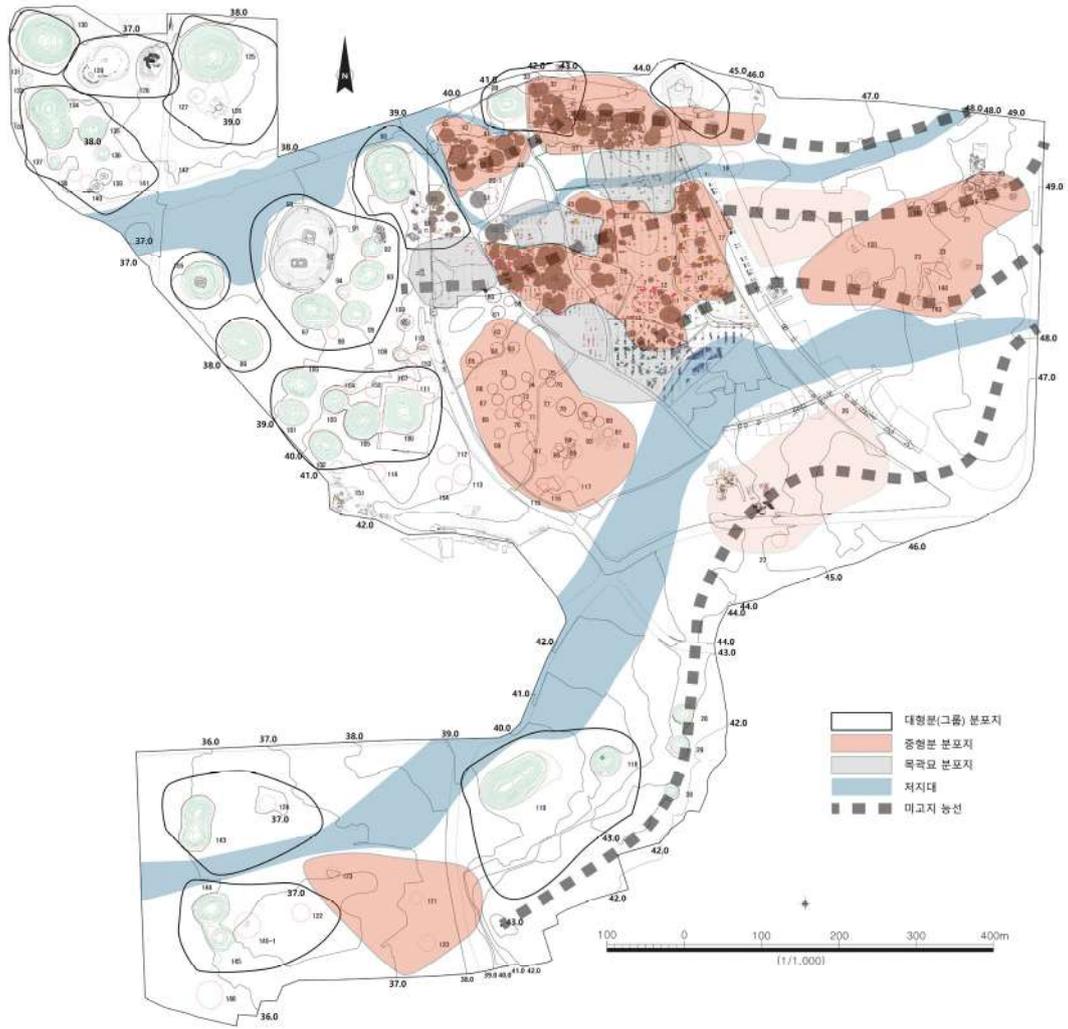


그림 2. 경주 월성북교분군 5세기대 묘제별 구역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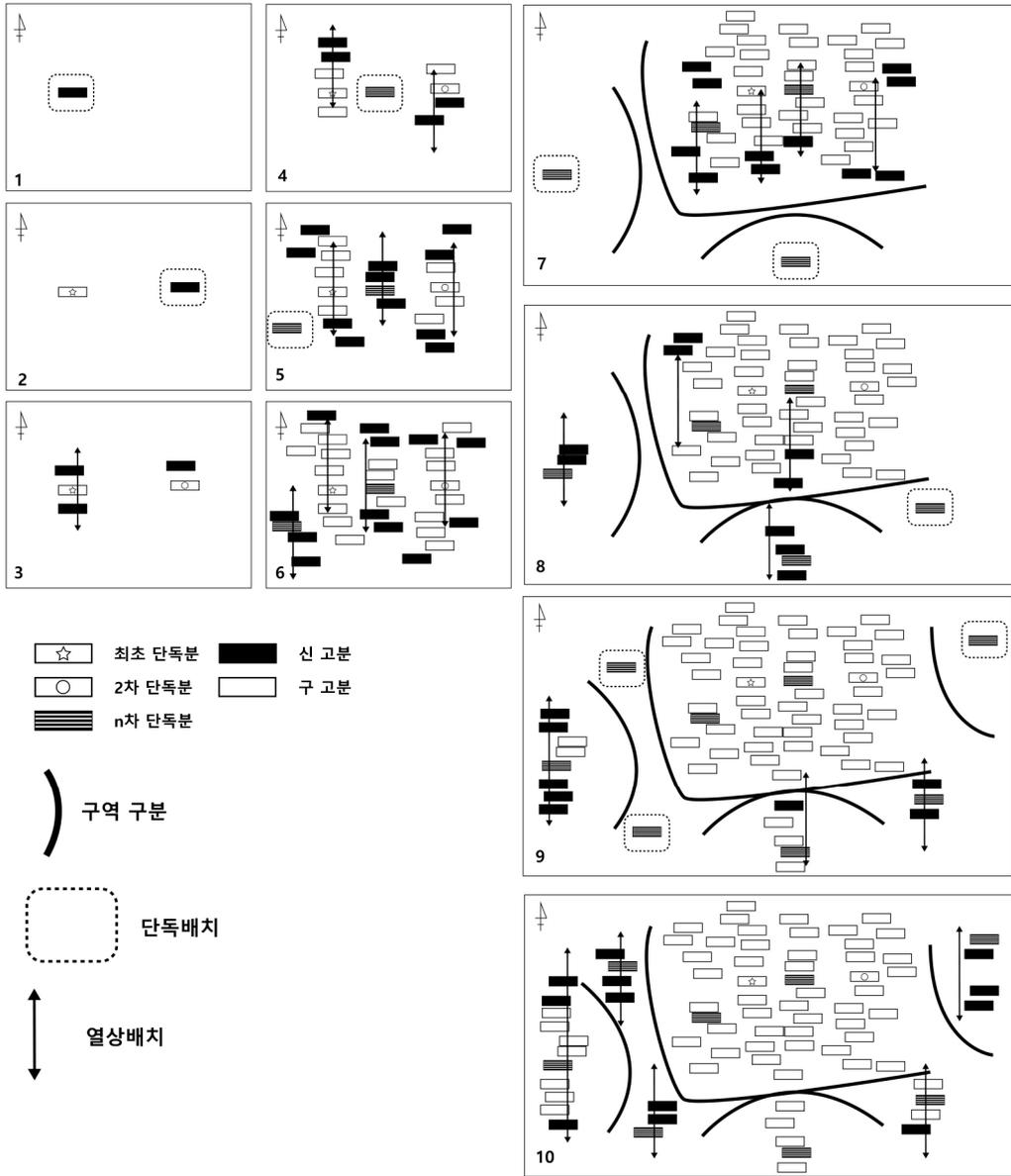


그림 3. 신라 고분군의 형성과정 모식도

2. 신라 고분군의 확산과정에서 보이는 특징

신라 고분이 축조되고 고분군이 조영 및 형성되는 과정은 각 지역의 고분군마다 시기를 달리하여 확인된다. 원삼국시대부터 삼국시대까지 지속적으로 고분군이 형성된 유적과 이들 고분군과 달리 4세기대부터 고분군이 형성되거나 3세기대의 분묘가 확인되지 않지만 4세기대 다시 분묘군이 조성되는 경우가 있으며, 5세기대에 고분군이 형성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5세기 늦은 시기부터 6세기대에 고분군이 형성되는 것도 확인된다. 시기를 달리하여 신라의 영역 내에서 고분군이 조성되는 고분군을 정리하면 몇 가지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 경우는 원삼국시대부터 삼국시대까지 지속적으로 고분군을 형성하는 경우이다. 대표적으로 경주 황성동고분군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리고 경주 월성북고분군, 경주 조양동유적, 경주 덕천리유적, 울산 중산동고분군, 포항 옥성리고분군, 경산 임당유적, 영천 완산동고분군, 대구 서변동고분군, 칠곡 심천리유적, 부산 복천동고분군 등이다. 이들 고분군은 누대에 걸쳐 고분군을 형성하면서 지역 내 거점에 위치한다. 이때 고분군의 특징은 묘제간에 공간을 헤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연속적으로 고분군이 만들어지면서 수평적 확장 양상을 보인다.

두 번째 경우는 4세기대부터 고분군이 형성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2세기대까지 분묘가 조성되다가 3세기대에 분묘군이 확인되지 않고, 4세기대 다시 고분군이 조성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대표적으로 경주 동산리고분군은 4세기대를 축조가 시작된다. 그리고 경주 사라리고분군은 사라리 130호를 기준으로 2세기 중엽부터 분묘가 축조되지 않다가 4세기 무렵부터 다시 분묘가 축조되는 양상을 보인다. 경주 근교에서는 경주 구정동고분군과 구어리유적 등도 4세기대 형성된다. 세장방형의 경주식목곽묘와 적석목곽묘 등이 확인된다. 포항 남성리 유적은 옥성리고분군에서 남동쪽에 자리하고 있으며, 적석목곽묘가 확인된다. 영천에서는 청정리유적에서 4세기 중엽부터 목곽묘 고분군이 형성된다. 울산에서는 약사동북동유적과 하삼정유적이 조영되고 있으며, 늦은 시기에는 창녕에서 계성고분군이 축조된다.

4세기대에 나타나는 고분군에서는 목곽묘를 시작으로 적석목곽묘가 함께 등장하고 있다. 포항 마산리 149-4번지 적석목곽묘, 남성리 등은 대표적인 적석목곽묘로 볼 수 있다. 경주 중심고분군에서도 H-17호는 적석목곽분으로 발전하기 이전 단계의 적석목곽묘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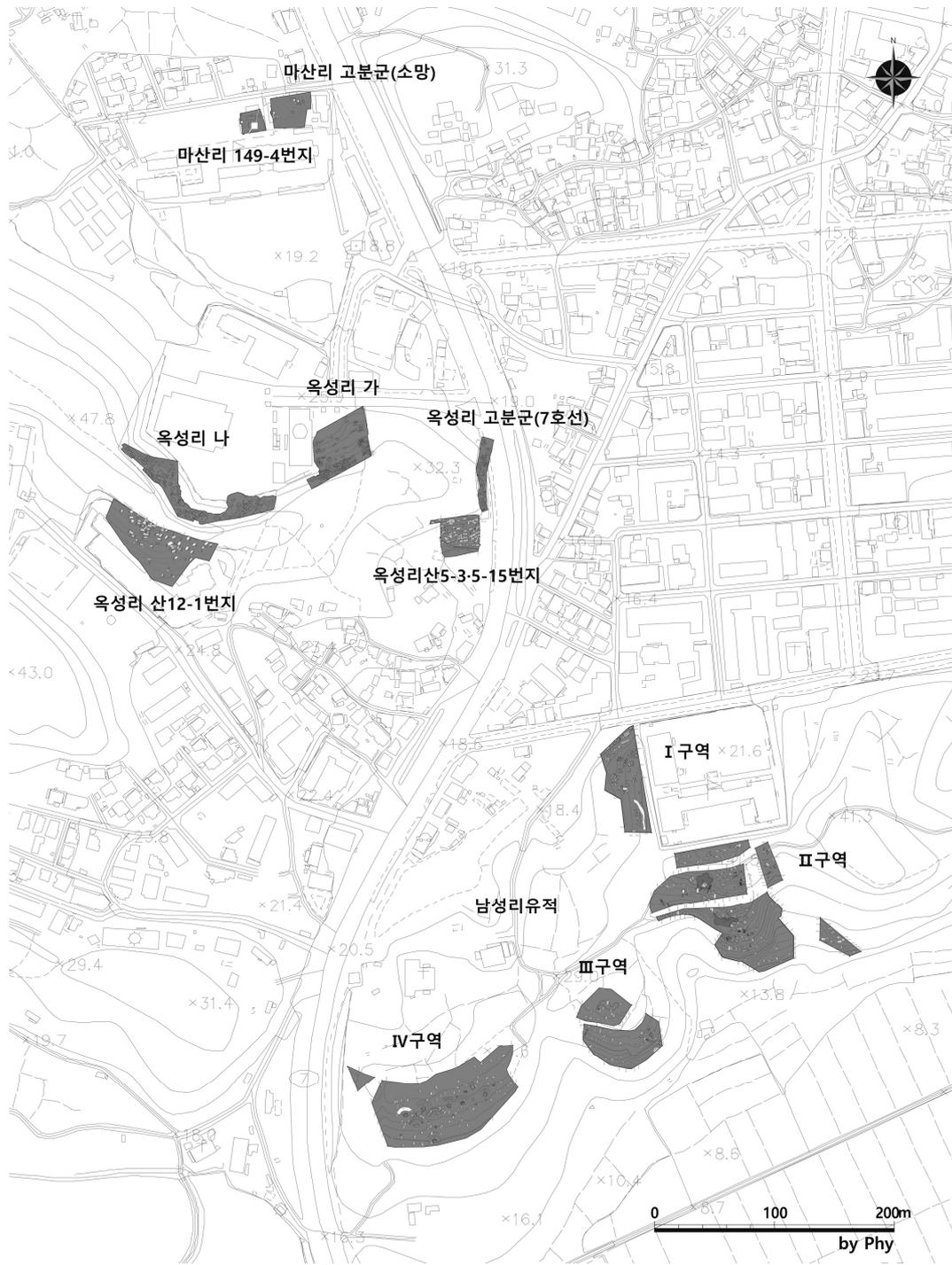


그림 4. 포항 흥해지역 고분군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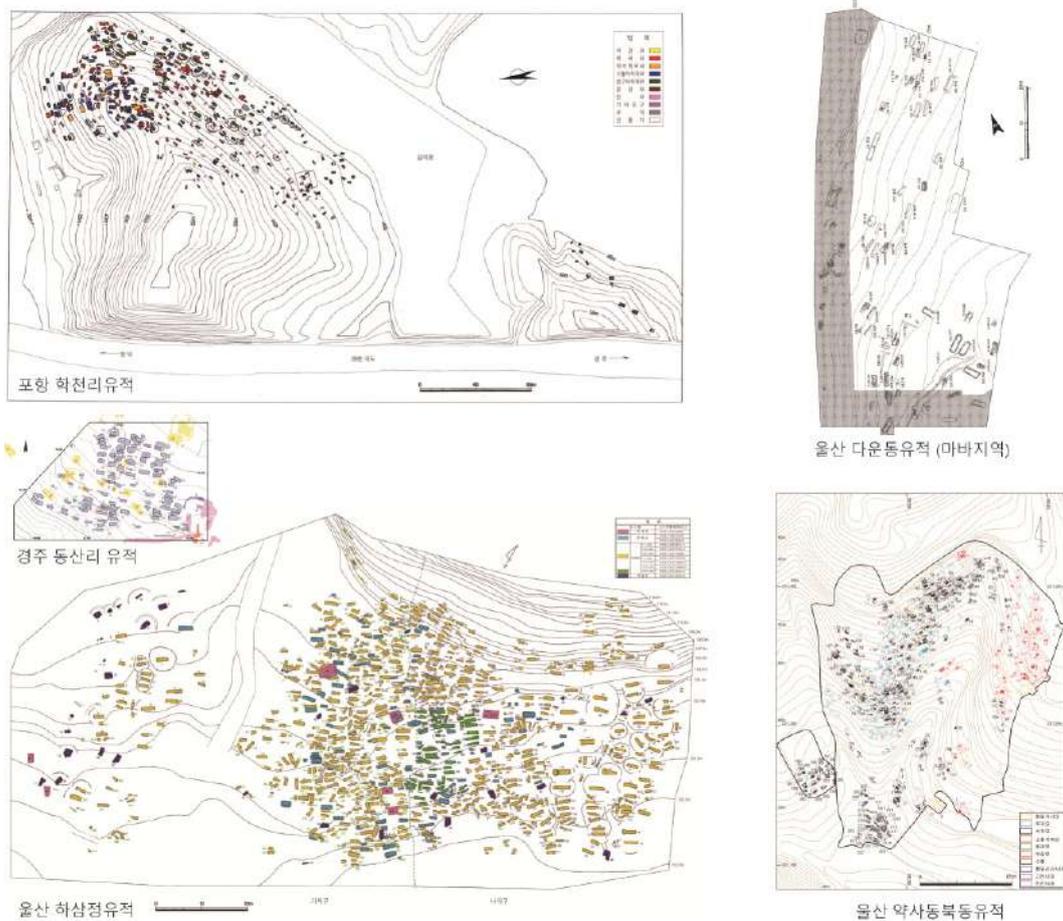


그림 5. 4~5세기대 신라 고분군 유구배치도

세 번째 경우는 5세기대부터 고분군이 형성되는 경우이다. 경주 탑동고분군을 한 예로 들 수 있다. 그리고 영천 화남리 신라묘군에서는 5세기 초경부터 고분군이 형성된다. 화남리 고분군은 철제무기와 방어용구인 종장관주와 찰갑 등의 유물이 다량으로 출토되어 군사적인 요충지로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본다(성림문화재연구원 2015 356쪽). 부산에서는 연산동고분군이 축조되고, 창녕에서는 교동고분군이 조영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강릉 초당동고분군과 영덕 괴시리 고분군 등이 축조되면서 동해안지역으로 신라 고분군이 확산된 모습을 보인다.

5세기대에는 대형 적석목곽분이 경주 중심고분군에 축조되기 시작하고 주변지역에서는

적석목곽묘가 단순화된 석곽묘가 주 묘제로 채용되는 양상이 보인다. 적석목곽분의 등장은 호석과 봉분이라는 개념과 묘역을 구분하고 단일고분을 나타내고 있다. 이전 단계에의 무덤을 고려하지 않고 고분의 범위를 설정하고 만드는 양상이 중심고분군에서 확인되고 있어서 상하로 중층을 이루는 고분이 있다. 하지만 중소형분에서는 호석이 연결되어 군집분을 이루는 수평확장이 확인된다.

네 번째 경우는 6세기대부터 고분군이 형성되는 경우이다. 경주에서는 서악동고분군을 중심으로 한 장산고분군, 보문동고분군, 방내리고분군 등이 대표적이다. 지방에서는 대구 불로동고분군 등이다. 이 단계에 새롭게 나타나는 고분군에서는 경주 장산고분군과 같이 석실을 주묘제로 사용하는 고분군의 조영 되고, 이전 시기의 적석목곽분은 축조되지 않는다. 또한 보문동고분군은 명활산성의 배후 고분군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이 산성과 함께 그 주변에 고분군이 형성되는 양상이 상주, 창녕 등과 같은 변방지역에서 확인된다.

6세기대 고분군은 산능선을 따라 고분이 축조되고, 석실분을 중심으로 고분군이 형성된다. 이 시기에는 경주에서 고분군이 월성북고분군에서 서악동고분군으로 이동하는 것과 같이 고분군의 재배치 양상이 뚜렷해진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구역별로 고분군이 형성되던 것이 보다 넓은 범위에서 왕릉역과 왕족묘역, 귀족묘역이 구분된 형태를 띠고 있다.

다섯 번째는 6세기 후반부터 고분군이 형성되는 경우이다. 이들 지역은 신라의 가야복수와 한강유역 진출이라는 결과로 새롭게 편입된 지역으로 구금관가야지역, 한강유역, 구대가야지역 등에 위치한 고분군이다.

Ⅲ. 신라 고분군의 확산패턴으로 본 신라의 지방구조

1. 신라 고분군의 확산패턴

앞에서 살펴본 신라 고분군의 확산과정에서 보이는 특징을 정리하면 신라가 영역을 확장하는 방식과 지방 진출 방법에 대한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신라의 중심고분군은 4세기 이후 본격적으로 고분군이 형성되기 시작한다(박형열 2020). 중심고분군은 경주 월성 서성벽의 하층에서 확인된 인골로 보아 4세기 이전부터 고분군이

형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월성일대는 서성벽 하층 인골이 4세기대 목곽묘의 매장방법과 유사한 점으로 미루어 황성동고분군에 비견되는 3~4세기대 고분군이 자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즉, 3~4세기대 경주 월성고분군에서 서북쪽으로 확장되면서 5세기대 적석목곽분이 본격적으로 자리한 월성북고분군이 형성된다. 월성북고분군은 내부에 묘제별 구역을 따로 구분하여 분묘가 축조되는 양상이 특징이다. 곧 신라고분군은 구역을 나누어 분묘가 조성되는 양상이 확인된다. 이에 주목하여 신라고분군이 지방거점에 형성되는 양상에 대해 좀 더 접근해 보고자 한다.

앞서 살펴 본 신라 고분군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고분군의 패턴을 정리할 수 있다. 패턴① 4세기대 적석목곽묘가 지방 거점고분군 내 등장한다. 패턴② 4세기대 중앙과 지방거점의 연결하는 교통로 상의 중간 공지에 새롭게 상위고분군이 형성된다. 패턴③ 5세기대 적석목곽분이 지방 거점고분군 내 별도의 공간(주변 미고지나 구릉)을 차지하면서 등장한다. 패턴④ 5세기대 중앙과 지방, 상위거점을 연결하는 교통로 이외의 내륙 공지에 하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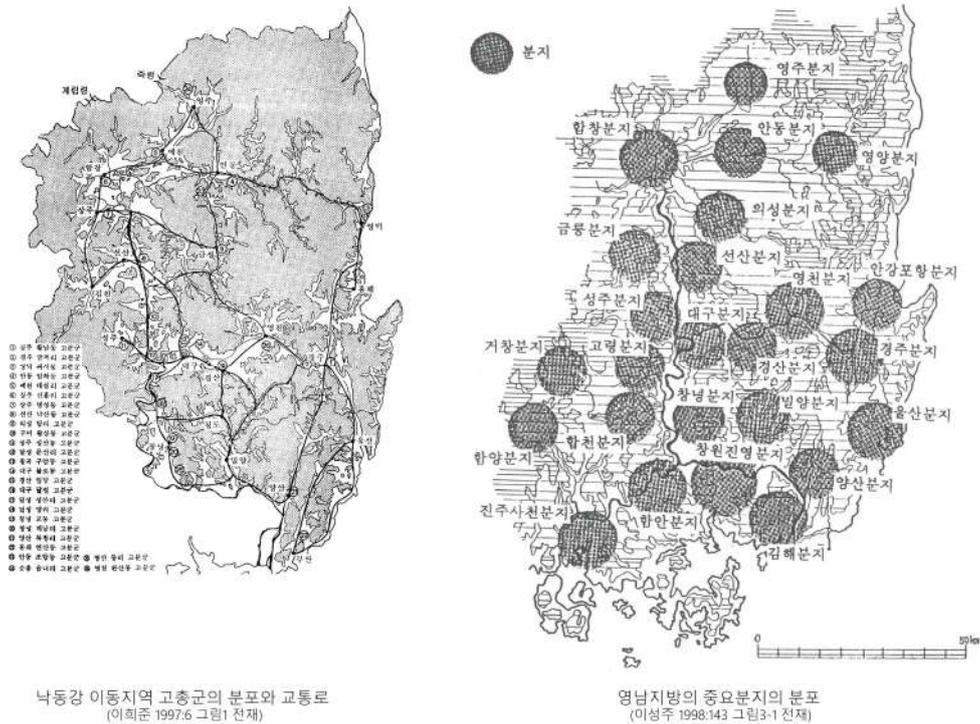


그림 6. 신라 고분군의 분포와 중요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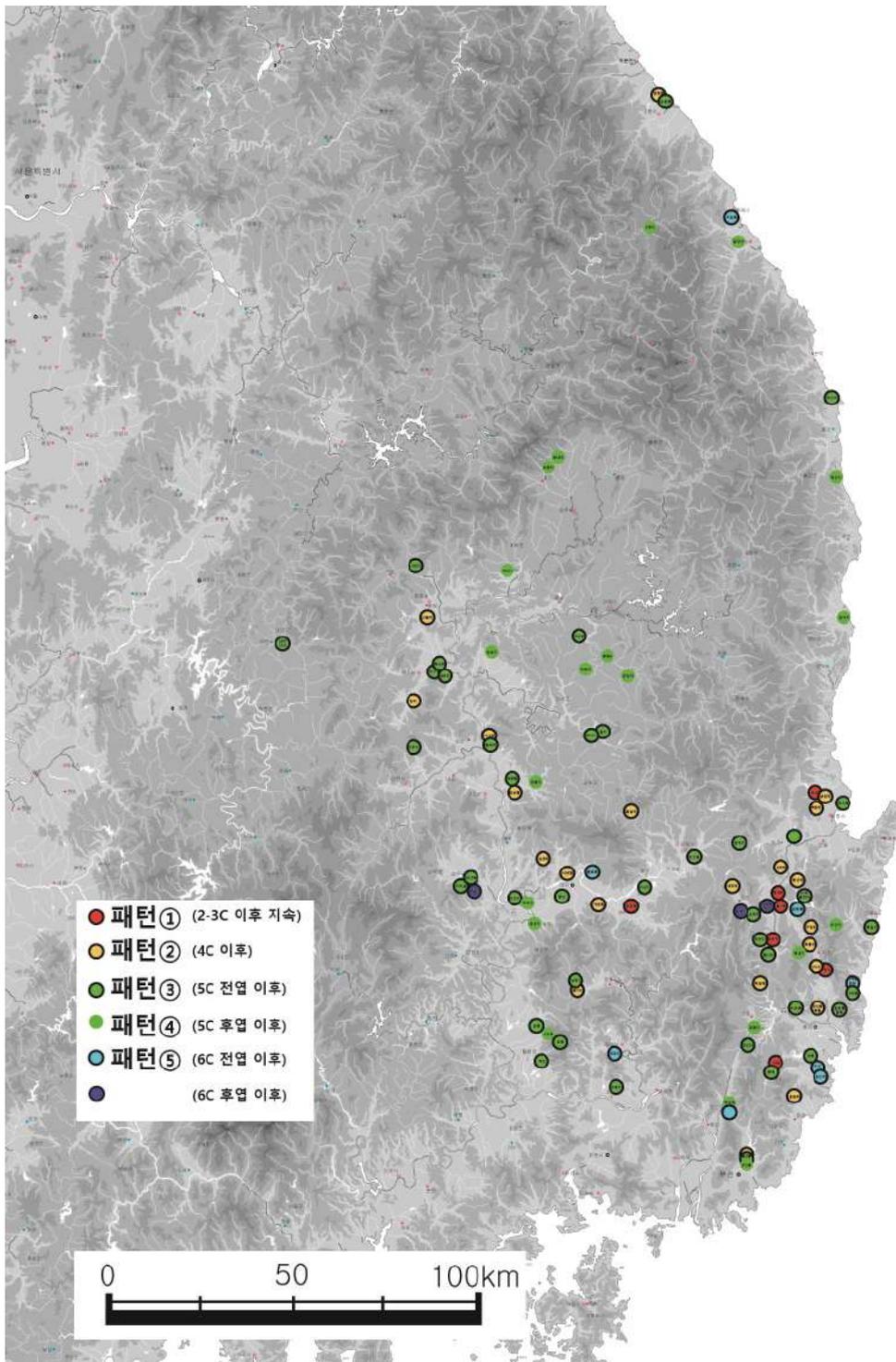


그림 7. 신라고분군의 조축시기와 유형

고분군이 새롭게 등장한다. 패턴⑤ 6세기대 고분군의 산지 이동과 묘역의 공간적 재배치가 이루어진다.

패턴①에서는 4세기대 적석목곽묘가 지방 거점고분군 내 등장한다. 포항 옥성리고분군에 포함되는 마산리와 남성리 일대에 적석목곽묘가 확인된다. 울산 중산리고분군과 경산 임당유적 등에 적석목곽묘가 확인되고 있으며, 분묘의 수평적 배치 양상이 확인된다. 결과적으로 영남지역 중요분지에 형성된 소국단위의 지방거점이 신라로 편입되면서 교통망을 형성하게 되고, 지방거점을 연결하는 도로망이 활성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패턴②에서는 4세기대 중앙과 지방거점의 연결하는 교통로 상의 중간 공지에 새롭게 상위고분군이 형성된다. 거점고분군과 경주 중심고분군 사이의 공간에 목곽묘를 중심으로 한 예하 고분군이 조영된다. 예를들면 경주 동산리고분군, 사라리고분군, 구어리유적 등을 들 수 있다.

경주 동산리고분군은 4세기대 목곽묘를 중심으로 고분군이 형성되기 시작하며, 사라리고분군은 3~4세기대 유구의 수가 빈약하여 중단되었다가 다시 축조가 이루어지는 양상으로 여겨진다. 구어리유적의 경우는 울산 중산리와 인접해 있으며, 경주로 진입하는 길목에 자리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이상의 패턴으로 보아 신라는 거점지역을 확보한 이후 신라 중심부와 거점지역 사이의 인적인 드문 공지 혹은 지리적으로 내륙 공간에 안정적으로 인구를 이주시키고, 지배를 강화한 것으로 추측된다.

소위 진한 12국을 점차 병합 혹은 통합하는 과정에서 거점지역에 위치한 소국단위의 집단을 지배하고, 그들 지역과의 지리적 공간을 확보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면 포항과 경산 지역의 경우 4세기 이전에 복속한 결과 경주와 포항(동산리고분군, 사방리고분군), 경주와 경산(사라리고분군)을 잇는 구간에 공지로 남아 있던 지역에 소규모의 집단이 마을을 이루고 정착하는 모습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패턴③에서는 5세기대 적석목곽분이 지방 거점고분군 내 별도의 공간(주변 미고지나 구릉)을 차지하면서 등장한다. 경주 월성북고분군을 비롯한 경주 황성동고분군, 금척리고분군, 안계리고분군, 경산 임당고분군, 영덕 괴시리고분군, 강릉 초당동고분군, 창녕 계성고분군, 교동고분군 등에서 분형을 갖춘 고총고분이 지역 내 고분군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인다.

창녕은 지형적으로 4군데의 고분군이 있으며, 계성지구에서 교동지구로 5세기 어느 시점

에 중심이 옮겨간 것으로 추정된다(이희준 2005: 29-30). 창녕지역의 고분군에서는 여러 소군으로 구분된 군집분이 확인된다. 이렇게 소군으로 구분된 고분군 분포 현상은 경산지역 임당지구의 예처럼 낙동강 이동의 여러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데, 한 축조 집단의 지점을 옮겨 가면서 연속적으로 소군을 이루어나간 것이 아니라 성격이 다소 다른 집단들이 축조 개시 시점에 시차는 있을지언정 각기 조성해나간 별개 고분군으로 여겨진다(이희준 2005: 33). 소군으로 구역이 구분되어 고분군을 형성하는 현상은 경주 월성북고분군에서도 확인되고 있으며, 신라 고분군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이다.

패턴④에서는 5세기대 중앙과 지방, 상위거점을 연결하는 교통로 이외의 내륙 공지에 하위고분군이 새롭게 등장한다. 경주 월산리고분군, 손곡·물천리고분군, 두산리 산66고분군, 봉길리고분군, 제내리고분군, 영천 청정리고분군, 경산 신상리고분군, 울산 양동리고분군, 운화리고분군 등으로 볼 수 있다. 이들 고분군은 지방거점의 하위 고분군일 수도 있으며, 지방과 상위거점을 연결하는 도로상의 내륙 위치하는 양상을 보인다. 지방에서는 보문동고분군과 같이 산성 주변의 산능선에 고분군이 조성된다.

패턴⑤ 6세기대 고분군의 산지 이동과 묘역의 공간적 재배치가 이루어진다. 6세기에는 신라 중심고분군의 경주 월성북고분군에서 서악동고분군으로 고분군이 이동하면서 지방거점 및 상하위거점 고분군에서도 변화가 관찰된다. 지방과 상하위거점에서는 중심고분군 내 묘역공간을 구분한 것에서 왕족과 귀족계층의 묘역과 비슷한 양상으로 고분군이 전개된다. 낮은 산이나 구릉을 중심으로 경주 장산고분군과 같이 귀족계층의 중소형 석실분이 밀집된



그림 8. 보문동고분군 유형(패턴④)과 서악동 장산고분군 유형(패턴⑤)

고분군을 형성한다. 이러한 형태는 경주 충효동, 방내리·월산리고분군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7세기 전엽에 산능선의 아래에 소규모의 무리를 지어 석실분이 밀집된 고분군이 나타나기 전까지 형성되는 것으로 보인다.

2. 신라 고분군의 확산패턴으로 본 신라의 지방구조

신라 고분군의 확산패턴으로 보면 신라는 2세기대까지 경주를 중심으로 한 일정 공간을 점유하는 영향력을 보이다가(1유형). 3세기대 어느 시점부터 4세기대 점차 거점 지역을 장악한 이후 중앙과 거점 지역 사이의 공간을 영유한 것으로 보인다(2유형). 다시 말하면 신라(사료국)는 경주를 중심으로 하여 점진적으로 영토를 넓혀 나가며, 지역을 통합한 것이 아니라 지역 거점을 장악한 이후 촌 단위의 내지에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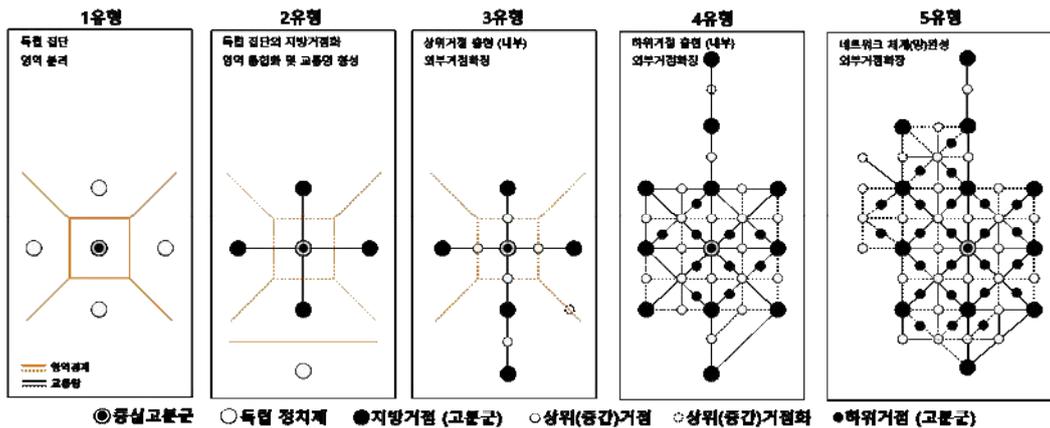


그림 9. 신라 고분군의 확산으로 본 지방구조 변화유형

이 무렵 경주 동산리 고분군과 같이 작은 단위에 형성된 고분군에서는 무기류보다 농공구류를 중심으로 철기가 다수 확인된다. 이는 촌단위의 집단이 군사적인 목적보다 농경을 주목적으로 한 집단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신라는 지방 거점지역을 확보 후 내부적으로 교통망을 형성하고 중간 지점에 상위 거점을 형성한 것으로 생각된다(3유형).

이후 지방거점에서 그 외곽(부)로 영향력을 확대시키면서 점차 내부의 연결망은 공고하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시점에는 상위거점보다 내륙으로 하위거점이 형성되고, 소지역

의 지역사회를 형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방거점의 역할은 행정과 군사적인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4유형).

1~4유형과 같이 신라는 외부 집단의 세력을 흡수 통합하고, 지방 거점화 한 이후 내부 공간에 주민을 이주(사민)시켜 확보된 범위를 농경이나 생산시설 등으로 활용한 것으로 추측된다. 결과적으로 5유형과 같이 지방거점을 확보하고 내부를 상하위 및 촌단위의 세력을 매우면서 영역에 대한 지배력을 공고히 하는 식으로 지방을 통제한다. 따라서 신라 영역의 내륙지역까지 중앙과 연결된 네트워크망이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지방구조로 볼 때 신라는 거점지역 진출 후 기존 부체제에서 이야기되는 지역 지배계층에게 자치권을 부여한 간접지배 방식보다 중앙의 지배력이 강한 공동지배방식의 지역 지배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간접지배보다 강력한 견제책을 세우고 지방을 지배하고 영역화하였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내용으로 보면 신라는 영토를 넓힌 이후 적극적인 주민 이주(사민) 정책으로 내륙의 영토를 활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지방거점은 지방 재지수장층(엘리트)의 권력이 점차 약화되고, 6세기 이후 법제화를 통한 지방관리가 다스리는 것으로 변화한다. 내륙 지방거점은 행정적 중심지가 되고, 군사적인 거점의 기능은 변방지역의 지방거점에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창녕지역을 들 수 있다. 4세기 말의 주된 영토 확장 방향이 낙동강 하류역이었다면 5세기대에는 낙동강 중류역을 주된 대상으로 하였던 것으로 보는 견해(이희준 2005: 31-32)처럼 5세기대 이후 창녕과 같은 변방지역에 대한 지배를 점차 강화하고 내륙 지방거점보다 군사적인 성격을 띠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6세기 후반 이후 영토확장에서 앞서 개척했던 지방지배방식이 그대로 적용되는 양상이 확인된다. 그리고 한강을 정복한 이후에는 개척지를 완전정복하는 방법으로 방식이 발전한다.

IV. 맺음말

신라 고분군은 구역별 성장패턴을 가지고 있으며, 묘제 간에 공간을 침범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 중심고분군에서 5세기대에 구역은 위계에 따라서 정해진 공간이 있고, 대형 적석

목곽분의 경우 왕릉급 고분과 배장분이 하나의 세트를 이루며 선형으로 구역이 이동하는 패턴을 보인다. 6세기대에는 왕릉역과 왕족묘역, 귀족묘역이 구분된 거대한 산지성 고분군을 형성한다.

지방에서는 기존의 지방집단의 고분군이 자리한 공간에 4세기대 적석목곽묘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또한 기존 위치와 능선을 달리하여 이격된 고분군이 조성되기도 한다. 나아가 경주 중심부와 지방 거점 사이의 하위 단위 공지에 새롭게 고분군이 조성되는 양상도 있다. 5세기대에는 중심부에 적석목곽분이 나타나는 것과 같이 지방거점에 적석목곽분이 확인되고, 적석목곽묘에서 변형된 석곽묘가 석곽분으로 고층화된 고분이 등장한다. 6세기대에는 석실분이 새롭게 묘제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신라의 중심부와 지방은 중심부에 나타나는 양상과 비슷한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지방에서는 거점지역에 중앙의 묘제와 고분군의 특징이 나타난 이후 거점 이외의 하위 단위 소지역에 새로운 고분군이 조성되는 양상이 있다. 이러한 현상은 중앙과 지방거점 사이의 불안한 정세가 완화되고 소지역까지 일반계층이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결과로 이해된다. 결과적으로 중앙의 지방 지배력이 강화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때 지방구조는 경주 중심부와 지방거점, 상위, 하위 거점 등으로 차등적인 관계가 성립되고, 신라는 확보한 영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참고문헌 □

- 권용대, 2017, 『울산지역 삼국시대 고분 연구』, 경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대환, 2001, 「영남지방 적석목곽묘의 시공적 변천」, 『영남고고학』29호, 영남고고학회.
김대환, 2004, 「신라고층의 지역성과 의의」, 신라문화 23호, 동국대신라문화연구소.
김대환, 2006, 「신라 왕경 고분의 분포와 체계 변화 -석실묘 출현기를 중심으로-」, 『신라문화제학술 논문집』 제27집, 경주시.
김용성, 1989, 「경산·대구지역 삼국시대 고분의 계층과 지역집단」, 『영남고고학』6호, 영남고고학회.
남익희, 2022, 「삼국~통일신라시대 상주의 고분문화」, 『선사·고대의 尙州상주』, 상주박물관, pp.89-131.
박광열, 1992, 「금호강하류역 고분의 편년과 성격 -도질토기를 중심으로-」, 『영남고고학』11호, 영남

- 고고고학회, pp.35-79.
- 박형열, 2016, 「경주 덕천리유적 목곽묘 단계의 시공간적 특징으로 본 집단과 계층」, 『한국고고학보』 100집, 한국고고학회.
- 박형열, 2017, 「경주 쪽샘유적 적석목곽분의 특징과 과제」, 『문화재』50권 4호, 국립문화재연구원.
- 박형열, 2019, 「경주 월성북고분군 출토 대부완의 분류와 편년」, 『영남고고학』83호, 영남고고학회, pp.61-90.
- 박형열, 2020, 『4~6世紀 新羅 中心古墳群 研究』,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형열, 2021, 『고신라 고분군 연구』, 학연문화사.
- 박형열, 2021b, 「신라 적석목곽분의 기원과 변화」, 『적석목곽묘로 본 신라의 기원과 성장』, 국립경주 문화재연구소, pp.84~107.
- 이동욱, 2018, 「5~6세기 경주지역 고분의 위계와 변천양상」, 『야외고고학』제32호, pp.31-64.
- 이상규, 2023, 「강릉 초당동고분군 묘역축조과정 연구」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상수, 1995, 「영동지방 신라고분에 대한 일고찰 - 북평지역 고분군을 중심으로 -」, 『한국상고사학보』제18집, 한국상고사학회.
- 이성주, 『新羅 · 伽倻社會의 起源과 成長』, 學研文化社.
- 이재홍, 2009, 「경주 황성동 원삼국시대 분묘의 변천과 성격」, 『영남문화재연구』22-02, 영남문화재연구원.
- 이주현, 2014, 「황남대총 남분 출토 동전의 성격과 역연대」, 『신라문화』43호,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 이주현, 2015, 「경주 황남대총 북분 주인공 성격 재고」, 『신라문화』45호, 동국대학교신라문화연구소.
- 이한상, 1998, 「금공품을 통해 본 5~6세기 신라분묘의 편년」, 『경주문화연구』창간호, 경주대학교 경주문화연구소.
- 이한상, 2003, 「동해안지역의 5~6세기대 신라분묘 확산양상」, 『영남고고학보』제32집, 영남고고학회.
- 이한상, 2005, 「5~6세기 신라의 변경지배방식 - 장신구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사론』33권,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 이희준, 1996, 「신라의 성립과 성장 과정에 대한 고찰 - 고고 · 역사 · 지리적 접근 -」, 『신라고고학의 제문제』, 한국고고학회.
- 이희준, 2000, 「대구 지역고대 정치체의 형성과 변천」, 『영남고고학』26호, 영남고고학회.
- 최경규, 2006, 「삼한시대 경주 황성동집단의 공간구성과 성격」, 『영남고고학』39호, 영남고고학회, pp.109-145.
- 최수형, 2010, 「충전석목곽묘의 구조변화와 성격 검토」, 『중앙고고연구』7호, 중앙문화재연구원.

- 최수형, 2013, 「경주지역 적석목곽묘의 위계구조 검토」, 『중앙고고』12호, 중앙문화재연구원
- 최수형, 2014, 「경주지역 목곽묘의 변천과정과 성격 검토」, 『야외고고학』21.
- 최진녕, 2006, 「5~6세기 상주지역 고분 연구 -석곽묘를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보식, 2009, 「고고자료로 본 신라의 한강유역 지배 방식」, 『백제연구』제50집.
- 홍보식, 2014, 「신라·가야 고분 교차편년」, 『영남고고학』70호, 영남고고학회.
- 홍지윤, 2003, 「상주지역 5세기 고분의 양상과 지역정치체의 동향」, 『영남고고학』32호, 영남고고학회.

[보고서]

- 嶺南文化財研究院, 2001, 『永川 淸亭里遺蹟』.
- 聖林文化財研究院, 2013, 『永川 華南里 新羅墓群 I-木槨墓-』.
- 聖林文化財研究院, 2015, 『永川 華南里 新羅墓群Ⅲ-石槨墓 本文1-』.

『신라 고분군의 확산과 지방구조』에 대한 토론문

심 현 철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

본 발표문은 신라 고분군이 지방으로 확산·이입되는 양상을 통해 신라의 영역화 과정을 살피고자 한 것이며,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지방구조의 변화로 설명하였다. 그동안 고분군에 관한 연구가 지역 단위의 단위 정치체에 국한된 것을 넘어 신라 고분군 사이의 관계성을 통해 신라 사회의 통합과정을 이해하고자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신라 고분군의 특징을 성장 모델을 통해 설명하였고, 고분군의 확산과정을 5가지 패턴으로 나누었다. 이를 종합하여 고분군의 확산으로 지방구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모식도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 신라 중앙의 지방지배에 대해 자치권을 부여하는 간접지배로 인식한 기존 견해와는 달리 강력한 견제책을 세우는 공동지배방식으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주장하였다. 지방 세력을 흡수하여 거점화한 이후에는 이주나 사민을 통해 영역화를 공고히 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발표자는 고분군의 확산을 통해 신라 사회의 성장 과정을 도식적으로 풀어냈으며, 고분군 사이의 관계성을 통해 중앙에서 지방으로 다시 그 주변으로 중앙의 영향력이 어떻게 확대되는지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글의 논지가 명확하고 도식으로 이를 잘 설명하고 있어 토론자도 글의 내용에 상당 부분 수긍이 가지만, 설명하고 있는 개념이 모호하거나, 사례를 제시하지 않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토론자와 시각을 달리하는 부분 등이 있어 보충설명을 요청하는 차원에서 이를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하고자 한다.

1. 고분군의 성장모델 혹은 성장패턴을 <그림 1>에서 3가지로 제시하고 본문에서는 선형 성장과 구역별 성장이 함께 보이는 것을 복합성장이라 하여 총 4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복합성장의 예로 대릉원 일원 고분군(월성북고분군)을 제시하였고, 구역단위로 선형성장을 하는 방식이라 설명하였다. 여기서 ‘구역단위로 선형성장’이라고 한 표현은 구역별 성장에

서 설명한 것처럼, 먼저 여러 구획이 나뉘어 있고 그 개별 구획 안에서 선형으로 분묘가 들어서는 것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의 구역이 단위가 되어 형성되고 난 뒤 다른 구역으로 확대되어 갈 때, 전체적으로 구역이 선형성장을 한다는 의미인지 모호하다. 월성북고분군은 이 중 어떤 상황을 말하고자 한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1. 월성북고분군을 예로 든 신라 고분군의 가장 큰 특징으로 구역별 성장과 묘제 간에 공간을 침범하지 않는다는 것을 들었다. 이 시기 신라고분은 적석목곽묘가 상위를 차지하고 그 하위에 목곽묘, 석곽묘, 토광묘, 옹관묘 등이 위치하여 묘제에 따른 위계 차는 분명하다. 다만, 이들이 공간적으로 완벽히 분리되어 공간을 배타적으로 점유해서 나타나는 현상은 뚜렷하지 않은데, 묘제 간에 공간을 침범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추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2. <그림 2>에 표현한 것처럼 월성북고분군은 대형분, 중소형분, 소형묘 등으로 고분의 규모에 따라 공간이 어느 정도 구별된다. 만약 본고에서 강조한 신라고분군의 구역별 성장이 이를 이야기한 것이라면 이는 지형적 영향에 따른 이유도 있다. 월성북고분군 전체를 <그림 2>와 같이 몇 개의 구역 단위로 나눈 것은 고분의 규모와 지형에 따라 어느 정도 인정할 수는 있으나, 그 외 뚜렷한 기준은 없어 보인다. 특히, 대형분을 중심으로 그룹화시킨 군집의 경우에 이렇게 묶은 기준과 의미는 무엇인지, 군집으로 묶이지 않은 130호, 155호, 99호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 <그림 3>의 모식도는 신라 고분군의 형성과정을 나타낸 것인데, 월성북고분군의 형성 과정이기도 하다. 1에서부터 10까지의 과정을 통해 고분군이 형성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먼저, 1~7까지의 과정을 보면, 4개의 열상배치(선형성장)가 끝나면 하나의 구역 구분이 완성되는 모습이다. 그 다음, 8~9에서는 하나의 군집이 완성되고 난 후 더는 해당 군집에 고분이 축조되지 않는 모습이다. 즉, 하나의 군집이 선형성장을 통해 완성되고 나면 새로운 군집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그러나, 월성북고분군에서 이처럼 단위 구역의 축조가 순차적으로 완료되는지는 의문이다. 발굴성과를 보면, 대체로 남에서 북으로 고분군이 연접 또는 공간을 확장해서 축조되어가는 흐름이 있어 열상배치를 보이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되나, 이를

구분할 구역이 명확하지도 않을뿐더러 그 단위 구역이 완전히 성장한 후 새로운 구역으로 확대되는 양상도 아니다. 가장 이른 시기에 해당하는 분묘에서부터 가장 늦은 시기에 해당하는 적석목곽묘와 이후 시기의 석실묘까지 월성북고분군의 특정 지점이 아니라 전 범위에 걸쳐 확인된다. 아직은 모식도에서 제시한 내용을 증명할만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 듯한데, 혹시 직접적으로 참고된 지점이 있다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0에서는 구역(군집) 밖에 열상으로 배치되는 고분이 표현되어 있고 군집을 이루지는 않는데, 이것은 군집을 이룬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3. 발표자가 III장에서 언급한 신라고분군의 확산 패턴과 지방구조의 변화는 달리 말해, 고분군의 관계망을 통해 본 신라의 영역확장과정이자 지방진출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먼저, 발표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1~3유형(단계)를 살펴보면, 4세기대 2유형(단계)에 들어와 지방거점을 신라로 편입했다고 보았다. 경주를 중심으로 경산 입당, 포항 옥성, 울산 중산 일대에 대한 병합과 영역 확장이 일어났다면 그에 맞는 고고학적 근거가 필요하다. 경주의 적석목곽묘가 각 지역에 등장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듯한데, 이 시기의 해당하는 경주나 주변지역의 적석목곽묘 자료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토론자는 지방거점에 적석목곽묘가 등장한 것을 근거로 신라(경주)로의 편입을 이야기할 수 있는지 의문인데, 이 외에 지방거점 고분군 내의 유구나 유물에서 병합을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물질자료나 변화요소가 있는지 궁금하다.

3-1. 지방거점 고분군이 완전히 병합된 이후에 교통망이 형성되고 그 중간 기점에 새로운 고분군(상위거점)이 출현한다고 보았다. 그 예로 사라리, 사방리, 동산리, 구어리 등을 언급하였는데, 이 고분군은 경주에서의 전략적 이주를 통해 형성된 것이며, 지방거점화된 지역을 효율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는 고분군마다 규모도 다르고 조영 시기도 차이가 있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무엇보다 해당 고분군의 성장을 이주(사민)에 의한 결과로 보았는데, 그 구체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해당 고분군의 성격이나 역할이 지배와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무엇이었는지 보충설명을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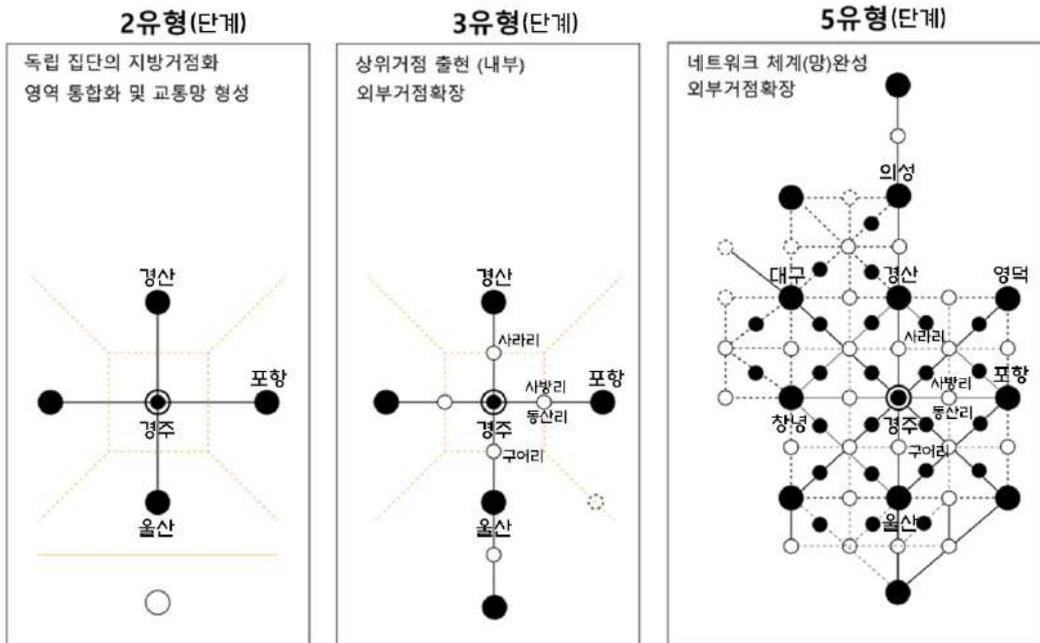


그림 1. 발표문의 그림 7을 加筆

3-2. 1~5유형(단계)의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신라의 영역화와 지방진출이 이뤄진다. 발표자는 이렇게 완성된 신라의 연결망을 통해 지배력이 공고히 된다고 보았다. 나아가 이 시기 신라 사회는 그동안 많이 이야기되어 온 지방거점세력에게 자치권을 부여하는 소위 간접지배방식이 아니라 중앙의 직접적인 지배력이 강한 ‘공동지배방식’의 지역지배가 이뤄졌다고 평가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공동지배’라는 개념은 무엇이며, ‘간접지배보다 강력한 전제책’을 세워 지방을 지배했다고 했는데 이는 어떤 방식을 말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발표문을 읽으며 생긴 의문을 바탕으로 토론문을 작성하였다. 토론자도 명확한 결론이나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에 발표 내용을 통해 많은 공부가 되었다. 어쩔 수 없이 토론자의 역할을 위해 질문은 단순 반론에 그친 게 많고 발표자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부분도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부분은 전적으로 토론자의 역량 부족임으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후기가야 중심고분군의 성장과 변동성

여 창 현

| 경상남도청 학예연구사 |

〈 目 次 〉

I. 머리말	IV. 후기가야 중심고분군의 변동성과 상호작용
II. 부장유물로 본 초기 대형목곽묘-고총고분	V. 맺음말
III. 묘제로 본 후기가야 중심고분군의 성장	

I. 머리말

4~5세기대는 삼국이 소규모 지역거점의 정치체에서 고대국가로 성장하는 과도기적인 시기로 알려져 있다. 4세기경까지 영남의 일부 지역에는 일정한 영역 안에 지배자들이 문헌 중심고분군이 출현하고 5세기 전반이 되면 고총고분을 가진 중심고분군이 성장하면서 제 정치체의 중심적 기념물이 된다. 가야 각 국의 역사의 전개와 함께 묘제의 양식과 부장토기의 양상, 고분군의 경관도 변화된다.

가야가 여러 개의 ‘소지역권(小地域圈)’로 구분된다는 것은 문헌기록뿐만 아니라 영남지방의 자연환경이나 고고학 자료의 분포상으로도 그러하고 대체로 금관가야, 대가야, 아라가야, 소가야, 비화가야, 다라국 등으로 구분한다. 가야사회를 전기가야와 후기가야로 구분하여 이해하는 시각은 일반적인 견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후기가야의 시작을 알리는 대형목곽묘가 출현하는 양상에 대해서는 주목하지만 그 배경과 변동성에 대해서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본고에서는 전기가야에서 후기가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초기 수장들의 고분으로 알려진 대형목곽묘의 양상에 주목하여 목곽묘의 규모와 구조, 토기양식의 변화, 위세품 등을 검

토하고, 이를 토대로 각 지역에서 지배집단의 공동묘지로서 중심고분군의 성장과 변동성이 고고학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Ⅱ. 부장유물로 본 초기 대형목곽묘-고총고분

1. 각 지역양식 토기의 성립과 전개

토기기종의 조합상은 일정한 지역양식을 규명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고려되어 왔다. 무덤에 부장하는 토기는 실생활용 토기보다 그 용도나 의례적 목적에 따라 기종을 더 정확하게 적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가야지역에서는 5세기 전반을 시작으로 100년이 안 되는 기간 동안 각 지역양식이 성립되어 특색 있게 존속하다가 6세기 중엽에 소멸한다. 계기적인 변화를 기준으로 삼아 25년의 편년 단위로 구분하는 편이다.

여기서 다루는 자료는 가야 각 소국의 중심고분군에서 매장유물에 소비된 유물이다. 이러한 토기 기종은 매장유물을 위한 수요에 따른 생산품이며, 가야 각 국의 부장토기의 기종 구성과 변화는 소비한 주체들의 매장유물 방식에 의해 정해졌을 것이다. 고분에 부장된 토기들에서 나타나는 기종의 공통성은 매장유물의 공통성에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이성주 2009). 후기가야의 시작을 알리는 각 지역의 대형목곽묘에서 처음 지역양식의 기종들이 부장된다. 이후 매장유물에 대량 소비되었던 기종들을 중심으로 각 지역의 특색있는 양식이 성립되고, 그 구성이 대체되고 완비되는 과정 속에서 1세기 정도 지속되었다(그림 1). 필자는 초기 대형목곽묘의 출현과 토기 편년을 근거로 후기가야의 시작을 5세기 2/4분기의 늦은 시기에서 5세기 3/4분기 무렵으로 보고, 이후 가야 각 소국의 중심고분군의 변동을 가져왔다고 보았다(여창현 2023). 이를 근거로 본고에서는 각 지역의 초기 대형목곽묘에 부장된 토기들을 I·II단계로 구분하고 4단계로 세분하였다. 4단계로 구분된 토기편년 안에서 초기 대형목곽묘와 고총고분의 단계를 설정하고 각 지역의 토기양식의 변화¹⁾를 통해

1) 합천 옥전고분군은 대가야(고령 지산동고분군)에서 행해진 매장유물법에 따라 토기양식과 기종구성이 나타난다. 다만 5세기 초부터 M2호분까지는 옥전 그 자체의 소지역양식이라고 할 만한 토기도 일정 수준으로 생산되고 부장 토기로 소비되었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합천지역(옥전고분군)을 후기가야의 속하는 하나의 지역 또는 소국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논지를 전개하고자 한다.

	or		토기양식 분화	縣洞(昌) 60木 縣洞(東) 41木 縣洞(東) 128木 玉山 120木
			지역양식 생성	縣洞(東) 7木 縣洞(東) 89木 玉山 21木 玉山 62木
			토기제사법 확립	縣洞(東) 8木 武村 2丘36木 雨水 6木 中村 3南木 玉山 80木
	代		新기종 등장	武村 2丘14木
			기종 대체	縣洞(東) 6石 合城 80,82,88石 中村 3東石 武村 2丘82石
			新기종 등장	合城 18,92石 藍坪 1石 武村 3丘81石
	代			梧谷(慶) 52石 明洞 16石
				梧谷(慶) 25,50石 梧谷(平) 13石 明洞 12-1,18,20-1,25-2,74石 泉谷 27石
			기종 대체	縣洞(東) 1石 梧谷(慶) 30,39,99石 內山 3,8-3,63-2,63-8槩 創村 A-158石 泉谷 3,7,36石 愚伏 4石 新龍 1丘4-3,4-4,14石
	代		新기종 등장	泉谷 2石 安溪 9石
			기종 대체	泉谷 19-1石
			지역양식 소멸	馬川 16石 內山 8-2,63-7,21-4,21-15, 34-1,34-2槩

그림 1. 제 지역양식 토기의 형성과정(余昌炫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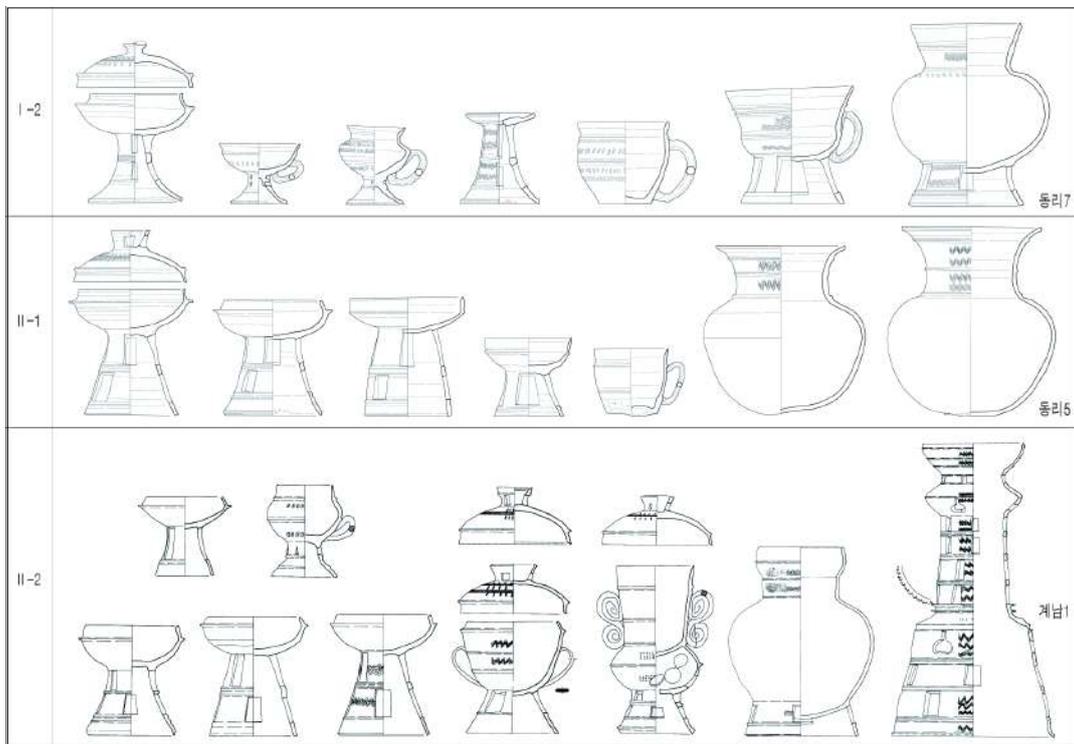


그림 2. 창녕지역 중심고분군 토기복합체의 변화양상(S: 1/8)

현재까지 창녕 계성고분군은 언제부터 조영이 시작되고 어떻게 전개되는지는 분명하지 않고 고총고분이 조영되기 이전 시기의 양상도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계성고분군 서쪽 일대의 평성지구의 지표조사를 통해 계성고분군의 조영이 늦어도 4세기 전반에는 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창녕지역에서 I 단계로 소급되는 자료는 현재까지 동리 7호 목곽묘에서 출토된 일괄 유물들이다(그림 2). 뚜껑의 손잡이 꼭지형태와 크기, 개신 외면의 즐묘열점문 시문, 고배의 대각부 침선, 뚜껑받이턱의 형태 등에서 창녕양식 토기의 범주로 파악하려는 견해도 있지만, 위와 같은 특징을 지닌 유개고배는 김해·부산지역을 포함한 낙동강 중·하류의 광범위한 지역에 분포하여 특정지역을 단위로 한 분포권을 설정하기 어렵다는 견해(홍보식 2021)도 있다. 동리 7호 목곽묘에는 유개고배와 함께 배신 외면에 즐묘열점문이 시문된 소형의 파수부대부완과 파수부대부소호, 소형기대, 컵형토기, 파상문이 시문된 파수대부완, 대부장

경호 등이 공반되었다.

동리 1·3·9호에서 출토된 토기복합체는 창녕지역 토기양식이 변화하는 획기로 주목된다. 앞 시기의 요소가 일부 잔존하면서 새로운 요소가 나타나는데, 특히 다른 지역의 토기와 구분되는 창녕지역의 독특한 특징을 지닌 토기가 고분에 부장되기 시작한 점이다. 이 시기의 가장 큰 특징은 새로운 형식의 고배와 뚜껑의 등장이다. 뚜껑은 투창이 있는 대각축소형 손잡이 꼭지가 부착되고 고배는 상하교호의 장방형투창고배가 등장한다. 이 형태의 고배들은 모두 대각축소형 손잡이 꼭지가 부착된 뚜껑과 조합되어 계열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II-1단계인 동리 5호분 축조시기가 되면 뚜껑과 고배에서 창녕지역만의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앞 시기까지 존속한 속성들은 사라진다. 이외에도 1단의 장방형투창고배와 파수 부대부완 등에서도 창녕지역 토기의 특징이 나타나는 등 창녕양식 토기가 정형화되는 시기이다(그림 2).

현재까지 고령 지산동고분군 내에서 I 단계에 해당되는 고령양식 토기의 출현은 확인되지 않으며, 인근의 쾌빈동 1호 목곽묘에서 지산동고분군의 고총고분 성립 이전의 초기 대형 목곽묘의 모습을 보여주는 자료가 확인된다(그림 3). 유개식 장경호는 강하게 돌출된 턱과 2단으로 구획된 짧은 경부를 가지고 있는데 대가야양식의 조형이다. 쾌빈동 1호 목곽묘에서는 고배가 출토되지 않아, 토기양식이나 계보에서 이후 축조된 최초의 고총고분으로 추정되는 73호분과 직접적으로 연결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발형기대의 변화상을 보면 대가야양식 토기의 성립 과정과 상대적인 고총고분의 축조시기를 유추할 수 있다(그림 3). 쾌빈동 1호 목곽묘는 유구의 절반이 훼손되어 토기구조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출토된 발형기대는 이 시기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기형과 유사하다. 대각부는 3~4단으로 구획되고 삼각형의 투창이 엇갈리게 배치된다. 73호분은 모두 12점의 발형기대가 확인되는데 대각부에 3단의 교호된 장방형 투창이 배치된 기대가 1점 확인된다. 나머지 11점의 기대는 배신부에 밀집과상문+즐묘열점문+삼각집선문으로 구성되고, 대각부에는 2~3단의 중형 투창이 직렬로 배치되어 있다. 30호분은 2점의 발형기대가 확인되는데 대각부에 2단으로 중형의 투창이 직렬로 배치되고, 배신부와 대각부에는 밀집과상문만 시문된다. 75호분은 23점의 기대가 확인된다. 대각부에 2~3단으로 구획된 방형의 투창이 직렬로 배치된 기대가 2점, 2~4단으로 구획된 삼각형 투창이 직렬로 배치된 기대가

3점, 2~3단으로 구획되고 중형 투창이 직렬로 배치된 기대가 15점, 그 중 2점의 기대는 최하단에 원형의 투창이 배치되었다. 배신부의 문양은 밀집파상문+삼각집선문이 3점 확인되고, 나머지는 밀집파상문(11점)만으로 구성되거나 밀집파상문+즐묘열점문(9점)으로 구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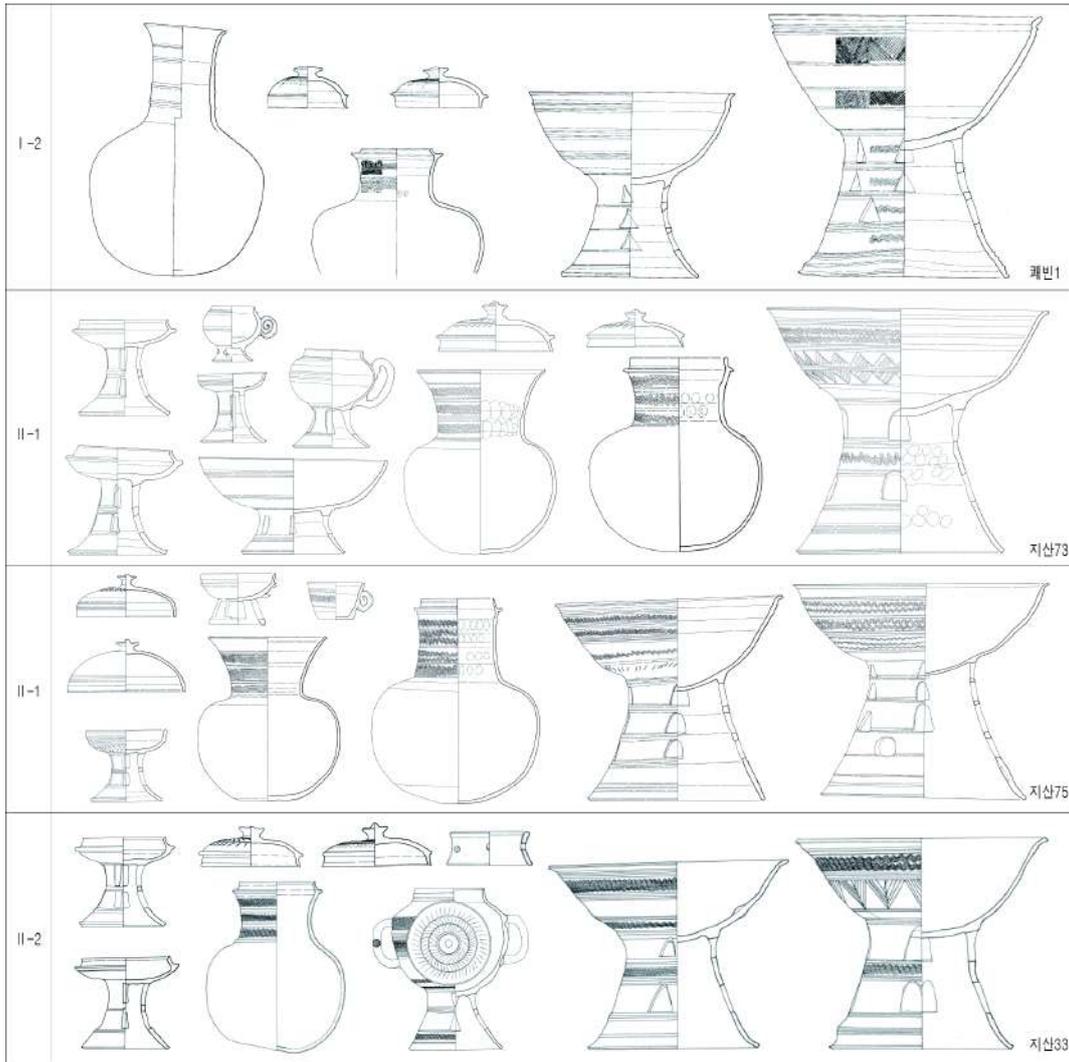


그림 3. 고려지역 중심고분군 토기복합체의 변화양상(S: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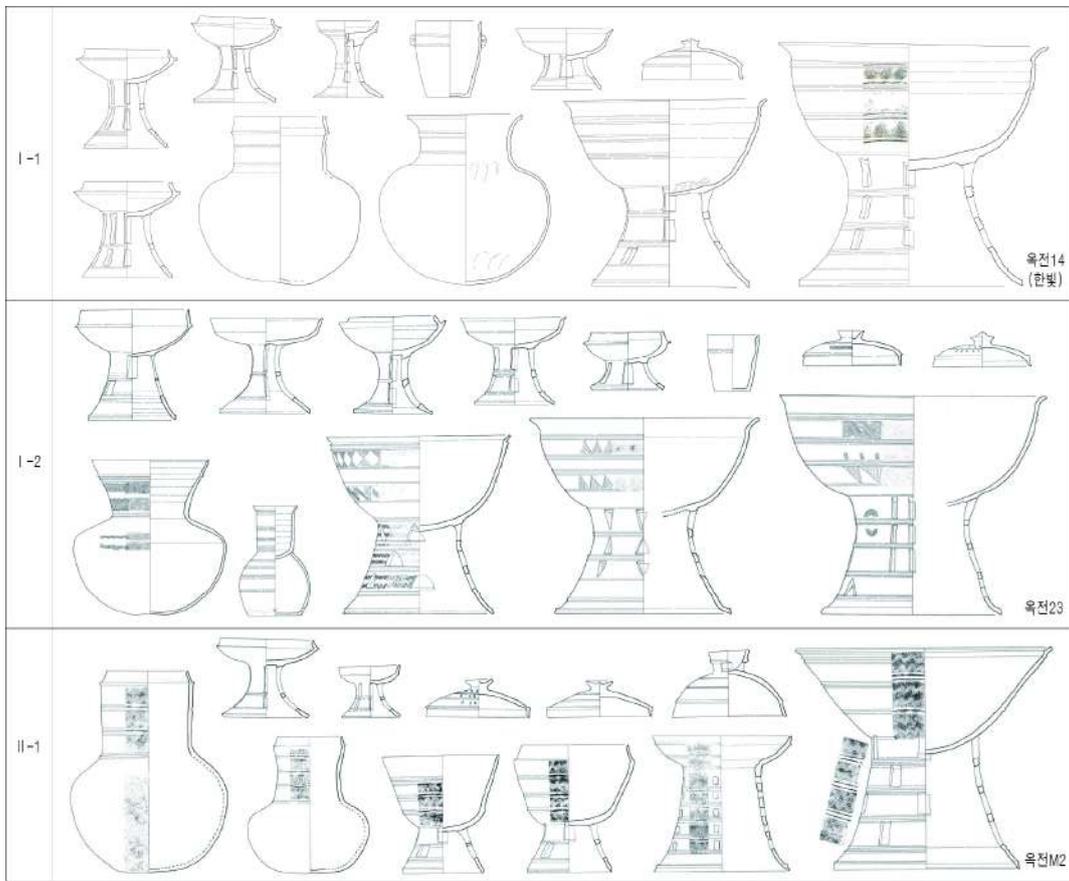


그림 4. 합천지역 중심고분군 토기복합체의 변화양상(S: 1/8)

35호분은 7점의 기대가 출토되었는데, 방형 투창이 2단으로 엇갈리게 배치된 기대가 2점, 종형의 투창이 2~3단으로 직렬 배치된 기대가 5점이다. 이 단계에서 배신부에 밀집파상문+엽맥문으로 구성된 기대(3점)가 나타난다.

합천 옥전고분군은 유적의 동남부에 위치한 성산리유적의 조사에 의해 4세기 대부터 고분이 축조되었음이 밝혀졌다. 68호묘에서 출토된 상하일렬 장방형투창의 유개식고배와 발형기대는 늦어도 I-1단계부터 토기의 양식적 측면에서 큰 변화가 이루어졌음을 유추할 수 있다. 초기 대형목곽묘의 출현과 함께 옥전양식이라 부를만한 토기복합체는 옥전 14호분에서 출토된 일괄 유물들이다(그림 4). 유개식 2단일렬다투창고배, 유개식 2단일렬투창고배는 23호분 출토품과 유사하며 양식적으로 이른 조형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출토된 장경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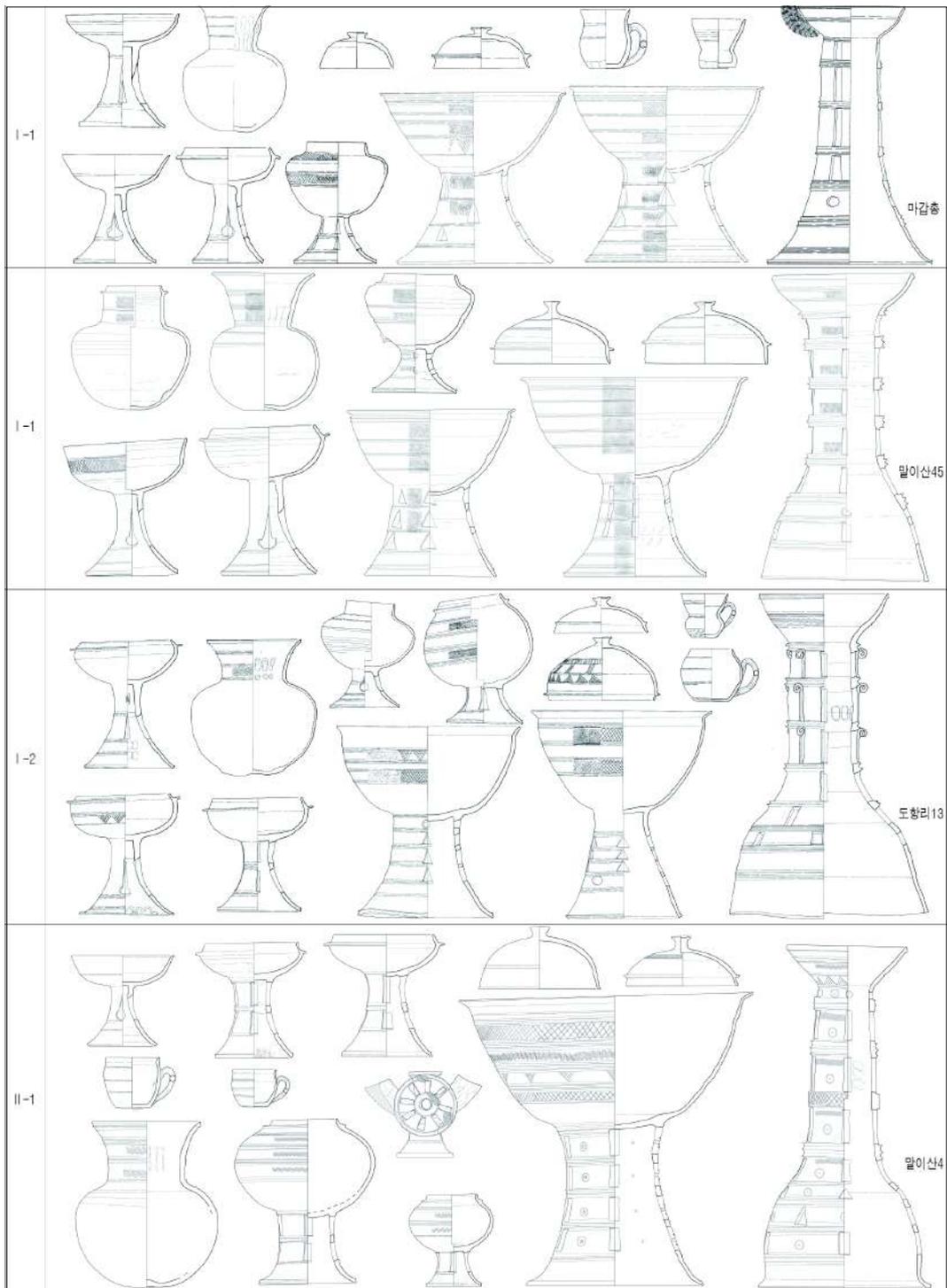


그림 5. 함안지역 중심고분군 토기복합체의 변화양상(S: 1/8)

발형기대 등 10여 종에 달하는 토기양식이 가장 이른 시기의 옥전양식 토기로 볼 수 있다. 발형기대는 대각부에 3단의 장방형 투창이 교호(1점)되거나 직렬(1점)로 배치된다. 23호분과 동시에 볼 수 있지만 중형 투창이 뚫린 발형기대가 나타나지 않고 장방형 투창이 배치된 기대도 이른 양식으로 보인다. 23호분은 8점의 발형기대가 확인되는데, 6점은 기형이 유사하며 대각부에 삼각형(2점)과 장방형(4점)의 투창이 배치된 점에서 차이가 있다. 삼각형과 중형의 투창이 같이 배치된 기대가 1점, 중형이 배치된 기대가 1점 확인된다.

함안 말이산고분군 내에서는 I-1단계가 되면 토기양식에 있어서도 함안양식이라 부를 수 있는 기종 구성이 완성된다(그림 5). 무개식고배는 삼각형 투창과 화염형 투창이 주류를 차지하며, 마갑총과 45호분에서는 무개식의 2단일렬 장방형투창고배가 나타난다. I-2단계가 되면 유개식 고배는 화염형 투창과 2단일렬 장방형투창으로 정형화 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유개식고배 및 무개식고배에 상하일렬 2단장방형투창고배의 투창 사이에 1조 침선 혹은 다침선을 돌린 경우는 5세기 초 김해·부산지역의 유적에서 다수 확인되며 동시에 함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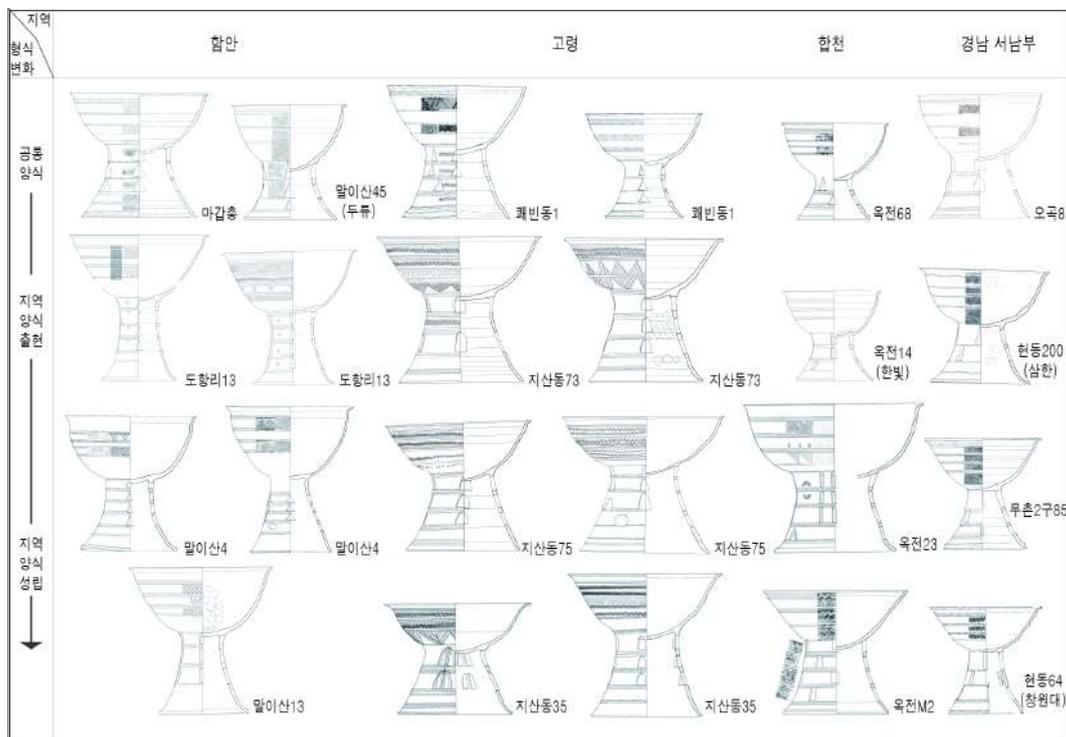


그림 6. 각 지역 중심고분군 출토 발형기대의 지역양식화 과정(S: 1/15)

합천 삼가에서도 보인다. 이와 같은 형식의 고배는 부산 복천동 유적을 비롯해서 합천 옥전, 고령 지산동, 창녕, 청도, 마산, 창원, 의령 유곡 등 매우 넓은 지역에서 출토된다(우지남 2021). 발형기대의 경우 대각에 삼각형 투창이 상하 일렬로 배치되는 공통양식의 기대와 함께 구연부 하단의 돌대가 더 아래에 배치되고 대각에 장방형 투창이 상하로 배치되는 발형기대가 처음 출현한다. 도항리 13호분에서 출토된 발형기대의 각기부가 더 좁아지고 대각에 삼각형 투창과 원공이 배치되고, 말이산 4호분 출토 발형기대는 대각의 투창이 4단 일렬의 장방형투창 구성으로 정형화된다.

후기가야 각 지역의 고분군에서 부장된 발형기대의 변화과정을 보면, 5세기 초 무렵 공통양식이 나타나고 특색있는 지역양식이 성립되는 모습을 뚜렷하게 볼 수 있다(그림 6).

소가야지역으로 알려진 경남 서남부지역은 지역양식이 성립되는 과정을 볼 수 있는 뚜렷한 중심고분군을 특정하기 어렵다. 최근 마산 현동고분군이 전면적으로 발굴조사 되면서 초기 대형목곽묘의 양상이 확인되었고, 부장된 토기들을 통해 지역양식 토기의 출현과 변화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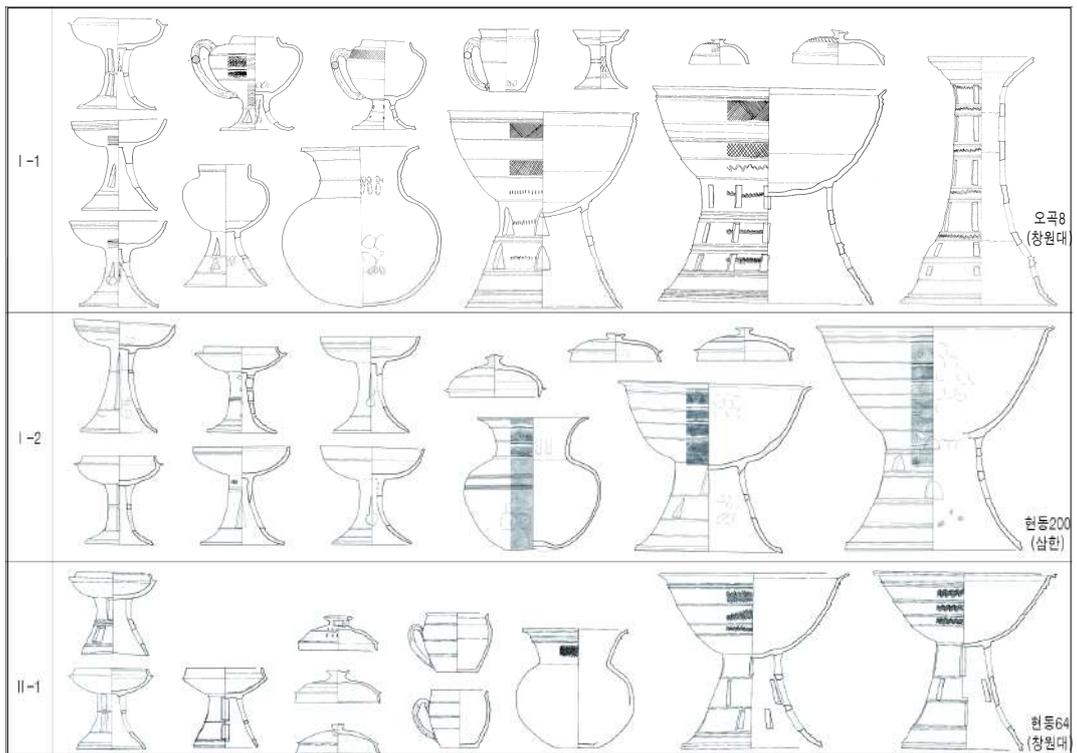


그림 7. 경남 서남부지역 중심고분군 토기복합체의 변화양상(S: 1/8)

정을 살펴볼 수 있게 되었다. 다만 함안분지 내의 말이산고분군에 확인되는 지역양식 토기의 기종구성과 형식변화 과정과 매우 유사하므로 그 해석은 연구자마다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우선 함안분지 내 말이산고분군 축조집단과의 관계나 영향에 의한 상호작용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지만,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여 독립적인 집단이 근거한 소지역으로 보고자 한다. 마산 현동 200호·201호 목곽묘는 유적 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목곽묘이다. 200호 목곽묘는 통형고배와 함께 대각이 길게 뻗은 삼각투창고배, 화염형투창고배, 2단일렬의 장방형투창고배 등 인근 가야지역의 여러 속성을 가진 고배류가 일괄로 부장되었다(그림 7). 발형기대와 장경호는 동시기 김해, 함안 등지의 대형목곽묘에 부장된 토기양식과 매우 유사하다. 현동고분군에서는 대형목곽묘 이후 고총고분으로 성장하는 연속성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인근에 위치한 합성동 1호 목곽묘의 존재로 볼 때 마산만을 끼고 있는 창원 일대에 목곽을 매장주체부로 하는 고총고분이 확인될 가능성이 높다. 함안 오곡리 8호묘에서 확인된 일괄의 토기기종은 200호·201호 목곽묘와 함께 경남 서남부지역 토기의 변화 과정과 폭넓은 분포범위를 알 수 있다.

2. 초기 대형목곽묘-고총고분과 위세품

모제는 보수성이나 전통이 강하여 그 변화나 획기는 해당 사회의 변화를 파악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잘 반영하고 있는 후기가야의 초기 대형목곽묘에 주목하였다. 이 시기 대형목곽묘의 특징은 토기의 편년에 근거한 동 시기성을 전제로 입지, 규모, 부장 유물의 탁월성을 기준으로 살펴볼 수가 있다. 개별 고분이 축조된 장소는 후기가야 각 소국의 고지로서 왕묘역으로 알려진 곳이 일반적이다.

검토 대상인 초기 대형목곽묘는 시기적으로 전기가야 해체 이후 낙동강 서안의 내륙에서 후기가야의 신흥세력이 대두되는 5세기 전·중반에 해당되며, 고분군 내 입지의 탁월성, 규모, 부장 유물의 우월성을 모두 갖춘 고분이다. 각 고분에서 출토된 토기 편년을 근거로 2단계로 나누고 단계 내에서 전후반을 나누어 모두 4단계로 구분하였다. 각 지역의 중심고분군 내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대형목곽묘를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고분군 내 입지, 규모, 관상, 위세적 성격의 부장유물의 양상을 고려하여 초기 대형목곽묘로 규정할 수 있는 고분을 대상으로 하였다(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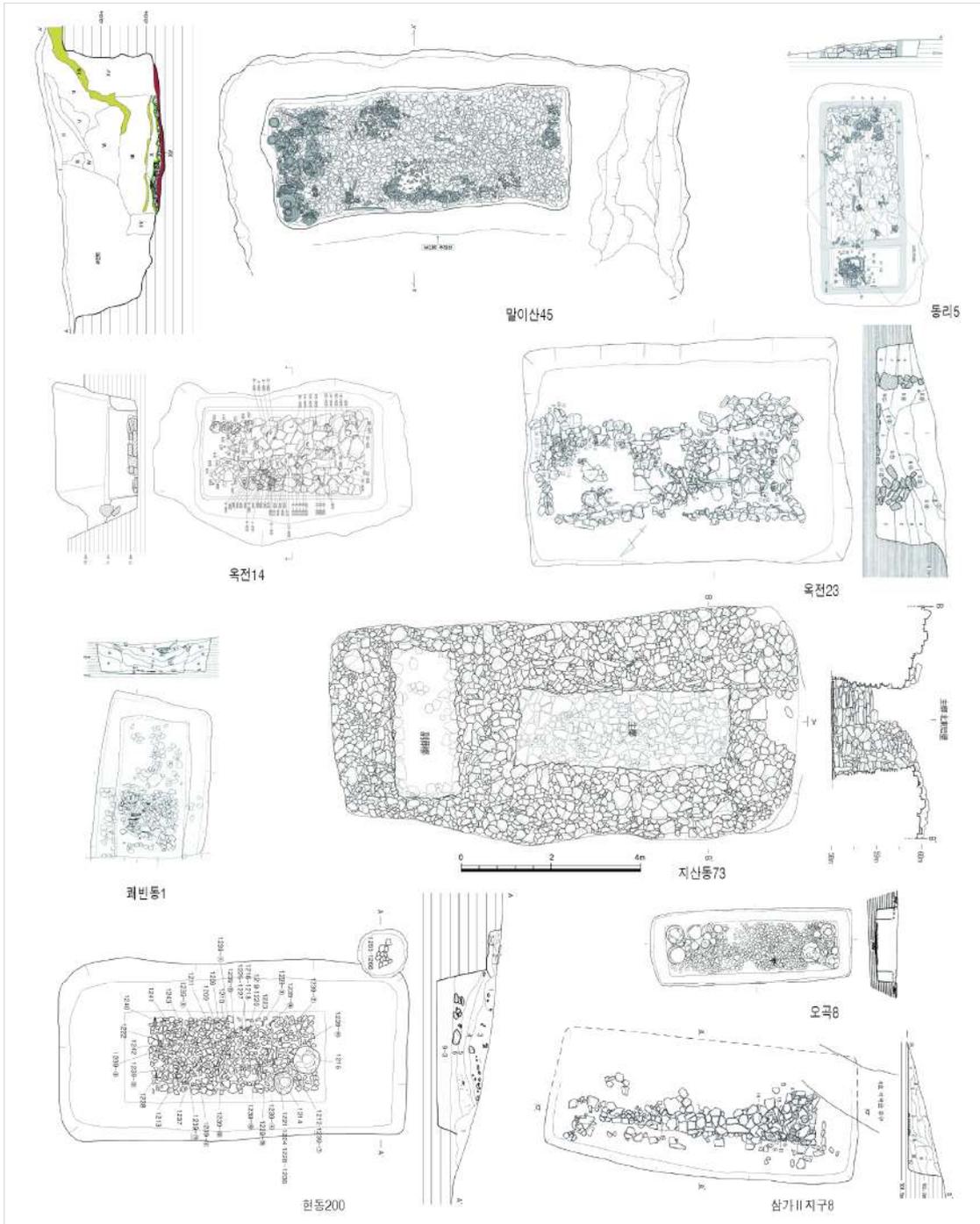


그림 8. 1~II단계 초기 대형목곽묘의 제 양상

후기가야의 각 소국의 토기양식의 성립은 I-2 ~ II-1단계 무렵에 해당되지만 출현 시기와 토기복합체 구성의 완성도는 차이가 있다. 초기 대형목곽묘에 해당하는 고분의 일반적인 양상은 매장주체부인 목곽의 길이는 4m를 상회하며, 관상은 평상(平床) 또는 요상(凹床)의 구조이며, 관상의 재료는 잔자갈이나 소형 할석이 주로 사용된다(그림 8).

함안 말이산고분군, 고령 지산동고분군, 합천 옥전고분군 등의 축조집단은 후기가야가 대두되기 이전부터 고분을 축조하였고 그들이 선호하는 지형을 선점하고 점유해 갔던 것은 분명하다. 5세기 전반 무렵 후기가야의 일원으로서 초기 수장들이 출현하였다고 한다면 그 피장자의 모습은 고분군 내 상징적이고 탁월한 입지를 갖춘 대형목곽묘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피장자가 묻힌 고분이 함안 말이산고분군의 마갑총과 45호분, 합천 옥전고분군의 23호분, 고령 지산동고분군의 73호분 등으로 비정해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된다. 반면 소가야지역으로 알려진 경남 서남부지역은 하천이나 소규모 분지, 만을 끼고 있는 연안 거점 등 고분군이 자리잡은 입지가 다양하다. 여러 고분군 중 고총고분을 포함한 중심고분군으로 성장하는 고분군이 있는 반면 초기 대형목곽묘는 존재하지만 이후의 양상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창원 현동 200·201호, 진주 단목리 II-1구역 56호, 진주 이현동 62호, 합천 삼가 II지구 8호, 산청 중촌리 3호北 목곽묘 등은 초기 대형목곽묘의 범주에 포함할 수 있다.

가야에서 금속장신구의 유행은 5~6세기 동아시아 복식문화의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고구려·백제·신라뿐만 아니라 삼연, 왜의 지배층 무덤에서도 다양한 모습을 갖춘 금속장신구가 출토된다. 가야의 금공품은 소량 제작되었고 엄격히 제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령 지산동고분군, 합천 옥전고분군 등에 집중되며 각지 왕묘역에서 일부 출토된다. 신라의 사례에서 전형을 볼 수 있듯이 고대의 금공품 생산과 유통에는 국왕과 권력, 국가의 지배력이 강하게 개재되었고, 가야에서도 금공품은 지배층의 위세품이자 신분의 표상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이한상 2018). 가야의 관은 고령 지산동고분군에 주로 출토되었다. 32호분, 518호분, 구39호분, 30호분 2곽, 73호분 서순장곽, 75호분 봉토 내 1호 순장곽 출토품이 있다. 32호분과 30호분 2곽 출토품은 대륜을 갖춘 것이며 나머지는 대륜이 없는 모관에 해당한다. 지산동고분군 이외에는 김해 대성동 29호분과 합천 옥전 M6호분, 말이산 45호분에서 출토된 바 있다. 합천 옥전고분군은 귀금속 관은 M6호분와 23호분에서 출토되었다. 옥전 23호분에는 금동제 관모 1점, M6호에는 금동제 대관 2점, 은제 대륜 1점이 출토되었다. 합천 옥전고분군 귀금속

관 계보는 다원적인데 옥전 23호분 금동 관모는 백제계 물품, 옥전 M6호분 금동제와 은제 대관은 신라 기성품과 신라 관 제작기술을 공유한 옥전 집단의 제작품으로 보는 견해(김재열 2020)가 일반적이다. 가야지역 관의 출토 현황을 정리해보면 [표 2]와 같다.

[표 2] 가야지역 관(冠) 출토 사례(이한상 2015 재편집)

지역	유구명	종류	재질	착장여부	특징		
					형태	문양	영락
김해	대성동 29호분	대관	금동	도굴갱	입식(상세불명)	점열	○
고령	지산동 32-주곽	대관	금동	×	광배형(보주형)입식	파상점열 외	○
	지산동 30-2곽	대관	금동	○	보주형입식	파상점열	×
	지산동 구39-주곽	모관	은	△	전립식	△	△
	지산동 518-주곽	모관	금동	도굴갱	조우+가십부	능형, 점열	○
	지산동 73-서순장곽	모관	금동	○	조우+가십부	점열, 불룩장식	×
	지산동75-봉토1순장곽	모관	철	○	가십부	돌대	×
합천	옥전 23호분	모관	금동	○	고깔형	삼엽문 투조	×
	옥전 M6호분	대관	금동	×	출자형+늑각형	점열, 거치	○
	옥전 M6호분	대관	금동	×	출자형	점열	○
	옥전 M6호분	대관	금동	×	입식x	점열	○
함안	말이산45호분	대관	금동	△	입식	쌍조문	×

삼국시대 장식대도는 일반적으로 무기류 분류되나 손잡이와 환두, 병부에 금공기술을 구사하여 화려하게 꾸민 장식대도는 실전용 무기라기보다는 피장자의 권력을 과시하는 일종의 위세품의 성격을 띤다. 삼국시대 용봉문환두대도는 주로 각 지역의 수장층 고분에서 출토되며 피장자가 착장한 상태로 부장되는 경우가 많아 위신재의 성격을 띤다(穴澤咏光·馬目順一 1984). 가야고분에서 출토된 장식대도는 환두부의 형태와 제작기술의 기준으로 용봉문환두대도, 은장환두대도, 상감대도로 나누어 볼 수 있다(김도영 2019).

가야의 마구는 크게 전기마구와 후기마구로 대별된다(金斗喆 2000). 즉 전기가야 마구라 하면 낙동강 하류역을 중심으로 발전하던 4세기 대의 마구와 이 마구가 여러 가야지역으로 확산되어 발전한 5세기 전반 대까지의 마구를 말한다. 이에 대하여 후기가야 마구는 그 전까지 공통성을 유지하던 고식마구, 즉 가야와 신라마구가 분화되어 가야의 경우 대가야와 아라가야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성이 나타나는 시기부터의 마구를 말하며, 가야마구는 기

마·기병적 성격과 더불어 장식마구가 성행하였다(柳昌煥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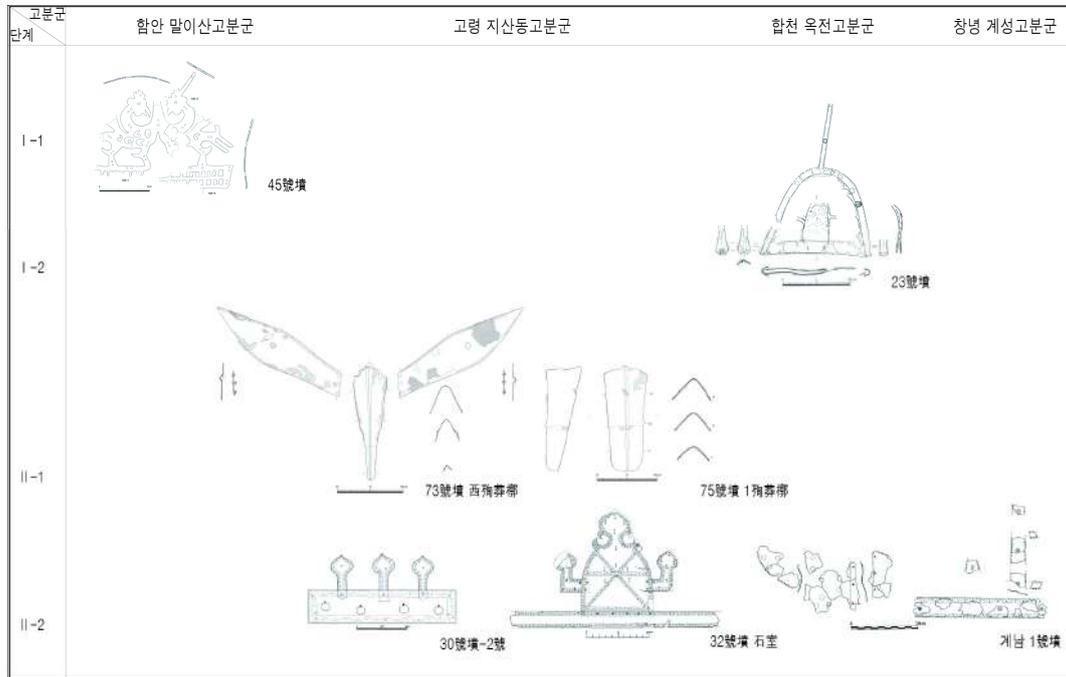


그림 9. I~II단계 중심고분군 내 가야 관의 현황과 변화

삼국시대 영남지방의 주요지역에서는 국가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전문화된 무기체계 및 군사조직이 출현하며, 영남지방에 자리잡고 있던 신라와 가야에서는 실전용으로 사용된 무기체계가 큰 틀에서 유사한 특징이 확인된다(禹炳喆 2019). 후기가야의 무기와 무구로 구성된 무장체계는 최고 지배층의 중심묘역에 상위의 무장을 독점한 대형분이 군집하며, 하위 집단과 인접한 단위 집단에서 중소형분이 밀집하여 무장 보유의 범위가 확장된 계층구조가 확인된다(張相甲 2019).

신라고총의 경우 착장형 위세품(세환군, 태환군)에 따라 6등급의 계서로 구분하여 분석한 사례(하대룡 2023)도 있지만, 가야고분의 경우 착장형 위세품의 출토 예가 드물거나 도굴 등으로 인해 원상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금동관이나 대금구가 속한 고분을 상위에 두고 피장자 계서를 설정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무구류 중 갑옷·투구, 장식대도의 부장 유무, 마구류 중 마갑·마주의 부장 유무에 따라 전마구형, 개인무장형, 장식대도보유형, 일반형으로 유형을 분류²⁰⁾할 수 있으며 동시에 계서에 따른 피장자 신분의 성격도 가늠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여창현 2024). I~II단계 내에서 금동의 대관이나 모관이 부장된 고총고분은 지산동고분군이 가장 많고, 말이산고분군 45호분과 계성 1호분에서 각각 1점씩 출토되었다. 부장품의 유형을 보면 말이산고분군에서 전마구형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며, 장식대도보유형은 대가야지역(고령, 합천)을 중심으로 분포하는 것을 알 수 있다(표 1).

지산동고분군에서 나온 마구 가운데 이른 단계에 속하는 것은 대가야박물관 부지 10호 석곽묘 출토 재갈과 등자이다. 73호분과 75호분 마구도 이른 단계에 해당한다. 73호분에서는 환비와 표비가 함께 출토되었고 75호분 재갈은 판비일 가능성이 있다. 73호분 등자는 병부 횡단면이 5각형이고 답부에 못이 박힌 것이지만 75호분 등자는 표면에 자그마한 돌기가 가득 장식된 것이다. 73호분 출토 편원어머형 행엽은 신라에서 유행하던 것이다. 대가야적으로 부를 수 있는 마구가 본격적으로 제작되는 시기는 35호분과 32호분이 축조되는 단계이다. 재갈로는 표비가 유행하며 표의 형태는 'f'자형에 가깝다. 재갈을 만들면서 철봉을 단접하는 기법이 많이 구사된다. 등자는 73호분 등자처럼 목심을 철판이 감싼 것이며 답수부에 미끄럼방지 못을 갖춘 것이 주종을 이루게 된다(대가야박물관 2015). 옥전 23, 67-A·B, 68호분 출토품들은 대가야(다라국)지역 최초의 기승용 마구로서, 재갈과 안장, 등자와 같은 기본마구를 중심으로 심엽형행엽과 환형운주, 마주 등 장식용 마구와 방어용 마구가 모두 확인되고 있다. 5세기 전반에 해당하는 자료는 다라국의 고지로 알려져 있는 합천 옥전고분군에서만 보이고, 고령 지산동고분군에서는 마구 자료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5세기 전반대 말이산고분군에 등장한 기승용 마구는 대부분 금관가야 마구의 계보를 잇는 것으로 볼 수 있고, 10호분(國立昌原文化財研究所 1997)과 13호분(慶南考古學研究所 2000) 등은 5세기초 금관가야지역을 통해 아라가야지역으로 수용된 기승용 마구가 5세기 2/4분기에 들어서 아라가야 자체 기술에 의해 제작되기 시작했음을 말해주는 자료이다(류창환 2018).

5세기 중후반 대가 되면 고식마구는 소멸하고 대가야(다라국)·아라가야 마구가 성립되어 발전하게 된다. 마구의 종류와 재질에 있어서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 특히 지배층을 중비 또는 f자형판비로 일컫는 새로운 형식의 재갈이 개발·사용된다. 대가야 중심고분군인

20) 물론 금동관이나 대장식구 등이 피장자의 계서를 반영하는 가장 분명한 부장품이지만 도굴 등으로 인해 당시 매납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원형을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계서 설정에 큰 변수로 작용될 수 있다. 투구, 갑옷, 마주, 마갑 등은 소량의 편만 확인된다면 매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개마와 개인 무장을 위한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착작용 위세품의 여부와 상관없이 전마구형, 개인무장형, 장식대도보유형, 일반형으로 유형을 설정할 수 있다.

고령 지산동고분군을 비롯하여 합천 옥전고분군에서 집중적으로 발견되어 대가야형 등자로 부르고 있다. 재갈, 증자의 변화와 더불어 장식용 마구인 행엽과 운주의 사용도 본격화 된다. 편원어미형행엽과 무각소반구형운주를 세트로 하는 장식마구가 고령 지산동 75호분과 합천 옥전고분군, 함안 말이산고분군 등 대가야와 아라가야 지역에서 발견된 점은 주목된다(류창환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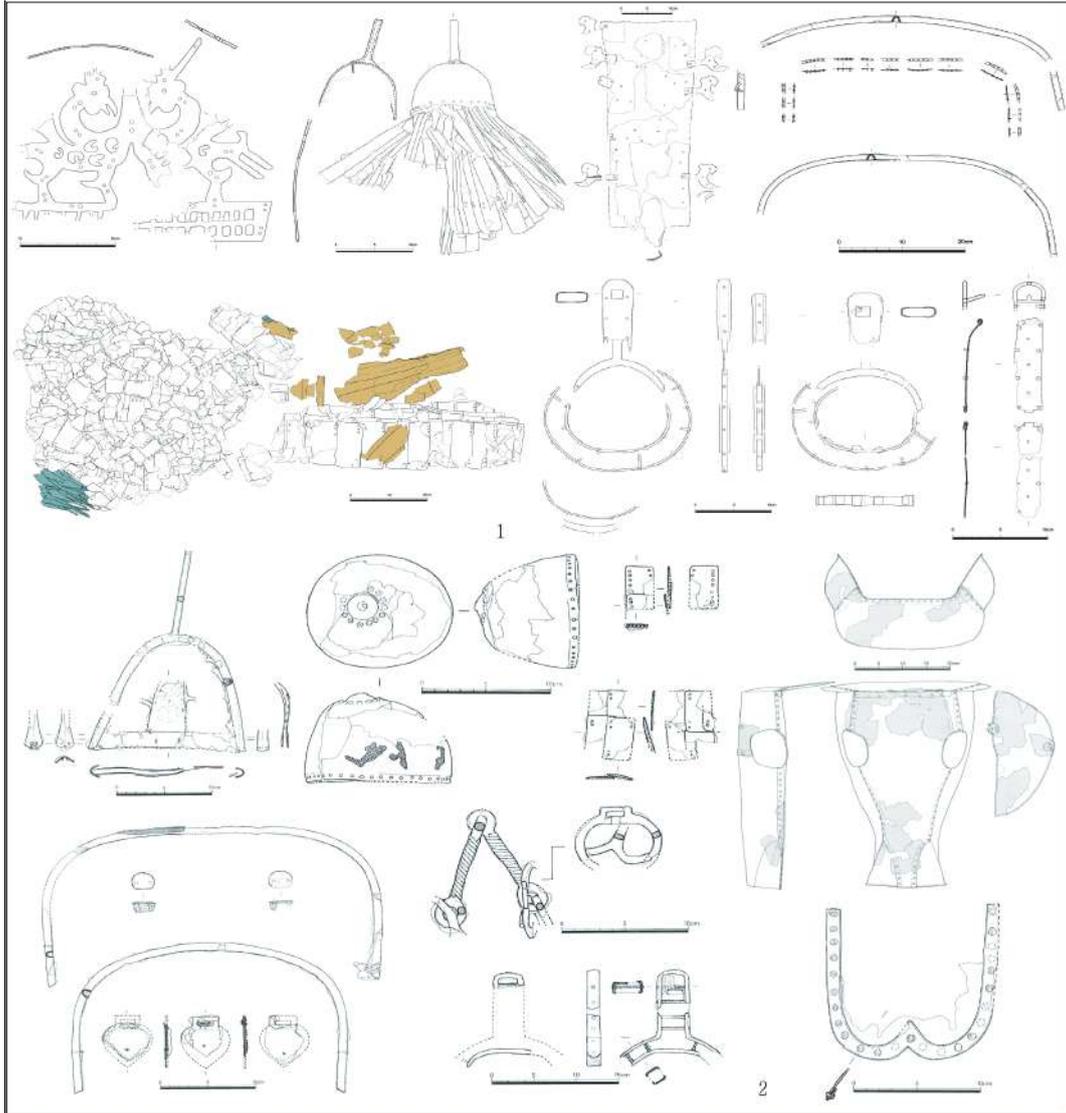


그림 10. 함안·합천지역 초기 대형목곽묘의 금공품·철제 유물 양상(1 함안 말이산 45호분, 2 합천 옥전 23호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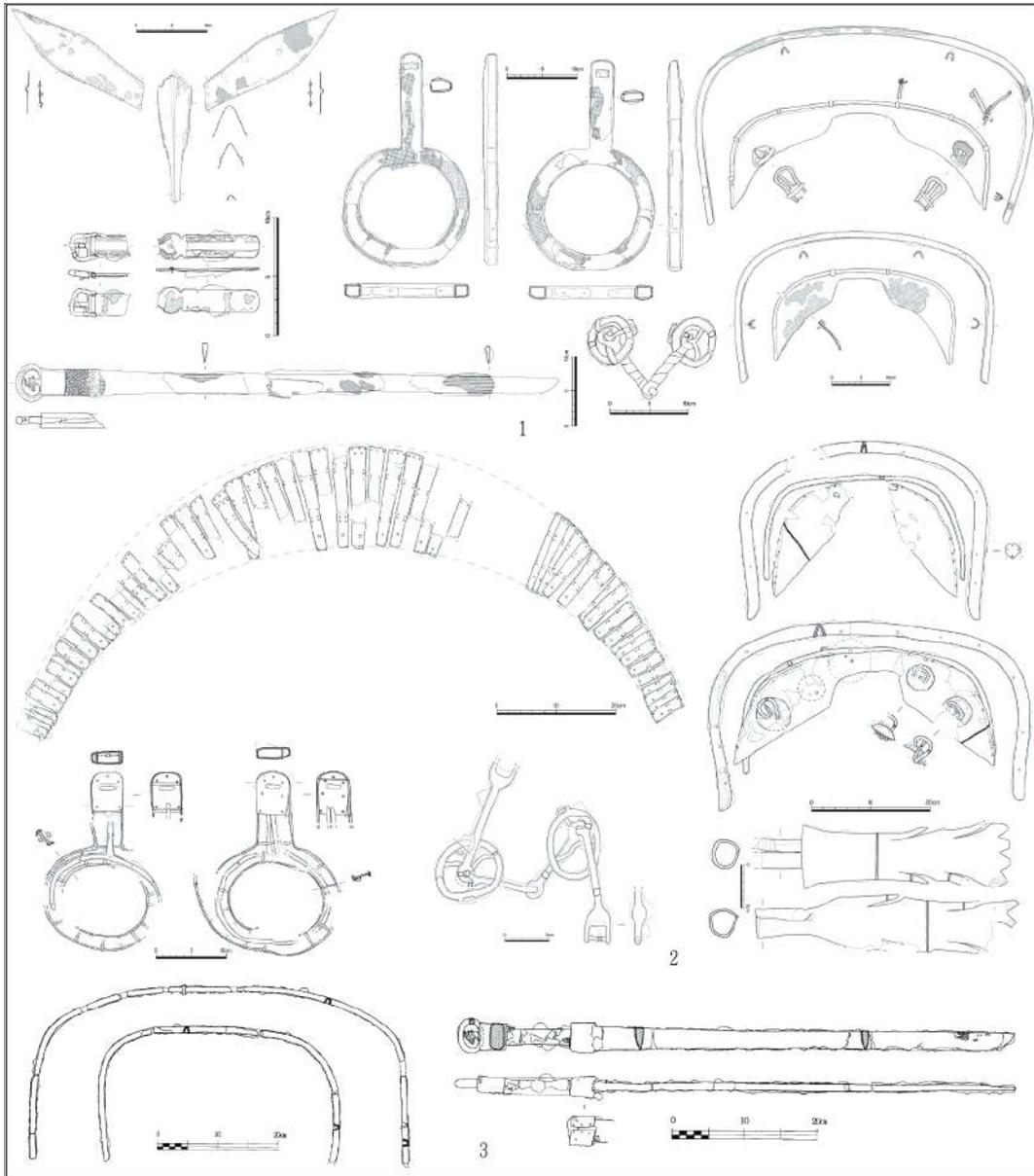


그림 11. 고령·창녕·산청지역 초기 대형목곽묘의 금공품·철제 유물 양상(1 고령 지산동 73호분, 2 창녕 동리 5호분, 산청 중촌리 3호北 목곽묘)

함안 말이산 45호분은 금동관을 비롯하여 무구와 마주, 합천 옥전 23호분은 금동관모와 무구, 마주가 부장되었고 각각 기승용 마구류 일체가 부장되었다(그림 10). 창녕 동리 5호분

도 무구류인 경갑과 찰갑을 비롯하여 성시구, 마구류 일체가 부장된 동혈주곽식의 대형목곽 묘이다(그림 11). 한 단계 늦게 축조된 고령 지산동 고분군의 최초 왕묘로 알려진 73호분²¹⁾은 순장곽에서 신라계의 금동관식이 부장되었고 주곽에서는 용봉문환두대도를 비롯한 다수의 소환두도와 철모, 마구류 일체가 부장되었다(그림 11).

Ⅲ. 묘제로 본 후기가야 중심고분군의 성장

1. 각 국의 초기 대형목곽묘와 중심고분군 묘제

창녕 계남지구 고분군은 계성리고분군의 중심부에 있는 고분군인데, 구릉의 정선부를 따라 규모가 큰 대형분들이 축조되었고 사면에는 중·소형분들이 분포한다. 계남지구 고분군은 1968년에 조사된 1·4호분과 1967년에 조사된 5호분, 2015~2016년도에 조사된 2·3호분을 포함하여 100여 기의 봉토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1~4호분과 5호분은 내부구조가 수혈식석곽인 점을 참고할 때, 봉분이 있는 고총고분의 구조는 수혈식석곽으로 추정된다. 1~4호분은 묘곽이 격벽에 의해 주곽과 부곽으로 구분되었고, 5호분은 2개의 석곽이 장축방향으로 나란하게 배치한 묘형인데, 주곽과 부곽의 관계로 파악된다.

지금까지 조사된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의 고총고분은 II단계 후반이나 그 이후에 축조된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창녕지역에 있던 비화가야 세력의 왕묘는 다른 곳에 먼저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는데, 수혈식석곽으로 축조된 창녕 계성리고분군의 대형 고총고분들로 추정된다.

고령 지산동고분군은 주산에서 남쪽으로 뻗은 주능선의 등마루를 따라 거대한 고총고분이 산봉우리처럼 열어지며 분포한다(그림 12). 대형 고총고분들은 능선의 산마루와 주능선이 뺏어 내리는 등줄기의 돌출부에 자리를 잡는다. 능선의 산마루나 돌출부에 고총고분을 축조함으로써 고분의 규모가 훨씬 커 보이고, 고대한 봉분 자체가 산봉우리처럼 보여 최대의 권력과 권위를 상징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21) 지산동 73호분 주곽은 연구자마다 내부 구조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 발굴조사 보고자는 목곽묘로 보고 내부에 목관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大東文化財研究院 2013). 김두철(2013)은 석곽묘로 판단하고 그 안에 목관이 있는 것으로 복원했다. 필자는 목곽이 설치되고 묘광과 목곽 사이에 할석을 충전한 구조로 이해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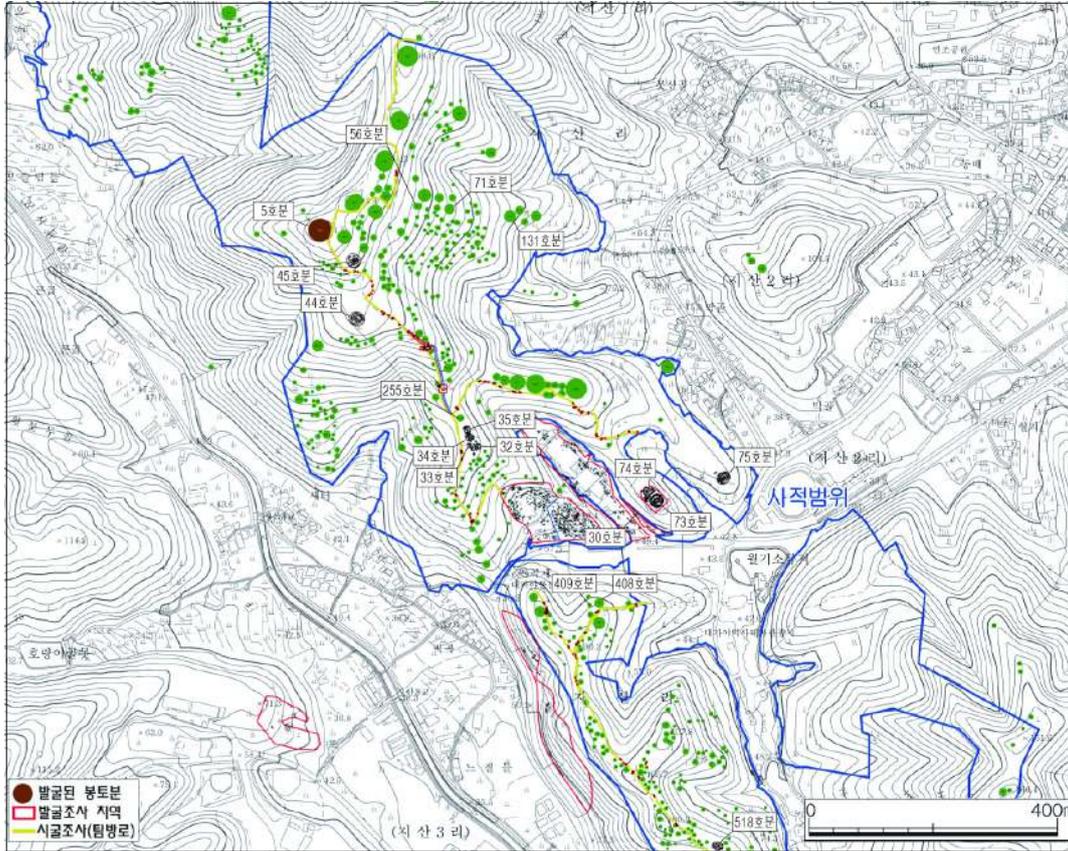


그림 12. 고령 지산동고분군 고총고분 발굴현황

73호분은 지산동고분군의 주능선에서 뺀어 내린 나지막한 구릉의 하단부에 위치하는 고총고분이다. II-1단계에 속하는 73호분은 목곽과 묘광 사이를 일정 높이까지 보강석처럼 채운 형태이다. 이후 개석을 갖춘 수혈식석곽묘로 변화되면서 지산동고분군의 주 묘제로 이어지다가 6세기 이후까지 이어지다가 횡구식석실과 횡혈식석실 등으로 대체되었다고 할 수 있다. 75호분은 앞선 73호분과 같이 묘광의 내부에 순장자를 배치하는 형식으로 주곽과 부곽, 순장곽의 배치가 유사하지만 주곽의 묘제가 수혈식석곽묘로 묘제가 전환하였음을 알려 준다. 지산동고분군의 왕묘는 다른 지역들과 달리 주곽과 부곽 외에도 순장곽을 같은 봉분 안에 배치하는 것이 아주 특징적이다. 주곽과 부곽의 배치 외에 순장곽을 배치하는 모습도 변화한다. 73호분이나 75호분과 같은 초기 왕묘들과 달리 늦은 시기의 왕묘인 44호분과 45

호분은 주곽과 부곽의 둘레에 방사상을 순장자를 위한 다수의 작은 석곽을 별도로 축조하여 배열한 특징이 있다²²⁾.

함천 옥전 23호분은 고분군 내 왕묘급 고분 중 가장 이른 시기의 고분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토기양식으로 본다면 23호분보다 약간 이른 시기에 조영된 14호분이 있다. 14호분은 거의 동 시기에 조영된 창녕 동리 5호 목곽묘 관상과 구조가 매우 유사하다. 다만 동리 5호 목곽묘는 부곽이 따로 마련된 동혈의 주부곽식 구조이다. 옥전 23호분에서는 금동장관모, 금제이식, 대도를 비롯한 다량의 유물이 출토되어 피장자의 신분을 보여주는데, 이 단계에 주변을 통찰하는 지역집단의 지배자가 본격적으로 출현했음을 알 수 있다. 목곽으로 축조된 고분 중 이른 시기의 23호분과 28호분은 단곽식이나 M1~M3호분은 동혈 묘광의 일자형 주부곽식으로 옥전고분군만의 독특한 묘제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 이들 고분은 먼저 지반을 고르거나 약간 굴착하여 묘광을 조성한 후 목곽인 주곽과 부곽을 일자형으로 설치한 다음 목곽의 주위에 돌을 채우면서 하부 봉토를 축조해 올라간 구조이다.

함안 말이산고분군에서는 I-1단계가 되면 고분군의 남북으로 길게 뻗어있는 구릉의 정상부의 북단에서부터 고총고분이 축조되기 시작한다. 말이산고분군은 이후 고총고분들이 주능선의 대형 고총고분을 기점으로 가지능선을 점유해 가는 방식으로 묘역이 형성되는데 현재로서는 45호분이 첫 번째 고총고분으로 파악된다. 함안 말이산고분군 내 초기 대형목곽묘의 경우 단독곽에 바닥에 잔자갈을 깔고 중앙부에 얇은 요상(凹床)을 설치하며 여기에 통나무형 목관을 안치한 아라상(阿羅床)²³⁾으로 볼 수 있다. 아라상은 동시기의 경남 서남부지역에 분포하는 거점 고분군의 목곽묘 축조에 영향을 끼쳤다. II단계가 되면 말이산고분군에서 석곽을 매장주체부로 하는 고총고분이 등장한다. 이 고총고분들은 독특한 목가구 축조기술을 사용하여 완성된 아라가야 왕들의 무덤이다. II단계에 속하는 4호분과 13호분에 이어 가지능선에 조영된 8호분과 6호분 등은 모두 전마구형의 계보를 잇는 최상위 계서의 왕묘들이다(그림 13).

22) 44호분처럼 주곽과 나란한 부곽을 하나 더 설치하거나 45호분처럼 나란한 부곽만 가진 경우도 있다. 순장 전용 석곽을 무덤 내 묘곽 배치의 중요 요소로서 주부곽과 별도로 설치한 점이 아주 중요한 특징이다. 30호분은 이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며, 44호분은 32기의 순장곽, 45호분은 11기의 순장곽을 주곽 둘레에 원주상이나 방사상을 배치하였다.

23) 김두철(2013)은 요상에 통나무형 목관을 안치한 아라상을 복천동유적과 연계, 썰기형 관정과 꺾쇠가 공반 출토된 사례는 대성동유적과 관련된다고 보았다. 이후 5세기 3/4분기 이후의 수혈식석곽이 채용되는 고총시기에는 상자관(箱形棺)이 병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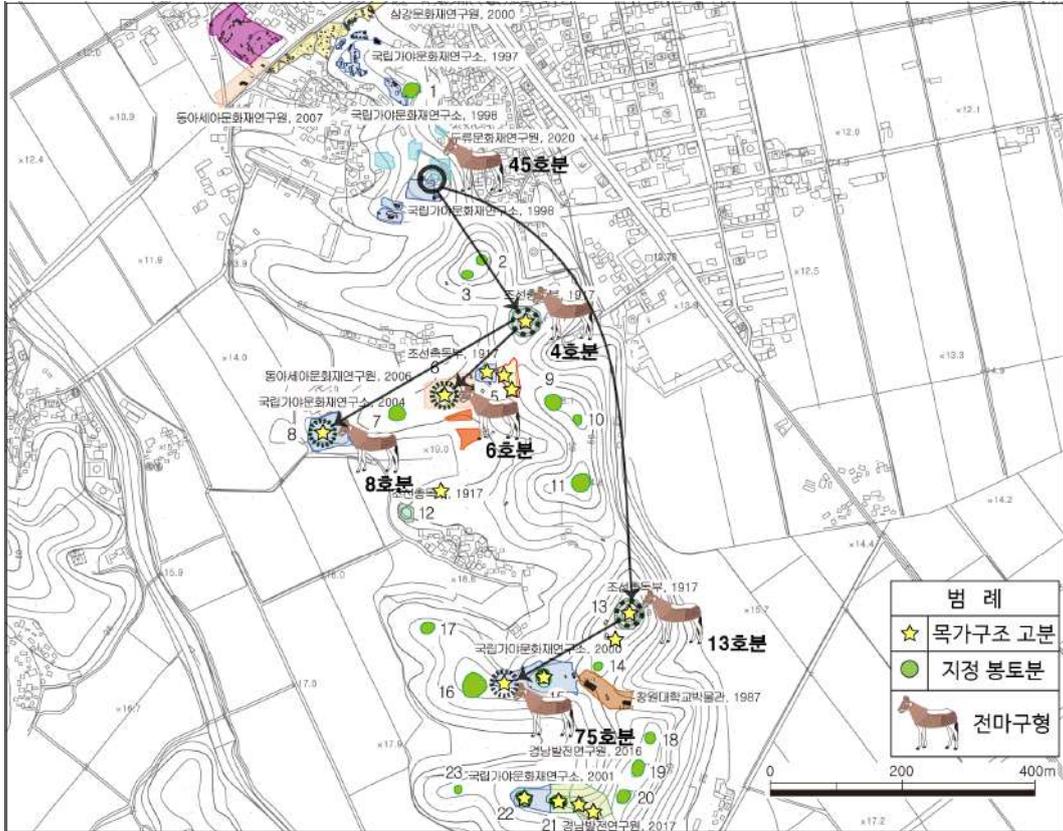


그림 13. 함안 말이산고분군 내 전마구형 목가구조 고분의 분포와 계보(여창현 2024)

소가야지역으로 알려진 경남 서남부지역의 여러 고분군들은 초기 대형목곽묘의 양상이나 이와 매개된 고총고분의 변화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남해연안에 위치한 현동 고분군은 I 단계에 초기 대형목곽묘가 등장한다. 앞서 내륙에 위치한 후기가야의 중심고분군과 같이 5세기 중반 이후 규모가 큰 고총고분이 연속적으로 조영된 모습은 확인되지 않지만, 현동 64호분과 같은 대형의 석곽묘가 축조되는 시기까지 중심 세력을 유지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마산 현동고분군에서 창원분지 방향으로 11km 떨어진 곳에 위치하는 곳에 합성동 유적이 있다. 마산 합성동 1호분은 유물이 출토되지 않아 정확한 시기를 알 수 없지만 유적 내 탁월한 위치를 선점한 가장 큰 규모의 고분이다. 매장주체부가 목곽으로 일정 높이의

시기	묘곽 배치	매장주체부	토기		대호 부장 위치	대표 무덤
			재지계	외래계		
400	I	목곽			매장주체부 위	가과 1지구4호
425	II			금관가야계	매장주체부 내	이현 62·107호
450	III					우수 6호 가과 1지구 5호 무촌 2구 36호
475	VI	수혈식 석곽 (단락식) 수혈식 석곽 (다락식) 			봉토 외부 (周滿) 	우수 16호 가과 1지구3호 무촌 2구80호
500	V			대가야계		가과 1지구3호 가과 1구간8호 가과 1구간33호
525	VI	정형식 석실 		아라가야·신라계		가과 1구간16·17·37호
550	후기 신라				소멸 *소형 기종 부장	무촌 2구2호 가과 3구간5호 수정 3호분

그림 14. 5~6세기 진주지역 고분군 부장토기의 변화와 묘제의 변천(여창현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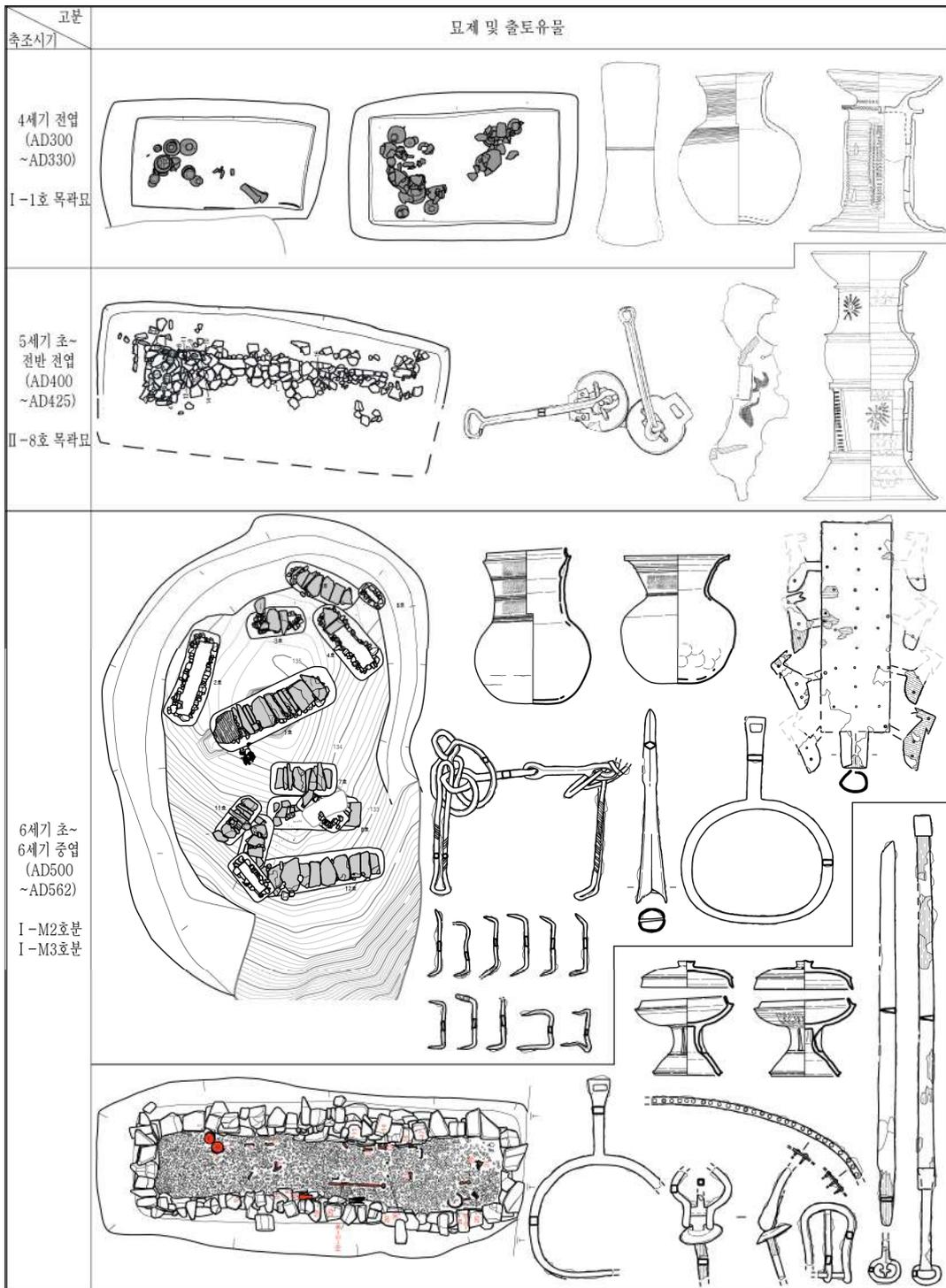


그림 15. 합천 삼가고분군 수장층 무덤의 변천과정(여창현 2020)

봉토를 갖춘 고분으로 파악(慶南考古學研究所 2007)되며 I 단계에 조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II 단계가 되면 통영 남평리고분군에서 목곽을 매장주체부로 하는 다곽식의 묘제가 등장한다. 이 묘제는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논의(文栢成 2007; 余昌炫 2013; 河承哲 2015) 되었으며, 호석과 일정 높이의 봉토를 가진 분구묘의 성격을 가진 독특한 무덤으로 알려져 있다. 남해연안을 거점으로 형성된 고분군들은 초기 대형목곽묘가 고총고분으로 이어지면서 중심고분군으로 성장하는 연속된 모습을 찾기는 어렵다.

진주지역에서는 남강 북안에 위치한 이현동고분군에서 초기 (대형)목곽묘가 조영되지만 말이산고분군이나 지산동고분군과 같은 왕릉의 모습을 갖춘 중심고분군은 없다. 다만 매장 의례의 변화와 연동된 묘제의 변천(그림 14)에 따라 중심고분군의 변동(여창현 2021; 林連珠 2021)을 가져온 사실은 분명하다. 한편 합천 삼가고분군은 I 지구 1호 이혈 주부곽식 목곽묘-II 지구 8호 목곽묘-I 지구 M2·M3호분 등으로 이어지는 중심고분군의 성장 모습을 볼 수 있다(그림 15). II 지구 8호 목곽묘는 삼가고분군에서 후기가야의 시작을 알리는 초기 대형목곽묘의 요소를 갖춘 최상위 수장층의 무덤으로 판단된다(여창현 2020).

후기가야의 각 소국을 대표하는 고분군들의 변동을 초기 대형목곽묘-고총고분의 성장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았다. 5세기 전반 무렵 각 지역에서 나타나는 후기가야의 출현과 성장을 그들이 남긴 기념물과 같은 중심고분군을 통해 볼 때, 초기 대형목곽묘-고총고분의 성장 모델은 그 변동성을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중심고분군의 변동성은 공통 양식에서 분화된 각 지역의 토기양식의 성립, 위세적 성격이 반영된 부장유물의 제 양상과도 관련된다.

2. 후기가야 초기 대형목곽묘-고총고분의 형성모델

내륙의 가야 소국의 중심지로 알려진 함안 말이산고분군, 고령 지산동고분군, 합천 옥전고분군 등과 소가야지역으로 알려진 경남 서남부지역의 초기 대형목곽묘의 차이는 뚜렷해 보인다. 지역양식의 성립을 알려주는 토기복합체의 구성뿐만 아니라 고분의 규모와 부장 유물의 수준에서도 차이가 뚜렷하다.

후기가야 초기 대형목곽묘의 출현은 전기가야 해체에 따라 후기가야 각 소국에서 신흥세력이 등장하면서 그들이 남긴 물질문화를 반영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대형목곽묘의 출현

시기는 비슷하지만 함안 아라가야와 합천 다라국의 성립 시기는 고령의 대가야와 창녕의 비화가야보다는 한 단계 앞서는 것으로 추정된다(그림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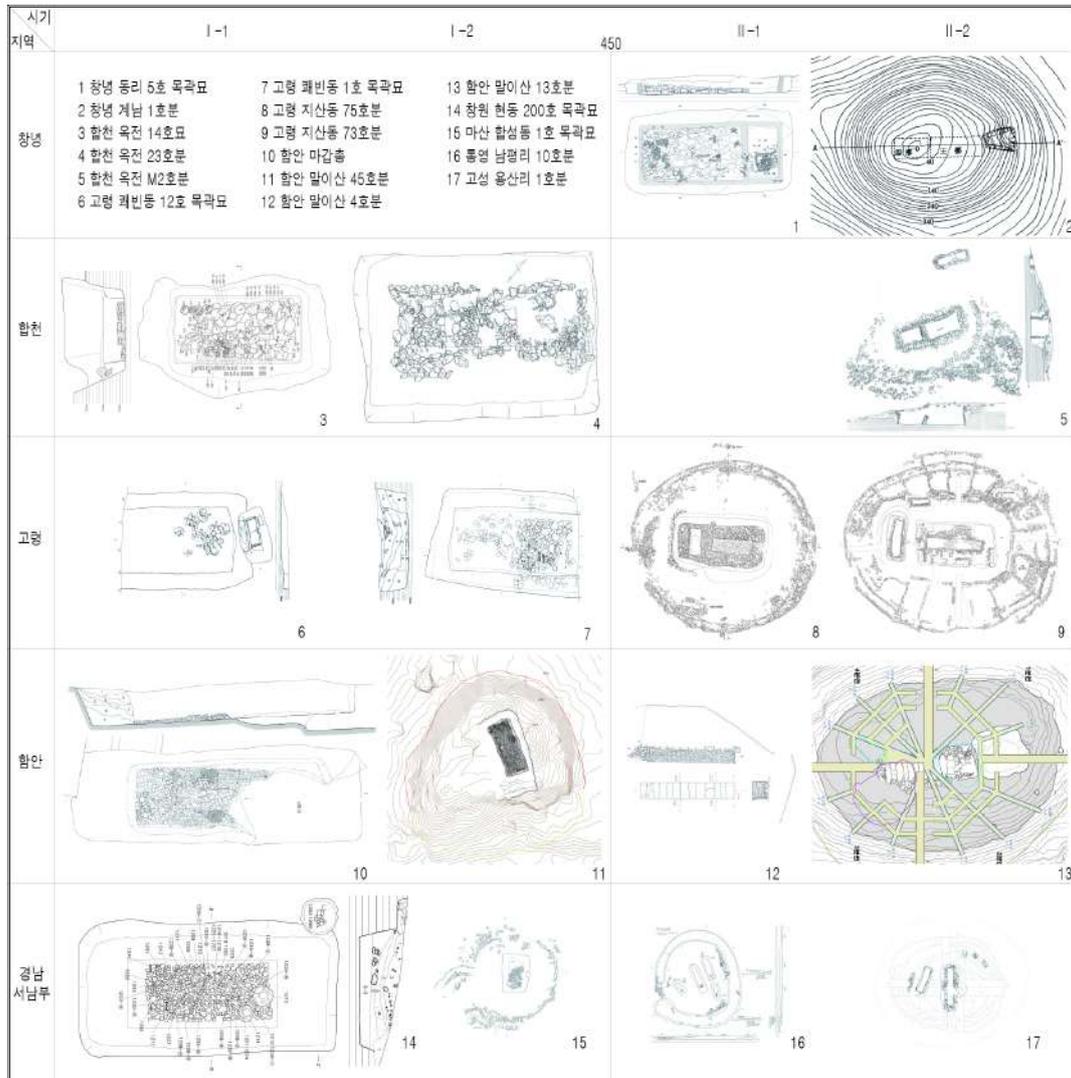


그림 16. 후기가야 초기 대형목곽묘-고총고분의 변화 양상(S: 목곽묘 1/200, 고총고분 1/800)

경남 서남부지역(소가야)에서는 남해연안의 마산 현동, 함안 오곡리 일원과 남강 수계의 진주 일원에서 초기 지역양식이 성립된 토기복합체를 갖춘 대형목곽묘들이 출현하지만 이

후 중심고분군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듯하다. 대형목곽묘가 출현하고 각 소국의 범위 내에서 동일한 토기복합체를 매장례에 사용한 집단의 중심고분군이 성장, 변동하는 유형은 5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그림 17).

유형	평면 모식도	단면 모식도	입지	관련 유적
확장형 A			내륙	고령 지산동 합천 옥전 합천 삼가 산청 중촌리 함안 말이산
확장형 B			내륙 / 남해안	고성 송학동 남원 월산리 남원 유곡리 두락리
이동형 A			내륙	창녕 동리 (창녕 계성) 고령 퀘빈동 (고령 지산동)
이동형 B			내륙	진주 단목리 진주 이현동 (진주 가좌동)
단절형			남해안	마산 현동 창원 합성동 함안 오곡리

그림 17. 후기가야 초기 대형목곽묘-고총고분의 형성 모델

초기 대형목곽묘-중심고분군의 형성 모델 중 확장형A는 가시성이 높고 입지가 우월한 집단의 왕묘역에서 대형목곽묘의 축조가 시작되고, 이후의 수장묘들이 누세대적으로 고분을 축조하면서 중심고분군을 형성하는 경우이다. 묘역 내에서 우월한 입지 또는 상징적인 지점에서 대형목곽묘의 축조가 시작되고 이후 일정한 방향성을 띤 연속된 고분의 축조로 중심고분군의 경관을 완성한다. 고령 지산동고분군, 합천 옥전고분군, 합천 삼가고분군, 함안 말이산고분군 등이 해당된다.

후기가야 시기의 각 소국들이 5세기 전반 무렵 각지에서 대형목곽묘의 축조를 기점으로 성장과 발전 과정을 이루는 반면 확장형B는 고분군 내 대형목곽묘가 부재하며 5세기 후반 이후에 새로운 중심 세력으로 등장하는 중심고분군 형성 모델로 볼 수 있다. 남해연안 지역의 대표적인 고분군은 고성 송학동고분군이며, 호남 동부지역의 남월 월산리고분군, 남원 유곡리·두락리고분군 등이 해당된다.

이동형A는 최초 선정된 묘역의 특정한 지점에 대형목곽묘가 축조되지만 고총고분은 조영되지 않고, 이후 묘역이 이동하게 되는 경우이다. 집단의 묘역이 이동된 후 새롭게 선정된 공간에서 다시 지배자들의 무덤이 거듭 축조되어 중심고분군이 완성된다. 창녕 동리고분군, 고령 쾌빈동고분군 등이 해당된다.

이동형B는 이동형A와 동일한 고분 축조의 패턴을 보이지만 고총의 중심고분군을 형성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진주 단목리고분군과 이현동고분군 등은 묘역이 이동하면서 새로운 공간에 무촌 고분군이나 가좌동고분군과 같은 중심고분군을 형성하지만 뚜렷한 고총고분을 축조하지는 못한다.

단절형은 대형목곽묘가 축조되고 같은 묘역 내에서 후대의 묘제인 수혈식석곽묘가 연속적으로 축조되지만 이후 고총고분이 나타나지 않는다. 마산 현동고분군, 함안 오곡리고분군 등과 같이 묘역 내에서 고총고분이 등장하지 못하거나 새로운 공간으로의 묘역의 이동도 나타나지 않아 중심고분군의 형성이 단절되는 경우이다.

마산 현동, 합성동, 함안 오곡리 등의 고분군들은 문헌에 기록된 포상팔국의 모습처럼 남해의 연안이나 하천을 통해 연결될 수 있는 곳에 자리잡고 있다. 내륙의 가야는 일정한 분지 또는 지형적으로 구분된 특정 공간에서 생산력을 갖춘 가경지를 확보하여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반면, 경남 서남부지역에 흩어진 주요 고분군 축조집단들은 고총고분을 조영한 중심고분군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듯하다. 지형학적으로 유리한 거점에 자리잡은 집단은 지

리적 여건을 활용하여 내륙과 연계된 교역이나 원거리 해상 교역을 통해 성장이 가능했을 것이다. 이후 삼국의 성장과 함께 내륙의 가야가 급격히 성장하는 과정에서 연안을 통한 교역권 장악이나 창구를 확보하기 위한 그들의 노력은 결과적으로 해상의 가야들에게 크나큰 압박이나 부담으로 작용되었을 것이다. 이로 인해 마산 현동이나 함안 오곡리 집단들은 후기가야의 주요 세력인 아라가야의 해상 창구 역할을 수행하거나 편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내륙의 후기가야의 뚜렷한 성장은 해상을 거점으로 삼은 집단들의 성장을 막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영향의 결과가 고총고분을 조영하지 못하거나 초기 대형목곽묘에서 고총고분의 중심고분군으로 표출되는 대규모의 고분군의 모습이 더 이상 나타나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IV. 후기가야 중심고분군의 변동성과 상호작용

1. 대형목곽묘와 등장과 초기 수장묘

이혈주부곽식 묘제는 적어도 영남지역의 4세기대 이후 각 해당 지역 집단이 추구한 최고의 사회적 표현물(홍보식 2014)이며 이러한 묘제가 일찍 출현하는 지역은 우월적이고 지배적인 집단이 등장했음을 말해준다. 지역에 따라 이혈주부곽식 묘제의 성립 시기가 상이한 것은 중심세력 집단의 출현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혈주부곽식 묘제가 빨리 성립한 김해지역과 경주를 포함한 동남해안 지역은 어느 영남지역보다 선진지역이었음을 나타낸다.

목곽이 매장시설로 채용되면서 고분군의 입지, 분포, 성장패턴에서 중요한 변화가 나타난다. 우선 대형묘들이 묘역의 상징적인 공간을 점유하기 시작한다는 점이다. 특히 왕묘로 추정되는 고총고분들은 구릉 정선부를 정점으로 선점하고 중소형분들이 그것을 둘러싸는 형태로 배치되면서 유적 내 고분 분포와 공간조직이 크게 변화된다는 점이다. 앞서 제시한 여러 성장모델에 따라 중심고분군은 확장과 변동 속에서 각 국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고분군으로서 권위적인 경관을 완성한다.

5세기 초 무렵이 되면 전기가야가 해체되고 낙동강 서안의 내륙지역에서 신흥세력이 등

장하면서 각지에 단독곽의 대형목곽묘가 새롭게 출현한다. 후기가야 각지에서 최초 수장층의 무덤으로 볼 수 있는 대형목곽묘는 큰 시차를 두지 않고 나타난다. 함안 말이산고분군과 합천 옥전고분군은 유적 내 같은 시기의 대형목곽묘가 다수 축조되는 경향이 있지만, 말이산 45호분과 옥전 23호분과 같은 탁월한 고분과의 차이는 분명해 보인다. 대가야의 초기 수장묘로 인정되는 지산동 73호분도 한 단계 앞서 쾌빈동 1호분이 축조되지만, 지산동고분군의 낮은 쪽 구릉 말단부에 입지한 73호분을 포함한 75호분, 30호분은 초기의 고총고분에 해당되며 최초로 축조된 고분은 73호분이 분명하다.

창녕지역은 계성고분군 내에서 1·4호분 조영 이전에 대형목곽묘가 존재할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까지 5세기 전반으로 올라가는 대형목곽묘는 보이지 않는다. 계성고분군 인근에 위치한 동리고분군 내에서 5세기 3/4분기 무렵의 대형목곽묘의 존재가 확인되지만 출토된 토기로 볼 때 5세기 전반으로 올려보기는 힘들다. 동리 5호 목곽묘의 형태나 관상 구조는 합천 옥전고분군 14호분과 유사하며, 앞서 조영된 고령 쾌빈동 1호 목곽묘도 같은 계통으로 볼 수 있다.

함안 마갑총, 도항리 13호분(慶南考古學研究所 2000), 말이산 45호분은 거의 동시기에 출현하면서 전마구형을 갖춘 초기 수장묘로 파악된다. 특히 말이산 45호분은 고분군 내 상징적이 위치를 선점하고 이후 수혈식석곽을 매장시설로 두는 고총고분이 연이어 조영된다. 고분군 구릉의 정선부와 가지능선으로 이어지는 45호분, 4호분-6호분-8호분, 13호분-75호분 등은 전마구형의 계보(여창현 2024)를 잇는 다계열의 왕묘(최경규 2023)로 볼 수 있다.

경남 서남부지역에서 초기 대형목곽묘의 출현이 중심고분군으로 성장할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하지 못한 것은 지정학적 조건, 내재적인 성장 동인의 부재, 주변 정치체의 변동과 성장 등 여러 요인이 있었을 것이다. 현동 200호분은 그 영역적 범위는 넓지 않더라도, 남해 연안 거점에서 상당한 위계의 수장이 이 일대의 교역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수장을 위해 조영된 무덤은 동시기 내륙의 신흥세력을 대표하는 대형목곽묘와 비교해도 탁월하다. 5세기 전반 급격한 정치·사회 변동에 따라 내륙의 신흥세력들이 입지와 기반을 마련해야 되는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남해연안 마산만의 집단은 교역권을 장악할 수 있었던 유리한 지정학적 조건이 성장배경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5세기 이전에 형성된 현동고분군 인근의 대규모 제철유적은 이러한 세력의 성장을 뒷받침해 주는 자료로 생각된다.

내륙의 남강 수계에 입지한 진주지역 일원의 목곽묘 단계의 고분군에서도 소가야양식 토

기복합체를 갖춘 대형목곽묘가 나타난다. 4세기 무렵 목곽묘를 축조한 재지 세력의 고분군 내에서 초기 대형목곽묘가 출현하는데, 이후 지속적인 고분의 축조가 이어지지 않고 5세기 전반 무렵이 되면 묘역의 이동과 함께 새로운 중심고분군을 형성한다. 이동형B 모델에 해당되는 성장모델로 볼 수 있다. 남강 수계의 나불천 인근의 이현동고분군, 남강 본류의 북안에 입지한 단목리고분군 등은 가좌천 수계의 가좌동고분군이나 반성천 수계의 무촌고분군 등지에서 새로운 고분군을 형성한다(여창현 2021; 임연주 2022). 새롭게 등장한 중심고분군은 고분의 규모와 부장 유물의 수준을 고려하면 소지역을 관할하는 범위의 영향력은 갖춘 것으로 이해되나 후기가야의 소국에 버금가는 세력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중심고분군의 최고 위계를 가진 수장층의 고분에서도 삼엽문환두대도를 포함한 기승용 마구 일부를 부장한 정도에 불과하다. 합천 삼가 고분군 II지구 8호 목곽묘는 후기가야로 전환할 무렵 경남 서남부지역에서 축조된 목곽묘 중 가장 큰 규모이다. 목곽묘의 절반 이상이 훼손되어 정확한 부장 유물의 양상을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유자이기와 이른 시기의 함유금구판비가 부장되어 피장자의 성격을 유추할 수 있다. 후기가야 초기 대형목곽묘 출현 이후 본격적인 고총 고분이 축조되면서 합천 남부지역의 중심고분군으로 성장·발전하게 된다.

본 글에서는 후기 가야 시기 각지의 초기 대형목곽묘의 입지와 중심고분군의 성장 모델을 유형별로 검토 후, 중심고분군으로 성장하지 못한 요인을 2가지 유형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우선 단절형 모델은 소가야지역에 해당되는 남해연안 지역뿐만 아니라 내륙에서 수계를 끼고 형성된 여러 고분군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남해연안의 거점은 마산 현동, 함안 오곡리 고분군 등이 해당되는데 초기 대형목곽묘가 출현하지만 이후 고총 고분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축조가 중단된다. 대외적인 교류에 적합하거나 항시적인 교역장을 갖춘 입지는 이 시기 수장묘로 추정되는 초기 대형목곽묘가 출현하게 된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 다만 대내외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중심고분군으로 성장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후기가야 중심고분군의 변동성과 의미

가야의 중심고분군 중에 김해 대성동고분군과 함안 말미산고분군은 목관묘군의 형성으로부터 시작되는 양상이 확인되는데, 이에 비해 지산동고분군은 수혈식석곽을 매장시설로

채용한 고총고분이 축조되면서 고분군의 형성이 시작된다. 물론 최초의 왕묘는 목곽을 매장 시설로 석축으로 둘러싼 73호분이지만 본격적인 왕묘의 시작을 보여주는 것은 수혈식석곽으로 축조되었다. 말이산고분군 45호분도 목곽이 매장시설이며 말이산고분군에서 최초로 전마구를 갖춘 중장기병의 출현 시점을 알려주는 표지적인 고분이다. 5세기 전반 무렵 고총고분 단계에서 아라가야 수장층의 출현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여창현 2024). 즉 가야의 고분군에서 본격적인 고총고분의 축조는 5세기 중엽을 전후한 시점이므로 지금까지 조사된 자료를 통해 본다면 지산동고분군이나 말이산고분군 내에서 고총고분의 형성은 이 무렵부터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다.

묘제는 당시 가야정치체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능동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기념물로 본다면, 가야 각 국에 있어서는 최고 위계의 고총고분의 형식이 각 정치체마다 독자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후기가야를 대표하는 대가야, 아라가야, 비화가야, 다라국 등의 묘제는 초기 대형목곽묘에서 고총의 단독곽식 석곽묘로 변화되는 유사성(여창현 2023) 안에서 각 국의 독자적인 특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주변에 영향을 주었던 것은 분명하다.

지산동고분에서처럼 왕릉에도 다곽식이 채용되긴 하지만 하나의 묘역 안에 배치된 순장곽으로 설명되고 있으며 말이산고분군에서는 단곽식이 축조된다. 말이산고분군의 고총고분들은 대형목곽묘의 뒤를 이어 능선 정상부를 따라 조영된다. 마갑총과 45호분에 이어 4호분과 13호분 등이 조영되면서 목가구조 시설과 함께 새로운 성토방법의 축조기술이 적용된 고총고분이 고분군의 상징적인 위치를 선점하면서 고분군 내의 고총고분 점유방식이 새롭게 전개된다(여창현 2024). 남북으로 이어지는 구릉의 정선부와 정선부에서 뺀어내린 가지능선을 선점하고, 이후 일정한 거리를 두고 배치되는 방식이 지속된다. 중심고분군의 일정부분이 독특한 점유방식에 의해 왕묘의 배치공간으로 바뀌면서 대형분 상에서 중형급 고분군이 조영된다. 이에 비해 지산동고분군은 대형분의 주변에 소형묘들이 감싸듯이 배열되지만 6세기 전반부터는 왕릉군과 분리되어 지산동 능선의 가장 높은 곳에 배열되기 시작한다.

매장시설로 수혈식석곽의 채용과 고총고분의 축조, 묘역의 형성과 그에 따른 묘형의 배치는 서로 긴밀하게 연관된 변화로 보인다. 보다 견고한 시설물로 석축 석곽과 개석의 사용으로 그 위에 고대한 고총의 봉토를 축조해도 매장시설을 견딜 수 있게 되었다. 고총고분이 도입되면서 조상이 묻힌 자연구릉이 아니라 그 위에 배열된 왕릉이란 건축들이 기념물로서 인

지된다(이성주 2018).

중심고분군에는 다른 고분과 비교할 수 없는 규모와 부장품을 가진 대형분들이 배치되고 고대한 외관을 지닌 봉토나 분구를 쌓아 올린 고층이 입지한다. 후기가야 중심고분군의 왕묘들은 고층고분은 초기 대형목곽묘가 입지한 즈음부터 조묘자들에 의해 의도적으로 기획에 따라 배치되어 가는 점유방식을 확인할 수 있다. 피장자의 성격을 나타내는 부장품은 착장형 위세품(금동관, 대장식구)의 포함 여부와 함께 전마구형-개인무장형-장식대도보유형으로 왕묘의 수준이나 계열을 반영한다. 고분의 외관, 부장품의 수준만이 아니라 중심고분군은 여타의 고분군과 다른 입지, 공간조직과 성장모델, 그리고 경관 상의 특징을 보여준다. 즉 지배자 집단의 왕묘를 조성하면서 조묘자들은 묘지의 지형과 경관을 고려하여 각 고분군의 입지와 배치에 특히 권력관계를 표현하기 위해 노력했던 듯하다. 특히 가야사회의 정치사회적 변동과정에서 중요한 단계에 고분군의 배치 및 축조원리가 변했던 것은 의미 깊은 사실이라고 여겨진다.

후기가야 초기 대형목곽묘에서 중심고분군으로 성장한 모델은 확장형A·B에 속한다. 소가야지역에서 확장형A로 볼 수 있는 중심고분군은 내륙의 산청 중촌리고분군과 합천 삼가고분군이 해당된다. 삼가고분군의 경우 초기의 대형목곽묘가 출현하고 이후 고층고분이 지속적으로 축조되면서 중심고분군을 형성한다. 후기가야의 각 소국의 왕묘역으로 조영된 고령 지산동고분군, 함안 말이산고분군, 합천 옥전고분군 등의 중심고분군들이 이와 유사하게 성장·발전한 경우로 볼 수 있다. 반면 고성 송학동고분군의 경우 왕묘역으로 형성된 낮은 구릉 내에서 4세기 후반 대의 목곽묘가 조영되지만 5세기 전반 무렵의 대형목곽묘의 출현은 현재까지 단정하기 어렵다. 송학동고분군 내 후기가야 초기 대형목곽묘가 부재한다면 남해연안에서 중심 세력으로 인식되었던 송학동고분군 축조 세력의 등장은 6세기 초 무렵으로 이해되며 이와 같은 양상은 내륙의 후기 가야 소국의 성립 시기보다 50년 정도가 늦은 시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호남 동부지역의 남원 월산리나 유곡리·두락리고분군의 성립 시점과 유사할 것으로 파악된다.

고성분지를 중심으로 한 남해연안의 제 집단이 수용한 분구식 요소가 보이는 다곽식 묘제, 양천강 수계에 형성된 삼가 고분군 집단이 채용한 독특한 중층적 구조의 다곽식 묘제, 남강 중하류의 진주지역 일원의 가좌동 고분군과 같은 봉토를 덮어 구축한 다곽식 묘제는 축조 과정에서 세부적인 차이가 있다. 다만 공통의 토기복합체를 매장외례에 사용하는 점과

완성된 석곽의 배치 형태는 유사한 점으로 보아, 결속력이 높은 정치체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그림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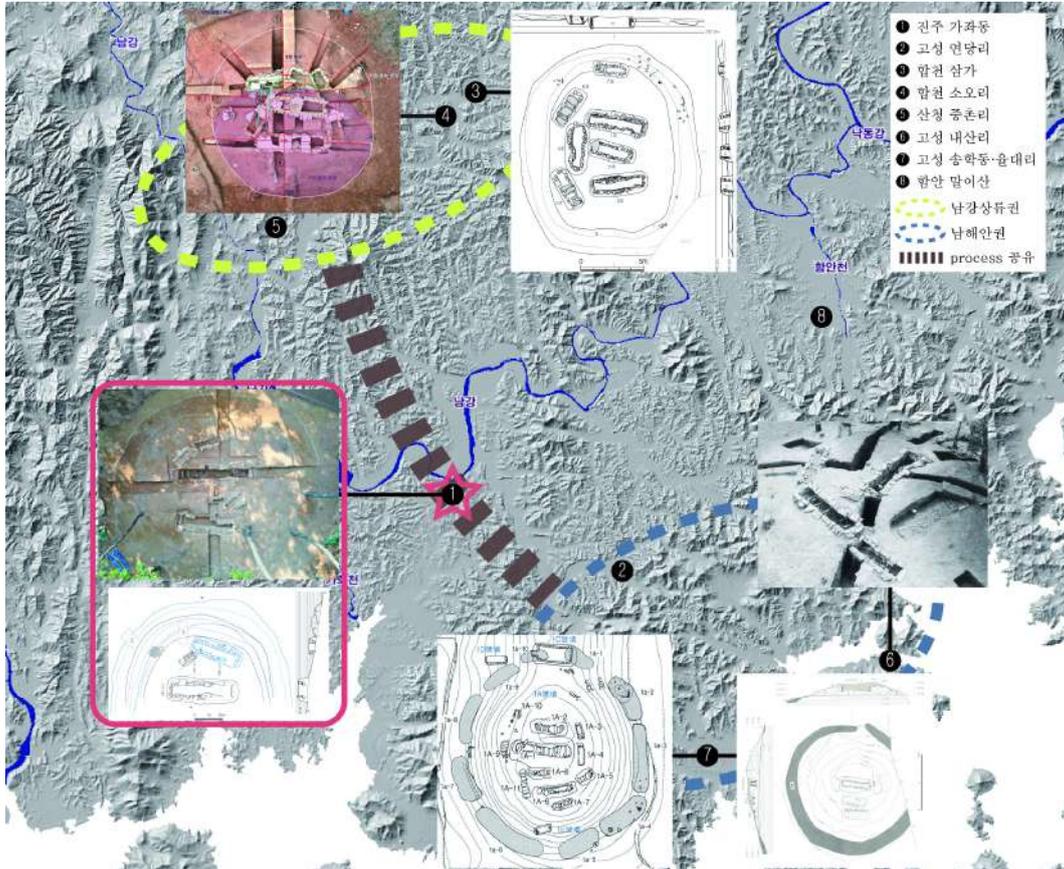


그림 18. 후기가야 내륙지역과 남해연안 묘제의 유사성

IV. 맺음말

본 글에서는 후기가야의 지배집단의 공동묘지이자 중심적 기념물인 고총고분이 어떻게 성장하고 경관을 이루었는지 초기 대형목곽묘-고총고분의 관계에 집중하여 그 변동성의 의미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후기가야의 시작을 알리는 초기 대형목곽묘들은 구조적 유사성을

가지고 있지만, 고분의 규모와 부장품의 수준, 토기복합체의 구성과 토기양식의 변화 등에서 차이가 있다.

초기 대형목곽묘가 출현하고 가야 각 소국의 범위 내에서 동일한 토기복합체를 매장 의례에 사용한 집단이 고층고분이 성장·변동하는 과정을 5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중심고분군 형성 모델로 제시하였다. 제 가야의 중심고분군의 성장은 지리적 조건과 함께 대내외적인 관계와 영향으로 인해 다양한 발전과정을 겪게 된다. 초기 대형목곽묘의 출현을 시작으로 가야의 각 고지에서 후기가야의 신흥세력이 등장하고, 이후 고층고분의 연속, 이동, 단절이라는 상이한 성장모델들이 정치체들의 성장이 내포된 다양한 경관을 남기게 된 것이 아닌가 싶다.

□ 참고문헌 □

- 김도영, 2019, 「가야와 왜의 금공품」, 『가야고분군Ⅴ』, 가야고분군세계유산추진단.
- 金斗喆, 2000, 『韓國 古代 馬具의 研究』, 東義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 김두철, 2013, 「加耶 轉換期の 墓制와 繼承關係」, 『考古廣場』13.
- 柳昌煥, 2007, 『加耶馬具의 研究』, 東義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 류창환, 2018, 「가야 마구」, 『가야고분군Ⅱ』, 가야고분군세계유산추진단.
- 文栢成, 2009, 「Ⅴ.考察」, 『統營 藍坪里遺蹟』, (財)東西文物研究院.
- 余昌炫, 2013, 「小加耶聯盟體의 고고학적 연구」, 釜山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여창현, 2020, 「부장유물로 본 4~6세기 합천 삼가고분군 축조집단의 특징과 변천」, 『嶺南考古學』 제87호.
- 여창현, 2021, 「5~6세기 진주지역 토기양식의 특징과 매장 의례의 변천」, 『한국고고학보』 2021 권 2호.
- 여창현, 2023, 「소가야지역 중심고분군의 변동성과 의미」, 『한국상고사학보』 제119호.
- 여창현, 2024, 「목가구조 고분으로 본 아라가야의 수장들」, 『한국상고사학보』 제123호.
- 禹炳喆, 2000, 『新羅·加耶 武器 研究』, 慶北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 우지남, 2021, 「咸安地域 出土 陶質土器」, 『咸安 南門外 古墳群』, (財)三江文化財研究院.
- 林連珠, 2021, 「晋州地域 三國時代 古墳文化 研究」, 慶尙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이성주, 2009, 「新羅·加耶 土器樣式의 生成」, 『韓國考古學報』, 第72輯.
- 이성주, 2018, 「가야고분군 형성과정과 경관의 특징」, 『가야고분군Ⅰ』, 가야고분군세계유산추진단.

- 이한상, 2018, 「가야 금공문화의 전개양상」, 『가야고분군Ⅱ』, 가야고분군세계유산추진단.
- 장상갑, 2019, 「加耶 武裝 研究」, 慶尙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 최경규, 2023, 「아라가야의 古塚과 그 體系」, 『영남고고학』 제96호.
- 하대룡, 2023, 「신라 적석목곽묘의 계층화와 의례적 자원 차별화」, 『영남고고학』 제97호.
- 河承哲, 2015, 「小加耶의 考古學的 研究」, 慶尙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홍보식, 2021, 「삼국시대 창녕지역 정치세력의 성장과 가야」, 『한국고대사연구』 101.

『후기가야 중심고분군의 성장과 변동성』에 대한 토론문

최 경 규

|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

발표문은 가야사회의 어떠한 고분군이 후기가야 사회를 대표하는 고총고분군으로 성장하는지에 관한 내용이 중심이다. 발표자는 전·후기가야의 전환기적 고고학적 양상으로 대형목곽묘 출현, 토기양식 변화, 위세품 부장양상에 주목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후기가야 중심집단의 성장과 변동의 계기를 추적하였다. 결과적으로 후기가야의 대형목곽묘 출현을 신흥세력의 등장으로 보았고, 중심고분군의 대형목곽묘는 ‘연속-이동-단절’ 등 다양한 성장모델을 통해 고총고분으로 성장하거나 그렇지 못하였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후기가야 사회의 성장과 변동을 대형목곽묘에서 고총고분으로의 고고학적 전개과정으로 풀어내고 있는 발표자의 논지는 탁월하며, 토론자는 큰 틀에서 이견을 갖고 있지 않고 공감하는 바이다. 따라서 지엽적인 부분이지만 궁금한 점 또는 보충설명을 요하는 점 몇 가지를 질의하는 것으로 토론자의 책무를 다하고자 한다.

1. 발표자는 문제의 소재를 ‘후기가야의 시작을 알리는 대형목곽묘의 출현에 대해서는 그간 여러 연구자가 주목하였지만, 그 배경과 변동성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지적하였다. 즉, 후기가야의 고고학적 지표를 대형목곽묘의 출현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논지의 전개과정에서 후기가야 대형목곽묘를 「초기 대형목곽묘」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주지하듯이 가야사회에서 대형목곽묘의 출현이라는 것은 고고학적으로 절대적 권력자의 출현 혹은 왕묘의 출현으로도 표현하듯이 이전 사회와 구분되는 뚜렷한 고고학적 양상이며 대형목곽묘의 성립시기를 대체로 전기가야의 성립으로 보고 있다. 그것을 대표하는 고분으로 양동리 162호분 또는 대성동 29호분을 들고 있으며, 연구자에 따라 일부 시각의 차이를 보이고는 있다.

발표자께서는 후기가야의 대형목곽묘 앞에 「초기」라는 修飾言을 사용하고 있는데, 전기가야의 고고학적 지표로 통용되고 있는 대형목곽묘의 출현과 혼란을 보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명칭한 이유 무엇인지? 이에 대해 전기가야 대형목곽묘의 출현에 따른 고고학적 양상과 비교해서 보완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 발표자는 후기가야의 시작을 초기 대형목곽묘 출현시점인 ‘5세기 2/4분기 늦은 시기에서 5세기 3/4분기 무렵’으로 보고 있는데, 이 시기는 대가야(고령 지산동고분군)와 아라가야(함안 말미산고분군)에서는 수혈식석곽묘를 매장주체부로 하는 대형 고총고분이 축조되고 중심지에 왕성이 건립되는 시기에 해당한다. 물론 편년관에서 시기적 차이를 보일 수도 있지만 토론자는 후기가야의 성립지표를 대형목곽묘의 출현보다는 전기가야와 대비하여 고고학적으로 큰 획기를 보이는 대형 수혈식석곽묘와 고총고분의 출현에 무게를 두는 입장이다.

발표자는 후기가야 고분군의 성장과 변동의 초점을 초기 대형목곽묘에서 → 고총고분의 성장에 두고는 있지만, 발표문에서는 고총고분으로 이어지는 묘제의 변동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보이지 않는데, 이에 대한 보완설명을 듣고 싶다.

3. 발표자는 후기가야의 초기 대형목곽묘에서 고총고분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대표 집단으로 현동고분군을 들고 있으며 독립적인 집단으로 보고 있다¹⁾. 현동고분군은 5세기 전반까지 아라가야 철기 생산의 배후지 역할을 하였으며(李春先 2020), 5세기 후반이 되면 제철 생산이 쇠퇴하고 아라가야 토기와 함께 소가야, 비화가야 토기 등 주변 가야 소국의 토기가 유입되는 현상이 두드러진다. 이 시기에 소형 목곽묘와 석곽묘 위주로 환두대도, 철검, 철모, 철촉 등의 무기류와 갑주류, 마구류 등이 출토되는데, 환두대도가 출토되는 무덤에 부장된 토기는 아라가야양식이 우세하다. 토론자는 이러한 양상을 현동고분군 집단이 아라가야 관계망 속에서 철기생산집단에서 해상방어와 교역항의 기능을 가진 집단으로의 변화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5세기 중엽 아라가야 중심지인 가야읍에 고총체계가 성립하고 동시에 왕성건립이 이루어지면서 중심과 주변이라는 重層的 構造가 뚜렷하게 형성된 것에 따른

1) III장 2절에서 현동집단이 아라가야에 편입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그 전까지는 독립된 집단으로 보고 있는 듯하다.

것이라 보았다(최경규 2023).

발표자는 마산 현동고분군의 경우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여 독립적인 집단이 근거한 소지역으로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해 좀 더 상세한 보충설명을 부탁드립니다.

4. 중심고분군에서 고총고분으로 성장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차이에는 왕성(왕도)의 경관 또는 왕성과 중심고분군간의 복합적 구조도 중요한 변수로 생각된다. 이에 대해 발표자가 모식화하여 제시한 [그림17]의 제 유형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변화양상에 대해 보충설명을 듣고 싶다. 그리고 III장 2절에서 단절형에 해당하는 마산 현동, 합성동, 함안 오곡리 등의 해상집단은 고총고분으로 성장한 내륙집단의 압박으로 인해 성장이 어려웠다고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고고학적인 현상이 있다면 추가적인 설명을 부탁한다.

□ 참고문헌 □

李春先, 2020, 『鐵器 生産과 流通으로 본 昌原 縣洞遺蹟 築造集團의 性格』, 『유라시아 고고와 문화』, 慶北大學校 考古人類學科 40周年 記念論叢.

최경규, 2023, 『아라가야의 중심과 주변의 구조』, 『한국고고학보』 2023권 3호, 한국고고학회.

통일신라시대 묘역과 의례공간 검토

차 순 철

| 서라벌문화재연구원 |

〈 目 次 〉

I. 머리말

II. 묘역 공간의 확대와 의미

III. 통일신라시대 묘역과 의례공간

IV. 맺음말

I. 머리말

삼국시대에 조성된 적석목곽묘와 수혈식석곽묘로 이루어진 고분군은 시내 일정공간을 묘역으로 사용했다. 이 시기 조성된 고분 호석이나 주변을 따라서 대호를 놓고 안에 음식물을 넣은 모습¹⁾과 경주 쪽샘유적처럼 적석목곽묘 호석이 연접한 주변에 방형의 석단을 만들거나 대호를 놓은 모습 등은 장례가 이루어진 이후 의도적인 묘역 관리가 존재했으며, 이는 고분에 대한 의례가 이루어졌음이 확인시켜준다. 한편 과거 소속이 분명하지 않지만 주곽에 딸린 부곽으로 보았던 방형 유구의 성격이 단독유물부장곽으로 새롭게 규정되고, 이들의 입지가 대형분 주변을 따라서 위치한 모습으로 하나의 경계를 나타내고 있음이 확인²⁾되면서 고총고분군의 경계를 따라서 일정한 경계가 존재했다고 추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모습을 통해 고분군 안에 위치한 의례공간은 묘역의 경계를 구분 짓는 기능과 고분군 내 분묘를 대상으로 한 의례가 이루어지는 장소임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최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된 <상형토기와 토우장식토기> 특별전에서 일제강점기에 황남대총 인근에서 조사된 적

1) 신광철, 2021, 『금령총 재발굴 성과를 통해 본 경주의 적석목곽분』, 『마립간과 적석목곽분』 신라학강좌 총서2, 국립경주박물관, pp.195-198.

2) 차순철, 2021, 『경주 황성동의 적석목곽묘』, 『적석목곽묘로 본 신라의 기원과 성장』 ①유적발표,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pp.86-87.

석목곽묘 출토품을 소개하면서 토우장식토기가 출토된 황남동고분을 갑분으로 비정하고 황남대총 북분 봉토에서 출토된 인물 토우장식 토기와 유사한 점에서 관련성을 근거로 고훈에 소속된 제사 관련 유구로 본 점³⁾은 묘역 공간 안에 의례공간이 위치했음을 지적한 점에서 주목된다. 이러한 고분과 관련된 의례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김기웅⁴⁾, 강윤석⁵⁾, 김동숙⁶⁾, 김용성⁷⁾, 김수민⁸⁾, 강원표⁹⁾, 방민규¹⁰⁾, 고은별¹¹⁾ 등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이후 김은경에 의해 전체적인 연구사 정리가 이루어졌다.¹²⁾ 이러한 연구 결과 앞서 이루어진 삼국시대 고분 제사와 관련된 의례 연구 내용은 주로 출토유물과 안에서 확인된 음식물 등에 대한 분석과 성격을 살펴본 연구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고분 주변을 둘러싼 주구 내 출토품에 대한 분석을 통해 여러 고분에 대한 의례가 동시성을 가지면서 이루어졌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따라서 통일신라시대 고분에도 이러한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으며, 묘역 공간과 의례에 사용된 유물을 살펴보면 고분에서 이루어진 제사와 의례는 결국 망자와 그 가족 사이에 이루어진 계승관계와 유대의식을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피장자를 중심으로 한 왕권과 같은 권력의 계승과 그 이양이 이루어졌음을 주변에 알리는 의미 역시 가지고 있다.

삼국시대 말 경주 시내와 외곽지역에 황혈식석실분이 축조되면서 지점마다 구분된 하나의 혈연집단을 연고로 하는 묘역이 만들어졌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경주 서악동고분군¹³⁾

-
- 3) 이진민, 2023, 『가장 많은 토우를 발견한 곳, 경주 황남동 유적』, 『영원한 여정, 특별한 동행-상형토기와 토우장식 토기』, 국립중앙박물관.
 - 4) 김기웅, 1984, 『고분에서 엿볼 수 있는 신라의 장송의례』, 『신라문화재학술발표논문집:신라종교의 신연구』 제5집, 경주시·신라문화선양회, pp.261~276.
 - 5) 강윤석, 1999, 『신라·가야고분의 제사의식에 관한 연구-5~6세기대 축조과정에 나타난 양상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6) 김동숙, 2000, 『신라·가야 분묘의 제의유구와 유물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신라·가야 분묘의 제의유구와 유물에 관한 연구』, 『영남고고학』 제30호, 영남고고학회.
 - 7) 김용성, 2008, 『경산 임당고총의 제의와 부장품의 의미』, 『한국 고대사 속의 경산-고대 압록국 문화 고증을 위한 학술대회 자료집』, 경산시·대구사학회; 2009, 『신라 고총의 장제』, 『신라왕도의 고총과 주변』, 학연문화사; 2014, 『고분으로 본 신라의 장송의례』, 『중앙고고연구』 제15호, 중앙문화재연구원.
 - 8) 김수민, 2013, 『신라고분에 보이는 음식공헌과 생사관』, 『경주사학』 38, 경주사학회, pp.31-59.
 - 9) 강원표, 2016, 『백제 상장의례 연구-고분 매장프로세스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0) 방민규, 2014, 『고고학 자료로 본 신라 고분제사의 성격』, 『한국전통문화연구』 13, 한국전통문화대학교, pp.39-72.
 - 11) 고은별, 2018, 『임당 고총 동물부장 연구:조류 부장 양상을 중심으로』, 『한국고고학보』 제106집, 한국고고학회, pp.138~171.
 - 12) 김은경, 2000, 『신라 적석목곽묘 상장의례 연구』,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13) 서악동 고분군 피장자와 관련된 제 연구성과는 최근 이창국이 정리했다.(이창국, 2023, 『‘경주 서악동 고분군(사적)’의 주인공 비정』, 『신라문화』 제63집,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pp.149~171.

은 시내 입지한 적석목곽분 묘역 내 왕릉이 그 입지를 달리하여 새롭게 만들어진 곳으로 보면서 그 주변에는 중,소형 횡혈식석실묘가 군집된 모습이 확인되고 있다. 이 중 인접한 장산고분군 내 석실분 분포와 관련해서는 정밀분포조사¹⁴⁾와 라이다(Lidar)측량을 이용한 분포조사 내용이 보고¹⁵⁾되면서 매우 조밀하게 밀집된 모습이 확인되는데, 이는 한정된 공간 안에 누세대의 인물이 계속 무덤을 만든 현상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고분 규모로 보면 대형분과 중,소형분 사이에는 묘역 공간에서 차등을 둔 모습이 보이며, 이는 피장자의 신분에 따라서 각각의 묘역이 제한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이들 석실분들에 대한 의례 역시 앞시기의 적석목곽묘와 같이 행해졌다고 생각되지만 그 실체는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이는 석실분이라는 묘제가 연속적인 매장이 가능하고 유물부장에 있어 박장(薄葬)을 행했기에 관련 유구를 확인하지 못한 데 기인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제의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이 별도로 존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통일신라시대에 들어오면서 왕릉의 위치를 기록한 내용을 살펴보면 특정 지명과 함께 사찰의 이름이 함께 확인되고 있다. 이는 왕릉 주변에 능묘를 수묘하거나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찰, 즉 능사(陵寺)가 존재했다고 볼 수 있지만, 이들 사찰의 존재를 바로 능사로 볼 수 있는가? 라는 문제와 함께 능묘관리에 들어가는 비용문제와 능묘의 범위와 공간의 획정이라는 점에서 방증자료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당시 왕경 외곽과 접한 구릉지나 시내 외곽이나 지방 고분군 조사에서 묘역과 구분된 생활공간 안에 위치한 장방형 석축시설과 다각형 건물지가 조사된 사례가 확인되면서 이들 시설의 성격을 고분군과 관련된 의례시설로 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삼국시대와 달린 통일신라시대에는 화장묘가 성행하면서 석함에 장골기를 매납하거나 또는 산골을 한 후 죽은 부모나 조상을 기리기 위해 절과 불상 그리고 탑을 세우는 공덕행위로 나타난다.¹⁶⁾ 이러한 모습은 당시 왕경과 지방에 거주한 왕족이나 귀족들의 재력규모가 컸음을 보여주며, 개인의 집을 희사하여 절을 만든 모습 역시 이러한 사회 분위기를 보여주는 하나의 방증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왕릉이 아닌 고분의 경우에는 사찰보다는 묘역 내 독립된 의례공간이 존재했다고 여겨지기에 현재까지 발굴조사된 삼국말~통일신라시대 고

14)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1, 『경주 장산고분군 분포 및 측량조사보고서(상,하)』.

15) 심현철, 2023, 「라이다(LiDAR) 측량기법을 활용한 고분분포현황 조사」, 『문화재』 제56권 제4호(통권 제102권), 국립문화재연구원, pp.54~70.

16) 차순철, 「통일신라시대의 화장과 불교와의 상호관련성에 대한 고찰 -조사(造寺)·조탑(造塔)신앙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문화재』 제41권 제1호, 국립문화재연구소, pp.57~78.

분군 안에서 확인된 의례관련 유구로 짐작되었지만 석실분의 바깥을 두른 호석 옆에 만든 상석의 출현은 개별 분묘를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제례의 존재를 알려준다. 중국의 예제를 따라서 무덤을 만든 이후 특정한 날에 고인을 추모하거나 사후명복을 비는 행위가 존재했음은 분명하다고 생각되며, 신라향가 중 죽은 누이를 추모하는 향가인 <제망매가>나 화랑을 기리는 <찬기과랑가>의 존재는 당시 신라인들에게 있어 고분 앞에서 망자를 위한 일련의 의례가 존재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경주지역과 지방에서 발굴조사된 횡혈식석실분과 관련된 개별 고분 및 묘역 제사 사례 그리고 장례 후 이루어진 조사(造寺), 조불(造佛), 조탑(造塔) 사례를 중심으로 의미와 특징을 검토하겠다.

II. 묘역 공간의 확대와 의미

1. 능역 공간설정과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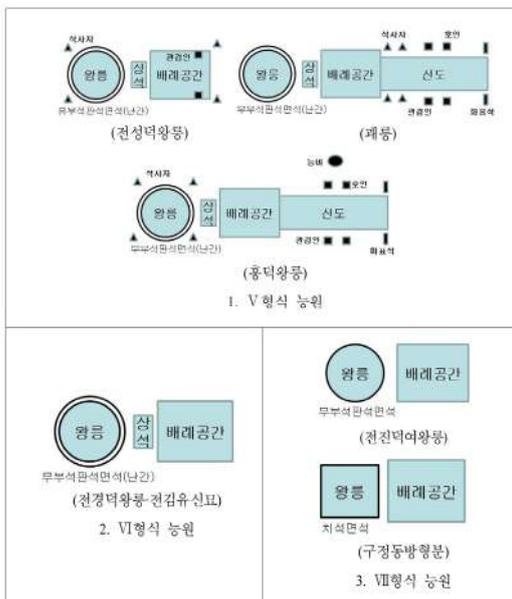


그림 1. 통일신라시대 능묘의 공간구분(김용성 2012)

통일신라시대 고분군에 대한 조사가 증가하고 신라 왕경 내 위치한 왕릉과 이에 준한 고분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삼국시대 조성된 적석목곽묘나 석곽묘 주변에 만들어진 묘역 의례공간과 다른 모습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모습은 시내에 입지한 고분군이 외곽으로 옮겨지면서 왕릉들 역시 새롭게 묘역을 조성하면서 부근에 사찰을 건립한 사례가 확인되는데, 이는 시내 묘역 공간의 부족도 하나의 원인이지만 세계가 분화되면서 왕과 귀족들이 문헌 묘역 별로 구성된 개인 가계별로 마련된 의례공간과 신도 및 석물 그리고 상석이 만들어지면서 공간영역이 구별되었음을 설명하였다.¹⁷⁾

17) 김용성, 2012, 『신라 십이지신장상 호석 능묘의 변천』, 『한국고대사탐구』 11, 한국고대사탐구학회, pp.115~154.

김용성은 삼국시대 말 서악동고분군이 조성되면서 이러한 능역 안에 배례공간이 마련된 것으로 보았다. 왕릉 공간에 나타난 이러한 공간 구분은 중소형분이 조성된 묘역 안에서는 배례공간과 신도를 제외한 모습으로 확인되며, 특히 상석의 존재는 계속 이어지는 모습이다. 그러므로 통일신라시대 능묘와 일반 중소형 석실분이 조성된 묘역을 구분할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개별적인 의례를 행할 수 있는 공간의 존재와 특정 능묘를 위한 전용통로 즉 신도와 이를 호위하는 석물 그리고 능비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통일신라시대 왕릉 중에서 이러한 묘역시설을 모두 갖춘 사례가 드문 점으로 볼 때, 당시 당 능묘제를 도입했어도 제한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서 박형렬과 이지향은 묘역 변화과정을 석재의 형태 변화와 내부 공간의 증설로 보고 배례공간, 상석, 신도와 석물의 추가가 이루어졌다고 보았다.¹⁸⁾ 결국 과정의 차이는 있지만 왕릉 안에서 의례공간의 확보와 묘역 공간의 정비과정은 삼국시대 말 적석목곽분에서 횡혈식석실분으로 묘제가 변화하면서 동시에 기존의 군집 묘역에서 단독 능묘로 바뀌어가는 과정 속에서 나타난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통일신라시대 능역 중 이렇게 묘역 공간을 체계적으로 구분한 사례는 전체 중 일부이며 현재 경주지역에서 신라왕릉으로 비정된 정강왕릉¹⁹⁾과 현강왕릉²⁰⁾ 묘역을 살펴보면 구릉 말단부 계곡에 석축을 쌓고 묘역 공간을 확대한 모습이 확인된다. 이러한 공간 확대를 위해서는 대규모 토목공사를 수반하는 점에서 능묘 공간 조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능묘의 경우 상석과 함께 주변 공간이 마련된 점은 바로 의례와 관련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차순철은 서악동고분군 내 1~4호분의 위치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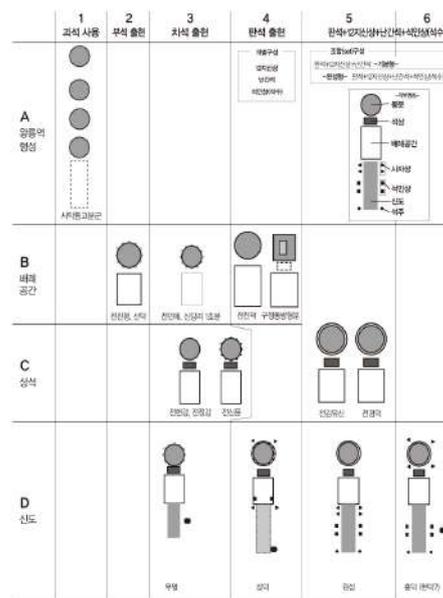


그림 2. 신라 십이지상 능묘의 능역구조와 변화 모식도(박형렬·이지향 2022)

18) 박형렬, 이지향, 2022, 『신라 십이지상 능묘의 특징과 순서에 대한 일고찰』, 『문화재』55권 2호, 국립문화재연구원, pp.252~271.

19) 경주시·신라문화유산연구원, 2022a, 『경주 정강왕릉-경역 정비사업부지 발굴조사 보고서-』.

20) 경주시·신라문화유산연구원, 2023, 『경주 현강왕릉-경역 정비사업부지 발굴조사 보고서-』.

검토²¹⁾하면서 1호와 4호 앞에 동일한 크기의 장방형 구획을 설치한 결과 현 무열왕릉 묘역과 비슷한 면적의 묘역 공간이 확인되므로, 3호, 4호는 추가로 묘역 안에 들어온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서악동고분군 내 위치한 1~4호의 피장자 문제와 함께 축조순서에 대해서는 여러 이론이 존재한다. 하지만 구릉 아래쪽에 위치한 무열왕릉보다 이른 시기의 왕릉은 분명하므로 이들 고분 주변에 개별 능묘와 관련된 의례공간이 존재할 가능성은 존재한다. 하지만 주변 일대에 대한 시굴조사 결과 지표하 20cm 아래에서 기반층인 풍화암반층이 확인되었고 조선~근대에 조성된 분묘와 시대미상의 수혈만 확인되었을 뿐 별다른 시설이 확인되지 않은 점²²⁾으로 볼 때, 의례가 이루어졌더라도 삼국시대 적석목곽분 주변에서 확인된 대호 매납시설 등과는 다른 모습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무열왕릉에 대한 시굴조사 당시 자연석을 이용한 호석과 주변에 잔자갈을 깔은 묘역시설이 확인된 점²³⁾으로 볼 때, 시내 고총고분 주변에서 확인된 대호를 이용한 의례유구는 더 이상 조성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능묘 묘역이 조성되면서 이에 맞는 의례공간 즉 상석, 묘도와 같은 공간이 만들어진 것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서악동고분군이 조성된 의미는 시내와 달리 새로운 묘역과 그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의례가 고분군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경주 노서동 131호분(우총)의 호석과 부석시설이 확인된 점²⁴⁾으로 볼 때, 시내에 횡혈식석실분이 조성되면서 동일한 의례공간이 마련되었다고 짐작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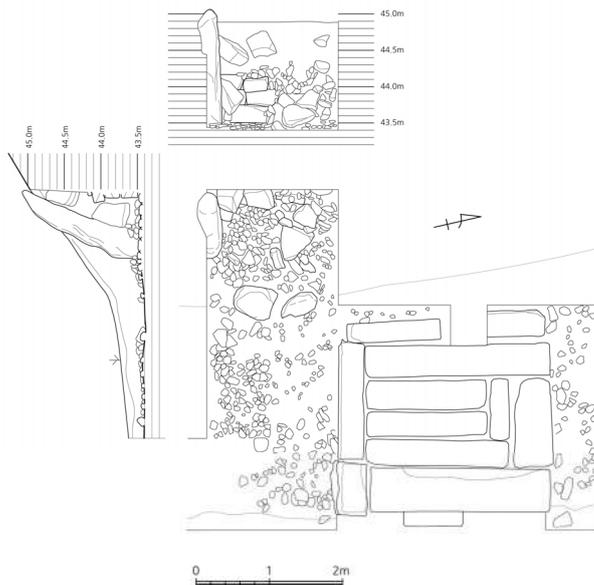


그림 3. 무열왕릉 호석과 부석시설(경주시·신라문화유산연구원 2022)

2023년 경주 쪽샘유적에서 확인

21) 차순철, 2021, 『경주 서악동고분군의 조성과의의』, 『신라문화』 제58집,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pp.285~311.
 22) 경주시·신라문화유산연구원, 2020, 『경주 무열왕릉·서악동 고분군-제례공간 정비사업부지 시굴조사 보고서』.
 23) 경주시·신라문화유산연구원, 2022b, 『경주 무열왕릉-제향공간 정비사업부지 발굴조사 보고서』.
 24) 한국문화재재단, 2021, 『122. 경주 노서동 117-7번지 유적』, 『2019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XXIII-119~125』.

된 횡혈식석실분은 지하식구조로 노서동 일대에서 조사된 석실분과 다른 모습이다. 석실 축조방법과 외곽 시설에 대한 조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북서쪽에 위치한 황남대총 주변에서 조사된 황남동고분 내 횡혈식석실분과 비교가 된다. 그리고 고분의 입지로 볼 때 대형 고분군 외곽에 입지한 모습으로 묘역 경계를 따라서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노서동 일원과 황남동 151호분 역시 동일한 모습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석실분이 조성된 입지 자체를 통해서 당시 묘역 경계를 추정해 볼 수 있다.

2. 십이지

통일신라시대 후기가 되면 왕릉의 호석에 판석이 사용되면서 외벽에 십이지를 장식한 모습이 나타나며, 호석 바깥으로 난간석이 마련된 모습 역시 일부 왕릉에서만 확인된다. 이러한 십이지의 등장은 중국 묘제에 동물 형태로 등장한 이후 이를 의인화한 문인상과 무인상의 모습으로 표현한 조상을 부장하거나 벽면에 벽화로 그린 모습을 신라 묘제에 수용하면서 부터이다.

중국의 경우 무덤에서 십이지는 일종의 시간과 공간을 표시하는 상징으로 출현하였다. 그런데 십이지용과 같은 입상의 모습이 고분 벽화와 같이 그림으로 그려진 것보다 빨리 출현하였다. 현재 알려져 있는 최고의 십이지용은 산둥성 치박(淄博)의 북조(북위) 최씨묘지 10호묘에서 출토된 호랑이, 뱀, 말, 원숭이, 개 등의 십이지를 이루는 동물들이다.²⁵⁾ 이들은 감실 안에 앉아있는 모습으로 각 동물의 형상을 표현했다. 또한 의인화된 모습의 십이지상 중 이른 시기의 모습은 수대 무덤에서 발견된다. 초당(初唐)에는 조형적으로 완성된 수두인신(獸頭人身)의 십이지용이 출현하며 중경시 만현 염인재(冉仁才)부부묘(654년)에서 출토된 3점의 수두인신 십이지용은 현재까지 알려진 당대 최고의 의인화된 사례이다.²⁶⁾ 성당(盛唐)이후에는 수두인신 십이지용은 부장품으로서 많이 발견²⁷⁾되고 있으며, 통일신라시대에 들어오면서 능묘 등에 도입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십이지상의 모습은 동물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동물의

25) 山東省文物考古研究所, 1984, 『淄博北朝崔氏墓』, 『考古學報』 2期, 考古出版社, pp.221~244.

26) 四川省博物館, 1980, 『四川萬縣唐墓』, 『考古學報』 1980年 4期, 考古出版社.

27) 韓釗, 2010, 『中日壁畫墓における天文圖・四神圖・十二支像の源流關係に關する試論-新發見のキトラ古墳壁畫內容の研究に關聯して-』, 『平城遷都 1300年記念 春季特別展 大唐皇帝陵』, 奈良縣立橿原考古學研究所付屬博物館, pp.181~183.



그림 4. 중국 서안시 서안이공대학 곡강교구(谷江校區) 당묘 출토 십이지용(奈良縣立橿原考古學研究所付屬博物館 2010)

머리에 사람의 몸체를 갖춘 수두인신의 형태로 몸에는 갑옷을 입거나 문관의 복장 또는 긴 치마와 같은 옷을 입은 모습을 보여주며, 손에는 무기를 들거나 손을 모으거나 합장한 모습이다. 머리에는 투구를 쓰거나 민머리이며, 고려시대에는 십이지를 상징하는 동물이 표현된 문관을 쓴 사람의 모습도 확인된다. 십이지상은 독립된 입상이나 부조상도 있지만 그릇의 표면에 글자를 돌아가면서 배치하거나 주요한 방위에만 글자를 쓴 모습²⁸⁾으로도 표현된다. 이러한 사례는 대부분 화장묘 장골기에 나타내는데 국립경주박물관에 소장된 화장묘 장골용기 표면에 「子·卯·午·酉」 4자가 음각된 사례와 국중앙박물관 소장품 중 십이지 문자 12자가 음각된 장골용기 그리고 경주 월지에서 출토된 장골용기에 십이지를 상징하는 문자 4자(2자는 불명)와 『주역(周易)』의 괘(卦)가 주서로 쓰인 사례 그리고 일본 동경국립박물관에 소장된 오쿠리[小倉] 컬렉션 중 하나인 장골용기에 십이지 12자가 음각된 장골기가 알려져 있다. 이를 통해 통일신라시대 화장묘에는 십이지와 괘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장례에 괘가 사용된 점은 역시 방위를 나타내는 점도 있지만 도교 사상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점에서 당시 분묘 의례의 한 모습을 보여준다.

28) 박방용, 1990, 「신라십이지명골호에 대한 소고」, 『신라문화』 제7집,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pp.191~2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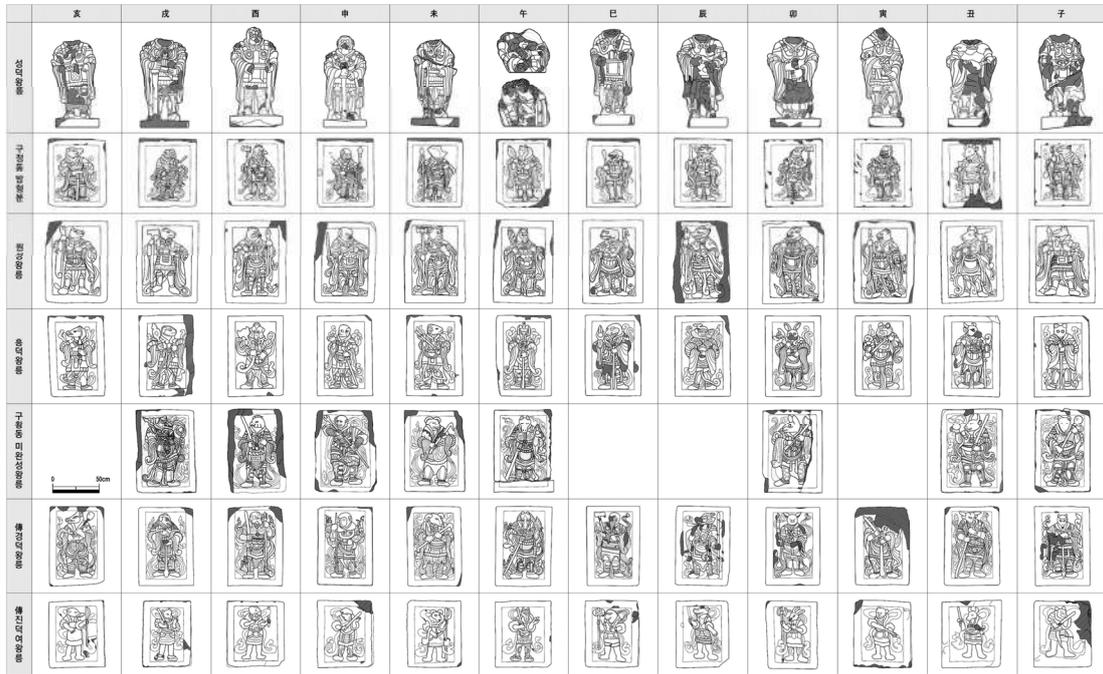


그림 7. 무복 십이지신상의 변천(배노찬 2023)

식되었던 바와 같이 ‘조각에 참여한 석공 집단이 달랐던 결과³⁰⁾’만으로 파악되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위계를 반영한 모습이 아니며 무복과 평복이 동 시기에 조성되므로 십이지상의 복식 차이는 그 피장자의 행적 또는 생전의 지위 등이 반영된 것일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이는 고분 면석에 부조된 십이지상의 표현이 분묘 의례와 다름을 알려준다. 하지만 환조 십이지상을 수혈 안에 방위에 맞춰 묻은 점은 의례행위로 볼 수 있다.

경주 傳김유신묘 출토로 전하는 판석제 십이지상³¹⁾은 경주 소현리유적 나-1호 석실분³²⁾에서 출토된 판석제 십이지상과 유사한 모습임이 확인되면서 능묘의 호석의 면석에 조각하여 사용한 것과 달리 단독으로 매납된 것과는 차이가 있음이 밝혀졌다. 또한 傳민애왕릉에서는 호석 바깥쪽에 마련된 수혈 안에서 석제 子상, 丑상, 酉상, 亥상이 출토되었고 巳상, 未상, 戌상은 봉안했던 수혈이 조사³³⁾된 점 역시 십이지상의 사용에 있어 고분 외부 장식을

30) 강우방 1982, 1990 앞의 책 p.364; 김용성, 2012 앞의 글, p.118 · 127~131.

31) 국립중앙박물관, 2003, 『특별전 민족의 통합 새로운 나라 통일신라』, p.241.

32)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 · 한울문화재연구원, 2015, 『경주 소현리 유적 I - 경주 울산-포항 복선전철 문화재 제 6공구 소현리 ‘나’구역 내 유적 발굴조사』.

위한 목적 외에도 고분 주변에 방위를 맞춰서 매납하는 의례를 통한 벽사적 성격이 존재했음이 밝혀졌다. 이러한 관념은 경주 용강동석실분에서는 시상 주변에서 청동제 십이지신상 중 7점이 출토된 점³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경주 화곡리 화장묘에서 화장묘를 매납한 석함 주변을 소조 십이지상으로 둘러싼 모습으로 발견된 점³⁵⁾ 역시 영면을 취하는 피장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컸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횡혈식석실분에서 이루어진 의례 중 십이지상은 석실 내 상석 주변을 호위하는 모습과 호석 바깥 수혈 안에 매납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경주 장산고분의 경우 상석 주변에서 인물형 토우가 출토된 점을 볼 때, 이 역시 용강동석실분에서 출토된 청동십이지상과 묘주와 함께 부장된 도용과 함께 비교할 수 있다. 다만 도용은 경주 황성동 524-1번지 석실분에서도 출토되었는데 소와 말 그리고 수레가 함께 공반된 모습은 중국 당대 분묘에 부장된 도용과 비교할 수 있다. 다만 십이지상과 달리 도용의 부장을 의례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가는 검토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십이지상은 아니지만 경주 남산 삼릉 중 傳신덕왕릉으로 전하는 도굴된 횡혈식석실분은 상하로 구획된 24면에 朱, 黃, 白, 群靑, 紺靑 등 5색으로 구별된 색을 순서 없이 채색한 모습이 확인되었는데 무늬는 없다.³⁶⁾ 이렇게 채색이 이루어진 부분은 벽면에 칸을 구분하고 만든 것으로 분명하게 그 성격을 밝힐 수는 없지만 상하로 구분된 12면의 존재는 십이지와의 관련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통일신라시대 횡혈식석실분에 부장되거나 표현된 십이지상은 방위를 표시하는 기능 외에도 묘주를 보호하고 사악한 것을 막기 위한 벽사적 성격이 존재한 모습이다. 그러므로 횡혈식석실분 내부와 외부에서 이루어진 의례 성격을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3. 상석 및 호석, 주구 매납유물

횡혈식석실분 호석 앞에 위치한 상석은 출입구인 묘도를 기준으로 좌우에 치우친 모습으로 위치한다. 현재 신라왕릉으로 전하는 고분 대부분과 경주 황성동 524-1번지, 906-1번지 석실분과 방내리고분군 (영)1호분, (한)7호분, 하구암리 병-25호분이 있다. 그리고 이보다

33) 국립경주박물관·경상북도 월성군, 1985, 『전민애왕릉주변정비보고』.

34) 문화재연구소 경주고적발굴조사단, 1990, 『경주용강동고분 발굴조사보고서』.

35) 한도식, 2009, 『경주 화곡리 화장묘』, 『신라문화연구 3-국은 이양선 선생 10주기 특집호』, 국립경주박물관, pp.100-112.

36) 박일훈, 1963, 『경주 삼릉석실고분-전신라신덕왕릉-』, 『미술자료』 제8호, 국립중앙박물관, pp.27-30.

봉분규모가 작은 동천동, 석장동고분군에서는 화장묘와 함께 확인된다. 그리고 묘역 조성토와 봉분 주변을 둘러싼 시설인 호석과 호석보강토 그리고 주구 안에는 의례와 관련된 토기를 묻거나 파쇄하여 뿌린 모습이 확인된다. 경주 황성동 524-1번지 석실분³⁷⁾은凸자상으로 벌어지는 묘도 바깥쪽에 위치한 호석 남쪽에 동서길이 200cm, 남북길이 150cm의 장방형 상석 기초부가 위치하며 호석 남서쪽에서는 길이 20cm, 너비 20cm, 깊이 40cm의 수혈 안에 할석을 세워놓은 구덩이가 1개 확인되었다. 시기는 불명이지만 고분과 관련된 시설로 추정되었다. 경주 황성동 906-1번지 석실분³⁸⁾은 남남서쪽으로 낸 묘도의 동쪽, 즉 정남향에 상석 기초부를 설치했는데 조선시대 분묘에 의해서 일부 파괴가 되었지만 동서길이 150cm, 남북잔존길이 55cm, 높이 65cm로 모서리쪽에 큰 돌을 세워놓고 안쪽을 채운 모습이다. 그리고 북서쪽 모서리에 지름 28cm의 수혈을 파고 안에 유개합 1점을 매납했고, 상석 기초부 동쪽에는 불탄 돌과 숯이 섞인 너비 150cm의 수혈이 위치한다. 이들은 모두 석실분과 관련된 의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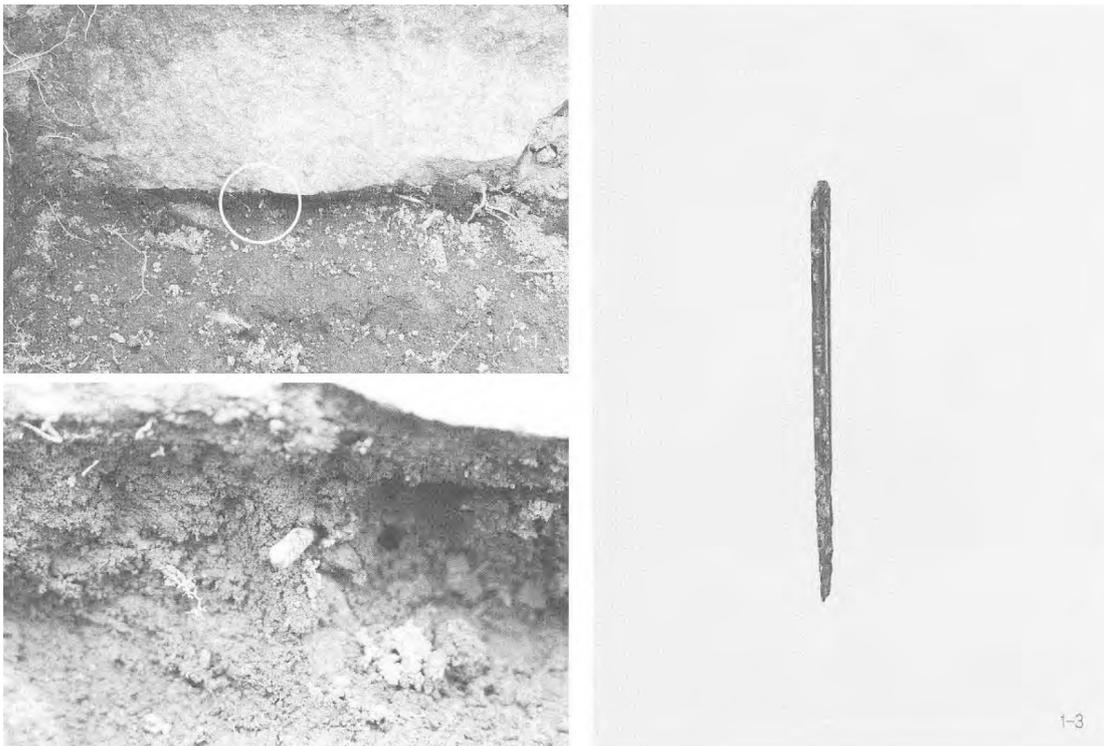


그림 8. 경주 황성동 906-5번지 석실분 호석 출토 청동침 및 출토상태(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05)

37) 국립경주박물관 경주시, 1993, 『경주 황성동 석실분』.

38) 국립경주박물관 경주시, 2005, 『경주 황성동 석실분 906-5번지』.

시설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호석 바깥에는 갈색 사질점토를 너비 110cm, 높이 35cm 정도로 쌓아 만든 호석 보강토가 확인되었는데, 동쪽 상면 위에 정치시킨 유개함은 상석 기초부를 조성하면서 이루어진 의례와 동 시기에 이루어진 매납유물로 추정된다. 호석 북쪽에 매납한 인화문토기 유개함은 호석 축조 후 기반층 위에 매납한 것으로 고분 축조 당시에 의례행위가 행해진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각각의 유개함의 위치가 동쪽, 남쪽, 북쪽인 점으로 볼 때, 四方이라는 관념을 표현한 것³⁹⁾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호석 보강토를 파고 매납된 유개함은 장골기로 판단되는데, 석실분과 관련된 인물을 후대에 묘역을 공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남동쪽 호석(8구역)의 돌 사이에 청동침 1점이 박혀있는 모습으로 출토되었다. 이 청동침은 의도적으로 호석 틈에 박은 것으로 종이나 그림 등을 부착하기 위해 꽂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실체는 분명하지 않지만 호석 바깥쪽에 고정된 어떤 것이 존재했고, 이는 의례적인 성격을 가진 것⁴⁰⁾으로 보여진다. 미즈노 마사요시[水野正好]의 연구에서는 못과 바늘이 가진 주술적인 성격에 대해서 부적 등을 고정시키거나 질병을 쫓기 위한 의식에 사용한 사례를 든 점으로 보아 고분 호석을 하나의 의례공간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경주 천북면 성지리 산7-12번지 석실분은 석실 대부분이 유실되었으며 동쪽 묘역 조성토에서 연질토기 옹과 고배 배신편이 출토되었고, 석실 벽석 해체과정에서 북벽에서 배 1점이 출토되었다.⁴¹⁾ 그리고 경주 내남면 상신리 964번지 석실분은 좌연도식 횡혈식석실분으로 봉분 조사 중 북서쪽에서 옹관묘 1기와 토기매납유구 3기가 확인되었다.⁴²⁾ 이러한 모습은 황성동 906-5번지 석실분 호석 주변에 매납된 유개함과 유사한 성격으로 짐작할 수 있지만 잔존하는 매납토기는 봉분 축조시 동시에 연질토기 옹을 매납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경주 내남면 울동 산2-18번지 유적⁴³⁾ 횡혈식석실분 중 4호분 주구의 내부에서는 고배 대각편 등의 토기편이 확인되며, 5호분 주구의 내부에서는 삼각집선문과 반점원문이 시문된 개, 원권형꼭지 개, 대부명, 단각고배 등이 출토되었다. 9호분 주구 안에서는 삼각집선문과 반점원문이 시문된 유개단각고배와 대형 개, 고배편, 각배받침편, 단경호, 발형기대 편 등이 출토

39) 국립경주박물관·경주시, 2005, 위의 보고서, p.93.

40) 水野正好, 2023, 『釘・針うつ呪作』, 『まじなひの研究-考古資料と古記録・呪法書』, 高志書院, pp.577-602.

41)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13, 『2. 경주 성지리 산7-12번지 유적』, 『2011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IX-경북4』.

42) 한국문화재재단, 2015, 『7. 경주 상신리 964번지 유적』, 『2012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IX-경북1』.

43) 서라벌문화재연구원, 2018, 『1. 경주 울동 산2-18번지 유적』, 『2016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XII-경북3』, 한국문화재단.

되었다. 그리고 석실 옆에 위치한 매납유구 안에는 단경호 1점을 매납했는데 안에서 삼각집선문과 반점원문이 시문된 개 1점이 수습되었다. 11호분 주구 안에서는 대부완, 배 등이 확인되며 매납유물의 시기는 6세기 중엽~후엽으로 판단된다. 또한 울동 산2-19번지 유적⁴⁴⁾ 8호 석실분에서는 남서쪽 봉분 안에 대호 1점을 매납한 모습이다.

동천동 343-4번지 유적⁴⁵⁾은 봉분 호석 외에도 바깥쪽에 묘역 경계를 표시하는 외곽 석렬이 원형 또는 장방형으로 만들어졌고 묘도에서 빗겨난 한 쪽에 상석을 설치한 모습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묘역 경계를 보여주는 동서 방향의 석축이 확인되는데, 이는 시내 중심고분군처럼 의도적으로 묘역을 구분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동천동 일대에서 조사된 동시기 횡혈식석실분과 비교하면 주구는 확인되지만 호석 주변에 설치한 상석 받침이나 상석이 대부분 확인되지 않는 점으로 볼 때, 원래 설치되었더라도 후대에 유실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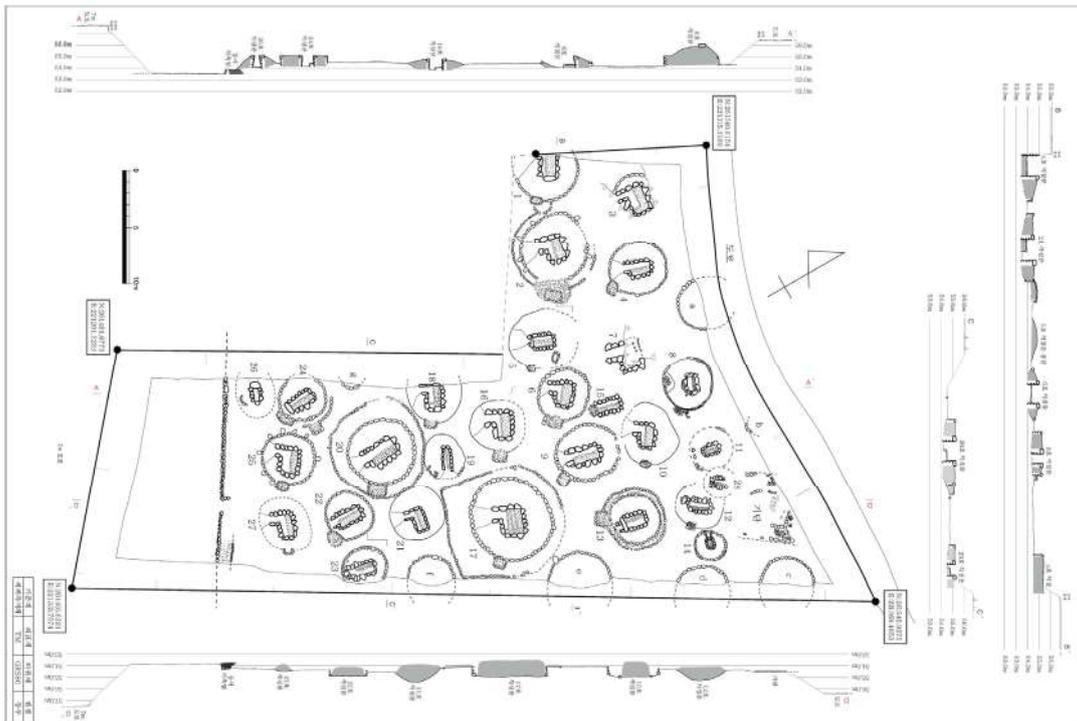


그림 9. 경주 동천동 343-3번지 유적(금오문화재연구원 2016)

44) 금오문화재연구원, 2018, 『1. 경주 울동 산2-19번지 유적』, 『2016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XIII-경북4』, 한국문화재단.

45) 금오문화재연구원, 2020, 『경주 동천동 343-4번지 유적』.

경주 석장동고분군⁴⁶⁾의 경우에는 호석 바깥쪽에 주구를 설치하거나 상석받침을 둔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그러므로 횡혈식석실분의 호석 주변과 상석은 묘역과 함께 하나의 의례 공간으로 독립되어 기능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고분이 수축된 이후 추가로 부속 시설이 만들어지거나 고분에 대한 개축 등이 이루어지면서 새롭게 호석 주변에서 의례행위가 이루어졌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동천동 343-4번지 유적에서 확인된 석축시설의 존재는 고분군이 일정한 시설에 의해서 구분되었음을 알려주며, 이는 경주 인왕동 668-2번지 유적에서 확인된 구 시설이 통일신라시대에 매워진 후 석렬로 대체되는 모습과 비교할 수 있다.

4. 장방형 석축

경주 동천동 도시개발사업부지 내 유적에서는 홍수로 매몰된 퇴적층 아래에서 장방형 석축이 남북방향으로 나란하게 시기를 달리하여 연속적으로 축조된 모습이 확인되었다.⁴⁷⁾ 이 석축들은 한 지역에서 위치를 달리하여 계속 만들어진 점과 홍수로 인해 매몰되었어도 그 위치를 달리한 점 등으로 볼 때, 당시 의미 있는 시설로 추정된다. 또한 석축 내부에서 어떤 구조물도 만들어지지 않은 모습이 확인된 점으로 볼 때, 장방형 석축 자체는 일반 생활공간과 다른 것으로 여겨진다. A구역에서 조사된 장방형 석축은 모두 3기로 조사지역 서쪽에서 남-북 방향으로 위치하며, 3호 장방형 석축 위로 통일신라시대 남북도로가 중복된 모습으로 볼 때, 석축의 조성시기는 건물지 보다 이른 시기인 삼국시대말로 추정되며, 통일신라시대 초까지 유지되었다고 판단된다. 먼저 장방형 석축이 조성된 기반층의 해발고도와 장축방향의 변화를 살펴보면 3호 → 1호 → 2호 장방형 석축 순으로 추정된다. 출토유물이 매우 한정되어 시기를 짐작하기 어렵지만 주변 고분군 출토품과 비교가 된다.

[표 2] 경주 동천동유적 A구역 장방형 석축 현황표

호수	장축방향	평면형태	규격(m)			기반층 해발고도	출토유물
			길이	너비	잔존높이		
1호	N-9°-W	장방형	26.28	8.8~9.6	0.5~0.7	55.3m	개, 고배대각
2호	N-15°-W	방형	7.5	5.0	0.5	56.1m	개, 고배대각, 대호편
3호	N-S	장방형	19.4	5.8~6.4	0.6	55.5~5.6m	

46)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박물관, 2001, 『석장동고분군 발굴조사-약보고서-』.

47) 서라벌문화재연구원, 2022, 『경주 동천지구 도시개발사업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1호 장방형 석축에서 출토된 원권형꼭지의 개는 경주 동천동 343-4번지 유적의 19호 석실분, 28호 석실분 출토유물과 비교되며, 고배편은 경주 월성로고분군 가 18호분 출토품과 유사하다. 2호 장방형 석축 출토 개는 경주 동천동 343-4번지 유적의 1호 석실분 출토품이, 고배는 경주 동천동 343-4번지 유적의 1호 석실분과 19호 석실분 출토품과 비교된다. 이를 시기별로 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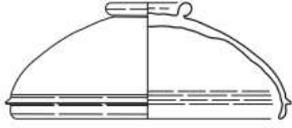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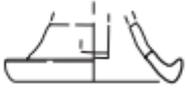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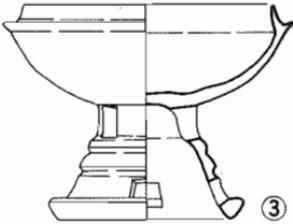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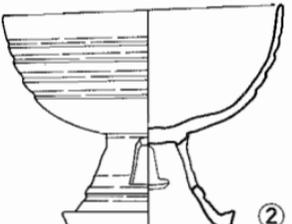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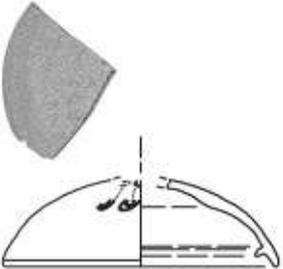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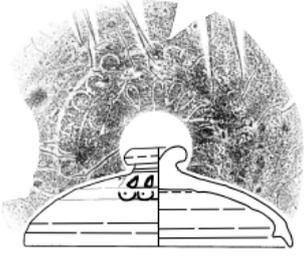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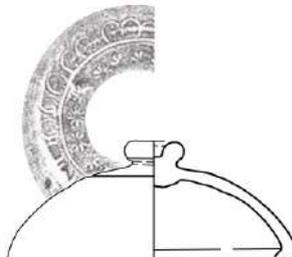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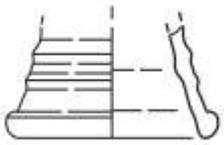
		
1호 장방형 석축	동천동 343-4번지 유적 19호 석실분	동천동 343-4번지 유적 28호 석실분
		
1호 장방형 석축	경주 월성로고분군 가-18호분	경주 월성로고분군 가-18호분
		
2호 장방형 석축	동천동 343-4번지 유적 1호 석실분	동천동 373번지 유적 1호 석곽묘
		
2호 장방형 석축	동천동 343-4번지 유적 1호 석실분	동천동 343-4번지 유적 19호 석실분

그림 10. A구역 장방형 석축 출토유물 비교

분해서 보면 1호 장방형 석축은 경주 월성로 가 18호분보다는 낮고 경주 동천동 343-4번지 유적의 19호 석실분과 28호 석실분 출토품 사이에 위치한다고 추정된다. 이러한 근거로 볼 때,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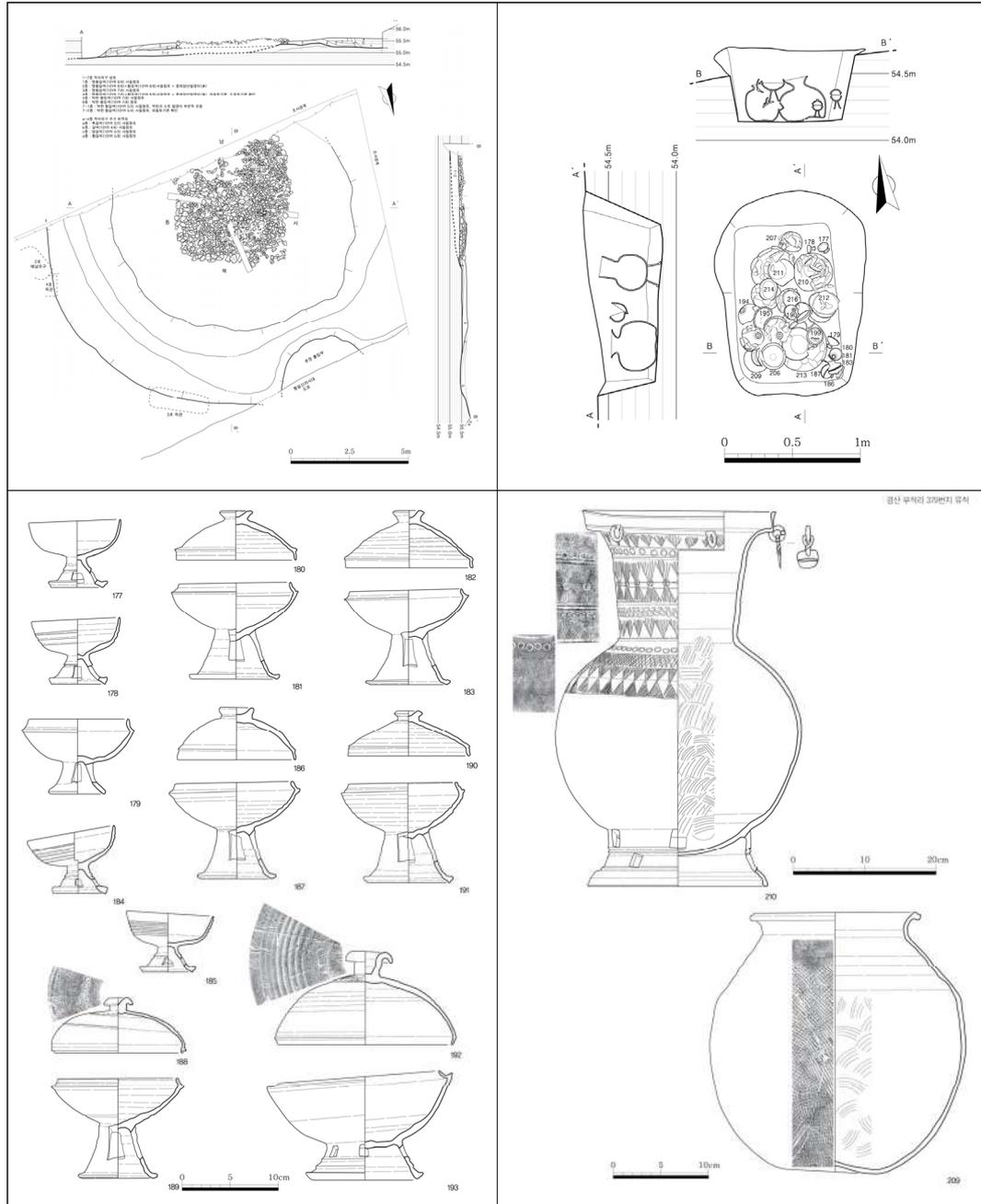


그림 11. 경산 부적리 379번지 방형석축과 출토유물(금오문화재연구원 2017)

호 장방형 석축의 존속기간은 6세기 중엽에서 7세기 중엽 사이로 볼 수 있다. 또한 2호 장방형 석축 출토 인화문토기 개는 인화문토기 출현기보다는 성행기로 이중원문을 찍은 것으로 볼 때, 7세기 중엽 이후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1호, 2호 장방형 석축의 존속기간이 동천동 343-4번지 유적 내 횡혈식석실분과 동 시기인 7세기 전엽~후엽과 동 단계로 볼 수 있다.

동천동유적 A구역에서 확인된 장방형 석축과 비교되는 유적은 경산 부적리 379번지 유적 내 적석유구⁴⁸⁾와 포항 월포리유적⁴⁹⁾ E구역 3호 건물지이다. 먼저 경산 부적리 379번지 유적 적석유구는 주구로 둘러싼 내부에 방형 석축이 위치한 모습이다. 주구 안에 위치한 단독유물부장곽으로 추정되는 삼국시대 2호 토기매납유구는 평면형태가 장방형으로 안에 각종 토기를 매납했다. 출토유물 중 공반된 대부분의 형태가 1호 장방형 석축과 비교가 된다. 또한 단독유물부장곽과 그 상부에 중복된 방형 석축은 이보다 늦은 연대이므로 그 조성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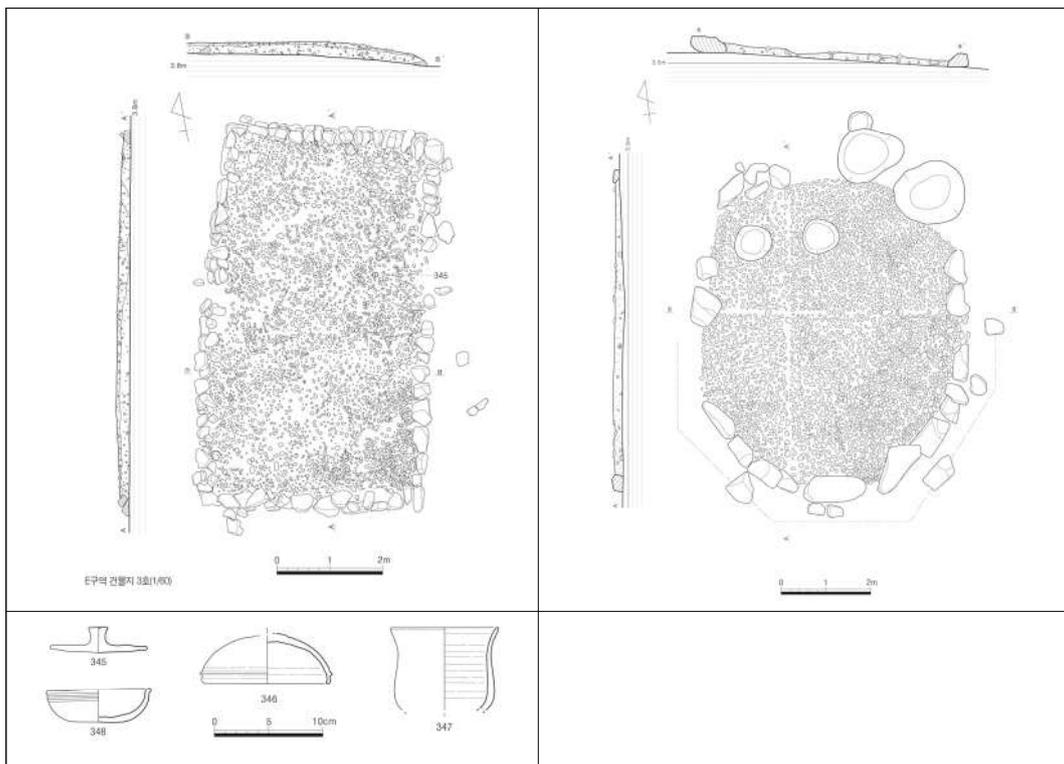


그림 12. 포항 월포리유적 E구역 장방형 석축 및 팔각건물지

48) 금오문화재연구원, 2017, 『3. 경산 부적리 379번지 유적』, 『2015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XIV-경북2-』, 한국문화재단.

는 6세기 2/4분기보다 늦은 6세기 후반 이후로 추정된다. 다만 경산 부적리 379번지 유구 내 적석유구에서 행해진 묘사의례의 대상은 현 임당고분군 내 조성된 대형분들로 횡혈식석실 분과 차이가 있지만 고분군을 대상으로 한 묘사를 별도의 공간에서 했었다는 점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포항 월포리유적의 E구역 3호 건물지는 건물지로 보고되었지만 평면형태와 축조방법으로 볼 때, 동일한 장방형 석축으로 판단된다. 이 장방형 석축은 장축방향은 남-북(N-11°-E)으로 길이 60cm 미만의 할석과 천석을 장방형의 형태로 쌓아서 만들었으며, 내부에는 20cm 미만의 할석을 채워놓았다. 한편 동쪽 장벽 일부에는 길이 80cm 정도 최하단석이 확인되지 않고 장축방향과 직교하게 할석이 확인되는데 출입시설로 추정하였다. 출토유물은 장방형 석축 내부와 상부에서 개, 고배, 완 등이다. 규모는 길이 744cm, 너비 444cm, 잔존높이 20cm 정도이며, 유적의 시기는 7세기 전엽에서 8세기 전엽으로 편년된다.

포항 월포리유적에서는 삼국시대 횡혈식석실분이 조성된 고분군과 구분된 생활공간 안에 팔각건물지와 장방형석축이 조사되었다. 이들 시설은 출토유물로 볼 때, 의례와 관련된 시설로 여겨진다. 특히 팔각건물은 삼국~통일신라시대 산성에서 다수 확인되며, 당시 지방 행정을 담당한 관청과 관련된 의례시설로 추정되고 있다. 포항 월포리유적 E구역에서 확인된 장방형 석축은 팔각건물지와 함께 확인되며, 당시 이 지역에서 행해진 의례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포항 월포리유적 4호 건물지에서 출토된 말 모양 토우는 제의행위에 따른 공헌물로 생각되며, 이는 경주 시내 건물지 기반성토층 안에서 발견되는 파손된 토우들과 비교할 수 있다. 그리고 월포리유적 E구역 남서쪽에 위치한 A구역에서 확인된 삼국~통일신라시대 횡혈식석실분이 조성된 모습은 동천동유적 북서쪽에 위치한 경주 동천동 343-4번지 유적, 경주 동천동 354번지 유적⁵⁰⁾, 경주 동천동 357번지 유적⁵¹⁾, 경주 동천동 373번지 유적 등의 여러 고분군의 존재와 동일하므로 고분군 주변에 위치한 의례공간의 모습을 추정해 볼 수 있다.

49) 영남문화재연구원, 2013, 『포항-삼척 철도건설 공사구간 내 포항 월포리유적』.

50)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13, 『4. 경주 동천동 354번지 유적』, 『2011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VII-경북2-』.

51) 동국문화재연구원, 2016, 『3. 경주 동천동 375번지 유적』, 『2014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XIV-경북2-』, 한국문화재재단.

5. 유물부장곽

수혈이나 목곽 또는 석곽(석실)을 만들고 안에 많은 유물을 부장한 단독유물부장곽은 삼국시대 묘역에서 확인되고 있다. 경주 황남동, 인왕동 그리고 황성동 일대에서 확인되며, 고분군 내 묘역 경계를 보여준다고 여겨진다. 적석목곽묘가 조성된 지역에서는 다수의 단독유물부장곽이 확인되지만 횡혈식석실분 묘역 안에서는 그 사례가 분명하지 않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에 발굴조사된 황남리 乙분에 대한 조사내용을 재검토한 의견⁵²⁾에 따르면 시내 중심고분군 내 대형분 주변에 위치한 횡혈식석실분 묘역 공간 내 매장시설과 다른 별도의 유물부장곽(실)이 존재했음을 지적한 점은 지하식 구조였던 단독유물부장곽이 지상으로 올라와서 별개의 독립된 유물부장곽으로 조성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유물부장곽(실)의 모습은 포항 신광면 냉수리고분⁵³⁾과 주변 고분군⁵⁴⁾ 내 위치한 횡혈식석실분 묘역 옆에 만든 측실의 존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고구려 묘제와 관련된 것으로 이해하는 의견도 있지만 냉수리고분군 안에서 다양한 형태의 측실이 확인된 점으로 볼 때, 신라 묘제 안에서 나타난 특징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단독유물부장곽 또는 독립된 유물부장곽(실)의 존재가 황남리 乙분 외에는 분명하지 않은 점은 역시 시내 중심고분군 안에 입지한 횡혈식석실분의 성격이 중심 묘제로 존재했기보다는 묘역 바깥쪽에 배총을 조성한 것으로 보는 의견⁵⁵⁾도 있지만 그 성격은 분명하지 않다. 경주 황성동고분군 C구역 1호 의례유구는 조사지역 동편 가장자리에 위치하며 주변으로는 남서쪽에 46호 석실묘, 북동쪽에 9호 석실묘가 있다.⁵⁶⁾ 평면형태가 방형인 석곽으로 우물과 유사하지만 차이가 있다. 석곽 규모는 길이 88cm, 너비 77cm, 높이 140cm로 상부에는 개석 2매가 덮여있다. 개석 크기는 길이 110cm 정도, 너비 50~55cm, 두께 22~40cm의 활석이다. 출토유물은 납석제 대부명과 철정 5점이다. 횡혈식석실분의 조성시기와 석곽 내 출토유물의 시기가 불일치하는 점으로 볼 때, 이 방형 석축시설의 성격은 고분과 관련된 의례유구의 가능성도 있지만 통일신라시대 후기

52) 배노찬, 2024, 『황남동 을분의 재인식: 신라 왕도 초기 횡혈식석실묘의 일례』, 『유라시아문명사연구회 제36회 정기발표회』, 경북대학교 유라시아문명사연구회.

53) 국립경주박물관, 1995, 『냉수리 고분』.

54) 정계옥, 1990, 『냉수리석실분 일례』, 『창산 김정기박사 화갑기념논총』; 동 논총간행위원회, pp.700~712; 경주문화재연구소, 1991, 『영일군 냉수리·흥곡리 일대 지표조사』, 『연보』 제2호, pp.167~196; 포항시·한빛문화재연구원, 2010, 『포항 흥곡리 고분군 정밀지표조사 및 공원화방안』.

55) 배노찬, 2024, 위의 글.

56) 신라문화유산연구원, 2017, 『경주 황성동 590번지 유적V-삼국~통일신라시대 석실묘·기타유구-』.

의 용도불명의 시설일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된다.

충주 누암리 가 45호분⁵⁷⁾에서는 봉분 안에 유물부장곽을 둔 모습이 확인된다. 평면 형태가 타원형인 석곽으로 석실분 호석 서쪽에 인접하여 위치한다. 규모는 지름 110cm로 아래쪽에 호 등의 대형 토기를 놓고 위에는 개, 단각고배, 대부완 등을 40점을 매납했다. 지방에서 확인된 단독유물부장곽은 대부분 수혈식석곽묘와 횡구식석곽묘 주변에 위치한 사례가 많으며, 경산, 선사, 안동, 울산 등에서 보고된 바 있다. 하지만 경주지역에서 발굴조사된 황혈식석실분 중 단독유물부장곽으로 판단되는 유구는 거의 황남리 乙분 외에는 확인되지 않는 점과 경주 황성동고분군 C구역에서 조사된 방형 석축시설은 별개 시설로 본다면 유물만을 전용으로 부장한 시설은 일반적이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6. 묘(廟)

묘는 조상이나 훌륭한 분들의 신주, 위판, 영정, 소상 등을 모신 사당을 말하며 묘당(廟堂), 사우(祠宇) 또는 가묘(家廟)라고 한다.⁵⁸⁾ 묘의 기원은 제왕의 조상을 제향하는 종묘(宗廟), 태묘(太廟) 제도에서 비롯되었고, 신라의 경우 중국의 종묘제를 받아들이면서 오묘(五廟)를 세우면서 부터이다. 『삼국사기』 제사지에는 시조 혁거세묘와 신궁과 함께 36대 해공왕(재위 765~780) 대에 처음으로 정한 5묘를 신라의 종묘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배경과 의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⁵⁹⁾ 하지만 기록으로 볼 때, 신라에서 5묘제가 제도로서 처음 나타나는 것은 해공왕 때이지만, 그에 앞서 선조묘, 조묘(祖廟) 등의 명칭이 나타나며, 신문왕 7년(687) 4월에 대신을 조묘에 보내 제사를 지내게 하였는데, 조묘에는 태조대왕을 묘주로 하여 신문왕의 고조(古祖) 진지왕, 증조(曾祖) 문흥대왕(龍樹), 조(祖) 태종 무열왕, 고(考) 문무왕을 모셨다고 하는 점에서 왕실에서 조상의 신위를 모시는 사당을 갖추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월성 북쪽에 위치한 경주 황남동 대형건물지⁶⁰⁾를 이러한 종묘와 관련된 건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왕실에서 선왕과 추증된 조상에 대한 의례공간인 묘를 갖춘 모습은 통일신라시대 하대에 들어오면서 귀족들이 이를 수용하고 조상의 능묘 주변 또

57) 국립중앙문화재연구소, 2009, 『충주 누암리고분군(忠州 樓岩理古墳)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보고서』.

58) 한국학중앙연구원, 199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59) 최광식, 1995, 『고대 한국의 국가와 제사』, 한길사; 나희라, 2003, 『신라의 국가제사』, 지식산업사; 채미하, 2008, 『신라 국가제사와 왕권』, 혜안.

60)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경주시, 2009, 『경주 황남동 대형건물지-황남동 123-2번지 유적』.

는 화장 장소나 산골처 주변에 묘 또는 사찰을 세우고 탑과 불상을 건립하고 조상의 명복을 비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는 사례는 김대성이 전세부모를 위해 석불사를 현세부모를 위해 불국사를 세웠다는 내용과 감산사에 세워진 두 구의 석불을 들 수 있다. 이는 조상에 대한 공덕의 의미를 담은 바램이 고분에 대한 후장 또는 고분 주변에 대한 치장에서 당시 불교 신앙이 성행하면서 이를 반영한 조사, 조불, 조탑사상으로 바뀐 모습은 당시 귀족과 지방의 호족들의 경제력이 커져가면서 왕실에서 행하던 의례공간을 답습하는 모습을 보여준다.⁶¹⁾ 그리고 왕실이 아닌 개인이 세운 묘의 사례로는 경주 동산리 산47-1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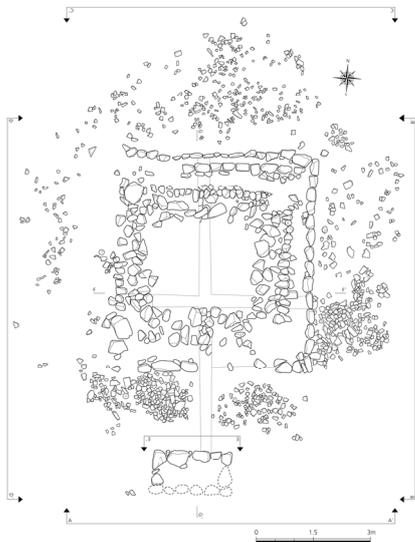


그림 13. 경주 동산리 산47-1번지 유적 추정 祠廟(서라벌문화재연구원 2021)

지에서 확인된 배례시설을 갖춘 남향의 정면 1칸, 측면 1칸의 건물지를 들 수 있다.⁶²⁾ 이 건물지에서는 귀면와와 박공막새를 비롯한 암, 수막새가 출토된 점으로 볼 때, 사찰이 아닌 의례와 관련된 권위건물로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규모가 작고 한정된 공간을 점유한 점으로 볼 때, 관청과 같은 일반적인 모습과 다르며 건물의 방향이 정남향인 점과 배례석을 놓은 것으로 보이는 장방형 석단 기초부의 존재는 의례적인 공간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경주 천북면 신당리고분 인근에서 확인된 건물지⁶³⁾ 역시 이와 유사한 성격으로 볼 수 있는 점에서 통일신라시대 후기에 귀족들이나 호족과 같은 세력이 집안의 사묘(祠廟)를 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Ⅲ. 통일신라시대 묘역과 의례공간

삼국시대 말에 황혈식석실분이 조성되면서 기존에 설정된 능력을 벗어난 외곽 지역에 새

61) 차순철, 2008, 『통일신라시대의 화장과 불교와의 상호관련성에 대한 고찰-조사(造寺)·조탑(造塔)신앙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문화재』 제41권 제1호, 국립문화재연구소.

62) 서라벌문화재연구원, 2021, 『경주 동산리 산47-1번지 주택단지 조성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보고서』.

63) 계림문화재연구원, 2015, 『경주 신당리 산7번지 유적-공장신축부지-』.

로운 능역과 중소형분이 입지한 묘역이 새롭게 나타난다. 그리고 왕릉의 경우 봉분을 보호하기 위해 판석(십이지상)으로 둘레를 돌리고, 바닥에는 판석을 깔고 바깥 주변으로는 난간석을 설치한 모습이며 능묘에 이르는 신도(神道)와 제례를 위한 상석 그리고 능역 입구를 따라서 석인, 석수, 간주석 등이 일렬로 배치되며, 묘주를 기리는 비석이 건립되었다. 이러한 모습은 과거와 달리 수당대 능묘제를 도입하고 이를 반영한 모습으로 이해되고 있다.

왕릉에서 확인된 상석과 신도 그리고 주변 능역공간의 존재는 당시 능묘와 관련된 의례가 이루어진 공간을 보여주며, 능묘 인근에 위치한 능사(陵寺) 역시 능묘를 대상으로 한 개별적인 묘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왕릉 외곽에 별도로 수혈을 파고 십이지를 매납한 경우는 능묘가 조성된 이후 이루어진 별개의 의례의 존재를 보여주며, 이는 능묘의 격을 올리기 위한 추봉의례⁶⁴⁾와 같은 행위가 존재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왕릉과 이에 준한 능묘에서는 추봉과 관련된 수습과 함께 수반된 의례모습을 찾을 수 있다. 이는 석실 내 시상 주변에 청동제 십이지상을 배치한 모습 역시 함께 포함시켜볼 수 있으며, 경주 용강동고분처럼 호석의 형태가 할석에서 판석으로 변화된 모습 역시 추봉과 관련된 모습으로 고분 주변에서 이와 관련된 의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중소형분에서는 호석 주변에 합을 매납하거나 청동침을 박은 모습이 관찰되며 이 역시 고분과 관련된 묘사의례를 보여준다. 다만 이러한 행위가 확인된 사례가 한정된 점은 한계로 남지만 적어도 시내 중심 고분군 내에서는 횡혈식석실분이 조성될 당시에는 유물부장곽(실)은 지방과 달리 성행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횡혈식석실분이 군집을 이루면서 지역 별로 새롭게 하나의 단위 묘역을 구성하면서 개별 고분에 대한 묘사를 위한 상석과 주변에 의례공간이 마련되지만 묘역 전체를 대상으로 한 의례 역시 존재했다고 추정된다. 이는 경주 동천동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유적과 포항 월포리유적에서 확인된 장방형 석축시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먼저 경주 동천동고분군 동쪽

64) 傳김유신묘 주변에서 출토된 것으로 전하는 판석제 십이지상의 경우 호석에 새겨진 문인상과 다른 무인상의 모습인 점은 그 성격을 달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삼국사기』에는 “사후 부의로 비단[彩帛] 1,000필과 조(租) 2,000석을 내려주어 상장례(喪葬禮)를 치르도록 하고, 군악(軍樂)의 고취(鼓吹) 100명도 보냈다. 금산원(金山原)에 장사지냈고, 담당 관청에 명하여 비를 세워 공적과 명예를 기록하게 하였다. 또한 민호(民戶)들을 정하여 수묘(守墓) 일에 종사하게 하였다.”는 내용이 기록되었고, 『삼국유사』에는 “제36대 혜공왕대 김유신묘에 상신 김경신(金敬信)을 보내어 김공의 능에 가서 사죄하고 공을 위하여 공덕보전(功德寶田) 30결을 취선사(鷲仙寺)에 내리어 명복을 빌게 하였다. 이 절은 김공이 평양을 토벌한 후 복을 빌기 위해 세운 곳이기 때문이다.”, “제54대 경명왕(景明王)대에 이르러 공을 추봉하여 흥호대왕(興虎大王)이라 하였다.”는 내용이 기록된 점은 김유신 사후 일어난 이적과 관련된 추봉의례의 모습을 전하고 있다.

에 위치한 도시개발사업부지 내 유적에서 확인된 3기의 장방형 석축은 모두 홍수로 인해 매몰된 모습을 보여주며, 이는 동천동고분군 중 홍수로 인해 매몰된 평지 및 구릉부에 위치한 석실분과 동 시기로 볼 수 있다. 특히 『삼국유사』에 기록된 것처럼 경덕왕 대(재위: 742~765) 굴불사를 찾아 땅 속에 매몰된 사방석불을 찾은 이야기는 이러한 대홍수가 이즈음에 일어났음을 보여주며, 황혈식석실분이 조성된 묘역 전체를 대상으로 한 묘역제사가 이루어진 공간이 바로 장방형 석축시설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능묘가 아닌 개별 고분군을 대상으로 한 의례공간이 존재했음을 알려준다.

왕실의 경우 종묘를 통해 제례가 이루어졌지만 귀족이나 호족들의 묘역에는 능사와 성격을 같이한 사찰이 건립되거나 별도로 조사, 조불, 조탑을 통해 조상에 대한 추모를 했음이 확인된다. 그리고 일부지만 구릉 정상부나 왕릉급 고분 주변에 위치한 건물지의 존재는 동시기 조성된 고분과 관련성을 가진 점과 동산리 산47-1번지 유적의 사례처럼 사방 1칸 규모의 소형 건물임에도 압, 수막새와 귀면와, 박공막새가 사용된 모습 그리고 건물 남쪽에 배례석이 위치한 모습은 역시 의례와 관련된 시설임이 분명하다. 이는 당대 장례문화가 변화하는 모습과 함께 고분 외에도 다양한 시설을 통해서 고분과 관련된 의례가 행해졌음을 알려준다.

IV. 맺음말

통일신라시대 고분은 대부분 황혈식석실분과 소형 석곽묘 그리고 화장묘와 같이 전대의 묘제와는 다른 모습이 중심을 이룬다. 이러한 변화는 시내 중심고분군과 달리 외곽에 새롭게 묘역을 조성하면서 군집되었던 고분군이 지역별로 분화되어가는 모습과 함께 서악동고분군과 같이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석실분이 집중되는 모습이 확인된다. 앞서 제시한 사례로 볼 때 이들 고분이 조성되면서 행해졌던 의례의 실체를 모두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묘역 내 위치한 상석과 매납유물 등을 통해서 일부의 흔적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석실이 아닌 외부 공간을 이용한 의례가 고분 조성 후에도 계속 이루어졌음을 알려주며 이는 고분 안에 모셔진 피장자의 후손 또는 傳김유신묘의 사례처럼 국가에서 추후 수습을 한 모습으로 볼 때, 적석목곽분 조성 당시 묘곽과 봉토 중심의 의례가 이루어진 것과 달리 황혈식석실분은

고분 조성 이후 이루어진 의례가 중심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고분에 대한 의례도 중요하지만 상석과 호석 그리고 묘역 전체를 대상으로 한 장방형 석축처럼 지역 단위 의례의 존재도 상정할 수 있으며, 이는 묘제의 변화와 함께 장례 후 이를 추모하는 행위 역시 바뀌었음을 알려준다. 그리고 장례 이후 사찰을 세우고 불상과 탑을 만들어서 죽은 이를 추모하는 행위 역시 당시 사회관념 속에서 종교인 불교사상의 확산과 이를 수용하는 모습이 고분 의례에 포함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통일신라시대 묘역과 의례공간 검토』에 대한 토론문

홍 보 식

| 국립공주대학교 |

통일신라 사회는 신라 문화를 토대로 고구려와 백제, 중국 수·당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발전시켜 한반도의 전통문화 토대를 구축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사후관념과 그것을 표현한 방식에도 삼국시대의 그것과 사뭇 다른 모습들이 전개되었다. 삼국시대에 대·소형묘들이 하나의 공간에 군집하고, 봉분 규모의 대소에 격차가 표현된 모습에서 단독과 군집, 개별 묘역(능원)의 확립, 지배층들이 매장된 고분 봉분의 규격화, 묘역 장식물의 수립, 의례의 공간과 시설 및 그로부터 추정되는 의식, 神道와 묘비 수립 등 삼국시대의 매장시설과 공간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속성들이 확인된다. 위에서 열거한 통일신라의 매장 관련 속성들은 통일신라 당시에 조영된 모든 고분들에서 공통적이거나 체계적으로 구현되지 않았다.

왕경의 경우, 왕 또는 최고 지배층들이 매장된 고분으로 추정되는 소위 전칭왕릉과 일부 고분의 입지, 불교사원과의 관계, 능원, 묘역 장식들이 특징적이지만, 그 외 단독으로 입지한 고분, 군집한 고분군은 다른 속성들이 확인되기도 한다. 지방에도 일정 묘역을 가진 단독분, 군집된 고분군, 화장묘 등이 조영되었고, 개별 고분 또는 단위 고분군의 의례나 제사시설들이 확인된다.¹⁾

통일신라의 매장 관련 시설과 묘역, 의례와 제사시설 등을 통해 통일적인 모습들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으나 공간과 시기를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통일신라시대 묘역과 의례공간 검토』의 논문은 통일신라 매장문화의 이해와 복원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개별적인 내용 중심으로 다루다보니 통일신라의 매

1) 의례와 제사의 용어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되는 사례가 있는데, 매장의례는 매장되는 장소, 즉 장지에서 매장과정에서 피장자를 대상으로 행해지는 행위를, 제사는 매장이 완료된 이후, 피장자를 기억하기 위해 행해지는 행위로 파악한다.

장문화 모습을 일목요연하게 이해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다.

논문 주제에서 제시한 묘역과 의례공간은 개별적인 속성들로서 제시하였는지 묘역을 통해 의례공간을 검토하는지가 모호하다. 묘역이란 개별과 군집에 따라 그 위치, 공간과 구성 등의 다름에 의해 의례 공간이 지닌 의미에도 다를 수 있을 것이다.

의례공간 확보(확립)의 주요 근거로서 능묘 상석의 존재가 선행 연구에서 주요한 속성으로 논의되어 왔는데, 통일신라 당시의 상석은 능원을 구성한 여러 속성에서 어떠한 의미와 기능을 지녔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금까지 확인되었거나 조사를 통해 봉분 前面部에 상석이 갖추어진 사례는 그리 많지 않다. 봉분 전면부에 상석이 갖추어진 사례는 왕경 주변에 입지한 일부 전칭왕릉과 고분들이고, 그 외의 왕경 소재 고분과 지방 소재 고분에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동천동(354·343-4·373)·용강동·율동·석장동 등의 왕경 소재 고분군, 합천 저포리 E지구, 사천 월성동, 의령 운곡리 등의 지방에 소재한 군집을 이루는 고분군에서 개별 고분의 편축(주로 동쪽) 또는 뒤쪽의 주구 내부에 장방형의 석축시설이 설치된 사례가 알려져 있다. 이 석축시설의 기능은 왕경 소재 일부 전칭왕릉에 설치된 상석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능을 하였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서악동고분군에 소재한 태종무열왕릉의 부분적인 시굴조사에서 자연석 호석과 잔자갈 포석 시설이 확인된 점을 근거로 삼국시대의 고총고분 주변에서 확인된 대호 매납 의례유구의 조성이 단절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무열왕릉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굴조사는 남쪽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은 조사 내용을 전체적인 모습으로 확대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함께 무열왕릉 북쪽에 위치한 4호분의 서북쪽 봉분 일부를 대상으로 한 부분적인 조사에서 장방형으로 가공한 할석으로 쌓은 호석과 그 바깥측에 잔자갈을 포석한 모습이 확인되었다. 무열왕릉과 4호분의 호석 바깥측에 포석된 잔자갈은 踏道일 가능성이 있고, 이 자갈 포석은 적석목곽분인 쪽샘 44호분에도 확인되었다. 서악동고분군의 개별 고분은 앞 시기의 매장형식인 적석목곽분의 일부 속성을 이어받았음도 확인된다. 그리고 서악동 4호분의 유실된 봉분의 피복토 아래에서 많은 수량의 적석이 확인되었다. 서악동고분군의 개별 고분의 매장주체시설이 횡혈식석실인지의 여부를 둘러싸고 異見이 존재한다. 서악동고분군을 이루는 개별 고분의 봉분 직경이 40m 내외이고, 높이가 5~6m 이상이다. 이 정도의 봉분 규모에 횡혈식석실이 봉분 하부에 구축될 경우, 상부와 측면의 압을 감당하기 어렵다. 봉분 하부를 조성하고 그 위에 구축하거나 또는 봉분을 조성한 후, 상부를 되파기 하여 조성해야 안정되게 유

지할 수 있을 것이다.²⁾ 이러한 토목공학적인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서악동 4호분의 봉분에 적석이 두텁게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 서악동고분군의 고분 매장주체시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서악동고분군은 적석목곽분의 일부 속성이 이어지고, 새로운 속성들이 더해져서 조성된 모습으로서 앞 시기의 고총고분과는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경주 시내 고분군(월성 북고분군이라고도 함)에서 매장주체시설이 횡혈식석실인 고분이 확인되었는데, 조영이 연속적이거나 질서를 보이지 않고 개별적이고 간헐적으로 선대의 적석목곽분이 분포한 사이 공간에 조영되어 독립적인 묘역과 그 경계의 존재를 상정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12支는 년·월·일·시, 방위를 나타내는 기준으로 통일신라 초에 수용되었으며, 12지상의 실물이 통일신라 고분에 부장되었거나 호석 탕석에 부조되었다. 통일신라의 12지상은 ①현실에 부장하였거나(용강동고분), ②호석 바깥에 일정간격으로 판 수혈에 부장한 것(소현리고분·전민애왕릉), ③호석 바깥측에 배치한 것(전성덕왕릉), ④호석 탕석에 부조한 것(전원성왕릉·전현덕왕릉·전흥덕왕릉·전경덕왕릉·전진덕왕릉·김유신묘·구정동방형분) 등으로 나뉘는데, 그 변화는 ①→②→③→④의 순이다. 12지상을 현실에 부장한 형식과 호석 바깥의 수혈에 매납한 형태는 매장에 수반한 의례 행위의 산물일 수 있으나 ③과 ④의 형태는 의례보다 능묘 장식이란 관점에서 이해할 소지가 더 있을 것이다.

동천동 도시개발사업부지 내 유적의 1·2·3호 장방형 석축기단 시설물에 초석 또는 적심부 등이 확인되지 않아 다소 특이하다. 발표자는 이 3기의 시설이 선후관계를 보이면서 동천동 일대의 고분과 관련된 의례시설일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 3기의 시설물과 고분군이 확인된 동천동 343-4번지까지 직선으로 348m, 354번지까지 592m, 357번지까지 590m 이격되어 있어 그 관계를 설정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 이 장방형 시설들이 매장 관련 의례 장소일 것으로 추정하기 위한 비교 사례로 제시한 유구들과 차이가 있다.

영일 냉수리고분과 냉수리 일대의 고분에서 확인된 축실을 신라 고유의 묘제적 특징으로 파악하고, 월성 북고분군에서 확인된 유물부장 시설과의 연계성을 제시하였다. 냉수리고분과 냉수리 일대의 고분에는 벽면에 백회미장된 사례가 알려져 있으며, 같은 시기 신라의 다른 고분의 매장주체시설에 백회가 확인된 사례가 없다. 그리고 냉수리고분에는 바리 등의 고

2) 이와 유사한 사례로는 집안의 고구려 적석총인 태왕릉과 장군총 등을 들 수 있다. 태왕릉과 장군총 모두 매장주체 시설이 횡혈식석실로서 지하 또는 지면에 위치하지 않고, 봉분 중간 또는 상부에 구축되었다.

구려계 토기가 확인되었고, 묘도부의 전면부 호석 바깥에 장방형 수혈이 확인되었는데, 뚜껑(13점)·고배(8점), 바리형토기·이형토기·연질옹·바리·대부완 등의 토기가 출토되었다. 또 봉토 내에서도 뚜껑·고배·단경호·대부직구호·완·껌쇠·압형토기 등이 출토되었다. 월성 북고분군의 적석목곽분과 같은 시기의 부장시설이 냉수리고분의 측실로 변형 계승되었다기보다 냉수리고분군에도 봉분 바깥에 설치된 부장수혈로 표현되었다고 보여진다.

특정 고분의 부장 시설로 파악되지 않고 독립적인 부장 시설의 사례로 김해 원지리고분군 M3호, 창원 다호리 B지구의 B27호, 창녕 교동과 송현동고분군 II군 62호분 등의 사례가 있다. 김해 원지리고분군 M3호는 목곽에 유물만 부장되고 위에 봉분이 조성되었고, 창녕 교동과 송현동고분군 II군 62호는 석곽에 유물만 부장되었고 봉분이 조성되었다. 2기 모두 상형토기가 확인되었다.

조상의 신위를 모신 廟의 건립, 선조들의 명복을 위한 造寺·造塔·造佛 등의 행위는 당시의 사후관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매장지에서 행해진 의례를 이해할 수 있는 직접적인 자료라 보기 어렵다.

적석목곽분에는 조성 전, 조성 중, 피장자 안치 중, 안치 후, 완성 전·후 등 여러 단계에서 의례가 행해졌음은 그동안의 발굴조사와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거나 밝혀지기도 하였다. 적석목곽분에서 행해진 매장 의례가 횡혈식석실분의 수용과 함께 어떤 형식과 내용으로 변화되었고, 그 행위 방식과 절차, 표현의 특징이 무엇인지, 신라의 삼국 통일을 기점으로 하여 일원적으로 바뀌었는지, 아니면 점진적인 변화 속에서 각 시기 또는 각 단계마다의 내용과 특징, 의미 등이 어떠하였는지, 그리고 불교가 뿌리내리고, 지방으로 확산하면서 불교의 사후관과 매장의례와의 접점과 전개 모습은 어떠하였는지 등의 과제들이 치밀하게 검토 분석되어야 한다. 그리고 일반적이지 않고 특수한 사례들의 내용을 일반화 하기보다 사회계층별, 중앙과 지방 등을 시기별로 사례 검토를 분석하고 내용과 특징 등을 파악해야 한다.

北部九州地域の弥生時代の墓制

- 葬送コミュニケーション・システムの変容と社会環境 -

북부 큐슈지역의 야요이시대 묘제

- 장송 커뮤니케이션・시스템의 변용과 사회환경 -

溝口孝司(미조구치 코지)

| 九州大學(큐슈대학) |

I.

北部九州地方の弥生時代墓制は、中期を中心として背振山地を取り巻く地域で行われた甕棺墓葬が、棺自体が相対編年可能であること、また製作年代の限定が可能な副葬品を持つ場合があることから、弥生時代の年代比定・弥生社会の歴史的動態への接近のための貴重な研究対象として探求が続けられてきた。殊に、詳細緻密化された甕棺の型式分類・編年に依拠して個々の墓地の形成過程を把握し、個々の時期における「墓群」の様相を検討し、墓群個々を一定の規模内容の人間集団が営んだ小墓域と措定することによって、そのような集団の規模・内容と相互の関係の変容過程を分析し、弥生社会の長期にわたる変化の歴史叙述を行うことが試みられてきた。まとめれば、

- 個々の墓地を経営する〈共同体〉的集団を構成する複数の〈家族〉が、当初は強い共同／協働性により結合していたが、
- 労働・消費・社会的再生産の最小単位としての家族集団の自立性が増大し、同時に家族間関係が成層化し、
- それに対応して(家族の小墓域である)墓群相互の間にもその構成属性に成層的な差異化が進行し、
- 最終的には上位層家族のみが(区画墓としての)墓域を構成し、場合によってはそ

のリーダーと少人数の構成員のみが(考古資料として痕跡を遺す程度の形式性を帯びた)埋葬の対象となる

という基本モデルが提示されてきたのである¹⁾。

しかしながら、良好な発掘事例の増加により可能となった個々の墓地の空間構造形成過程の詳細復元の結果、多くの場合、これまで「家族程度」の規模・内容の集団の小墓域と指定されてきた墓群を実態的に把握・認定することが実は困難なことが判明した²⁾。この成果を踏まえ筆者は北部九州地方の弥生墓制の変遷を「墓地空間構造形成原理とそれが可能とし媒介した葬送機会参加者のさまざまな(コミュニケーション)体験モードの変容・変遷過程」として把握し、それを産み出し、遺した葬送行為(の指向性)と、その他の社会的行為それぞれが形成した社会的再生産の諸領野(fields/domains of social formation/reproduction)との共変動の分析を通じて、墓制の変遷史を一つの軸とする弥生社会の歴史の叙述を試みてきた。以下に、その軌跡に認められる四つの相／フェイズの様相を記述し、その成果の概要を紹介する³⁾。

II.

A. フェイズ1: 弥生早期～I期

弥生早期～I期の墓地空間構造形成原理には、<系列形成指向>と<列形成指向>が併存し、墓地ごとに異なる展開を見せつつ全体として前者から後者へと移行する(図1-A)。本段階の埋葬施設には土坑墓、木棺墓、支石墓／配石墓、甕棺墓がある。甕棺墓は当初は乳幼児埋葬容器の場合が多く、I期の末葉になり成人用埋葬容器として形

- 1) このようなトレンドの先駆であるとともに、最も代表的な研究成果として以下を参照：高倉洋彰「墳墓からみた弥生時代社会の発展過程」、『考古学研究』20-2, 1973, pp. 7-24
- 2) このような成果と、それを踏まえた筆者による関連する研究の概要については以下などを参照：溝口孝司「弥生時代の社会」高橋龍三郎編『現代の考古学6: 村落と社会の考古学』朝倉書店, 2001, pp. 135-160; 溝口孝司『社会考古学講義：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最小基本分析単位とする考古学の再編』同成社, 2022, 第4章
- 3) 以下の叙述で用いる<>で表示した墓地空間構造形成における指向性と、それに準拠した葬送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反復により形成された墓地空間構造類型それぞれの名称、それらの具体的内容・含意については前掲註2 溝口孝司2001文献を参照。

式的な分化が完成する。

<系列形成指向>は既存の埋葬施設に近接して新たな埋葬施設を意図的に設置することを繰り返すことにより物象化され、福岡県糸島市新町遺跡形成過程の前半に典型的にみられる⁴⁾。墓地類型としては<系列墓>と略記する。系列の背後には墓地全体の形成に参画する規模・内容の集団よりも小規模な集団の存在が想定される。これに対し、列形成指向は既存の埋葬施設と長軸線を共有しつつ、一定の距離を空けて新たな埋葬施設を設置することを繰り返すことにより物象化され、新町遺跡形成過程の後半に典型的にみられる。福岡県福岡市下月隈天神森遺跡のように、帯状空間に沿って線状に二列に埋葬施設が配置される事例がI期の末葉から増加する。このような埋葬施設の二列配置により特徴付けられる墓地を<列形成指向墓b(列墓bと略称)>、前者のように数列をなすものを<列墓a>と略記する。

<列形成指向>は、その導入を弥生時代の定義要件とする水田稲作農耕社会-技術複合/パッケージの直接の起源地である朝鮮半島南部の墓地の空間構造構成原理の中核をなし、この導入も上述パッケージの一構成要素を成していた可能性が高い。しかし、墓地によって系列形成から列形成への空間構造構成原理の移行のスピードやタイミングがまちまちであることからすると、この移行には、墓地を形成する集団ごとの、葬送コミュニケーション・システム⁵⁾による処理が期待される社会的課題(対応を必要とされるコミュニケーション・社会関係維持の困難化要因)の相違やその変容過程の進行速度の相違が関与している蓋然性が高い。系列形成が比較的小規模な集団単位の系譜的連続性の表象に特化していると想定されるのに対し、列形成は、列共有という規則性が複数の集団に順守され、それが墓地を共有する習団全体の秩序として共有されている。このことから、<系列形成>から<列形成>への墓地空間構造形成原理の移行は、新しい文化要素の伝播/導入という事実レベルの様態を超えて、それを必要とした新たな社会的リアリティの浮上と、それに対する葬送コミュニケーション・システムにおける(機能的)対応として理解されるべきこと、その内実は墓地を構成する複数の集団単位(リネージもしくはサブリネージ規模か?)個々の内的結合・連続性の表象から、

4) 以下、各遺跡報告書については紙幅の都合より記載を省略する。詳細書誌情報については前掲註2溝口2001文献の参照文献リストなどをご参照いただきたい。

5) <葬送コミュニケーション・システム>概念とその含意については、前掲註2溝口孝司2022文献、2章・4章を参照。

墓地を構成する複数の集団単位間の結合・共同性／協働性の表象への移行であることが導かれる。そのような移行を導いた新たな社会的リアリティの内実は、水田稲作農耕社会-技術複合の導入・受容によって引き起こされた人口増大とセトルメント・パターンの変化の複合による社会関係様態の変容≒コミュニケーション諸領野の維持・再生産の困難化であると考えられるが、詳細は、このような傾向性が深化する次フェイズの分析にゆずる。

B. フェイズ2: 弥生Ⅱ期～Ⅲ期

弥生Ⅱ期からⅢ期にかけては、甕棺葬が主要な墓制としておこなわれた脊振山地を取り巻く地域全域で、ほぼ全ての墓地が<列形成指向>に準拠して形成されるようになる。すなわち、このフェイズに形成された墓地、ないしは墓域はほぼ全て<列墓a>もしくは<列墓b>(上述)の範疇に属する(図1-B)。本段階の早い段階、主にⅡ期には土坑墓や木棺墓も一定数営まれるが、徐々に成人用大型甕棺の比率が増大し、Ⅲ期末にはほぼ甕棺墓に埋葬施設が集約される。また、本フェイズの墓地には、多くの場合成人用埋葬施設(を被覆する墓坑より一回り大きい土饅頭)へと挿入埋置された乳幼児甕棺墓が多数認められる⁶⁾。これらは特定の成人埋葬に多数挿入される形で埋置される場合が多く、この場合、そのような成人は乳幼児たちの生物学的親とは考えづらいので、彼女ら彼らの祖父母、ないしはオジ、オバと想定される。本フェイズの葬送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指向性が共同／協働性の増進であることを考える時、オジ、オバと乳幼児との関係の意図的表象は、これが父方であるか母方であるかの問題はカッコ入れるとしても、ある親族範疇のメンバーとして多数の乳幼児がグループとして埋葬されることはやはりその増進に貢献したことだろう。

本フェイズの<列墓b>は、本フェイズの集落の典型的パターンである、個々の集落を構成する複数の居住集団(近藤義郎氏の<単位集団>⁷⁾に相当する)の個々に近接して営

6) 成人用埋葬施設への乳幼児甕棺の挿入埋置の空間配置から、前者を被覆する土饅頭の存在の論証としては以下を参照：溝口孝司『福岡県筑紫野市永岡遺跡の研究：いわゆる二列埋葬墓地の一例の社会考古学的再検討』『古文化談叢』34, 1995, pp. 159-192

7) 近藤義郎『共同体と単位集団』『考古学研究』6-1, 1959, pp. 13-20

まれる小規模なものと、多く<中心地的大型集落>⁸⁾に営まれ、それを構成する複数の居住集団のいずれにも付属しないものの二者が存在する。両者ともに道路状の帯状空間を挟んで埋葬施設が二列に延々と線状に配置され、多くの場合、それらの外側に土坑群、もしくは溝が配置される。それらの中には壺形土器を中心として、完形に復元されない土器群が置かれる(／放置される)ことが多い。詳細な形成過程の復元成果によれば、これらは比較的ランダムに当初はかなりの間隔を空けつつ配置され、その後累々たる線状配置へと発展する場合(<列墓b-1>と仮称する。例：福岡県筑紫野市永岡遺跡、同春日市門田遺跡)、形成開始時は上と同様であるが、その後いくつかの大きなグループを形成するように帯状空間各所に近接したり間隔を空けたりしつつ新たな埋葬が配置され、それら複数のグループを内包しつつ累々たる線状配置へと発展する場合(<列墓b-2>と仮称する。例：佐賀県吉野ヶ里町吉野ヶ里遺跡四波屋四ノ坪地区)がある。

<列墓b-1>の空間構造形成は、当該墓地を営んだ、その内におそらく複数の集団単位を含む大きな集団単位の一体性の表象が優先されての葬送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反復の結果であり、<列墓b-2>の空間構造形成は、当該墓地を営んだ、その内におそらく複数の集団単位を含む大きな集団単位(複数のクラン的出自集団により構成される部族的集団の場合が想定される：後述)の一体性の表象とともに、それよりも小規模な集団(クラン的出自集団：後述)の一定の独自性も意識された(しかし意図的明示的な表象の対象とはなっていない)葬送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反復の結果であるとする事ができよう。<列墓b>の多くは弥生Ⅱ期以降創発的に分化／出現した<中心地的大型集落>の一隅に存在することが多い(例：吉野ヶ里遺跡四波屋四ノ坪地区、福岡県筑紫野市隈・西小田遺跡第2地点)。紙幅の制限から詳細に踏み込むことはできないが、これら中心地的大型集落には、創発的に分化した部族統合領域的地域社会を構成するクラン(clan)的出自集団(<非居住団体(non-residential corporate groups)>)複数それぞれの分節(sub-clans/lineages)が集合して、地域社会内部・地域社会間のさまざまな相互交渉、物財・(婚姻を中心とする)人間・情報の交換などの媒介・調整が集約的に行われ

8) 四波屋四ノ坪墓地に対応する居住単位が確認できない／存在しない事実については下記のp. 342参照：佐賀県教育委員会編『佐賀県文化財調査報告書219: 吉野ヶ里遺跡(弥生時代の墓地 遺跡北部1)佐賀県教育委員会, 2016

ていたことが推測され、遠隔地からの諸種の搬入物財の集積、媒介・調整の具体的な場面の一つとしてのさまざまな祭祀に用いられた金属製その他の祭祀具の集中からも支持される。吉野ヶ里遺跡四波屋四ノ坪地区、隈・西小田遺跡第2地点などの大規模な<列墓b>には当該集落だけではなくそれらに依存する周辺の衛星的な小型集落の住人の埋葬もあったことが、これら大規模列墓bが特定の居住単位に付属しないことから示唆される。

このような地域社会の中心-周辺分化の背後には、弥生 I 期以降進行した人口増加に伴う既存集落周辺生態環境の人口支持率(carrying capacity)の突破と、その解消のための分村の進行がある。中心地的大型集落は、各地域の初期農耕集落の最古のものの一つである場合(例：福岡県福岡市有田遺跡)と、分村の集中により形成され、集落間ネットワークの形成とともに中心地化した場合(例：同春日市須玖遺跡群)があるが、

- 既存の社会関係—相互交渉の維持(親村-分村(子村)関係の維持)
- 分村先で遭遇する、他の出自集団から分村した集団との相互交渉の(緊張関係の緩和を前提とする)新たな形成

が、これら大型集落の主要な機能の一つとして浮上したと考えられる。これら二つの機能的要件の充足のため

- 列の共有
- 道路状帯状空間と埋葬を被覆する土饅頭群・土坑／溝により構成される空間構造が必然とする<葬列(funerary procession)>の組織(→葬列は共同／協働性と序列形成を同時に達成するテクノロジーである：註2溝口2022, pp.155-156参照)(図2-A)
- 個々の埋葬時の葬送参列者の空間体験(視覚体験を含む)(→長軸を揃えて配置された個々の埋葬における葬送機会参列者は多くの既存埋葬を被覆する土饅頭を視野に入れることになる：註2溝口2022, pp. 155-156参照)(図2-A)

が、それぞれ<共同性／協働性>の醸成・喚起に貢献したと考えられたことは重要である。

中心地的大型集落に位置する<列墓b>近傍には溝口の分類における<区画墓 I>(図

1-C)が存在することが多い(例：吉野ヶ里遺跡北墳丘墓、隈・西小田遺跡第2地点、福岡県朝倉市栗山遺跡D群墓域など)。これらの被葬者は副葬品を持つものも多く、ある種の「上位層」を構成すると考えられる。しかし、甕棺一型式程度の時間幅に数人の被葬者が埋葬される事実(例：吉野ヶ里遺跡北墳丘墓、隈・西小田遺跡第3地点、福岡県朝倉市栗山遺跡D群墓域、同福岡市西区吉武高木遺跡墓群など)からすると、(武器形青銅器の多くが男性に副葬されることから演繹して)彼らは能力や達成により地位を得たある種の<エリート(elite)>達であり、<区画墓 I>の空間構造も、中心埋葬が墓域の初葬者でありつつも質的・量的に最も豊かな副葬品を持つわけではなく(例：吉野ヶ里遺跡北墳丘墓→中央埋葬SJ1006が細形銅剣一本を副葬するのに対し、その西方に位置し、SJ1006方向へと挿入埋置されたSJ1002には有柄細形銅剣一本とガラス製管玉79個が副葬されていた)、また特定の既存埋葬に近接して新たな埋葬を設置するなどによって被葬者間の(血縁を含む)系譜的關係の近さの表象を企図するわけでもなく、中心埋葬に向かって甕棺を挿入するというルールを遵守しつつ<列墓>同様に一定の間隔を空けて埋葬を設置してゆくモードから、<列墓>と同じく、<区画墓 I>において反復された葬送コミュニケーションにおいては<共同／協働性>の醸成・喚起がその重要な機能であったことが推測される(図2-A)。

以上から、<列墓>と<区画墓 I>は、<部族(tribe)>的性格を持つ(＝クラン的出自集団複数の緩やかな統合により構成される)地域社会の<中心-周辺分化>の進行に対応して緩やかに成層化する社会関係とともに、進行中の事態＝分村の進展そのものが引き起こしたクラン的集団内部・集団間の相互交渉の困難化への機能的対応の空間的帰結／表象であると言える。冒頭に触れた、比較的多数の乳幼児の、多数の成人用埋葬への挿入的埋置も、成層化しつつもいまだ緩やかな社会関係と共同性／協働性の醸成・喚起の機能的な重要性と相関的であろう。

C. フェイズ3：弥生IV期

弥生IV期には墓地空間構造に大きな変化が生じる。<列形成指向>から<系列形成指向>への急速な移行と、その結果としての、墓地空間構造類型における<系列形成指向

墓>(図1-D)と<区画墓Ⅱ>(図1-E・F)の出現・主要類型化である。また、本フェイズから、一～二基の埋葬が他の埋葬群から離れて設置され、量的質的に隔絶した副葬品や埋葬施設を与えられた<厚葬墓>(図1-G)が出現する。成人用埋葬施設への乳幼児甕棺墓の挿入埋置は本フェイズにも継続するが、前フェイズと比較して減少する。乳幼児死亡率が顕著に現象したとは考えにくいことから、このことはフォーマルな埋葬行為の対象となる乳幼児に選択がかかるようになったことの現れと考えられる。

<系列形成指向>は新たな埋葬施設を既存の埋葬施設に意図的に近接して設置することを繰り返すことにより充足・表象される。また多くの場合、甕棺は既存の埋葬施設を被覆する土饅頭の方に挿入される形で、立坑の一側面に掘り込まれた棺挿入坑へと埋置される。挿入坑の対向側面には階段上のテラス数段が設置されることが多く、棺内への遺骸の安置その他の行為を遂行する人はこれを用いて坑底に降りる。また、挿入坑上部に葬送参列者が立つことは、落盤の可能性から避けられたと考えられる。これらのことから、葬送行為の儀礼正面は甕棺挿入坑を見下ろす墓坑上面の三辺ということになる(図3)。そうすると、例えば三つの埋葬により形成された埋葬系列においては、既存の埋葬を被覆する土饅頭に向かって新たな甕棺が挿入される葬送行為時において、参列者は既存埋葬を被覆する土饅頭を視野の端に収めつつ死者を葬送することを通じて、

- 既存埋葬被葬者の記憶
- 今、葬送される死者(とそれぞれの関係)の記憶
- 既存埋葬被葬者と今、葬送される死者との関係の記憶
- 既存埋葬被葬者と今、葬送される死者との関係とそれぞれの関係性

以上3種の記憶と1種の社会マイクロ・ネットワークの関係性認識を喚起され、もしくは構築を促されることとなる(図2-B)。そのような記憶と認識の喚起を媒介し、それに媒介された葬送コミュニケーション行為の物象化としての<系列形成指向墓(系列墓)>は、<列墓>においては喚起・構築の対象とならなかったクラン的出自集団よりもはるかに小規模な集団(サブクラン/リネージ、もしくはそれよりも小規模な)の系譜的連続性の喚起をテーマとしたと推測される。このような埋葬系列=マイクロ・クラスター多数から構成される<系列墓>(例：福岡県筑紫野市道場山遺跡、同小郡市狐塚遺

跡、同朝倉市栗山遺跡B群墓域)では、そこに埋葬をおこなったサブクラン／リネージ程度の規模・内容の集団の共同性／協働性とともにも増して、それを構成するさらに小規模な分節(サブリネージ／堅穴住居一棟の居住グループ程度のスケール?)個々のメンバーシップとその系譜的連続性・継承感覚が表象・確認・構築されているのである(図2-B)。本フェイズにおける乳幼児埋葬の激減も、このような系譜的連続性の確認という指向性の浮上と関連するものと推測される。

墓地空間構造類型における<系列墓>の多数化と同時に出現する<区画墓Ⅱ>は、矩形の低墳丘と周溝に区画される場合の多い区画内に複数(栗山遺跡C群墓域の場合には6個)の埋葬系列=マイクロ・クラスターが形成される(図1-E)。<区画墓Ⅱ>の被葬者はフェイズ2の<区画墓Ⅰ>と同様に<エリート(elite)>達であることは確からしいが、これが上述の埋葬系列の複合から構成されることから、<区画墓Ⅰ>では表象・喚起・構築の対象とならなかったエリート／上位層の系譜的連続性・継承性が前景化してきたと推測されることは重要である。<区画墓Ⅱ>は<区画墓Ⅰ>と同様、中心地的大型集落の、フェイズ2には大型の<列墓>を形成していた墓地の近傍に存在する事例が認められる(例：栗山遺跡C群墓域)ことから、ここにも

A) 部族的地域社会を構成する複数のクラン的出自集団それぞれの代表的エリートが、クラン的出自集団の系譜的連続性を代表して埋葬された可能性⁹⁾がある。その一方、本フェイズにおいては、フェイズ2に創発した部族的地域社会の<中心-周辺分化>に進展の結果、

B) 中心地的大型集落に所在する複数のクラン的出自集団分節の代表者が各系列に葬られた可能性もある。

学説的には、

C) 中心地的大型集落を構成する複数居住単位のうちの 하나가部族的地域社会の支配層としてすでに析出され、そのメンバーがこのような墓域に葬られた

9) 溝口孝司「福岡県甘木市栗山遺跡C群墓域の研究：北部九州弥生時代中期後半墓地の一例の社会考古学的検討」『日本考古学』2, 1995, pp. 69-94 田中良之氏はこれについて1996年にモデルとしての成立を下記のpp. 49-50において認め、人骨資料の歯冠計測値の統計的分析による親族関係復元の手法を用いて検証を試みた：石井博司・金宰賢・中橋孝博・田中良之「福岡県甘木市栗山遺跡第3次調査出土の弥生人骨」甘木市教育委員会編『甘木市文化財調査報告第37集：甘木市内遺跡群 栗山遺跡Ⅲ・平塚垣添遺跡』, 1996

というモデルもある¹⁰⁾。しかし、フェイズ3の中心地的大型集落を構成する複数居住集団は相互に等質性を維持しており、一個の単位が貯蔵施設を独占したり、一角に手工業生産の痕跡を集中させつつ溝などの防御施設に囲まれたりする事例は確認されない。このことは、〈区画墓Ⅱ〉の被葬者の内容が上記AもしくはBである可能性の確からしさを示唆する。

〈系列墓〉、〈区画墓Ⅱ〉の検討結果を敷衍すると、〈厚葬墓〉(図1-G)は部族的地域社会を構成する複数のクラン的出自集団を代表するエリートからさらに選ばれた／最高リーダーの位置を達成した人物の埋葬ということになる。最高ランクの厚葬墓である三雲墓、須玖墓が大規模な区画と低平な墳丘を占有するのに対し、これらに準ずる福岡県飯塚市立岩堀田遺跡10号墓(前漢鏡6面、中細形銅矛1口、鉄剣1口、鉄ヤリガンナ1口、砥石2点)をはじめとする、前漢鏡1~2面と主に鉄製武器／利器、ガラス製玉類、各種貝輪などをさまざまな組み合わせで副葬された厚葬墓はいずれも〈区画墓Ⅱ〉を構成する埋葬系列中に存在することも、このことを傍証する。要するに、中心地的大型集落を構成する複数居住単位として(広域化する相互交渉／コミュニケーション・ネットワークの維持・再生産の媒介者として)有力化した複数クラン分節のリーダー層の中から達成的に析出された部族的集団単位の代表者に、おそらくは最高厚葬墓被葬者が入手した前漢鏡などの物品が臨機かつ戦略的に贈与されることによって、下條信行氏などが指摘される場所の副葬品アセンブリッジ・葬送に動員されるその他さまざまな財・労力の成層構造が形成されたと考えられる¹¹⁾。最高ランク厚葬墓被葬者(所属の集団分節)からの副葬品贈与の戦略性は、二日市地峡域の筑紫平野側出口付近に二キロメートル足らずの距離を置いて近接し厚葬墓を有する二つの集落、福岡県筑紫野市隈・西小田遺跡と同筑前町東小田・峯遺跡、玄界灘沿岸から脊振山地を越えて佐賀平野東部に至る二つのルートの出口にそれぞれ対応する吉野ヶ里遺跡、二塚山遺跡がやはり二キロメートル程度の距離を置いて近接存在する事例から窺い知ることができる。両事例ともに、玄界灘沿岸と筑紫平野との相互交渉における後者へのゲートウェイ的地域への、玄界灘沿岸(可能性として三雲遺跡を中心とする部族的統合体と須玖

10) 前掲註1に同じ

11) 下條信行「北部九州弥生時代中期の『国』家間構造と立岩遺跡」児嶋隆人先生喜寿記念論集刊行会編『児嶋隆人先生喜寿記念論集 古文化論集』児嶋隆人先生喜寿記念論集刊行会, 1991, pp. 78-106

遺跡を中心とする部族的統合体それぞれ)からの、相互交渉媒介パートナーへの競争的戦略的贈与の可能性が高い。

D. フェイズ4：弥生V期

弥生V期の動態は複雑かつ目まぐるしい。その前半(高三瀦式期)、ことにその前葉には集落数の減少が見られるとともに、存続する墓地における埋葬数の減少も顕著である。それと同時に、フェイズ2に営まれた<区画墓Ⅱ>に、100年以上の埋葬空白期を経て、単数ないし少数の副葬品を有する甕棺墓が設けられる例が栗山遺跡D群や佐賀県鳥栖市柚比本村遺跡などで見られる。筆者はこれらの特異な少数の埋葬を、フェイズ3に分化を本格化させ始めた上位層の権威の源泉のゆらぎ、すなわち王莽新建国に伴う楽浪郡の一時的独立、青銅鏡などの戦略的配布物財(原初的な<威信財>的な性格を創発しつつあった可能性がある)の入手の途絶などに起因する広域社会関係のゆらぎへの対応として、動揺する既存の社会ネットワークの基盤が形成された時期＝フェイズ2の上位層(おそらく口承伝承の形で保存された)記憶を喚起し、それと特定死者との間に系譜的連続性を仮構することにより、社会諸関係の再構築・安定化が企図された結果であると推測している¹²⁾。また、同じくフェイズ2に営まれ、その後墓域としての使用が途絶えていた<列墓>の使用が「再開」される例(佐賀県鳥栖市儀徳遺跡)や、厚葬墓を含む<列墓>が新たに形成される事例(同佐賀市七ヶ瀬遺跡)などから、このフェイズに、動揺したさまざまな位相の社会関係、また動揺の後に急速に広域化を再開した相互交渉ネットワークへの対応として、葬送コミュニケーション・システムにおけるフェイズ2同様の共同性／協働性の喚起が選好されたと考えられる。

同時に、V期前葉後半(高三瀦式期後半)以降、<区画墓Ⅲ>(図1-H)が登場し、一般層の埋葬そのものが急速に減少する中、墓地空間構造形成パターンの主座を占めるようになる。<区画墓Ⅲ>の空間構造形成の指向性は<グリッド形成指向>、すなわち乳幼児も含む、サブクランないしはリネージ、もしくはそれよりも小さな規模の集団構成員

12) 溝口孝司「過去の記憶とその動員：北部九州弥生時代V期を事例として」田中良之先生追悼論文集編集委員会編『考古学は科学か：田中良之先生追悼論文集 上』同編集委員会, 2016, pp. 545-559

を、それらの所属単位内における関係性により「グリッド的秩序」(誰それは生前においてこのような位置付けにあったから／(乳幼児の場合)成人すればこのような地位に着くはずだったからここに)に空間的に位置付けし埋葬することの反復である。

弥生Ⅴ期後半(下大隈式期)には、貯蔵施設の占有と希少財の集中に考古学的に特徴づけられる<エリート区画(elite precincts)>が初めて明確化する(例：佐賀県鳥栖市千塔山遺跡)。これらは規模的に見てクラン的出自集団分節／サブクラン／リネージ的規模・内容の集団の居住単位と見られる。社会的諸関係の混乱期を経て、再び広域化傾向を強める相互交渉ネットワークを背景として、調整媒介対象となる社会諸関係の多様化、複雑化、対面的処理機会の頻度の不可避の減少などが、媒介者の地位の特定出自集団分節への固定化と、共同性／協働性の喚起という二つの機能的要件を導いたものと考えられる。このような葬送コミュニケーション・システムにおける<グリッド形成指向>が葬送コミュニケーション・システムの「古墳時代的モード」の基盤を形成したと言えようが、その詳細に立ち入ることは本稿の射程をこえる。

Ⅲ.

最後に、各フェイズ墓地空間構造形成におけるa)指向性、それに準拠したb)コミュニケーション行為の形式的特徴、葬送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反復により形成され、それを媒介したc)墓地空間構造類型、そして、それらの背景／環境としてのd)社会構造・分化モードの特徴について図4のように図式化することでまとめにかえる。

上述の通り、墓制＝葬送コミュニケーション・システム領野の変遷は、社会システム総体を構成する他の諸コミュニケーション領野の変遷と同調している可能性が高く、この想定は、上に示した地域社会構造と内部分化様態の変遷との共変動からも支持される。そのような意味で、墓制の四フェイズは全体社会システムの相転移(phase transformation)、それを構成する人々の認識・存在様式(epistemic/ontological state)の変化と対応していると考えられ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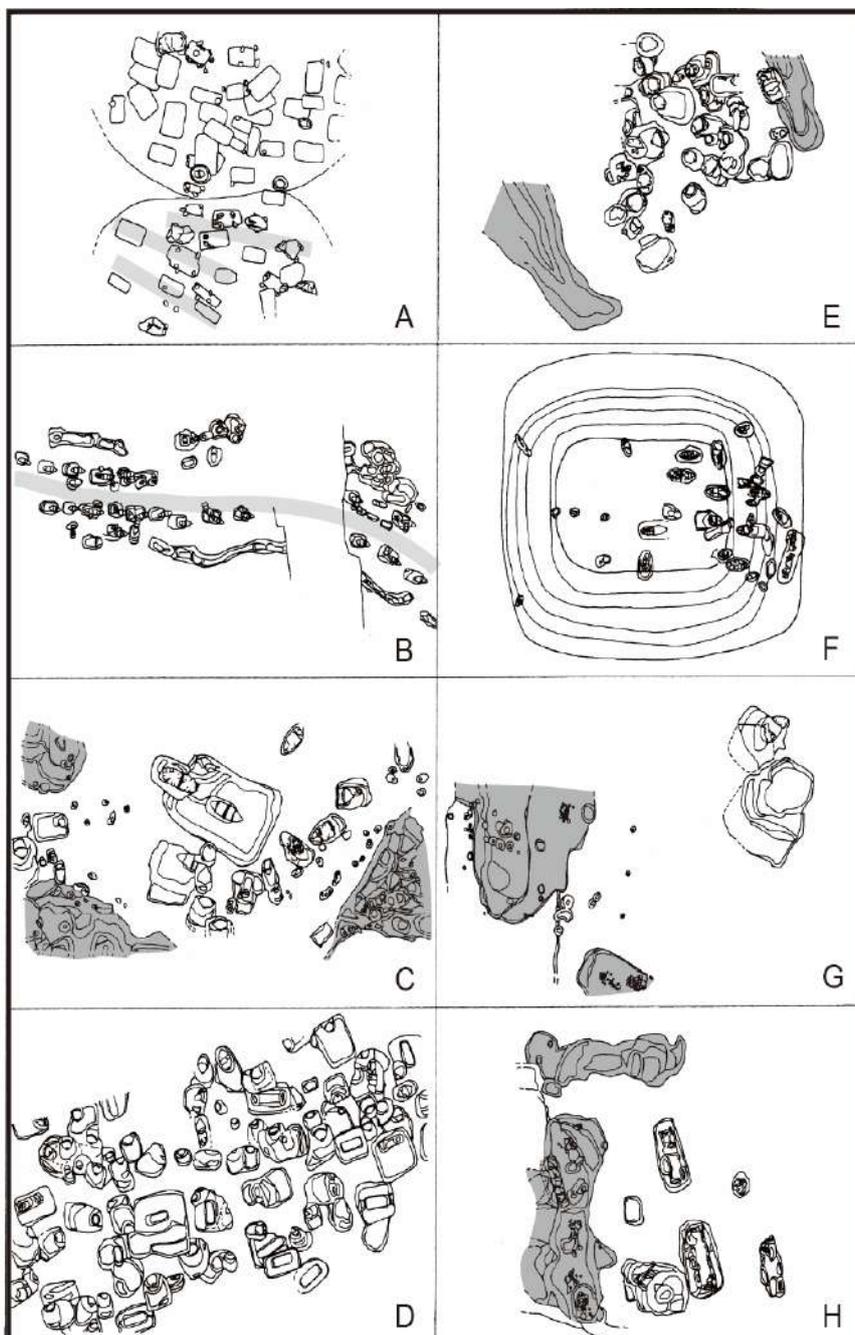


図1. 弥生時代北部九州地方の墓地空間構造構成原理の諸類型 A: 新町(列形成指向墓A)、B: 永岡(列形成指向墓B)、C: 栗山D群(区画墓Ⅰ)、D: 狐塚(系列形成指向墓)、E: 栗山C(区画墓Ⅱa)、F: 吉武樋渡(区画墓Ⅱb)、G: 三雲南小路(厚葬墓)、H: 三雲寺口(区画墓Ⅲ)(上掲註2溝口2001 文献, p. 139, 図3.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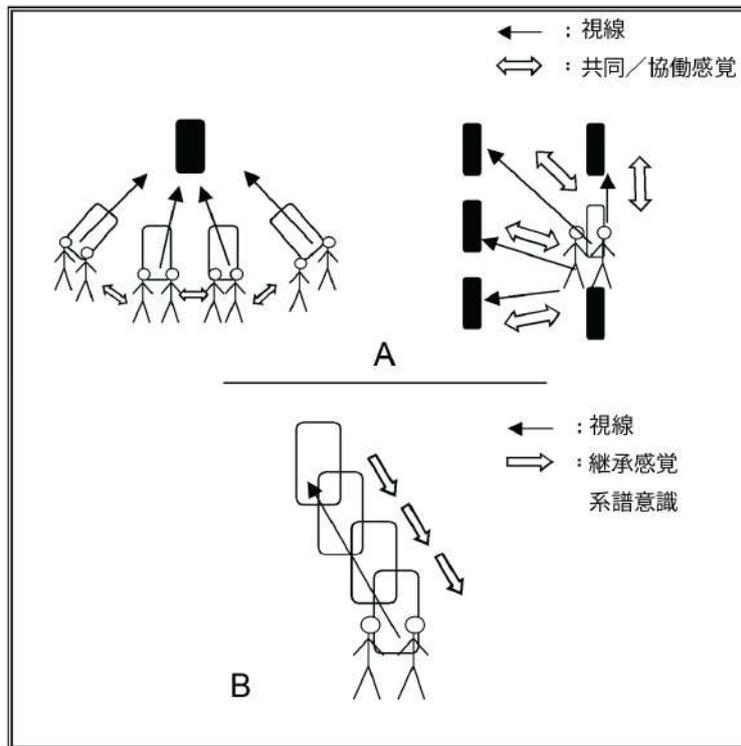


図2. 埋葬施設の配置と葬送コミュニケーション参加者の身体運動・視線のコントロール
 A フェーズ2の共同/協働性喚起モード B フェーズ3の継承感覚・系譜意識喚起モー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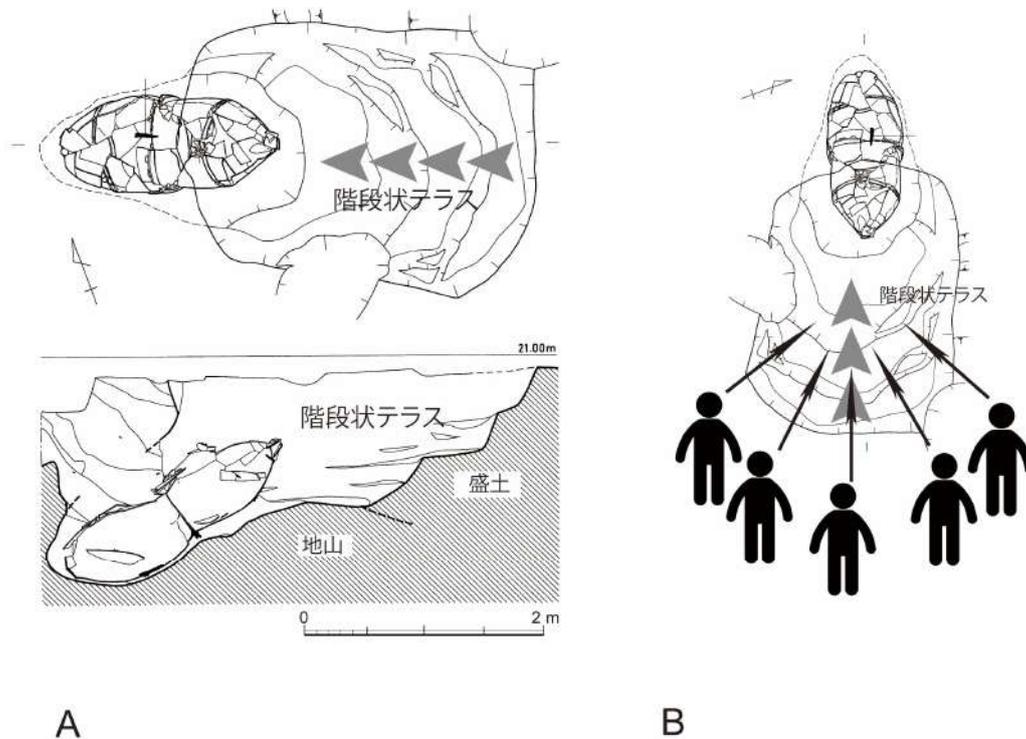


図3. 弥生Ⅲ期の典型的甕棺墓と甕棺墓における葬送における人々のポシショニングと配視(上掲註2溝口2022文献, p. 149, 図4-2)

図4

フェイズ	葬送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指向性	葬送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形式	墓地空間構造	地域社会構造/分化様態
1(早期-I期)	系譜性→共同/協働性	見つめる→そろえる/秩序の共有・遵守	系列墓→列墓	初期農耕集落(中心-周辺未分化)
2(Ⅱ-Ⅲ期)	共同/協働性	行列する	列墓・区画墓Ⅰ	分村→中心-周辺分化創発・進行
3(Ⅳ期)	系譜性/隔絶性	見つめる/隔てる(傾向発現)	系列墓・区画墓Ⅱ・厚葬墓	中心-周辺分化安定 相互交渉ネットワーク広域化開始
4(Ⅴ期)	グリッド形成/隔絶性	(グリッドに)埋葬を配置する/隔てる	区画墓Ⅲ・厚葬墓	相互交渉ネットワーク広域化継続 中心-周辺構造広域化→広域成層化

북부큐슈지역의 야요이시대 묘제 - 장송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의 변용과 사회환경 -

김 규 윤
| 강원대학교 |

I.

북부큐슈지방의 야요이시대 묘제는 중기를 중심으로 背振산지를 둘러싼 지역에서 행해지는 옹관묘장이, 관 자체가 상대편년 가능한 점, 그리고 제작 연대의 한정이 가능한 부장품을 가진 경우가 있는 점에서 야요이시대의 연대비정·야요이사회의 역사적 동태로의 접근을 위한 귀중한 연구대상으로서 계속 탐구되어 왔다. 특히 상세치밀화된 옹관의 형식분류·편년에 의거한 개별 묘지 형성과정을 파악하고 개별 시기에 있어서 ‘묘군’의 양상을 검토, 묘군 개별을 일정 규모의 인간 집단이 조영한 소묘역으로 상정함으로써 그러한 집단의 규모·내용과 상호관계의 변용과정을 분석하고 야요이 사회의 장기간에 걸친 변화의 역사서를 시도해 왔다. 정리하면,

- 개별 묘지를 조영한 <공동체>적 집단을 구성하는 복수의 <가족>이, 당초는 강한 공동/협력성에 의해 결합하였으나,
- 노동·소비·사회적 재생산의 최소단위로서의 가족 집단이 자립성이 증대하고 동시에 가족간 관계가 성층화하여,
- 이에 대응하여 (가족의 소묘역) 묘군 상호 간에도 그 구성 속성에 성층적인 차이화가 진행되어,
- 최종적으로는 상위층 가족만이 (구획묘로서의) 묘역을 구성하고, 경우에 의해서는 리더와 소수의 구성원만이 (고고자료로서 흔적을 남기는 정도의 형식성을 띠는) 매장의

대상이 된다.

라고 하는 기본 모델이 제시되었다¹⁾.

그러나 양호한 발굴사례의 증가에 의해 가능하게 된 개별 묘지의 공간 구성 형성과정의 양세 복원의 결과, 많은 경우 지금까지의 ‘가족정도’의 규모·내용의 집단의 소모역으로 상정되어 온 묘군을 실태적으로 파악·인정하는 것이 실은 곤란하다는 것이 판명되었다²⁾. 이 성과를 토대로 필자는 북부큐슈지방의 야요이 묘제의 변천을 ‘묘지공간구조형성원리와 그것이 가능하게 매개한 장송기회 참가자의 다양한(커뮤니케이션) 체험모드의 변용·변천과정’으로 파악하고, 그것을 낳아, 남긴 장송행위(의 지향성)와 그 밖의 사회적 행위 각각이 형성한 사회적 재생산의 여러 영야(fields/domains of social formation/reproduction)와의 공변동 분석을 통해 묘제의 변천사를 하나의 축으로 하는 야요이 사회의 역사 서술을 시도해 왔다. 이하에 그 궤적에서 인정되는 네 가지 상/페이지의 양상을 기술하고 그 성과의 개요를 소개하고자 한다³⁾.

II.

A. 페이지1 : 야요이 초기~ I 기

야요이 초기~ I 기의 묘지 공간 구조형성 원리에는 <계열형성지향>과 <열형성지향>이 병존, 묘지별로 다른 전개를 보이면서도 전체로서 전자에서 후자로 이행한다(도1-A). 본 단계의 매장시설에는 토갱묘, 목관묘, 지식묘/배석묘, 옹관묘가 있다. 옹관묘는 당초 영유아 매장용기인 경우가 많으며, I 기 말엽이 되어 성인 매장용기로서 형식적인 분화가 완성된다.

1) 이러한 트렌드의 선구적 연구, 가장 대표적인 연구성과로서는 이하를 참조 : 高倉洋彰 『墳墓からみた弥生時代社会の発展過程』 『考古学研究』 20-2, 1973, pp. 7-24

2) 이러한 성과로, 이를 답습하는 필자의 관련된 연구의 개요에 대해서는 이하를 참조 : 溝口孝司 『弥生時代の社会』 高橋龍三郎編 『現代の考古学6: 村落と社会の考古学』 朝倉書店, 2001, pp. 135-160; 溝口孝司 『社会考古学講義: 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最小基本分析単位とする考古学の再編』 同成社, 2022, 第4章

3) 이하의 서술에서 사용하는 ⇨로 표시된 묘지 공간 구조형성에 있어서 지형성과 그에 준거한 장송 커뮤니케이션의 반복에 의해 형성된 묘지 공간 구조 모형 각각의 명칭, 그 구체적인 내용·함의에 대해서는 전계 주2의 溝口孝司 2001 문헌 참조.

<계열형성지향>은 기존의 매장시설에 근접하여 새로운 매장시설을 의도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반복함으로써 물상화되어 후쿠오카현 이토시마시 新町유적 형성과정의 전반부에 전형적으로 보인다⁴⁾. 묘지 유형으로는 <계열묘>라고 약기한다. 계열의 배후에는 묘지 전체의 형성에 참가하는 규모·내용의 집단보다 소규모의 집단의 존재가 상정된다. 이에 반해 열형성지향은 기존의 매장시설과 장축선을 공유하면서도 일정한 거리를 두고 새로운 매장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반복함으로써 물상화되어 新町유적 형성 과정의 후반부에 전형적으로 보인다. 후쿠오카현 후쿠오카시 下月隈天神森유적과 같이 대상 공간을 따라 선상으로 두 줄로 매장 시설이 배치되는 사례가 I기 말엽부터 증가한다. 이러한 매장시설의 2열 배치로 특징지어지는 묘지를 <열형성지향묘b(열묘b라고 약칭)>, 전자와 같이 수열을 이루는 것을 <열묘a>라고 약기한다.

<열형성지향>은 그 도입을 야요이 시대의 정의 요건으로 하는 수전도작 농경사회-기술복합/패키지의 직접 기원지인 한반도 남부 묘지의 공간구조 구성원리의 핵심을 이루며, 이 도입도 상술한 패키지의 한 구성요소를 이루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묘지에 따라 계열형성에서 열형성으로의 공간 구조 구성 원리의 이행 속도나 타이밍이 제각각인 것으로 보아, 이러한 이행에는 묘지를 형성하는 집단별 장송 커뮤니케이션 시스템⁵⁾에 의한 처리가 기대되는 사회적 과제(대응을 필요로 하는 커뮤니케이션·사회 관계 유지의 곤란화 요인)의 차이나 그 변용 과정의 진행 속도의 차이가 관여하고 있을 개연성이 높다. 계열형성이 비교적 소규모 집단단위의 계보적 연속성의 표상에 특화되어 있다고 상정되는 데 반해, 열형성은 열공유라는 규칙성이 복수의 집단에 준수되고, 그것이 묘지를 공유하는 습단(習團) 전체의 질서로서 공유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계열형성>에서 <열형성>으로의 묘지 공간 구조 형성 원리의 이행은 새로운 문화요소의 전파/도입이라는 사실수준을 넘어 이를 필요로 한 새로운 사회적 리얼리티의 부상과 이에 대한 장송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에서의 (기능적) 대응으로서 이해되어야 할 것, 그 내실은 묘지를 구성하는 복수의 집단단위(리니지 혹은 서브 리니지 규모?) 개개의 내적 결합·연속성의 표상으로부터 묘지를 구성하는 복수의 집단단위 간의 결합·공동성/협동성 표상으로의 이행이라는 것이 이끌어진다. 그러한 이행을 이끈 새로운 사회적 리얼리티의 내실은 수전도작 농경사회-기술복합의 도입·수용에 의해 야기된

4) 이하, 각 유적보고서에 대해서는 지면의 상황에 따라 생략한다. 양세 서지정보에 대해서는 전계 주2 溝口孝司 2001 문헌의 참고문헌 리스트 등을 참고바람.

5) <장송 커뮤니케이션·시스템> 개념과 그 함의에 대해서는 전계 주2 溝口孝司 2002 문헌, 2장·4장을 참조.

인구증대와 세틀먼트·패턴 변화의 복합에 의한 사회관계 양태의 변용=커뮤니케이션 제 영역의 유지·재생산의 곤란화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상세한 것은 이러한 경향성이 심화되는 다음 페이지의 분석으로 넘기고자 한다.

B. 페이지2 : 야요이Ⅱ기~Ⅲ기

야요이Ⅱ기에서 Ⅲ기에 걸쳐서는 옹관장이 주요한 묘제로서 행해진 脊振산지를 둘러싼 지역 전역에서 거의 모든 묘지가 <열형성지향>에 준거하여 형성되게 된다. 즉, 이 페이지에 형성된 묘지 내지 묘역은 거의 모두 <열묘a> 혹은 <열묘b>(위에서 서술한)의 범주에 속한다(도1-B). 본 단계의 초기, 주로 Ⅱ기에는 토갱묘나 목관묘도 일정 수 축조되지만 점차 성인용 대형 옹관의 비율이 증대되어 Ⅲ기 말에는 거의 옹관묘로 매장시설이 집약된다. 또한 본 페이지의 묘지에는 대부분의 경우 성인용 매장시설(을 피복하는 묘갱보다 훨씬 큰 봉분)에 삽입 매치되는 영유아 옹관묘가 다수 인정된다⁶⁾. 이들은 특정 성인 매장에 다수 삽입되는 형태로 매치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그러한 성인은 영유아들의 생물학적 부모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들의 조부모 또는 숙부, 숙모로 상정된다. 본 페이지의 장송 커뮤니케이션의 지향성이 공동/협동성의 증진임을 생각할 때, 숙부, 숙모와 영유아와의 관계의 의도적 표상은, 이것이 부계쪽인지, 모계쪽인지의 문제는 괄호로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친족범주의 멤버로서 다수의 영유아가 그룹으로 매장되는 것은 역시 그 증진에 공헌했을 것이다.

본 페이지의 <열묘b>는 본 페이지의 취락의 전형적 패턴인, 개개의 취락을 구성하는 복수의 거주집단(近藤義郎씨의 <단위집단>⁷⁾에 상당한다)의 개개에 근접해서 조영되는 소규모인 것과 많은 수는 <중심지적 대형취락>으로 조영되며, 그것을 구성하는 복수의 거주집단 어느 쪽에도 부속되지 않는 것으로 양자가 존재한다. 양쪽 모두 도로 형상의 띠 모양 공간을 사이에 두고 매장시설이 두 줄로 끝없이 선 모양으로 배치되며, 많은 경우 그들의 바깥쪽에 토갱군 혹은 도랑이 배치된다. 이들 중에는 호형 토기를 중심으로 완형으로 복원되지 않는 토기군이 놓이는(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상세한 형성과정의 복원 성과에 의하면,

6) 성인용 매장시설로의 영유아 옹관의 삽입매치의 공간배치에서, 전자를 피복하는 봉토 존재의 논증으로는 이하를 참조 : 溝口孝司 『福岡県筑紫野市永岡遺跡の研究 : いわゆる二列埋葬墓地の一例の社会考古学的再検討』 『古文化談叢』 34, 1995, pp. 159-192

7) 近藤義郎 『共同体と単位集団』 『考古学研究』 6-1, 1959, pp. 13-20

이들은 비교적 랜덤하게 당초에는 상당한 간격을 띄면서 배치되고, 그 후 누누한 선상배치로 발전하는 경우(<열묘b-1>로 가칭한다. 예: 후쿠오카현 츠크시노시 永岡유적, 카스가시 門田유적), 형성 개시시는 위와 같으나, 그 후 어느 정도의 큰 그룹을 형성할 수 있도록 대상 공간 곳곳에 근접하거나 간격을 두면서 새로운 매장이 배치되고, 이들 여러 그룹을 내포하면서도 겹겹이 선상배치로 발전하는 경우(<열묘b-2>라고 가칭한다. 예: 사가현 요시노가리 초 吉野ヶ里유적 四波屋四ノ坪지구)가 있다.

<열묘 b-1>의 공간구조 형성은 해당 묘지를 조영한 그 안에 아마도 복수의 집단단위를 포함한 큰 집단 단위의 일체성의 표상이 우선되는 장송 커뮤니케이션 반복의 결과이며, <열묘 b-2>의 공간구조 형성은 해당 묘지를 조영한 그 안에 아마도 복수의 집단단위를 포함한 큰 집단 단위(복수의 클랜적 출자집단에 의해 구성되는 부족적 집단인 경우가 상정된다: 후술) 일체성 표상과 함께 그보다 작은 규모인 집단(클랜적 출자집단: 후술)의 일정한 독자성도 의식된(그러나 의도적 명시적 표상의 대상으로는 되지 않음) 장송 커뮤니케이션 반복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열묘b>의 대부분은 야요이Ⅱ기 이후 창발적으로 분화/출현하는 <중심지적 대형취락>의 한 구석에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예: 吉野ヶ里유적 四波屋四ノ坪지구, 후쿠오카현 츠크시노시 隈・西小田유적 제2지점). 자료집 분량의 제한에 의해 상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으나, 이들 중심지적 대형취락에는, 창발적으로 분화한 부족 통합 영역적 지역 사회를 구성하는 클랜(clan)적 출자 집단(<비거주 단체(non-residential corporate groups)>) 복수 각각의 분절(sub-clans/lineages)이 집합해, 지역사회 내부·지역사회간의 다양한 상호 교섭, 재물·(혼인을 중심으로 하는) 인간 정보의 교환 등의 매개·조정이 집약적으로 행해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되고, 원격지로부터의 여러 종의 반입 재물의 집적, 매개·조정의 구체적인 장면의 하나로서의 다양한 제사에 사용된 금속제와 그 외의 제사구의 집중으로도 뒷받침된다. 吉野ヶ里유적 四波屋四ノ坪지구, 隈・西小田유적 제2지점 등의 대규모 <열묘 b>에는 해당 취락 뿐만 아니라 그것에 의존하는 주변의 위성적 소형 취락의 주민의 매장도 있었던 것이, 이들 대규모 열묘b가 특정의 거주 단위에 부속되지 않는 것에서도 시사된다⁸⁾.

이러한 지역사회의 중심-주변 분화의 배후에는 야요이 I 기 이후 진행된 인구증가에 따른

8) 四波屋四ノ坪묘지에 대응하는 거주 단위를 확인할 수 없음/존재하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는 하기의 p.342 참조: 佐賀県教育委員会編 『佐賀県文化財調査報告書219: 吉野ヶ里遺跡(弥生時代の墓地 遺跡北部1)』佐賀県教育委員会, 2016

기존 취락 주변 생태환경의 인구지지용(carrying capacity) 돌파와 그 해소를 위한 분촌의 진행이 있다. 중심지적 대형취락은 각 지역의 초기 농경취락 중 가장 오래된 것 중 하나인 경우(예: 후쿠오카현 후쿠오카시 有田유적)와 분촌의 집중에 의해 형성되어 취락간 네트워크의 형성과 함께 중심지화된 경우(예: 카스가시 須玖유적군)가 있는데,

- 기존의 사회 관계 - 상호 교섭의 유지(친촌 - 분촌(자촌) 관계의 유지)
- 분촌지에서 조우하는 다른 출신 집단으로부터 분촌한 집단과의 상호 교섭의 (긴장 관계 완화를 전제로 하는) 새로운 형성

이러한 것들이 대형취락의 주요한 기능의 하나로서 들 수 있다. 이 두 가지 기능적 요건의 충족을 위해

- 열의 공유
- 도로상 떠상의 공간과 매장을 피복하는 봉토군·토갱/구에 의해 구성되는 공간 구조가 필연적으로 하는 <장열(funerary procession)>의 조직(→ 장열은 공동/협동성과 서열형성을 동시에 달성하는 테크놀로지이다 : 주2 溝口 2022, pp. 155~156 참조)(도 2-A)
- 개개의 매장 시 장송 참렬자의 공간체험(시각체험을 포함) (→장축을 갖추어 배치된 개개의 매장의 장송기회 참렬자는 많은 기존 매장을 피복하는 봉토를 시야에 넣게 됨: 주2 溝口 2022, pp. 155~156 참조)(도2-A)

각각 <공동성/협동성>의 양성·환기에 공헌했다고 생각되는 점은 중요하다.

중심지적 대형취락에 위치한 <열묘b> 근방에는 溝口 분류의 <구획묘 I>(도1-C)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예: 吉野ヶ里유적 북분구묘, 隈・西小田유적 제2지점, 후쿠오카현 아사쿠라시 栗山유적 D군 묘역 등). 이들 피장자는 부장품을 가진 경우도 많아 일종의 ‘상위층’을 구성한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옹관 1형식 정도의 시간폭에 여러 명의 피장자가 매장되는 사실(예: 栗山유적 북분구묘, 隈・西小田유적 제3지점, 후쿠오카현 아사쿠라시 栗山유적 D군 묘역, 동후쿠오카시 니시구 吉武高木유적 묘군 등)로 보면, (무기형 청동기의 대부분이 남성에게 부장되는 것에서 연역하여) 그들은 능력과 달성에 의해 지위를 얻은 모종의 <엘리트(elite)>들이며, <구획묘 I>의 공간구조도 중심매장이 묘역의 초장자이면서도 질적·양적으로 가장 풍부한 부장품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예: 吉野ヶ里유적 북분구묘→중앙 매장 SJ1006이 세형동검 일체를 부장하는 것에 비해 그 서쪽에 위치하고 SJ1006 방향으

로 삽입 매장에 가까운 새로운 매장을 설치하는 것 등에 의해 피장자간의(혈연을 포함) 계보적 관계의 가까움의 표상을 의도한 것도 아니며 중심 매장으로 향하여 옹관을 삽입하는 것이라고 하는 룰을 엄수하면서도 <열묘>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매장을 설치해 나가는 모드에서 <열묘>와 마찬가지로 <구획묘 I>에서 반복되는 장송 커뮤니케이션에서는 <공동/협동성>의 양성·환기가 그 중요한 기능이었음이 추측된다(도2-A).

이상에서 <열묘>와 <구획묘 I>은 <부족(tribe)>적 성격을 갖는(=클랜적 출신 집단 복수의 완만한 통합에 의해 구성됨) 지역사회의 <중심-주변 분화>의 진행에 대응하여 완만하게 성층화되는 사회관계와 함께 진행 중인 사태=분촌의 진전 자체가 야기한 클랜적 집단 내부·집단 간의 상호 교섭의 곤란화에 대한 기능적 대응의 공간적 귀결/표상이라고 할 수 있다. 서두에 언급된 비교적 많은 영유아의, 다수의 성인용 매장으로의 삽입적 매치도 성층화하면서 아직도 완만한 사회관계와 공동성/협동성의 양성·환기의 기능적 중요성과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C 페이스3 : 야요이4기

야요이4기에는 묘지 공간 구조에 큰 변화가 생긴다. <열형성지향>에서 <계열형성지향>으로의 급속한 이행과 그 결과로서의 묘지 공간구조 유형에 있어서의 <계열형성지향묘>(도1-D)와 <구획묘II>(도1-E·F)의 출현·주요 유형화이다. 또한 본 페이스에서 1~2기의 매장이 다른 매장군에서 떨어져 설치되어 양적 질적으로 격절된 부장품이나 매장시설을 부여받은 <후장묘>(도1-G)가 출현한다. 성인 매장시설에 영유아 옹관묘 삽입매치는 본 페이스에도 지속되지만, 전 페이스에 비해 감소한다. 영유아 사망률이 현저하게 낮아진 현상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는 공식적인 매장행위의 대상이 되는 영유아에게 선택이 걸리게 된 것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계열형성지향>은 새로운 매장시설을 기존의 매장시설에 의도적으로 근접하게 설치하는 것을 반복함으로써 총족 표상된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옹관은 기존의 매장시설을 피복하는 봉토의 방향으로 삽입되는 형태로, 입갱의 한 측면에 파고든 관 삽입갱으로 매립된다. 삽입갱의 대향 측면에는 계단상의 테라스 몇 단이 설치되는 경우가 많으며, 관내로의 유해 안치 및 기타 행위를 수행하는 사람은 이를 이용하여 갱저로 내려간다. 또한 삽입갱 상부에

장송 참렬자가 서는 것은 낙반의 가능성에서 피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점에서 장송행위의 의례 정면은 옹관 삽입갱이 내려다보이는 묘갱 상면의 삼변(三辺)인 셈이다(도3). 그렇다면 예를 들어 3개의 매장으로 형성된 매장계열에서는 기존의 매장을 피복하는 봉토를 향해 새로운 옹관이 삽입되는 장송 행위 시에 참렬자는 기존 매장을 피복하는 봉토를 시야의 가장자리에 넣으면서 사망자를 장송하는 것을 통해,

- 기존 매장 피장자의 기억
- 지금, 장송되는 사자(와 각각의 관계)의 기억
- 기존 매장 피장자와 지금, 장송되는 사자와의 관계의 기억
- 기존 매장 피장자와 지금, 장송되는 사자와의 관계와 각각의 관계성

이상 3종의 기억과 1종의 사회 마이크로 네트워크적 관계성 인식을 환기시키고, 혹은 구축을 촉진하게 된다(도2-B). 그러한 기억과 인식의 환기를 매개로 하고, 그것에 매개된 장송 커뮤니케이션 행위의 물상화로서의 <계열형성지향묘(계열묘)>는, <열묘>에서는 환기·구축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클랜적 출신 집단보다 훨씬 소규모인 집단(서브 클랜/리니지, 혹은 그보다 소규모인)의 계보적 연속성의 환기를 테마로 했다고 추측된다. 이러한 매장계열=마이크로 클러스터 다수로 구성된 <계열묘>(예: 후쿠오카현 츠크시노시 道場山유적, 오고리시 狐塚유적, 아사쿠사시 栗山유적 B군 묘역)에서는, 거기에 매장을 실시한 서브 클랜/리니지 정도의 규모·내용의 집단의 공동성/협동성과 함께/더 나아가, 그것을 구성하는 더욱 작은 규모의 분절(서브 리니지/수혈주거 1동의 거주 그룹 정도의 스케일?) 개개의 멤버십과 그 계보적 연속성·계승 감각이 표상·확인·구축되고 있다(도2-B). 본 페이지 영유아 매장의 격감도 이러한 계보적 연속성의 확인이라는 지향성의 부상과 관련된 것으로 추측된다.

묘지 공간구조 유형에서의 <계열묘>의 다수화와 동시에 출현하는 <구획묘Ⅱ>는 구(矩)형의 저분구와 주구로 구획되는 경우가 많은 구획 내에 복수(栗山유적 C군 묘역의 경우에는 6개)의 매장계열=마이크로 클러스터가 형성된다(도1-E). <구획묘Ⅱ>의 피장자는 페이지2의 <구획묘 I>과 마찬가지로 <엘리트(elite)>라는 것은 확실한 것 같지만, 이것이 상술한 매장계열의 복합으로 구성됨에 따라 <구획묘 I>에서는 표상·환기·구축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엘리트/상위층의 계보적 연속성·계승성이 전경화되어 왔다고 추측되는 것은 중요하다. <구획묘Ⅱ>는 <구획묘 I>과 마찬가지로 중심지적 대형취락의, 페이지2에는 대형의 <열묘>를 형성하고 있던 묘지의 근방에 존재하는 사례가 인정된다(예: 栗山유적 C군묘

역)고 하는 점에서 여기에서도

A) 부족적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복수의 클랜적 출신 집단 각각의 대표적 엘리트가 클랜적 출신 집단의 계보적 연속성을 대표하여 매장되었을 가능성⁹⁾이 있다. 그 한편, 본 페이지에서는 페이지 2에 창발한 부족적 지역사회의 <중심-주변 분화>로 진전의 결과,

B) 중심지적 대형취락에 소재하는 복수의 클랜지거 출자 집단 분절의 대표자가 각 계열에 매장될 가능성도 있다.

학설적으로는,

C) 중심지적 대형취락을 구성하는 복수 거주 단위가운데 하나가 부족적 지역 사회의 지배층으로서 이미 분리되어 그 구성원들이 이러한 묘역에 묻힘

라고 하는 모델도 있다¹⁰⁾. 그러나 페이지 3의 중심지적 대형취락을 구성하는 복수 거주 집단은 서로 등질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한 개의 단위가 저장 시설을 독점하거나, 일각에 수공업 생산의 흔적을 집중시키면서 도랑 등의 방어 시설에 둘러싸인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는 <구획묘Ⅱ>의 피장자 내용이 상기 A 혹은 B일 가능성의 확실성을 시사한다.

<계열묘>, <구획묘Ⅱ>의 검토 결과를 부연하면, <후장묘>(도1-G)는 부족적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복수의 클랜적 출신집단을 대표하는 엘리트들로부터 한 단계 더 선택된/최고 리더의 위치를 달성한 인물들의 매장이라고 할 수 있다. 최고 랭크의 후장묘인 三雲墓, 須玖墓가 대규모 구획과 저평한 봉분을 점유하는데 반해 이에 준하는 후쿠오카현 이즈카시 岩堀田유적 10호묘(전한경 6면, 중세형동묘 1점, 철검 1점, 철삭 1점, 연석 2점)를 비롯한 전한경 1~2면과 주로 철제무기/이기, 유리제 옥류, 각종 패륜 등을 다양한 조합으로 부장된 후장묘는 모두 <구획묘Ⅱ>를 구성하는 매장계열 중에 존재하는 것도 이를 방증한다. 요컨대, 중심지적 대형 취락을 구성하는 복수 거주 단위로서 (광역화하는 상호 교섭/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의 유지·재생산의 매개자로서) 유효화한 복수 클랜 분절의 리더층 중에서 달성적으로 분리된 부족적 집단 단위의 대표자에게, 아마도 최고 후장묘 피장자가 입수한 전한경 등의 물품이 임기적이고 전략적으로 증여됨으로써, 下條信行씨 등이 지적하는 바의 부장품 복

9) 溝口孝司 「福岡県甘木市栗山遺跡C群墓域の研究：北部九州弥生時代中期後半墓地の一例の社会考古学的検討」 『日本考古学』2, 1995, pp. 69-94. 田中良之씨는 여기에 대해서 1996년에 모델로서의 성립을 하기의 pp. 49~50에서 인정, 인골자료의 치관계측치의 통계적 분석을 통한 친족관계 복원기법을 이용하여 검증을 시도하였다. : 石井博司・金宰賢・中橋孝博・田中良之 『福岡県甘木市栗山遺跡第3次調査出土の弥生人骨』 甘木市教育委員会編 『甘木市文化財調査報告第37集：甘木市内遺跡群 栗山遺跡Ⅲ・平塚垣添遺跡』, 1996

10) 전계 주1과 같음

합유물 장송에 동원되는 기타 여러 가지 재화 노력의 성층 구조가 형성되었다고 생각된다¹¹⁾. 최고 랭크의 후장묘 피장자(소속 집단 분절)로부터의 부장품 증여의 전략성은 후쓰카 이치 지협역의 筑紫평야 쪽 출구 부근에 2킬로미터도 안 되는 거리를 두고 근접하여 후장묘를 가진 두 개의 취락, 후쿠오카현 츠크시노시 隈・西小田유적과 치쿠젠초 東小田・峯유적, 현해탄 연안에서 脊振산지를 넘어 佐賀평야 동부에 이르는 두 개의 루트의 출구에 각각 대응하는 吉野ヶ里유적, 二塚山유적이 역시 2킬로미터 정도의 거리를 두고 근접 존재하는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두 사례 모두, 현해탄 연안과 筑紫평야와의 상호 교섭에 있어서의 후자로의 게이트웨이적 지역으로의, 현해탄 연안(가능성으로서 三雲유적을 중심으로 하는 부족적 통합체와 須玖유적을 중심으로 하는 부족적 통합체 각각)으로부터의, 상호 교섭 매개 파트너로의 경쟁적 전략적 증여의 가능성이 높다.

D. 페이지4 : 야요이5기

야요이5기의 동태는 복잡하고 어지럽다. 그 전반(高三瀧式기), 특히 그 전엽에는 취락수의 감소가 보이는 동시에 존속하는 묘지에서의 매장수의 감소도 현저하다. 그와 동시에, 페이지2에 영위된 <구획묘II>에 100년 이상의 매장 공백기를 거쳐 단수 내지 소수의 부장품을 가진 옹관묘가 설치되는 예가 栗山유적 D군이나 사가현 도스시 柚比本村유적 등에서 볼 수 있다. 필자는 이러한 특이한 소수의 매장을 페이지3에서 분화를 본격화시키기 시작한 상위층 권위의 원천의 흔들림, 즉 왕망의 신 건국에 따른 낙랑군의 일시적 독립, 청동거울 등의 전략적 배포물재(원초적인 <위신재>적인 성격을 창발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음)의 입수 두절 등에 기인한 광역 사회관계의 흔들림에 대한 대응으로서 동요하는 기존의 사회 네트워크 기반이 형성된 시기=페이지2 상위층의(아마도 구전전승 형태로 보존된) 기억을 환기시키고 그것과 특정 사망자 사이에 계보적 연속성을 허구화하는 것에 의해 사회 여러 관계의 재구축·안정화가 도모된 결과라고 추측하고 있다¹²⁾. 또한 마찬가지로 페이지2에서 운영되어 그 후 묘역으로서의 사용이 끊겼던 <열묘>의 사용이 ‘재개’되는 예(사가현 도

11) 下條信行 「北部九州弥生時代中期の『国』家間構造と立岩遺跡」 児嶋隆人先生喜寿記念論集刊行会編 『児嶋隆人先生喜寿記念論集 古文化論集』 児嶋隆人先生喜寿記念論集刊行会, 1991, pp. 78-106

12) 溝口孝司 「過去の記憶とその動員：北部九州弥生時代V期を事例として」 田中良之先生追悼論文集編集委員会編 『考古学は科学か：田中良之先生追悼論文集 上』 同編集委員会, 2016, pp. 545-559

스시 儀徳유적)나 후장묘를 포함한 <열묘>가 새롭게 형성되는 사례(사가시 七ヶ瀬유적) 등에서 이 페이즈에 동요한 다양한 위상의 사회관계, 또 동요 후에 급속히 광역화를 재개한 상호교섭 네트워크에 대한 대응으로서 장송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에서의 페이즈2와 같은 공동성/협동성의 환기가 선호되었다고 생각된다.

동시에 5기 전엽 후반(高三瀦式기 후반) 이후 <구획묘Ⅲ>(도1-H)가 등장하여 일반층의 매장 자체가 급속히 감소하는 가운데 묘지 공간구조 형성 패턴의 주좌를 차지하게 된다. <구획묘Ⅲ>의 공간구조 형성의 지향성은 <그리드 형성 지향>, 즉 영유아도 포함하는 서브 클랜 내지는 리니지, 혹은 그보다 더 작은 규모의 집단구성원을 그들의 소속 단위 내에서의 관계성에 의해 '그리드적 질서'(누구, 그것은 생전에 이러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영유아의 경우) 성인이 되면 이러한 지위에 도달할 것이었기 때문에 여기에)에 공간적으로 위치시켜 매장하는 것의 반복이다.

야요이5기 후반(下大隈式기)에는 저장시설의 점유와 희소재의 집중에 고고학적으로 특징지어지는 <엘리트 구획(elite precincts)>이 처음으로 명확화된다(예: 사가현 도스시 千塔山유적). 이들은 규모적으로 볼 때 클랜적 출신 집단 분절/서브 클랜/리니지적 규모·내용 집단의 거주 단위로 보인다. 사회적 여러 관계의 혼란기를 거쳐, 다시 광역화 경향을 강화하는 상호 교섭 네트워크를 배경으로 하여, 조정 매개 대상이 되는 사회 여러 관계의 다양화, 복잡화, 대면적 처리 기회의 빈도의 불가피한 감소 등이, 매개자 지위의 특정 출자 집단 분절로의 고정화와, 공동성/협동성의 환기라는 두 가지 기능적 요건을 이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장송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에 있어서의 <그리드 형성 지향>이 장송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의 '고분시대적 모드'의 기반을 형성했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세세한 내용으로 들어가는 것은 본고의 사정거리를 초월한다.

Ⅲ.

마지막으로 각 페이즈 묘지 공간구조 형성에 있어서의 a)지향성, 이에 준거한 b)커뮤니케이션 행위의 형식적 특징, 장송 커뮤니케이션의 반복에 의해 형성되고 이를 매개한 c)묘지 공간구조 유형, 그리고 그 배경/환경으로서의 d)사회구조·분화모드의 특징에 대해 도4와

같이 도식화함으로써 정리하고자 한다.

페이지	장송 커뮤니케이션의 지향성	장송 커뮤니케이션의 형식	묘지 공간구조	지역사회구조/ 분화 양태
1(조기-1기)	계보성→공동/협동성	바라본다→갓춘다/ 질서 공유·준수	계열묘→열묘	초기농경취락(중심·주변 미분화)
2(2-3기)	공동/협동성	행렬한다	열묘·구획묘 I	분촌→중심·주변 분화 창발·진행
3(4기)	계보성/임절성	바라본다/가로막다 (경향발현)	계열묘·구획묘 II ·후장묘	중심·주변 분화 안정 상호교섭 네트워크 광역 화 개시
4(5기)	그리드 형식/임절성	(그리드에) 매장을 배치한다/가로막다	구획묘III·후장묘	상호교섭 네트워크 광역 화 유지 중심·주변 구조 광역화 →광역성 계층

상술한 바와 같이 묘제=장송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영야의 변천은 사회 시스템 총체를 구성하는 다른 커뮤니케이션 영야의 변천과 동조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상정은 위에서 제시한 지역사회 구조와 내부 분화 양상의 변천과의 공변동에서도 지지된다. 그런 의미에서 묘제의 네 페이지는 전체 사회 시스템의 양상 轉移(phase transformation), 그것을 구성하는 사람들의 인식·존재양식(epistemic/ontological state)의 변화와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북부큐슈지역의 야요이시대 묘제 : 장송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의 변용과 사회환경』에 대한 토론문

이 창 희

| 부산대학교 고고학과 |

미조구치 선생님의 발표문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전반적으로 토론자가 발표문을 오해 없이 이해하였는지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다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용어가 일본어를 직역(번역문)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일본의 고고학 논문에서도 자주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 많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인지 발표를 듣기 전인 상황에서는 발표문의 가독성이 좋지 않아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이 많습니다. 따라서 발표문만을 토대로 토론문을 작성하였기에 토론자의 오해가 있다면 널리 해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요이시대를 크게 4단계로 나누었을 때, 묘지 내에서 분묘가 어떠한 공간 구조를 갖는가에 대해서 <계열 형성 지향>에서 <열 형성 지향>으로, 그리고 다시 <계열 형성 지향>으로 회귀하고, 마지막에는 <구획 형성 지향>으로 변화한다고 정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분묘의 열상 배치는 다수의 열<열묘a>과 2열<열묘b>로 나눌 수 있고, <계열 형성 지향>과 <열 형성 지향> 각각에서 보이는 구획묘, 그 속의 후장묘 등의 양태에 대해서 사회 시스템의 공변(共變)과 대응하는 것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장송 커뮤니케이션이 지향하는 바의 변화, 시스템 영야(領野)의 변천, 전체 사회 시스템의 전이(여기에는 지역사회의 구조와 취락의 분화가 포함됨), 그것을 구성하는 사람들의 인식, 존재양식의 변화라고 하였습니다.

특히 분묘의 열상 배치에 대해서 그 장열(葬列, funerary procession)을 공동성·협동성, 서열형성을 동시에 달성하는 테크놀로지로 상정한 점, 장송 커뮤니케이션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움직임이나 시선 컨트롤, 포지셔닝에 대한 추정은 토론자에게도 새로운 발상을 가능케 하는 내용이었으며, 유니크한 접근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발표문 자체에 대한 토론 질문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기회를 빌려 북부큐슈에서 확인되는 한반도 남부와 관련 있는 분묘군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북부큐슈에는 작은 지석묘가 열상으로 배치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한 지석묘에서 출토된 한반도 남부 계통의 마제석기와 인골의 형질을 보더라도(물론 조몬계도 있음) 한반도 남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고고자료임에 틀림없습니다. 주로 발표문의 1~2단계에 해당하는 자료로 볼 수 있는데, 야요이 사회에서 <열 형성 지향>으로의 변화는 역시 한반도 남부로부터 전파된 벼농사(주민 이동), 그에 수반되는 일련의 하드·소프트웨어의 전파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북부큐슈 지석묘군의 양태를 생각해 보면, 영남지역보다는 상석의 규모가 작은 지석묘가 균을 이루는 사례가 많은 호남·호서와의 관련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벼농사의 전파 루트에 대해서도 연관시킬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다소 복합적인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이에 대한 미조구치 선생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지석묘뿐만이 아니라 요시타케타카키(吉武高木)유적의 분묘군처럼 재지의 옹관묘군 속에 중복없이 배치된 <계열 형성 지향>-발표문의 표현을 빌리자면-의 한반도 남부 계통의 극소수의 목관묘에 대해서는 클랜/리니지 출자집단 등의 표상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술한 북부큐슈의 지석묘군도 동시기에 주변에 재지의 토광묘나 옹관묘가 존재하였으며, 같은 유적 내에서도 공존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선생님의 고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4단계(야요이시대 후기 전반)에는 묘지 내 매장 수의 감소 등 전반적으로 퇴화와 감소의 경향성이 나타나는데, 이를 전 단계에서 이미 가속화된 분화와 상위층 권위 원천의 흔들림이나 주요 위신재의 입수 단절 등으로 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전 단계에서 설명한 구획묘나 후장묘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일본에서

도 연구가 진행되었듯이 북부큐슈의 옹관묘에 부장된 청동거울이나 유리제품의 양과 질은 스구오카모토(須玖岡本)유적이나 미쿠모미나미쇼지(三雲南小路)유적 등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으로 갈수록 저하됩니다. 즉 중심지(수장)의 물자가 주변(수장)으로 재분배되어 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렌프류(Colin Renfrew)가 말한 유통경제(교환의 경제 형태)와 사회적 레벨(사회의 진화 모델-사회인류학-)의 관계성을 적용해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따라서 한 분묘군 내에서의(micro) 구획묘나 후장묘를 매크로(macro)한 공간분석을 통해서 는 또 다른 규모의 네트워크, 혹은 교역과 수장의 역할에 대해서 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남고고학회 제33회 정기학술발표회

분묘군의 고고학

